

참담하고
노여웠던
우리들의
시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에서는 2018~2019년 2차에 걸쳐 3·1운동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수원 3·1운동을 기록한 자료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읽기를 시도하여 그 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환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수원 3·1운동 세대들이 겪었던 억압과 고통 그리고 독립을 향한 열정을 이해하기 위해 수원면과 송산면의 3·1운동, 제암리 학살사건, 그리고 3·1운동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한 박승극의 활동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학 총서를 발간하여, 수원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하였습니다.

100년 전 그날!

1919년 3월 1일은 민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하며 나라를 지키는 독립 투사가 된 날입니다. 100년 전 그날! 우리 민족은 수원의 대표적인 소설가 홍성원의 말처럼 참담하고 슬프고도 노여웠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짓밟고 일제 식민지배를 강제한 노여움과 분노, 슬픔이 폭발하면서 3·1만세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은 팔달산, 연무대, 화홍문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고, 그들 모두가 김세환이며, 이하영이고, 임면수, 김향화, 이선경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대가는 혹독했고 감옥에서 고초를 겪거나 정든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만주, 미국 등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의지를 꺾지 않았던 그들은 풍찬노숙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의 의지를 불태웠고, 수원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은 수원 곳곳에 그리고 거친 만주벌판 등에도 뿌려졌습니다.

3·1운동 그리고 100년!

1919년 3·1운동 이후 100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으나, 5년 만에 한국전쟁을 겪어야 했고,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5·18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3·1운동이 추구한 자유,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시대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100년을 만드는 핵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과거 100년을 지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수원학총서에 모두 담기는 어려우나, 그분들의 고귀하고 명예로운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수원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밝히고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참담하고 노여웠던 우리들의 시대

기독교와 수원 3·1운동

: 수원 지역사회(로컬리티)와 민족대표 '48인' 김세환

이승렬

- 1. 기독교회와 수원 009
- 2. 기독교를 초청한 고종 012
- 3. 조직된 부르주아지의 지역사회 활동 022
- 4. '수원 로컬'이 시사하는 근대사 인식의 패러다임 문제 043

홍면옥의 독립운동과 생애

이혜영

- 1. 들어가며 053
- 2. 송산 지역 3·1운동의 전개 057
- 3. 홍면옥과 송산면 향촌 네트워크 065
- 4. 출옥 이후 홍면옥의 행보 074
- 5. 나오며 082

제암리사건을 통해 본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한계와 잔혹성

김영숙

- 1. 들어가며 089
- 2. 3·1운동 경과와 임시조선파견보병대대 증파 094
- 3. 제암리사건의 해외 보도 102
- 4. 제암리사건 은폐·축소공작과 선교사들의 동향 112
- 5. 제암리사건 관련자 처벌 및 지휘관 책임문제 118
- 6. 나오며 126

일제강점기 저항적 지식인 박승극의 삶과 투쟁

: '울트라'에서 '나로드니키'까지

한동민

- 1. 머리말 137
- 2. 실천적 배움 : 수학 시절(1923~1928) 139
- 3. 뜨거운 '울트라'의 삶 : 수원 시대(1928~1932) 145
- 4. 단호한 이데올로그 : 중앙문단 활동 시절(1933~1936) 159
- 5. 농민문학과 농민 속으로 : 고향 정문리 시대(1936~1945) 166
- 6. 맺음말 176

II. 수원 3·1운동을 기록하고 기억하다

수원 3·1운동을 알리는 또 다른 주역, 사진

박 환

- 1. 감시와 처벌을 위한 기록 188
- 2. 학살만행 현장을 기록하다 201
- 3. 학살만행을 고발하다 203

이병헌의 『3·1운동비사』로 보는 수원 3·1운동

성주현

- 1. 머리말 223
- 2. 오암 이병헌의 생애와 『3·1운동비사』 224
- 3. 『3·1운동비사』를 통해 본 수원면 3·1운동 241
- 4. 맺음말 253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구술사적 의의

: 수원 지역사 관점에서

조성운

- 1. 머리말 261
- 2. 수원 지역 구술사 연구 현황 263
- 3.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역사적 의미 269
- 4. 맺음말 283

홍성원 소설 『먼동』의 수원 3·1운동 형상화

한동민

- 1. 작가 홍성원의 문학적 고향 '수원' 292
- 2. 소설 『먼동』의 구성과 내용 295
- 3. 수원 3·1운동의 전개와 형상화 302
- 4. 박승학을 통해 본 의병전쟁과 독립운동 312
- 5. 송필배가 걸어난 독립의 길 316
- 6. 『먼동』, 참담하며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를 그리다 321

참담하고 노여웠던 우리들의 시대

I

기독교와 수원 3·1운동

홍면옥의 독립운동과 생애

제암리사건을 통해 본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한계와 잔혹성

일제강점기 저항적 지식인 박승극의 삶과 투쟁



김세환(1888~1945)

기독교와 수원 3·1운동¹

: 수원 지역사회(로컬리티)와 민족대표 '48인' 김세환

1. 기독교회와 수원

수원 지역 3·1운동을 다룰 때 거론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는 수원 지역이 3·1운동 초기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만세시위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제암리와 수촌리 일대에서 일본 군경에 의한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셋째는 3·1운동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48인' 중 한 명인 김세환이다. 그는 운동의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운동의 확산 과정에 기여한 인물이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이어 주는 두 개의 끈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기독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로컬리티)이다.

김세환은 수원종로교회의 독실한 신자이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만나는 지점에서 활동했던 청년 리더였다. 다시 말해 그는 외래에서 전해진 종교와 새로운 변화 과정에 대응하는 지역사회가 만나는 접점에서 있었다. 기존 수원 지역(로컬리티)의 네트워크가 문명의 융합과정에서 창신(創新)되었고, 그렇게 달라진 네트워크는 광복을 위한 민족운동을 추동하는 사회적 동력이었다. 수원종로교회는 그러한 로컬리티의 현장이었다. 개항 이후 밀고 들어오는 제국주의와 이에 따른 국가의 위기, 외래종교인 기독교, 유교적 사회의 전통사회 네트워크의 대응, 이러한 요소들이 어울리면서 수원은 달라지고 있었고, 그것은 3·1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수원 지역은 한국의 근대 이행을 잘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 '전형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김세환(『동아일보』 1920년 7월 12일)

두루 익히 알고 있듯이 수원은 정조의 정치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식민지시기에도 수원의 부르주아지 1세대에 속하는 인사들은 왕실을 존중하였다.² 그들은 광무정권의 근대화 정책의 동향에 보조를 맞추어서 지역사회의 계몽을 위한 활동 및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상인단체인 수원상업회와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대거 참여한 기호흥학회 수원지회는 그들의 민족운동기관이었다. 외래종교인 기독교의 수원종로교회가 세운 삼일학교도 그들의 지원을 받았다. 왕실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지역 사람들의 지원도 받게 된 것이었다.

천주교는 세도정권기와 대원군집정기에 적지 않은 탄압을 받았고,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서 점차 사회화되었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유교국가인 조선왕조에서 별 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매우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선교사 게일(Gale)은 19세기 말에 그러한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은 지난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진 최대의 용기와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기독교인 열 명을 만드는 데 그쳤고, 중국에서는 그 열 명을 만드는 데 거의 40년이 걸렸지만, 지금 조선에는 천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듯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조선도 응답하여 보여 준 것이다.³ 그렇게 된 데에는 기독교 수용에 대한 조선왕조 사회 내부의 ‘욕망’과 ‘필요’가 있었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중국 중심의 ‘구’국제질서와 일본 및 러시아가 등장한 ‘신’국제질서 사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서구문명을 들여오고 또 새로운 우방을 만들어야 하였다. 중앙정부 혹은 지역사회 모두 기독교는 ‘조선’(혹은 ‘한국’)과 서구를 이어 주는 가교였고, 미국은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해 주는 국가였다. 국력이 약한 조선왕조에게 기독교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문명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였다. 기독교는 온건하게 조선왕조, 서구문명, 민족운동, 시민사회를 연결해서 사회 변동을 자극하는 촉매로서 기능하였다. 개인 김세환도 ‘문명들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었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2. 기독교를 초청한 고종

1) 궁궐과 이웃한 교회, 상동교회

1883년에 보빙사절단장 민영익과 볼티모어 제일교회 가우처(J. F. Goucher)의 만남 이후에, 미감리회 해외선교부는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⁴ 1884년 6월 24일 서울에 도착한 선교사 맥클레이(R. S. Maclay)⁵는 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 김옥균을 경유하여 고종에게서 선교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종은 ‘학교와 병원 설립’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포교를 허용한 것이었다. 교회사가들은 이를 ‘선교 윤희’라고 한다.⁶ 유교국가 조선왕조는 선교사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환대하였다. ‘정동제일교회’에 있는 아펜젤러(Appenzeller)박물관에 가면 그 환대에 대한 한 선교사의 소감이 잘 나타난 「선교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조선에 도착하여 보니 이 나라에 기독교 사업을 위한 문이 열려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해 전만 하여도 조선정부는 그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인을 과감히 추방하였고 기독교에 대해 적대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몇 해 사이에 조선 정부는 감정을 초월하여 우호적인 변화를 가져와 지금은 이 나라에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길은 충분히 개방되어 선교사들은 조선인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M. E. North Report for 1884)

아펜젤러(Appenzeller) 부부는 1885년 4월 5일에 도착했으나 시국 상황 때문에 다시 일본 나가사키로 돌아갔고, 함께 온 미혼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서울로 올라갔다. 스크랜턴(Scranton)은 2진으로 5월 3일에 인천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6월 11일에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가족이 도착하였다.⁷ 스크랜턴은 정동 33번지(지금의 정동제일교회 사회문화관 자리) 큰 기와집을 구입해서 1885년 9월부터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고 곧 이어 정동 34번지를 구입해서 병원다운



아펜젤러가 1887년 상동 부근에 개설한 뵤엘예배당(1897년에 건축된 정동제일교회, 『과도기의 한국』)

건물을 조성한 후에 1886년 6월 15일 정식으로 병원 문을 열었다.⁸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은 1886년에 정동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의 문을 열었다. 1887년 3월 14일에 아펜젤러의 학교는 고종에게서 ‘배재학당’이란 현판을 받았다. 이보다 먼저 고종은 스크랜턴이 세운 학교와 병원에 ‘배꽃학교터’와 ‘시병원(施病院)’이라는 이름을 보내 주었다. 1887년 여름에는 ‘뵤엘예배당’(후일 ‘정동제일교회’)이 설립되었다. 그들이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일구어낸 성과였다.¹⁰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한국에 선교를 시작한 해인 1885년부터 1887년까지 ‘병원·학교·교회’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최소한의 선교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동은 “외교의 중심가이자 새로운 서양문물이 들어오는 창구”가 되었다. ‘궁궐의 바로 옆에’ 그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는 조선인들의 “호응을 받았다.”¹¹ 고종의 치하를 받은 선교사들은 고무되었다. 1887년 4월에 아펜젤러는 세관원이었던 헛트

(J. H. Hunt)와 함께 조선 북부지역 여행을 다녀왔고, 이듬해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함께 북부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¹² 이는 선교 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였다.

선교사 벙커(Bunker, Rev. & Mrs. Dalzell A. 1853.8.10.~1932.11.28.)의 사례도 왕실의 기독교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오하이오주 오베린 대학과 뉴욕 유니온신학교를 졸업하고 1886년 7월 4일 내한하여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수에 취임했다가 1894년 2월에 사임한 후 1895년 1월부터 미감리회 선교사로 전임하여 배재학당 교수로 일하였다. 그는 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아 1892년 2월 한국정부에게서 통정대부 호조참위(정 3품)의 관직을 받기도 했다.¹³ 유교국가 조선이 선교사에게 관직을 수여한 것이었다. 독립협회사건으로 투옥된 이승만·이상재·유성준 등은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888년(고종 25)에는 한국 감리교 최초의 의료선교사인 목사 스크랜턴(William Benton Scranton, 1856~1922, 施蘭敦)이 서울 남대문로에 상동교회를 설립하였다. 감리교는 서울에 정동교회(1887)를 시작으로 해서 상동교회(1888), 아현교회(1888), 동대문교회(1889) 등을 계속 설립하였다(미국의 남감리교는 북감리교보다 10년 늦게 한국에 왔다.¹⁴ 먼저 진출한 북감리교는 남감리교의 선교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에서는 1930년에 남북감리교가 연합연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¹⁵ 개신교는 경기도와 평안도를 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수도 서울은 주요 선교기지였다. 순조로운 포교는 조선왕조 정부의 배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원은 감리교의 중심인 상동교회의 관할이었다. 한국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1903년 선교지역 분할협정을 맺었고 그 결과 수원은 감리교 측에서 담당하게 되었다.¹⁶

상동교회는 아펜젤러의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우선 서울과 경기 충청 일대의 포교 사업을 전개하면서 중요한 '장소들'(기독교와 민족운동과 관련된) 중 하나가 되었다. 1896년 설립된 공옥(攻玉)학교는 계몽운동의 발판을 놓았고, 1904년에는 설립된 상동청년학교는 민족운동기관이 되었다. 교회는 미국이라는 외피가 있는 장소이면서 기독교라는 서구문명이 들어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1901년 스크랜턴이 세운 상동교회(엔리케 스탄코 브라즈 제공)



상동교회를 이끌었던 전덕기 목사(상동교회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사회기관이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감리교 청년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천 명의 청년과 교인들이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그들은 도끼를 메고 대한문으로 나아가 상소를 하였다. 청년들의 민족운동에 부담을 느낀 감리사 스크랜턴은 엡윗청년회를 해산시켰다. 이때 상동교회는 전덕기 전도사가 스크랜턴과 함께 담임사역자로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다.¹⁷

상동청년학원은 전덕기(1875~1914), 이회영(1867~1932), 이준(1859~1907)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여러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1904년 무렵 전덕기 30세, 이회영 38세, 이준 46세였다. 상동청년학원 출범(1904년) 때 초대 교장은 이승만(1875~1965, 황해도 평산, 배재학당, 독립협회)이었고,¹⁸ 양기탁(1871~1938, 평남 평양, 대한매일신보사), 이시영(1869~1953, 서울, 외부교섭국장), 주시경(1876~1914, 황해도 봉산, 배재학당, 독립신문사), 이상설(1870~1917, 충북

진천, 의정부참찬), 이갑(1877~1917, 평남 평원, 대한제국 군인 참령), 김진호(1873~1960, 경북 상주, 목사) 등이 상동청년학원을 거쳐간 인물들이었다.¹⁹ '상동파'들은 신민회를 조직했고, 이 교회 사역자인 전덕기는 창립 발기인이 되었다.²⁰ 수원의 임면수(林冕洙)는 경기도 신민회 책임자가 되었다.

2) 상동교회의 개척교회, 수원종로교회

1896년 4월부터 2년간 수원과 공주 일대 선교사업을 담당했던 서울 상동교회 스크랜턴(施蘭敦, W. B. Scranton) 선교사는 선교 인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지만, 1898년 4월 10일에 '수원 및 공주 순회구역' 전담선교사로 스웨어러(徐元輔, W. C. Swearer, 1871~1916)가 부임하면서 이 지역의 포교사업은 더 활성화되었다.²¹ 서원보의 선교보고서에 의하면 수원의 '신앙'은 1899년에 "서울에서 영향력 있는 교인 몇 사람이 수원으로 이사 와서" 시작되었는데, 이 모임이 수원종로교회의 씨앗이 된 신앙공동체였다.²²

서원보는 1900년에 선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김동현을 파견했는데,²³ 그는 구속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가 매입한 부지의 소재지는 정조의 진영(眞影)이 있었던 '화령전(華寧殿)' 근처였다. 다시 말해 유교국가인 조선왕실의 '위엄'이 보존되어야 하는 장소에 서양의 종교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고종이 기독교를 후원하는 상황이었지만 쉽게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서원보는 알렌 공사까지 동원해서 구속된 김동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김동현은 원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고 증서를 반환한 후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²⁴ 시흥 무지내교회 출신 김동현의 행동은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하고 거친 행위였지만, 수원군수는 매우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기독교계는 '김동현 부지사건'이 기독교의 포교를 억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역으로 조선왕조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⁵

서원보는 같은 해에 이명숙(1901~1903, 수원종로교회 1대 전도사)을 수원에 보내서 예배당으로 사용할 집과 터를 구입하게 하고(보시동교회), 이명숙 전도사



보시동교회(현 수원종로교회)가 있었던 북수동 일대(1907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일가를 입주하게 했다. 작은 집이 달린 부지(800평)를 확보하여 예배당과 선교사 숙소를 지었고, 1902년 2월 17일에 남자 3명, 여자 4명이 "첫 열매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지역 인사 김제원, 홍돈후, 김연구, 임면수, 차희균, 이하영 제씨는 메리 스크랜턴(M. F. Scranton)의 지도와 헌신, 베크(S. A. Beck)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5명의 학생으로 교회 안에 남자매일학교(삼일학교)와 여성들을 모아 여자매일학교(삼일여학교, 현 매향학교)를 세웠다.²⁶ 1902년 감리교는 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지방(district) 조직을 만들었다. 선교지역은 북한국지방, 서한국지방, 남한국지방 등으로 분할되었다. 남한국지방은 서울순회구역과 수원순회구역 2개로 구성되었고, 감리사는 아펜젤러였다.²⁷ 교회 초기에 선교사들과 이하영(李夏榮), 임면수(林冕洙), 김제구(金濟九), 김제원(金濟遠), 홍돈후(洪敦厚), 차희균(車喜均) 등은 교회 운영의 주축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가인 이하영과 그의 부인이자 수원 지역 최초의 여의사였던 이그레이스(1900년대, 대한간호협회의 제공)

이었다. 특히 이하영은 그들 중에서 '신앙 발전'이 두드러졌다. 그의 '신앙'은 종교 안에 머물지 않고 민족운동과 접속되었다.

이하영은 1904년 수원에 지방회가 개설되면서 감리사로 버딕(G. M. Burdick, 邊北鎭) 선교사가 부임할 때, 수원지방 초대 전도사가 되었다. 1910년에 평양으로 임지를 옮겼고, 1914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교회에서 3년을 시무한 후에, 1917년에는 진남포에 파견되었다. 당시 진남포에는 신흥리교회를 비롯하여 억양기리교회와 덕동교회가 있었고, 감리교 계통 학교인 삼숭(三崇)학교가 있었다. 마침내 3월 1일 오후 2시 신흥리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교인과 학생·일반인 500여 명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고종 황제 봉도식을 먼저 거행한 후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하영은 그 중심에 있었고, 일경에게 체포되었다.²⁸

이에 비해 임면수는 민족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상동청년학원에서 영어, 일어, 측량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했는데,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이동휘, 노백린, 안태국, 이상재, 남궁억, 이동녕, 이승만, 차병수, 신채호, 윤치호, 최광옥 등 당대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그는 1907년에 이하영과 같이 수원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을 전개(이때 국채보상금 수전소는 수원 종로교회에 있었다.)했고, 1908년과 1909년에는 수원 삼일학교의 교감으로 “향토 수원의 개화문명을 위해 불안가사하고 지위나 명예를 초월하여 소처럼 묵묵히 일하였다. …… 여성 교육을 위해 가대(家垔)와 토지, 과수원을 현 매향여자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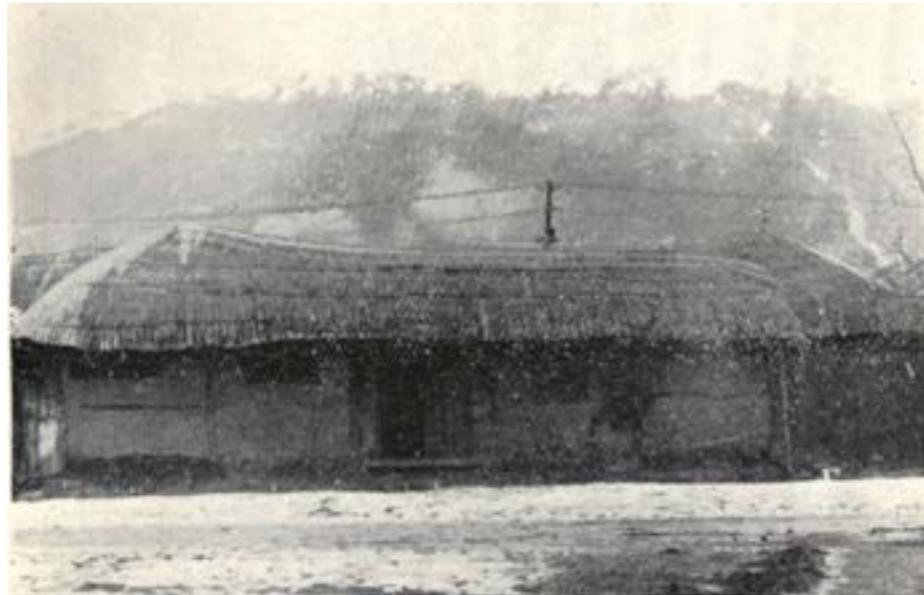


1921년 체포 직후 임면수(앞줄 오른쪽, 수원박물관 제공) 임면수는 동지들과 중국 하이룽현(海龍縣)에서 일본 경찰관과 친일 조선인 등을 암살하고,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송금하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학교 부지로서 회사하였다.” 1910년 경술 8월 29일 한일강제합병 소식을 들은 후에 그는 삼일학교를 나홍석에게 위탁하고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 류허현으로 망명하였다. 서울의 상동학원에서 맺어진 인연은 광복운동을 위한 무장항쟁의 길로 이어졌다.²⁹

국권 상실의 위기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지는 더 강해졌는데, 1903년에 한국에 부임한 버딕(G. M. Burdick, 邊北鎭)³⁰의 「선교보고서」는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강한 욕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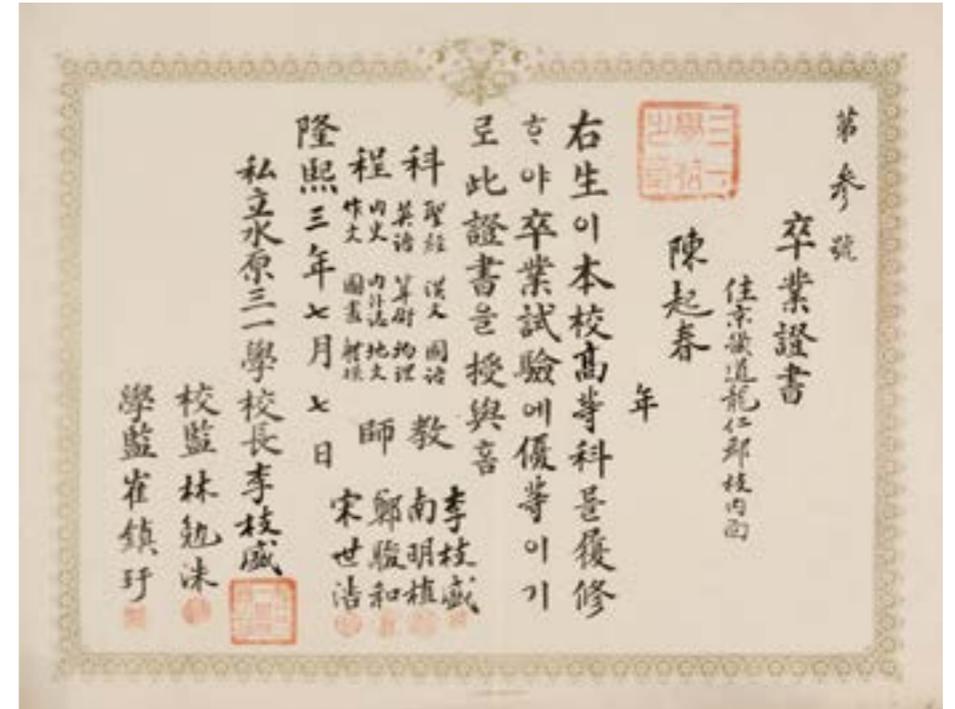
나의 조사(助師)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목사, 당신이 공부한 과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곳에는 지식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 계몽과 기독교인 교육은 이 백성들이 손에 가지고 역경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나는 믿습니다.



1906~1913년에 사용했던 군기동(현 장안동) 삼일여학교 초가집 교사(미감리교회부인선교부, 50 YEARS of LIGHT, 1938)

…… 그리고 나서 교리를 가르치며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학교들을 통해 자기 민족을 일으키려는 헌신의 정신을 불러 일으켜 줍시다. 이것은 학교와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얻는 최상의 이익을 자기 민족에 대한 봉사로 되돌려 주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나의 꿈입니다.³² 학문과 교육에 대한 갈급함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은 현재(의 위기상태로는) 굉장한 것입니다. …… 그 주일날 25명의 어른이 세례를 받으려고 모였는데 그 중 3분의 2가 문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적합한 한국인 선생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 내가 작년에 이어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교육체계를 확충해 달라라는 것입니다.³³

이러한 '욕구'는 한국인들의 기록과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일학교 졸업생



1909년 삼일학교 제1회 졸업증서(삼일상업고등학교 제공) 교감으로 임면수, 교사로 송세호가 재직하고 있다.

은 당시 배움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어서 어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도 모른다. 어서 배워서 알아야 한다. 국가 독립을 위한 일군이 되어야 한다.”³⁴ 그리고 삼일학교 설립자 중 한 사람인 나중석도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1906년에 그는 수원의 유자이며 재산가인 강석호(姜錫鎬)를 방문해서 재정난 때문에 존폐기로에 서 있는 삼일학교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 존속을 위해 회사해 줄 것을 권유했고, 강씨는 8만 냥의 거액을 쾌히 기부하였다.³⁵ 또한 나중석도 매향동에 있는 토지 900평을 삼일학교 운동장 부지로 기부하였다.³⁶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는 정부 혹은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비교적 빠르게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예를 들어 서울의 상동교회가 수원의 종로교회를 개척한 것은 기독교가 확산되는 과정의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는 일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서구문명을 ‘학습’하겠다는 ‘실력양성’의 의지와 미국을 끌어들이 한국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는 외교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교회는 신앙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문명이 수입되는 통로이고, 실력양성을 위한 계몽운동의 장소이며, 항일과 광복을 위한 민족운동기관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개량으로 평가받는 실력양성운동(온건한 민족운동 혹은 민족개량주의)과 급진적인 항일무장투쟁이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또 대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조직된 부르주아지의 지역사회 활동

1) 수원 부르주아지 1세대

기호흥학회 수원지회는 고위 관료를 지낸 김종한(金宗漢, 1844~1932)이 지회장을 맡았고, 수원의 상인 김희경, 임흥수, 한상봉, 차유순, 홍건섭 등도 회원으로 참가하였다. 김종한은 13도 대표로 구성된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의장에 추대되었고,³⁷ 수원의 차유순·나성규 등은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³⁸ 관리가 주도하고 상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양상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일학교 지원사업도 그랬다. 1907년에는 경기도 주사 나기정이 삼일학교 재원조성사업의 주역이었다.³⁹ 1908년 삼일학교 찬성금액을 광고하는 자리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그대로 반복되었는데, 고종의 내관이었던 강석호, 전 수원관찰사 최석민 등과 상인 이경의·차유순·홍건섭·양성관 등이 함께하였다.⁴⁰ 강석호와 같은 관리들은 찬성금액도 많았고, 홍건섭·양성관 같은 상인들은 관리들의 뒷자리에 있었다. 1908년 하반기에는 홍건섭·홍민섭 등과 같은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삼일학교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⁴¹ “그때는 사립학교들이 애국심에 불타던 시대였다.” 수원의 젊은 유지들이 보시동교회(수원종로교회)로 모여들었다. 이하영, 임면수, 나중석, 차유순, 최익환, 홍건표, 이상의, 김제구 등 여러 명이였다. 경기도 참서관을 지낸 김한목(金漢睦)이 교장에 추대되었다.⁴² 하급장교



수원의 대표적 근대교육기관인 삼일학교와 삼일여학교 학생(독립기념관 제공)

출신 송세호 부위가 남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해산된 군인들은 사립학교에서 훈련교관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립학교들은 자연스럽게 항일민족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⁴³

수원상업회의소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1908년 4월 15일에 창립되었다.⁴⁴ 수원상업회의소에는 회두 김희경 외에도 부회두 홍민섭, 총무 김순구, 서기장 이희영 등이 있었고, 그 밖에도 상의원 20명이 있었다. “연로 유수한 진신(縝紳) 수명”의 고문도, 수원에 있는 상인 200여 명도 상업회의소를 만드는 주역들이었다. 수업상업회의소 초창기 멤버들은 여전히 조선왕조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순종이 수원에 온다는 소문을 듣자 회두 김희경은 다과를 극진하게 준비해서 순종을 만나러 갔다.⁴⁵ 이러한 모습은 지역의 상인들과 왕실이 매우 긴밀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경성의 조중응, 경성상업회의소 회두, 경성부협찬원 예종석 등 중앙의 실업가 및 유력가들과도 교류하였다.⁴⁶ 상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상업회의소 결성에 자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후진 양성에도 눈길을 돌렸다. 1909년에 수원상업강습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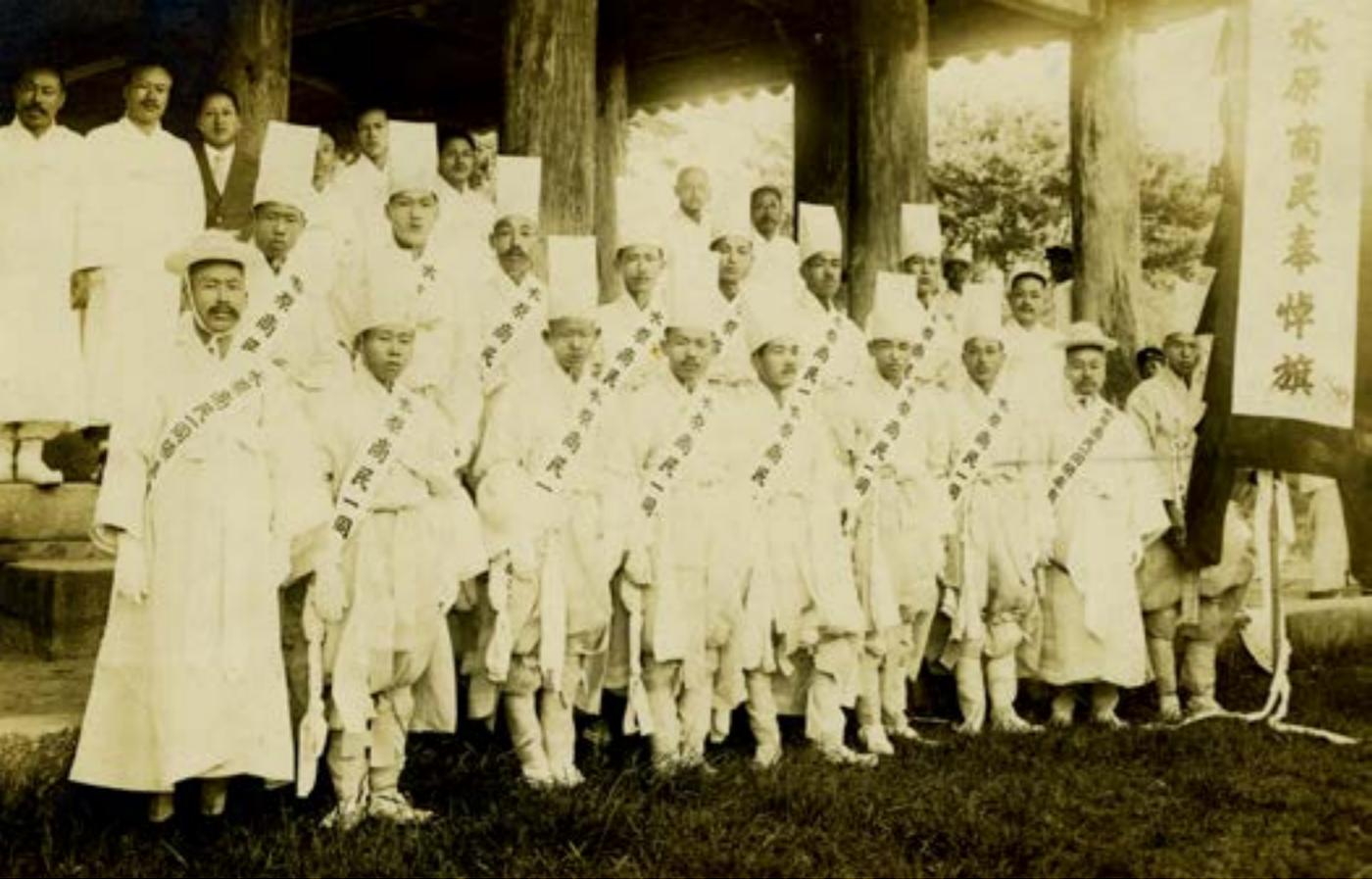
1908년(융희 2) 1월에 발행된 『기호흥학회 규칙』(독립기념관 제공)



1908년(융희 2) 9월 25일에 발행된 『기호흥학회 월보』 제2호(수원박물관 제공)
수원군지회 회원 명부에서 이하영, 임면수 등 당시 수원 교육계에서 활동하던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확인된다.



『국채보상취지서』(『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일)
김제구와 서기 이하영·임면수는 국채보상운동취지서를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한 의연금 모집에 수원 사람들이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다.



봉도단을 조직해 순종 장례에 참여한 수원 상인들(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상업회의소를 창립하여 활동하였던 이들은 근대 수원의 사회·경제를 이끌어 갔다.

건립된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양성관, 홍건섭, 홍민섭 등이 있었다. 학교 운영경비는 상업회의소의 과금(課金), 즉 회비에서 조달되었다. 상업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 보급을 위해, 국어, 산술, 상법, 부기 등이 교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강습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등록하는 자가 적었다. 그러자 그들은 2,000여 원의 자금을 들여 수원상업강습소 내에 직물공장을 만들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다(작업 성적에 따라 학생들은 35전 내지 50전까지 일당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원하는 자가 증가하였다. 그들의 묘안은 멋지게 적중했고,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 그것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1914년에는 생도가 110명이 되었다. 1912년에 강습소 직물공장은 이성의가 경영하는 직조회사에 합병되었다.⁴⁷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수원상업회의소는 1916년 6월에 해산되었다. 창립된 지

18년 만의 일이었는데, 해산의 근거는 '조선상업회의소령(1915년 7월 15일, 칙령 제4호)'이었다.

국채보상운동, 수원종로교회의 삼일학교 지원 및 수원상업강습소 설립 및 운영은 조선왕조 체제 내에서 상인이면서 대지주로 이미 수원 지역의 유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양성관, 홍민섭, 차윤순, 나기정 등이 주도한 것이었다. 1910년대의 사회운동 및 3·1운동의 리더들은 그들의 자손이거나 후배 그룹에 속하는 자들이었다. 부르주아지 1세대가 조성한 사회적 기반 안에서, 즉 그러한 로컬적 기반 위에서(이미 이때는 기독교도 로컬적 기반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부르주아지 2세대가 성장했고, 그들이 지역의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리더들로 성장하였다.

2) 수원 부르주아지 2세대

홍사훈은 홍민섭의 아들로, 1910년 11월에 서울의 보성학교를 그만두고 수원으로 내려왔다. 부친 홍민섭도 상인이었고(부친의 형들인 홍명섭과 홍건섭도 상인), 그 역시 상인의 길을 걸었다. 홍씨 일가는 성공한 상인이면서 대지주였다.⁴⁸ 홍명섭의 첫째 아들 홍사훈은 수원면 남창리 139번지에서 포목과 신발을 위시한 잡화를 파는 '홍사헌상점'을 운영하였다. 1926년에 순종 장례식 때에 그는 수원 지역 상인들 봉도단의 사무촉탁을 맡은 바가 있었다. 1933년 10월 15일에 결성된 수원 지역 포목상조합에서 홍민섭의 아들 홍사훈이 그 일원이 되었다. 포목상으로서 부를 축적한 홍사훈은 수원·용인·진위에 걸쳐 각각 549정보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홍사훈은 광산 갑부로 이름난 최창학과 함께 41등으로 1년 수입이 5만 원으로 사정되었고, 세금으로 2,698원 15전을 납부해야 했다.

1920년 6월 6일에 결성된 수원청년구락부에서 홍사훈은 이사에 삼일학원 운영에 관여한 나홍석은 부장에 선임되었다. 나홍석은 시흥·용인군수를 역임한 나기정의 아들로 1909년 3월 와세다대학 정치과를 졸업한 인재였다. 홍사훈과 나홍석 등에서 이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지역 유지들의 후손들로서 수원 지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강연회들을 통해 지역을 계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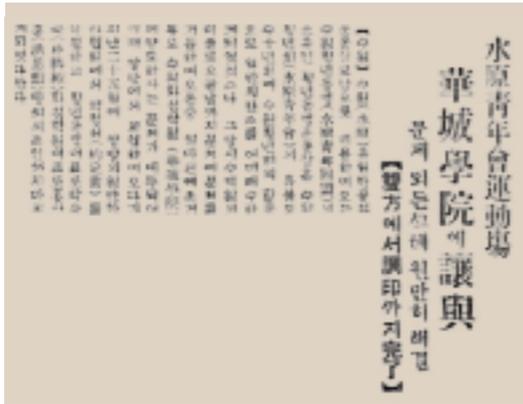
1927년 화성야학회(수원고등학교 제공)
 화성학원은 수원상업회의소에서 1909년(융희 3) 설립한 수원상업강습소로 시작하였다.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노적(앞줄 교사 중 맨 왼쪽)은 상업강습소 졸업생이었다.



1926년 화성학원 제20회 졸업기념(수원고등학교 제공)
 홍사훈(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은 화성학원 발전에 앞장섰으며, 근대 수원 지역 유지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1922년에는 수원상업강습소 교우회가 조직되었고, 홍사훈·김노적·양규봉·윤태인·윤용희·이규순·박봉덕·김재순·김현국·이봉수·한상기·민정식·나명진·김수부 등 13명이 이 모임을 주도하였다. 그 대상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다닌 동문도 포함되었다. 그만큼 그들은 동문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의사가 강력하였다.⁴⁹ 3·1 운동에 참여했고 신간회 수원지회장을 지냈던 김노적은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리더였다. 이런 흐름 위에서 1927년에 벌어진 도회 의원 선거에서 홍사훈은 당선되었다.⁵⁰

학교 유지에는 뜻과 정신만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였다. 신준희의 뒤를 이어 신임소장에 부임한 홍사훈은 매월 100여 원씩 자담해서 교사들



수원청년동맹 운동장을 화성학원 측에 양여(『동아일보』 1931년 1월 29일)

봉급을 지불하였다.⁵¹ 수원유지 40여 명도 움직였다. 1929년에는 ‘화성학원유지회’가 결성되었고, 회장은 홍사훈, 부회장은 이길태, 평의원에는 유하영의 6명이 선임되었다(수원상업강습소가 정식학교로 승격한 것이 화성학원).⁵² 이러한 모임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홍사훈(1891년생)과 비슷한 연배인 수원

지청 판사 김세완(1894년생)의 공로가 컸다. ‘화성학원유지회’는 양성관·차유순과 같은 60~70대 제1세대 지역 유지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며 제2세대 자본가들인 홍사훈·한광호 등 30~40대 청년 유지들의 힘이 모아진 결과였다. 홍사훈은 1934년에 교사 신축에 들어간 비용(4,000~5,000원)을 부담했고,⁵³ 1941년에는 다시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교사를 신축하였다.⁵⁴

그런 홍사훈의 ‘기여’ 때문인지 1931년에 화성학원 운동장을 둘러싼 사회주의 경향 수원청년동맹의 박승극과 지역 유지 홍사훈 사이의 협상은 원만하게 끝났다. 수원청년동맹은 학교 측에 운동장을 양도하였다. 화성학원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다. 수원청년동맹의 김도생과 박봉득은 이 학교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⁵⁵ 1931년은 사회주의운동 노선이 대전환(‘민족협동’에서 ‘계급투쟁’으로)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에서는 양자 사이에 협조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홍사훈은 화성학원 운영에 개입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1933년에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는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소유 토지 51정보의 소작인 32호에게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을 관리하는 사음을 전폐하고, 군농회장에게 관리를 일임한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사음에 의한 중간수탈, 높은 이자 등은 항상 농민들의 골칫거리였는데, 지주가 이를 해결해 주고, 장기적으로 토지소유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다. ‘지역’은 그가 이념을 넘어서 여러 ‘친구’들과 근대를 함께 도모했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또한 지역 유지로서 ‘친일문제’로부터 자유롭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1931년 만주사변 발발은 수원의 유지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는 일본인들과 지역 한국인 유지들이 조직한 수원국방의회에 참여했고, 1934년에 최린이 조직한 시중회의 평의원으로, 1937년에는 군용기 ‘경기도호’ 건조비 일부를 헌납했고, 1939년에는 조선유도연합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⁵⁶

수원 지역 유지 1세대가 만들었던 수원상업강습소에서 그들의 아들들이 배웠다. 흥민섭의 아들인 홍사훈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수원상업강습소를 고등보통학교 수준의 화성학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 유지들도 그 과정에 동참하였다. 또한 홍사훈은 사음 철폐와 소작인 지원 등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만종원을 설립하여 조선 농촌을 위한 종묘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대지주 차유순의 아들 차준담은 1942년 3월에 수원상공회의소(1941년 12월 인가) 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때 양성관의 아들 양규룡과 홍사훈 조카 홍길선도 특별위원에 선임되었다. 상인이면서 대지주였던 그들은 대를 이어서 경제인단체, 학교와 같은 공공적인 교육사업, 지주 및 기업가, 그리고 친일활동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원 지역의 근대적 전환을 이끌었다. 그 중에서 홍사훈은 상업강습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내 기반을 토대로 청년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 그 역시 ‘친일’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홍사훈은 수원 유지층 내에서 가장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⁵⁷

3) 지역운동과 김세환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인 김세환은 사회운동가 김노적과 대지주 홍사훈의 스승이었다. 김노적과 홍사훈은 수원상업강습소 출신이었다. 김세환이 청년 시절에 서울의 관립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 주오(中央)대학에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⁵⁸ 그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은 수원 상업강습소로 1910년 직후부터 이곳에서 직조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⁵⁹ 수원



1916년 삼일여학교 학감인 김세환(독립기념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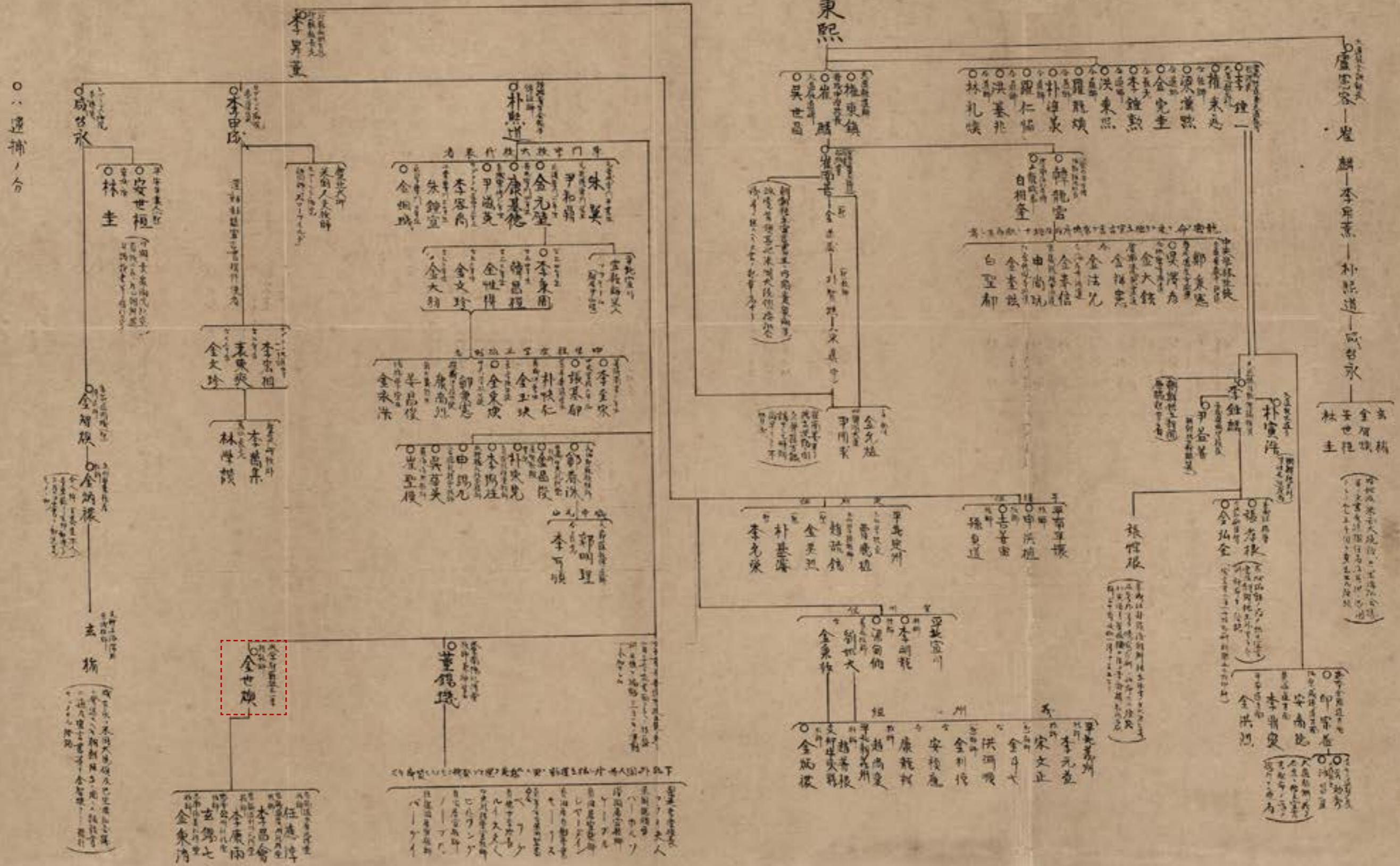
상업강습소는 화성학원(1916)을 거쳐 수원을 대표하는 중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⁶⁰ 수원 지역운동의 리더인 김노적(2회 졸업생)은 수업상업강습소 초기 학생이었다. 수원종로교회가 세운 삼일학교는 서울과 연결되는 기독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1901년 말에 보시동(현 북수동)에 수원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근처에 살던 그는 13~14세가 되는 무렵부터 교회를 출입했다고 한다. 삼일여학교는 밀러(L. A. Miller, 美羅)⁶¹가 교장으로, 김세환이 학감으로 부임하면서 일반적인 정식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 1909년에 힐만(Hillman, Miss Mary R., 1870~1928)⁶² 이 학부대신에게서 설립인가를 받았고 서양식 교사 100여 명이 신축되었다.⁶³ 이때 학제는 고등과 3개년, 보통과 4개년과 예비과 1개년으로 편성되었고, 학생은 4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김세환은 “학교의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장마철에는 다리를 놓아 학생들의 통학을 돕고, 학생들에게 실업교육을 실시하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수원상업강습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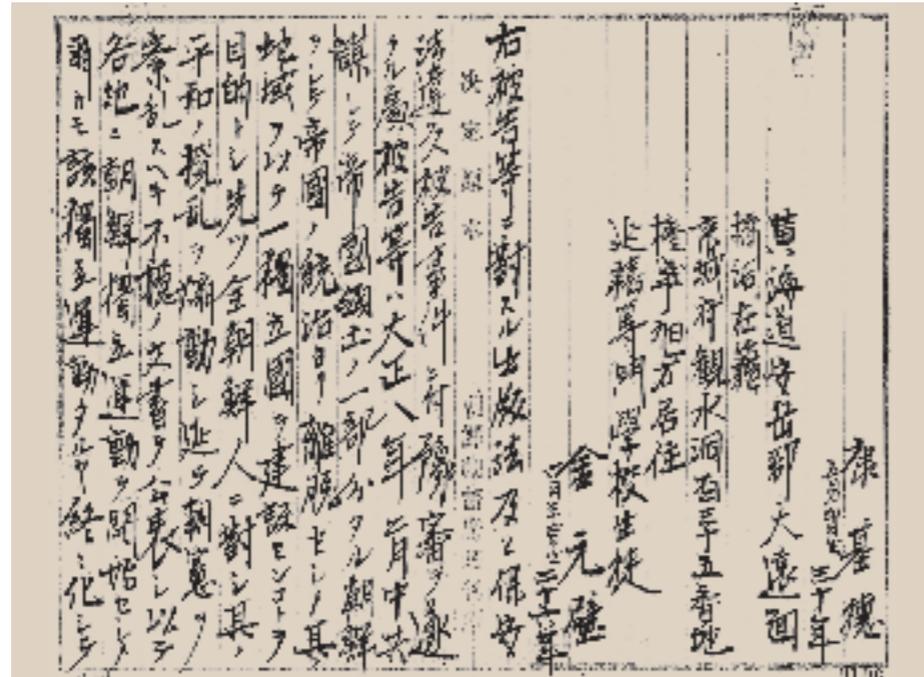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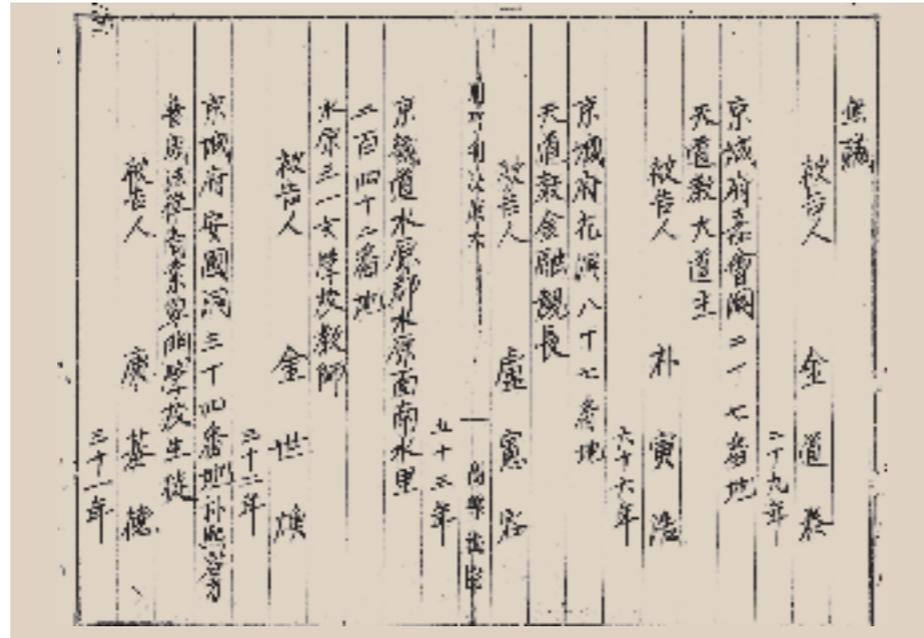
교사로 ‘명성’이 높았던 것 같다.⁶⁴ 김세환은 1910년대에는 두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헌신하였다.

그가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에게 맡겨진 직분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는 삼일여학교 학감 일을 하면서 박희도를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3·1운동에 기꺼이 참여해서 그 운동의 성립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가 3·1운동에 참여한 경위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9년 2월 10일에 박희도를 만났고, 2월 18일부터 다시 박희도를 수차례 만났으며, 2월 21일에는 이갑성 집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원과 충청 지역을 담당하는 ‘순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그는 해미교회 사경회에 참석한 흥성교회 김병제 목사, 남양교회 동석기 목사, 그리고 이천교회 이강백 목사, 오산교회 김광식 목사, 수원종로교회 임응순 전도사 등에게 ‘운동’에 관한 사정을 연락하였다. 1919년 2월 말에 그는 수원 사람들과 전국적인 만세시위에 참석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수원 상업강습소에서 개최하였다. 김노적은 수원면 시위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이 자리에 박선태·이선경·임순남·김석호·김병갑·이희경 등 기독교 청년들이 참석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상업강습소 출신으로 김세환의 제자들이었다.⁶⁵ 3월 1일 저녁 햇불시위가 일어났고, 팔달산 서장대를 비롯한 20여 곳 성곽에서 일제히 봉화가 올랐다.⁶⁶

이러한 김세환의 민족운동을 신앙,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⁶⁷ 어릴 적부터 교회의 영향을 받았고, 교회 부속학교에서 일하는 김세환에게 기독교의 영향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가 남긴 글과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민족주의를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의 누적된 행보들을 통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독립사상’은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독립사상’이었다.⁶⁸ 이와 관련하여 그의 ‘행동’에는 수원 로컬리티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 1920년대 이후 그의 행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그는 3·1운동과 같은 결정적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920년대 후반 신간회에 참여했는데, 그것 또한 어떤 이념보다는 수원 로컬리티와 관련이 깊은 것 같다.





3-1운동 민족대표 48인 판결문(국가기록원 제공)

1920년대 그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기독교계 및 민족주의운동과 단속적(斷續的)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1920년 10월 30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구류 360일 만에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송진우, 현상운, 김도태와 함께 석방되었다.⁶⁹ 그런데 그는 삼일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상인으로 생계를 꾸려 가면서, 지역의 여러 활동에 관여하였다. 그에 관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단편적인 그의 행적들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석방 직후에 기독교 관련 서적을 편찬하는 ‘광문사(廣文社)’일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했다.⁷⁰ 1921년 8월경에 기독교 문화선전을 위한 ‘조선기독교광문사’가 설립되었는데, 이상재·유성준·박승봉·최병헌 등이 자본금을 출자했고, 그들은 동조자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전국으로 강연을 다녔다.⁷¹

약 1년 반 이상이 걸려서 마침내 1923년 1월 31일에 설립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정관을 개정하여 광문사(廣文社)를 창문사(彰文社)로 개칭하였다.⁷² 이승훈은 광문사의 신의주 사무를 ‘방조(幫助)’하기 위해 신의주기독교청년회가 주관하는 강연회에 연사로 나섰고,⁷³ 『동아일보』는 기독교계의 광문사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교회가 종교의 틀 안에 머물지 말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교회 자체와 학교 병원의 경영이 모두 사회의 추세와는 교섭이 무(無)한 종교로 타(墮)하는 관(觀)이 불무(不無)하다. …… 광문사의 발기로 논하면 그 교회 중 유지자가 이에 관한 각성과 우려가 존(存)하여 …… 금일에 이르기까지 그 완전한 성립을 보는 데 이르지 못함은 대개 무슨 까닭인가.⁷⁴

김세환도 1920년대 초기에는 이러한 기독교계의 움직임에 참여하였다. 또 ‘엠티청년회’의 일원으로서 수원 지역을 대표해서 서울에 있는 송진우 등과 해외동포를 위문하는 사회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다.⁷⁵ 다음 신문기사는 그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그의 사회적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대강 짐작하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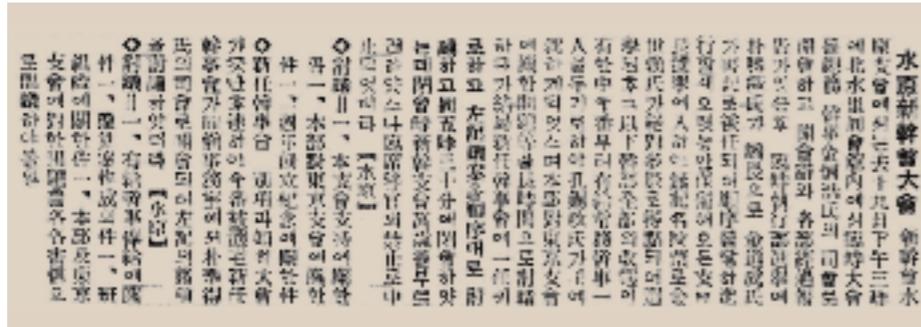
11일 대전을 거쳐 12일 수원에 도착 13일 귀경



1920년 출옥 후 김세환(독립기념관 제공)

강연단 일행은 특급열차를 타고 수원에 도착. 지역유지는 자동차를 준비하고 정거장까지 나와서 기다림. 그들은 강연단을 수원명소인 방화수류정으로 안내하고 화홍문 다락 위에서 환영회를 개최. 이때 김세환 씨가 환영인사를 하고 송진우 씨가 답사를 했다. 오후 9시에 수원극장에서 최상훈(崔相勳) 씨 사회하에 소녀찬양대의 합창으로 막을 열고, 최상훈 씨의 개회사 후에 약 학생친목회대표의 독창이 있었고, 환등을 마친 후에는 이재순(李載順) 양의 독창과 수원 찬양대의 합창이 있었으며 재외동포위문회에 대한 취지를 나홍석 씨와 신구범 씨가 전후하여 설명했다. 그 후에 삼현금 합주가 있을 후에 한 시간 동안 강연으로 12시 반에 폐회. 수원에서는 처음 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재외동포위문회에 대하여 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에 참가한 단체는 청년구락부, 엽잇청년회, 여보호회(女保護會), 천도교청년회, 학생친목회, 진명(進明)구락부 등 이더라. 당지는 재작년 소위 수원사건이 발생한 후에 세계에 이름이 전파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특별히 소개할 필요는 없으나.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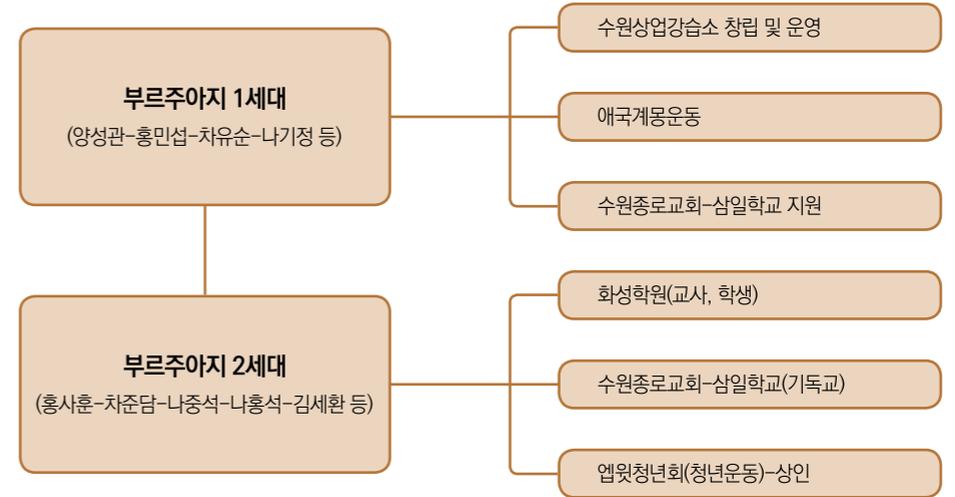
1924년에는 지역 상인을 대표하여 일본의 상업을 시찰하고 왔다.⁷⁷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중에서 1927년 10월 17일에 수원 천도교당에서 신간회 수원지회가 설립되었고,⁷⁸ 화성학원의 전신인 수원상업강습소 졸업생이며 화성학원과 삼일학교 교사로서 후진을 양성했던 김노적(성공회교인)이 수원지회장이 되었다. 이때 수원지회 임원으로 선임된 김병호는 감리교인, 최신복·공석정·우성규는 사회주의, 홍종각·이연숙·김현조는 천도교 관계자들이었다. 김노적, 우성규, 박봉득 등은 수원상업회의소 졸업생 및 교사였다. 그들은 이념 전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위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 종교적 측면에서는 기독교, 성공회, 천도교, 이념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등 여러 갈래가 신간회 안에 모여들었지만, 그것은 지역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한 운동이었다.⁷⁹ 청년운동과 관련된 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재력가이면서 진보적인 홍사훈의 역할은 수원 지역의 여러 운동 및 활동에 적지 않았다.⁸⁰ 이른바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만든 민족운동단체라고 평가받고 있고, 수원지회도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런데 수원지회는 이념적 연합 이상으로 로컬리티의 힘이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 김노적의 뒤를



신간회 수원지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세환(『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이어서 김세환이 수원지회장이 된 것은 바로 그 증거일 것이고(1928년 8월 19일 임시대회에서, 12월 16일 3회 정기대회에서), 그는 1930년 4월 25일 임시대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⁸¹ 김세환은 1927년에는 동아일보사 수원지원의 고문,⁸² 1929년 8월 30일에는 수원체육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30년대에는 뚜렷한 활동을 확인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김세환의 명망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939년에 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 수원 갑부 최상희로부터 2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내고, 1941년에 홍사훈과 함께 화성학원을 수업상업 전수학교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였다.⁸³

김세환은 부르주아지 1세가 설립한 수원상업강습소의 교사로서 활동하였다. 부르주아지 2세대는 수원상업강습소에서 김세환의 제자가 되었다. 김세환은 수원 종로교회가 세운 삼일여학교의 교사로서도 활동하였다.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했던 부르주아지 1세대와 식민지시기 지역사회를 후원하는 2세대 모두 삼일학교를 지원하였다. 이렇게 지역과 교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 네트워크, 즉 로컬리티는 수원 사회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김세환은 그 위에서 3·1운동과 신간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원 로컬리티와 김세환

4. '수원 로컬'이 시사하는 근대사 인식의 패러다임 문제

필자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수원의 로컬리티는 근대사 인식을 새롭게 할 단서들을 많이 던져 주었다. 제한된 자료검토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전에 수원의 부르주아지·유지들에 대한 검토할 때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안과 밖'의 문명융합이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원종로교회 그리고 그 종교 기관과 관련된 사람과 사건들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는 일본이 아닌 다른 경로, 즉 미국을 통해 서구문명을 '학습'하는 통로였고, 고종의 강제양위 및 국권이 상실되는 국가적 위기는 국가 혹은 민족의식(네이션 빌딩)이 일어나는 촉매로서 기능하였다. 학교·병원·교회를 통해 전개된 기독교의 사업들은 동족마을과 같은 향촌 네트워크와 비교적 원만하게 결합되었다. 개항 이래 1919년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사회 및 민족운동에서 한국인들은 자유, 평등 그리고 평화라는 근대적 가치를 내재시키게 되었고, 3·1운동에서 한국인들이 지향했던 '광복'이라는 목표는 한국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의 보편적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하영·임면수·

김세환 등은 그러한 목표를 몸으로 실행한 대표적 인물들이고, 수원종로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었다.

수원 지역 3·1운동은 '3·1운동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이 운동은 엘리트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민중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양자가 어우러지고 문명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시대의 흐름에 사회가 반응한 '문명적 대응'이었다. 3·1운동의 시위과정에서 나타난 '우발적 폭력'의 '급진성'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계획적 기획폭력'의 '잔인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선교사들은 일본인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제암리, 고주리, 화수리 일대의 기획폭력의 잔인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주었다.

수원 지역 문명융합의 온건성은 3·1운동, 청년운동, 신간회와 관련된 민족운동으로 나타났다. 문명융합이 일어난 지역 네트워크가 3·1운동을 이끌었고, 청년운동도 그랬으며, 신간회도 그랬다. 수원상업회의소(화성학원), 삼일학교(수원종로교회)는 그러한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기초단위였다. 김세환, 홍사훈, 김노적 등은 그러한 민족운동의 리더였다. 특히 지역의 대자산가인 홍사훈은 부르주아지 2세대로서 그의 부친을 위시한 부르주아지 1세대가 구축한 지역 네트워크를 계승하면서 청년운동 및 교육사업의 중심에 있었고, 김세환도 지역 네트워크 위에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홍사훈은 '친일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자산가이면서 진보적이면서 민족적 사업에 기여한 바가 많았지만 전시체제가 '동원'구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원의 로컬리티는 조선왕조의 전통, 기독교의 전래, 민족주의, 근대문명에 대한 욕구 등이 융합되면서 형성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은 계급 대계급 혹은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이항대립 구도가 아니라 지역의 생활적 기반이 반영된 네트워크 위에서 전개되었다. 로컬리티의 미시적 요소들은 민족 혹은 국가라는 단위의 역사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도식적인 이항대립을 넘어서서 화해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풍부한 이야기들의 원천인 것이며, 단순하게 '중심'에 대한 '주변'의 저항이 아니라 구체적 보편성을 통해 역사의 진전을 위한 토대인 것이다.

註

- 1 이 글은 수원 지역의 부르주아지에 관한 줄고(「한말·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 지역 상인층의 대응」, 『향토서울』 제84호, 2013)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고, 특히 여기에서는 수원의 부르주아지 1세대와 2세대에 나타난 수원의 로컬리티와 기독교 그리고 3·1운동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2 이승렬, 「한말·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 지역 상인층의 대응」, 『향토서울』 제84호, 2013 참조.
- 3 제임스 S. 게일(James Scarth Gale),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1888-1897』(원서명: Korean Sketches), 경기도 성남: 책비, 2018, 338쪽.
- 4 1882년 4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 1883년 5월에 미국공사 푸트(L. H. Foote)가 부임하였다. 조선왕조 정부는 대미(對美) 보빙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그 일행은 1883년 7월(음력 1883년 6월 23일)에 인천을 출발해서 도교를 경유하여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고종의 국서를 미국 대통령(Chester A. Arthur)에게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민영익은 볼티모어 제일교회 가우처(J. F. Goucher)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한 가우처는 미감리회 해외선교부에 2,000달러를 기부하면서 선교사 파견을 촉구하였다.
- 5 1882년 무렵 맥클레이 부인은 일본에서 한국인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개화파 인사들을 접촉하였다.
- 6 이러한 고종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 미국공사 푸트와 통역관 윤치호가 동석했다고 한다. 역은이 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2016, 25~26쪽, 33쪽.
- 7 미감리회 해외 선교부는 1884년 11월에 뉴헤이븐(New haven) 예일대학(Yale University)과 뉴욕 컬럼비아(NY Columbia University)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클리브랜드(Cleveland)에서 개업 중인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이때 나이 29세) 박사를 선교사로 임명했고, 12월에 뉴저지(New-Jersey) 드류(Drew)대학 졸업생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이때 나이 27세) 목사를 교육선교사로 확정했으며, 여성 선교를 위해 스크랜턴 박사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 이때 나이 53세)를 선정하였다.(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2016, 27쪽)
- 8 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 2016, 31~32쪽.
- 9 베델(Bethel)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 옛 지명이다.
 - 10 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2016, 32~34쪽. 1886년 6월 3일 고종 황제께서 배재학당 설립을 재가하고 '培材學堂'이란 학교명을 하사하였다. 1885년 8월 3일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본 학당을 설립하였다.(배재중학교 홈페이지(<http://pcms.kr/19176/subMenu.do>), 「학교연혁」 참조)
 - 11 장로교의 병원도 생겼다. 고종은 민영익을 치료한 알렌(Horace Newton Allen, 미 북장로교 선교의사, 1884년 한국 입국, 미공사관 소속 의사)에게 재동 흥영식의 집을 내주어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하게 하였다(1885년 4월 10일). 13일 후인 4월 23일 고종은 “대중을 구제한다.”는 뜻의 제중원(濟衆院)이란 이름을 하사하면서 병원 명칭이 바뀌었다.
 - 12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39~40쪽.
 - 13 그는 ‘문서선교’를 위한 1890년 6월에 설립된 한국성교서회(韓國聖教書會, The Korea Tract Society, 대한기독교사회의 전신) 창립위원으로, 1905년부터는 찬송가 편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26년에는 한국선교 근속 40년 표창을 받았고 73세의 고령으로 은퇴하였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32년 11월 28일 79세로 별세하였다. 유언에 따라 그 다음 해인 1933년 4월 13일에 한국에서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 유해는 서울 양화진에 묻혔다. 부인(Annie Ellers)은 1860년 8월 31일 미국 미시간주 출생으로 일리노이주 록포드대학과 보스턴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1886년 6월 4일 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로 내한하여 광혜원에서 알렌을 도와 일하면서 명성황후의 병을 치료한 후 고종의 시의가 되었다. 그녀는 1887년 5세 여아를 데려다가 고아원을 시작하여 정신여학교를 만들었고 - 고종이 하사한 정동 28번지 주택에서 시작(1919년 김마리아 교사 등 애국부인회 피검, 정신여학교 홈페이지), 1888년에 벙커 목사와 결혼한 뒤 미감리교 선교부로 전임한 후 1926년 은퇴할 때까지 조선을 위해 40년간 봉사했고 남편 사후에도 1936년까지 한국에서 지내다가 1938년 8월 8일에 사망하였다. 그녀의 유해는 남편과 함께 양화진 외국묘지에 안장되었다.(감리교회 역사자료 검색서비스)
 - 14 1846년 미국에서 노예해방전쟁이 일어났고 남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가 새로 조직하였다. 미감리교회(혹은 북감리교회)는 1884년에, 남감리교회는 1895년에 한국선교를 시작. 1895년 10월 18일 남감리회의 아시아 선교담당 핸드릭스

- (E. R. Hendrix) 감독과 중국에서 17년 동안 사역하고 있던 리드(C. F. Reid) 선교사가 내한하였다. 남감리교회 선교부는 남대문로3가 110번지 현 한국은행 본점 자리를 매수하여 선교기지로 삼았다.
- 15 이덕주, 『스크랜튼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 공옥출판사, 2014, 382~383쪽.
 - 16 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2016, 45쪽; 조영렬 외, 『신편한국사 46 : 신문화운동 II』, 국사편찬위원회, 2000, 167~170쪽(http://db.history.go.kr/id/nh_046_0030_0040_0020_0020).
 - 17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92-93쪽.
 - 18 이승만이 이 학교 교장을 맡은 것은 한 달, 정확히는 3주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이정식,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 동아일보사, 2002, 201~225쪽; 윤춘병, 「전덕기 목사와 상동청년학원 고찰」, 『한길김철손교수고회기념논문집』, 1988, 179~204쪽;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정음사, 1978, 101쪽.
 - 19 이덕주, 『스크랜튼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 공옥출판사, 2014, 655쪽.
 - 20 전택부, 「상동파-그 역사와 독립군들」, 『토박이 신앙산맥 2 : 韓國教會使徒行傳』,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58쪽; 대한YMCA연맹, 『한국YMCA운동사 : 1885-1985』, 1986;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 21 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2016, 52쪽.
 - 22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56쪽.
 - 23 『梅香 百年史』, 매향학원, 2006, 82쪽; 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2016, 55쪽.
 - 24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65~74쪽.
 - 25 1894년 평양 관리들이 기독교 선교를 막기 위해 김창식과 오석형을 가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외무대신이 나서서 마무리되었다.(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57쪽)
 - 26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2016, 56쪽; 홍석창 편저,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에이멘, 2001.
 - 27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65쪽.

- 28 한국컴퓨터선교회, 「이하영」, 『인명사전』(http://kcm.kr/dic_view.php?nid=20109):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1968, 59~63쪽;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112~130쪽.
- 29 리주배, 『수원종로교회-교회사소고 : 교회의 시작과 형성을 중심으로』, 수원종로교회, 2016, 69~72쪽, 80~81쪽; 『삼일학원 팔십년사』, 양정사, 1983, 109~113쪽.
- 30 미감리교회 한국 선교사이다. 1918년에는 강원도 영월, 1922년에는 평북 영변, 1924년에는 경기도 이천지역까지 순회선교에 힘썼다. 그는 밀러(L. Miller) 선교사와 함께 전도와 교육 사업에 주력하였는데 1927년 한 해 13개 구역, 79개 처 교회를 순회하여 2,000마일 이상을 여행하였다. 1929년부터는 인천 지역에서 전도한 후 1933년 은퇴하였다.(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정보자료실, 『감리교외국인선교사 DB』)
- 31 1904년부터 수원순회구역 전담 선교사로 파견되었고, 1908년에는 수원지방회의 초대 감리사로 취임하였다.(수원 지역은 서울이 포함된 남한국지방회에서 수원지방회로 분리되면서 그 위상이 올라갔다.)
- 32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104~105쪽.
- 33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 1899-1950』, 2000, 105~106쪽.
- 34 「융희 4년 2회 졸업생 김용옥 응의 회고담」,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1968, 55쪽.
- 35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1968, 56쪽.
- 36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1968, 71쪽.
- 37 「잡보 : 임원조직」, 『황성신문』 1907년 4월 8일. 8월 8일 국채보상총합임시사무소(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서 총회를 열고 임원 선거를 실시. 소장 한규설, 부소장 김종한 등이 선임되었다.(「잡보 : 조직총회」,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1일)
- 38 수원부 국채보상회 재무원 나성규 차유순 양씨는 해당 회비를 각기 담당하고 가산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사무하여 금액을 다 수합하였다고 사람들의 칭찬이 끊기지 않더라.(「잡보 : 양원열심」,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1일)
- 39 주사 나기정 씨 수원부 내에 있는 유지들을 독려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했다.(「잡보 : 라씨열심」,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6일)
- 40 「광고 : 광무 11년 6월 수원삼일학교찬성금액」, 『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 41 「삼일학교흥왕」,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4일.
- 42 『삼일학원 육십오년사』, 1968, 32~35쪽, 48~49쪽.

- 43 『삼일학원 팔십년사』, 양정사, 1983, 96쪽.
- 44 사카이 마사노스케, 이창식 역, 『발전하는 수원』, 수원박물관, 2011, 53쪽.
- 45 「수원상업의와 능행」, 『매일신보』 1914년 11월 17일.
- 46 「趙子一行 水原行」, 『매일신보』 1914년 12월 23일.
- 47 「모범될 수원상업」, 『매일신보』 1914년 12월 22일.
- 48 홍사헌의 둘째 아들 홍의선의 소생인 홍승천의 회고.
- 49 「상업강습소교우회」, 『동아일보』 1922년 6월 13일.
- 50 「改選期 切迫한 水原道議戰 洪崔兩氏가 有力」, 『매일신보』, 1927년 3월 18일.
- 51 「순회탐방 199 정거장근처부터 일인이 잠식(4)」,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 「화성학원 서광」, 『동아일보』 1928년 1월 25일.
- 52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139~149쪽.
- 53 「홍사헌씨 독력으로 학교교사를 신축」, 『동아일보』 1934년 4월 27일; 「수원화성학원 신교사로 이전」, 『동아일보』 1934년 9월 13일.
- 54 「수원상업전교기공식」, 『매일신보』 1941년 10월 31일. 수원상업전수학교(화성학원 후신) 설립자 홍사헌 씨는 사재 20만 원을 내어 동교사를 신축하기로 되어 기지를 물색 중인데, 수원읍 남부정에 있는 기지 1만 4,000평을 매수하고 벽돌 2층으로 건평 400평을 신축하기로 되어 지난 27일 오후 3시 관민 다수 참석 하에 기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 55 「수원 각 사회단체원 칠십명 일제 검거」, 『조선일보』 1930년 10월 14일.
- 56 「친일인명사전」.
- 57 이승렬, 「한말·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 지역 상인층의 대응」, 『향토서울』 제84호, 2013, 192~193쪽.
- 58 그에 관한 자료는 불명확하다.
- 59 삼일여학교로 부임한 이후에도 그는 수원상업강습소의 선생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수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노적의 「1917년도 수업강습소 졸업증서(제7호)」에 의하면 이때 김세환은 수원상업강습소의 소장이었다. 김세환 가족사진과 그에 대한 문서에 의하면 신분은 상인 출신의 상민이었던 것 같다. 그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재목상’으로 생계를 꾸렸다.
- 60 1941년 수원상업학교로 승격, 1946년에는 수원상업학교가 폐지되고 수원중학교(6년제)가 인가되었다. 1951년 8월에 학제가 변경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었다(각 3년제).

- 2019년 2월에 69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 61 미감리교회 선교사이자 교육가이다. 미국 출생으로 1901년 내한하여 1909년 4월 삼일 여학교(현 매향여자중학교와 매향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1926년 3월 기숙사를 건축하였다.
- 62 미감리교회 선교사로 필라델피아 출생이다. 1900년 내한하여 1900~1906년 인천, 1907년부터는 밀러와 같이 강화, 삼산, 교동, 연안 및 해주까지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여자사경회 조직, 매일학교(Day School)를 지도하였다. 힐만 선교사는 1916년 원주 선교부로 전임 활동하였고, 1925년 서울로 옮겨 조선예수교서회의 번역 일을 도왔다. 1928년 2월 1일 서울에서 별세, 유해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한국감리교 인물사전 DB』)
- 63 이덕주, 「수원교회사 매향여학교의 역사적 맥락」, 『한국감리교회사와 지역교회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참조.
- 64 김권정, 「일제 강점기 김세환의 민족운동」, 『송실사학』 18집, 2005, 47~48쪽.
- 65 리제재, 「수원지방 독립운동 선구자 김노적선생」, 『수원의 옛문화』, 1995, 154쪽.
- 66 리제재, 「수원지방 독립운동 선구자 김노적선생」, 『수원의 옛문화』, 1995, 155쪽.
- 67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기독교사상』 통권 375호, 1990년 3월호 참조; 김권정, 「일제 강점기 김세환의 민족운동」, 『송실사학』 18집, 2005, 49~50쪽.
- 68 본래 합병을 조선 사람이 싫어했으나 대세에 어찌하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도 독립 운동에 전력하려 하였더니 이번의 전쟁은 처음에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으나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뒤에는 군국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에 대한 평화주의 전쟁이니까, 평화주의가 득승한 강화회의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민족자결을 적용하게 될 것을 따라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함이오.(「47인 예심결정서」(일), 『동아일보』 1920년 4월 6일; 「선언동기의 진실한 고백: 조선민족대표 47인의 공판」, 『동아일보』 1920년 7월 16일, 3면)
- 69 1963년 건국훈장독립장이 추서되었고, 유골은 국립묘지 총렬대로 이장되었다.
- 70 「김세환 씨 동정」, 『동아일보』 1921년 10월 21일.
- 71 「광문사 발기」, 『동아일보』 1921년 8월 13일; 「박승봉씨 일행 동정」, 『동아일보』 1921년 8월 23·24·25일; 「광문사순강단착발」, 『동아일보』 1921년 10월 25일.
- 72 「광문사창립총회」, 『동아일보』 1923년 1월 24일. 1923년 조선기독교창문사(朝鮮基督教彰文社)(株)의 공칭자본금 35만 원으로 사장에는 유성준이 부임했고, 대주주에는 윤치호

- 등 4인이었다. 영업목적, 기독교 서적 제작 및 판매 기타, 사장 유성준, (전무이사) 김석태, (이사) 이상재, 박봉서, 박승봉, 김정기, 정찬유, 이관순, 윤치호, 신상휴, 김의균, 최돈제, 김창준, 한일현, 박용희, (감사) 최병헌, 박종명, 정달하, 정노식, 김양수, (지배인) 신공량, 대주주 박봉서(500), 윤치호(400), 박승봉(300), 유성준(200), 주소 경성부 인사동 84번지 이다.(『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3~1937년; 「기독교창문사창립」, 『동아일보』 1923년 2월 2일)
- 73 「이승훈 씨 종교강연」, 『동아일보』 1922년 9월 7일.
- 74 「사설 : 광문사에 대하여 : 기독교의 사회화를 갱론함」, 『동아일보』 1922년 9월 19일.
- 75 1923년 1월 13일 엽윗청년회 총회에서 중간사로 최상훈과 김세환을 선임하였다(「수원 엽윗청년총회」, 『동아일보』 1923년 1월 21일). 하와이 학생고국방문단을 환영하는 준비회의 임원이기도 했다(「수원서도 환영준비」, 『동아일보』 1923년 7월 23일).
- 76 「해외동포위문회 : 육개 단체 후원으로 성황을 이룬 수원지방」, 『동아일보』 1922년 7월 14일.
- 77 전 수원삼일여학교 교감 김세환 씨 상업시찰차로 15, 16일 예정으로 일본 고베, 오사카에 가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8시 반차로 수원역을 출발(「지방인사소식」, 『동아일보』 1924년 7월 14일).
- 78 「수원신간지회 17일에 설립」,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 79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의 신간회운동」, 『역사와 실학』 제15·16집, 2001, 339쪽.
- 80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방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 81 「수원신간대회」, 『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 82 「본사 신축낙성기념 30일 전후하여 각지 일제히」, 『동아일보』 1927년 4월 26일.
- 83 김세환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김권정, 「일제 강점기 김세환의 민족 운동」, 『송실사학』 18집, 2005.



홍면옥(1885~?)

홍면옥의 독립운동과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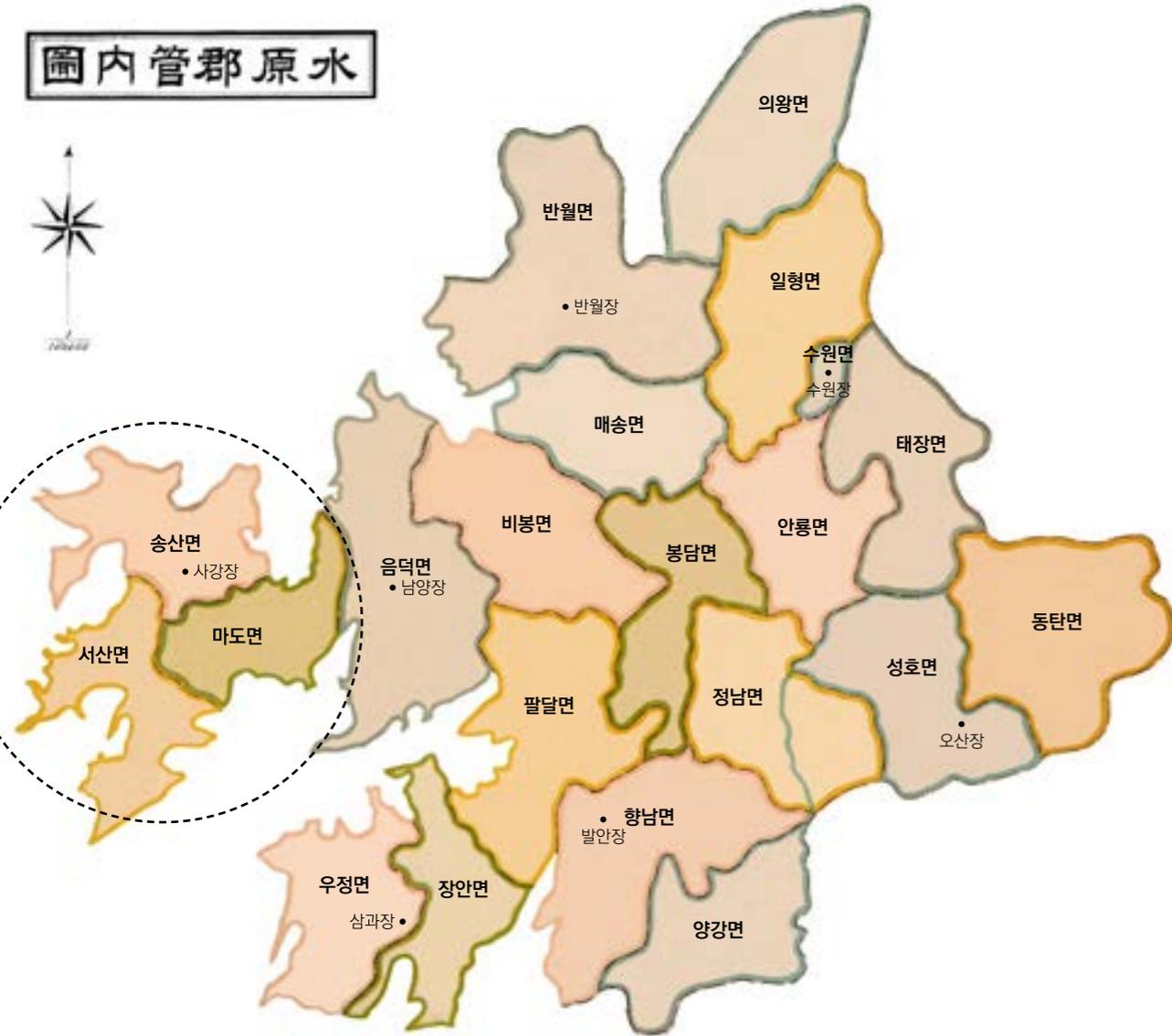
1. 들어가며

3·1운동은 흔히 ‘비폭력 평화주의’적인 운동으로 규정되곤 한다. 그러나 송산면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3·1운동 성격 규정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례이다. 즉 송산면과 이웃하고 있는 장안면·우정면 만세시위에서는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었고 일본 순사가 시위대에게 타살되었다. 이에 송산면과 장안면·우정면은 3·1운동 당시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전개된 대표적 지역으로 뽑힌다.¹⁾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 원인을 밝히려는 데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으며, 그 결과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수탈이 지적되어 왔다. 즉 지역민들의 경제 기반인 염전과 농토에 대한 수탈 심화 등이 격렬한 만세운동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정면·장안면·송산면에서 전개된 3·1운동의 격렬성이 수탈의 정도에 비례한 것이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경제적 수탈이 심화될수록 저항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탈=저항이 정비례한다는 설명이 송산면 3·1운동에 부합하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3·1운동은 일제에 의해 개편된 행정구역 또는 현재의 시·군 행정구역을 단위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단위로 3·1운동을 이해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3·1운동

圖内管郡原水



1919년 수원군 행정구역과 송산 생활권(수원박물관 제공)
 2~3개의 면 정도가 생활권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장시권과 일치한다. 수원군 지역의 경우 대체로 우정면과 장안면이 삼과장을, 송산면·서신면·마도면이 사강장(신기장)을, 음덕면·비봉면이 남양장을, 반월면·매송면이 반월장을, 성호면·동탄면이 오산장을, 팔달면·향남면·양감면은 발안장을, 수원면·일형면·안룡면·태장면이 수원장을 이용하였다.

의 이해는 운동 참가자의 인식이나 경험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² 1919년 3·1운동은 행정구역인 단위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전통적인 생활권에 따라 전개되었다. 일제시기 수원군에 해당하였던 송산면의 경우, 향남면이나 수원면의 3·1운동과 연계되었다기보다는 송산면의 전통적인 생활권, 즉 서신면·마도면·송산면 등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따라서 행정구역 단위로 3·1운동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³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첫 걸음으로 송산면 3·1운동이 격발되었던 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동안 경제적 수탈이 격렬한 3·1운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경제적 요인 이외에 송산면 향촌 네트워크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송산면 만세운동의 중심에 있는 '홍면옥'의 활동과 지역 내 위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홍면옥은 송산면 일대의 3·1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옥 이후에도 민족 운동을 이끈 인물로,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송산면 3·1운동의 주동자로 홍면옥이 언급되어 왔으나, 홍면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특히 출옥 이후 활동과 해방공간에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만이 언급될 뿐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이는 홍면옥과 관련된 자료가 극히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데, 3·1운동 후 체포와 처벌 과정에서 일제가 생산한 판결문과 신문조서 등이 남아 있을 뿐, 출옥 후 또는 해방공간에서 홍면옥의 활동에 대해 설명해 줄 자료는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적 한계는 현재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던 '화성지역 독립운동콘텐츠 개발 학술용역'에서 홍면옥의 출옥 이후와 관련된 새로운 증언이 확보되어 조금이나 그의 행적에 대한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수집된 자료도 극히 일부분이어서 여전히 홍면옥 개인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출옥 후 행적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에서는 3·1운동 관련 자료와 증언자료 등을 바탕으로 송산 지역 3·1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홍면옥과 송산 지역 향촌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송산 3·1운동을 주도했던 홍면옥(국사편찬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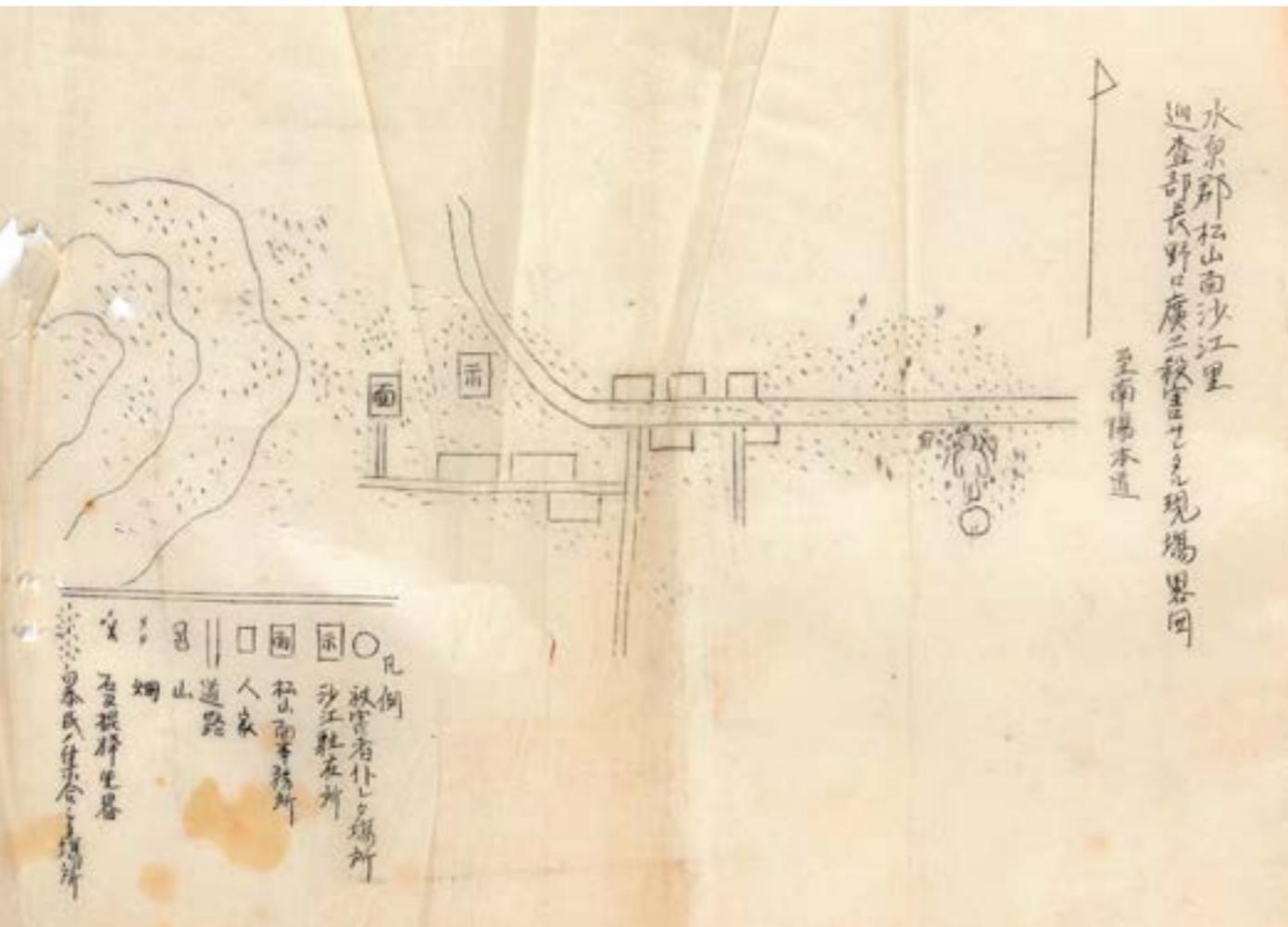
출옥 이후 홍면옥의 활동과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검토해 봄으로써 송산면 3·1운동과 홍면옥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송산 지역 3·1운동의 전개

송산 지역 3·1운동과 홍면옥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신문조서, 판결문, 일제감시자대상카드, 형사공소사건부 등이 있다. 신문조서 등 송산 3·1운동 재판자료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1~22권)』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수원군 만세시위사건’이란 제목으로 마이크로필름(4개 Roll, MF07527~MF07530)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필름에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1~22권)』에 누락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연구적 가치가 크다.⁴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1~22권)』에는 체포부터 신병인치,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 공판조서, 시말서, 예심청구서, 공판시말서 등 관할 재판소로 넘어가기 전까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신문(訊問) 과정이 수록되어 있어 송산 3·1운동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⁵ 이 조서와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송산 3·1운동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3월 26일, 구장 홍면선의 집에서 호세를 납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홍효선이 “다른 지역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우리도 부르자.”고 제안하자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오후 2시경 면사무소 뒷산에서 오후 4시경에는 주민 100~200명이 송산면사무소로 몰려가 구한국 국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 수십 명이 면사무소로 들어가 면장과 서기들에게 만세를 외치게 했다.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와 주재소 부근은 물론이고 마을을 돌면서 만세를 불렀고, 저녁에 서신면 방면으로 행진해 밤 11시경에 해산하였다.⁶

3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마을을 돌았다. 면사무소 앞에서 약 200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으며, 육일리 방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송산면 사강리 순사부장 노구치 처단 현장(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노구치 순사 검시도(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이에 사강주재소 근무 순사보 장용남(張龍南), 남양경찰관주재소에서 지원 나온 순사 다케우치(竹内皆吉)와 순사보 2명 등 순사 4명이 육일리 방향으로 출동하자 시위대는 1시쯤 해산하였다.⁷

1919년 3월 28일 사강장날, 1,000여 명의 군중들이 송산면사무소 뒷산과 그 부근에서 구한국 국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서신면 방면, 송산면 중송리 방면에서도 태극기를 내세우고 만세를 고창하며 몰려 왔다. 오후 3시 경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순사부장 노구치 고조(野口廣三)와 다케우치(竹内皆吉) 순사, 정인옥(鄭寅玉)·김학응(金學應)·조종환(趙鍾桓) 순사보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여 주도자 홍효선과 예종구를 체포하였다. 이어서 나타난 홍면옥에게 본인임을 재차 확인한 후 체포하여 끌어앉혔다. 그러나 홍면옥이 이에 굴하지 않고 연속하여 만세를 외치자 노구치(野口廣三)는 홍면옥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총상을 입혔다. 이에 격분한 군중은 “순사를 때려죽여라.”고 외치며 노구치를 처단 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일제는 송산 일대에 군경을 투입해 대대적인 주동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보복으로 마을을 불태워 200여 호의 가옥이 소실되었다. 4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강을 중심으로 인근 송산·마도·서신면의 20개 마을을 수색하여 175명을 검거하고 1,202명에게는 서약서를 받고 훈방 조치하였다.

3월 26일 만세사건 발생 후 3일 만인 3월 28일 5시경 홍면옥, 홍준옥, 김명제가 가장 먼저 체포되었다. 특별 검거반의 검거에 따라 홍면옥을 포함한 29인은 수원경찰서에 유치되었다. 수원경찰서장 경부 후루야(古屋滿威)는 사법경찰관 오자와(尾澤龜太郎)의 신문조사를 거친 홍면옥 등 29인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 검사 기타무라(北村直甫)에게 사건을 송치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기타무라(北村直甫)는 홍면옥 등 29인에 대한 조사·신문 과정을 마치고 4월 30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고우츠(郷津友彌)에게 사건을 이송하였다. 이송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교창 김도정 김명제 김성실 김용준 김진봉 노건우 문상익 민용운
박춘흥 왕광연 이성봉 이순일 이정집 임팔룡 진순익 차경현 최춘보
홍관후 홍남후 홍면옥 홍명선 홍문선 홍복룡 홍성한 홍열후 홍준옥
홍태근 황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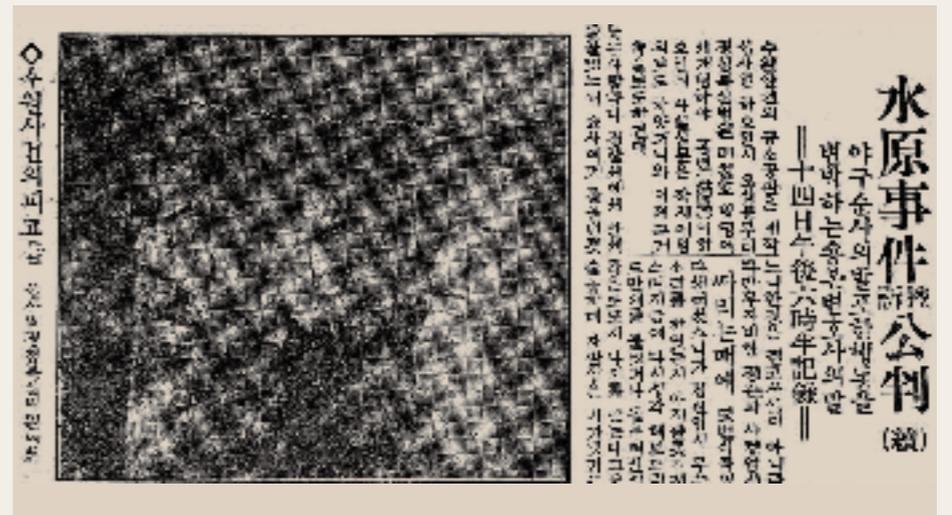
한편, 홍효선, 예종구 등 검거되지 않은 26인에 대해서는 4월 20일 수원경찰서장이 사강주재소에 신병확보를 지시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동 강군겸 강억동 김상연 김세풍 김찬서 김병준 노경안 안순원
엄주배 예종구 오광득 왕경숙 왕선경 이석춘(2인) 이윤식 이태순 전도선
정군필 조인환 진양호 홍명천 홍태성 홍효선 황종운

신병 확보 지시를 받은 26명 중 전도선, 안순원, 오광득, 이윤식, 김병준, 정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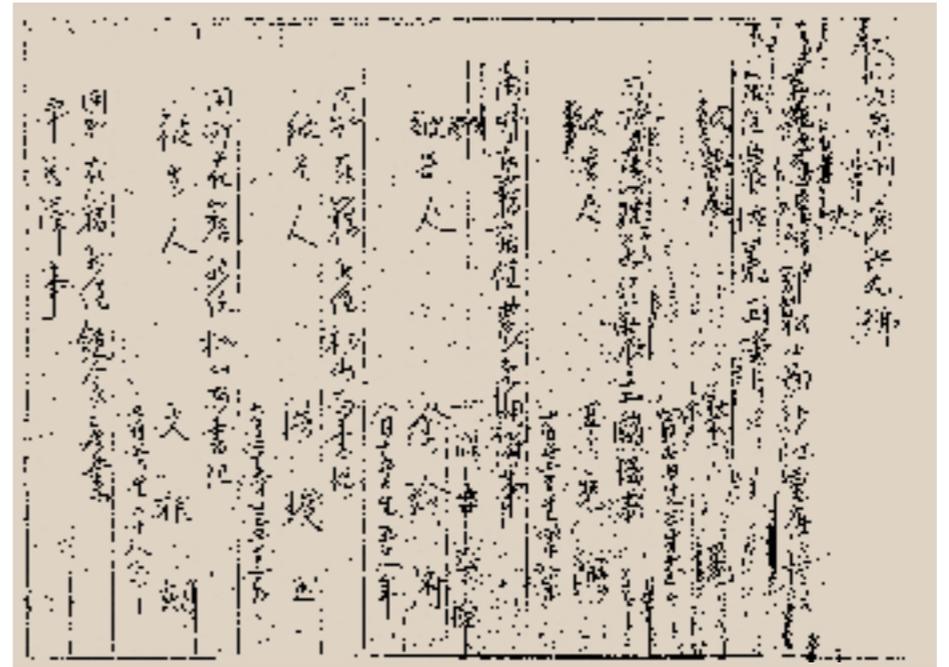
송산 3·1운동 예심종결(『매일신보』 1919년 11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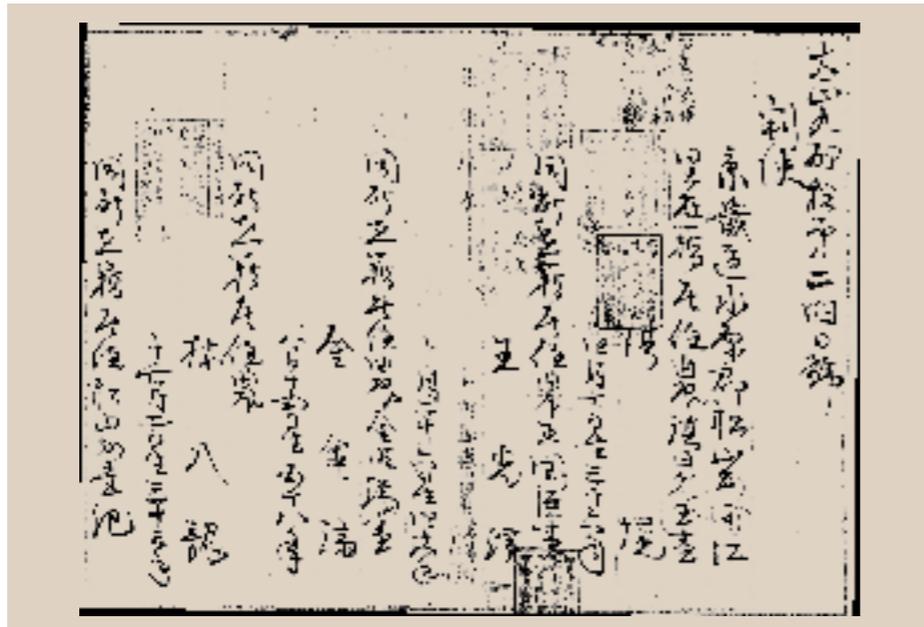
경성북심법원에서 열린 송산 3·1운동 공판(『매일신보』 1920년 5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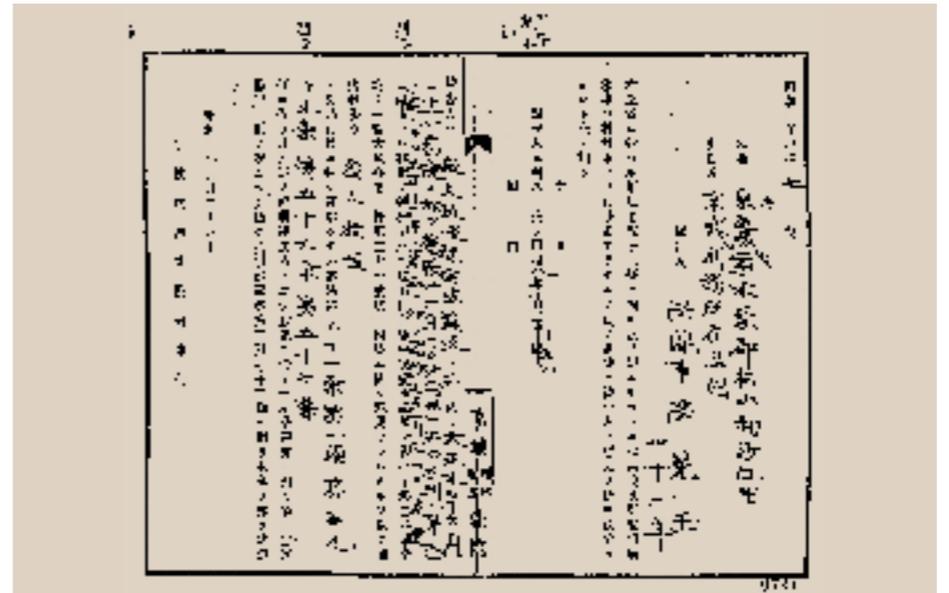
홍면옥 등 3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 판결문(국가기록원 제공)



홍면옥 등 1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지은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 판결문(국가기록원 제공)



홍면옥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1920년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 판결문(국가기록원 제공)



대사령으로 감형된 홍면옥의 1920년 2월 24일 판결문(국가기록원 제공)



송산면 3·1운동 형사소송 기록(국사편찬위원회 제공)

6명만이 신병이 확보되어 1919년 5월 9일 사강경찰관주재소 순사 오오키(大木喜市)는 정균필을 비롯한 6명의 신병을 인치하기에 이른다.⁸ 그리고 5월 21일 수원경찰서장 후루야(古屋清威)는 검사국 검사 기타무라(北村直甫)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5월 26일 기타무라(北村直甫)는 전도선을 비롯한 5명을 경성지방법원에 검사국에 사건이송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요코다(横田義太郎)는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 전도선을 비롯한 6명을 홍면옥 등 29인과 같이 예심 처분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예심청구 요청을 받은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판사 미다(三田村富彌)는 홍면옥을 비롯한 35명에 대한 신문을 거쳐 10월 27일 홍열후, 김진봉, 이성봉을 면소하고 홍면옥을 비롯한 32명은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심종결을 결정하였다.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는 홍면옥을 비롯한 32명에 대해 '소요 보안법 위반 및 살인죄'를 적용하여 28명에게는 유죄, 진순익, 노건우, 이순일, 김병준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유죄 판결을 받은 28명 중 김도정, 김성실, 홍성한, 이정집, 홍태근, 홍복룡을 제외한 22명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그해 5월 31일 경성복심

법원은 홍면옥, 홍준옥, 문상익, 왕광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미결구류 일수 200일을 각 피고 형기에 산입하였다. 이에 홍면옥 등 17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 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경성복심법원에서 선고했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홍면옥은 1924년 1월 26일 은사령에 의해 징역 9년 1월 20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1927년 2월 12일 대사령에 의해 징역 8년 10월 20일로 감형되어 1927년 12월 27일 출옥하였다.⁹

3. 홍면옥과 송산면 향촌 네트워크

송산 지역 3·1운동을 살펴보면 1919년 3월 26~27일 양일간의 시위는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등 평화적으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3월 26일 시위에서는 200여 명의 시위대가 송산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 홍달후와 면서기 5명을 면사무소의 마당으로 끌어내어서 만세를 부르게 하고 자진 해산하는 정도였다.¹⁰ 그 다음 날인 3월 27일 시위에서도 마을을 돌며 만세를 불렀지만 무력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3월 28일 시위에서는 무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 순사를 처단하기까지 하는데, 이때 면서기로 있었던 홍준옥과 문상익까지 가세하여 노구치 고조(野口廣三)를 처단하였다.¹¹

송산 지역 만세운동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격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홍면옥이 일본 순사에게 총격을 입은 사건은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 시위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하지만 시위 군중 중 한 명이 식민지 지배층의 일원에게 총상을 입었다고 해서 피지배 군중이 합심하여 상대를 처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즉자적인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는 저항을 부르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며 피해=저항이라는 일반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송산 3·1운동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여건과 처지, 고유의 관습과 특성 등에 더 주목하여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송산면은 몇 백 년 전부터 남양 홍씨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여 집성촌을 이룬

대표적 지역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나름의 운영방식과 질서체계를 갖추고 향촌사회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전통적인 지역적 조건은 만세운동의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참여한 인적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향촌사회의 전통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일차적 관계인 것이 더욱 확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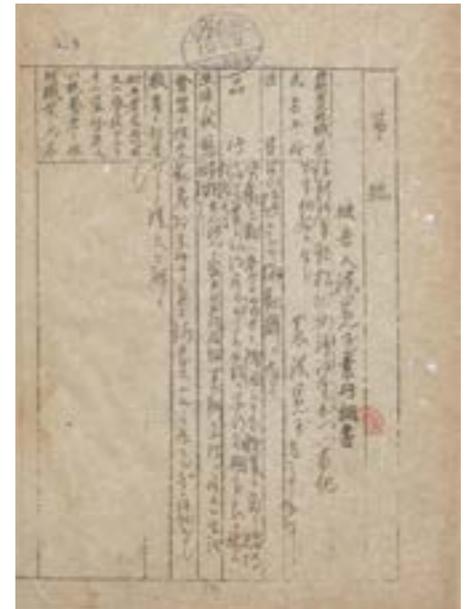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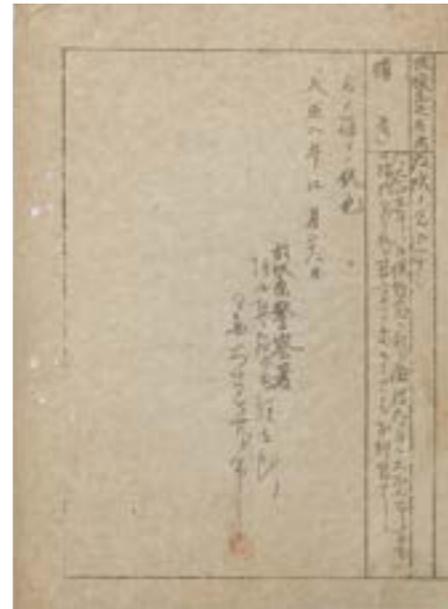
먼저 주도자이다. 홍면옥은 홍효선·이규선·예종구와 함께 3월 26~28일 송산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송산면과 서신면 일대는 남양 홍씨 가운데 토홍계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지역이다. 남양 홍씨 토홍계는 고려 고종 때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을 지낸 홍선행(洪先幸)을 시조로 한다. 홍선행의 9~12대손에서 문희공파(文禧公派)·정효공파(貞孝公派)·참의공파(參議公派)·주부공파(主簿公派)·대호군공파(大護軍公派) 등 5파로 나뉜다. 홍면옥은 남양 홍씨 참의공파 23대손으로, 참의공파의 파조는 이조참의였던 홍한(洪瀚)이다.¹² 홍면옥의 고조부는 홍윤대(洪允大), 증조부 홍영록(洪永祿), 조부 홍남(洪楠)이다. 부친은 홍태원(洪泰元)이며 모친은 연안 김씨이다. 족보상 홍면옥의 자(字)는 홍면옥(洪冕玉)이며 1885년 출생하여 1963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주 이씨와 하동 정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민적부에는 족보상의 기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민적부에 홍면옥의 출생 연도는 1884년 4월 7일생이며, 부친은 홍태원(洪泰元), 모친은 김만수(金萬秀, 1853년생)이다. 부인으로는 정복래(鄭福來, 1883년생)와 김향란(金香蘭, 1886년생) 두 명이 기재되어 있다.¹³ 홍면옥은 부인 정복래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두었고, 김향란과는 3명의 딸을 두었다. 김향란의 부친은 홍면옥이 노구치(野口廣三)에게서 충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닭고기를 부쳐 준 김명제(金命濟, 1863~1926)이다. 출옥 이후 엽일녀를 부인으로 맞아 아들 1명을 두었다. 홍면옥의 형제로는 홍준옥(洪琿玉)이 있다. 홍준옥은 3·1운동 당시 송산면사무소의 면서기였다. 홍준옥은 부친 홍태원의 동생 홍태정(洪泰貞)의 양자로 들어갔다.

예종구는 송산면 마산리 출생으로 한학자로 알려져 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검거망을 피해 인천으로 피신, 인천영화소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으며 귀향 이후 한글·한문·산술을 가르치는 마산리 강습소를 개설, 운영하였다.¹⁴ 예종구는 1924년 독립자금사건으로 사강경찰관주재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¹⁵ 예종구는



홍면옥 민적부(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홍면옥 소행조서(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이창회의 소개로 만난 이대정에게 독립자금 50원을 건내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창회와 이대정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예종구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¹⁶ 이창회는 이대정에게 영흥면 임윤배와 대부면 김완수 그리고 송산면 예종구를 소개시켜 독립자금 모집을 도왔다. 예종구는 해방이 되자 흥면옥과 송산면 인민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 하였다. 흥면옥과 예종구는 3·1운동 이후 서당을 운영할 정도의 학식이 있었던 인물로 지역의 지식인층에 속한다. 홍효선은 고종의 국장에 참여한 후, 서울의 만세소식을 전달하고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한 인물로 흥면옥과 같은 남양 흥씨 참의 공파에 속한다. 이규선은 중송리 출생으로 3·1운동 이후 체포망을 피해 만주로 망명, 1931년 1월 군자금 모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2년형의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¹⁷

흥면옥을 비롯한 주도자금 이외에 송산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은 1,000여 명에 달하고 송산면 일대 20여 개 마을에서 체포된 인원은 총 175명, 훈방 조치된 인물은 1,202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수원군 만세시위사건'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김교창 김도정 김명제 김병준 김성실 김용준 김진봉 노건우 문상익
민용운 박춘흥 안순원 예종구 오광득 왕광연 이규선 이성봉 이순일
이윤식 이정집 임팔룡 전도선 정군필 진순익 차경현 최춘보 흥관후
홍남후 홍대우 흥면옥 홍명선 홍문선 홍복룡 홍성한 홍열후 홍우선
홍준옥 홍태근 홍효선 황철성¹⁸

1차로 검거되어 유치된 인물 29명과 2차로 신병인치 명령을 받아 추가로 체포된 인물 6명, 그리고 미체포된 주도자금 인물 예종구, 홍효선, 이규선 3명, 보복학살된 홍대우, 홍우선 2명 총 40명의 명단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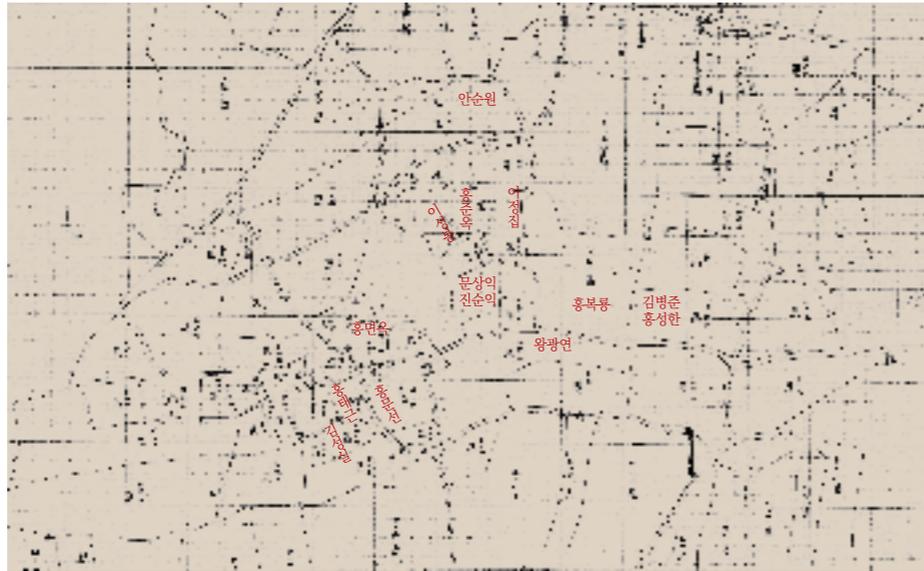
참여자들의 직업을 보면 농업 종사자가 전체 40명 중 31명, 상업 종사자가 9명이다. 거주지로 보면 중송리 1명, 마산리 1명, 삼존리 3명, 육일리 1명, 서신면 1명으로 40명 중 33명이 사강리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흥면옥은 사강리 511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흥면옥의 집 주변에 문상익, 홍문선, 홍태근, 왕광연, 홍복룡, 이정집



〈표 1〉 송산 3·1운동 참여자

번호	이름	이명	생몰년	나이	직업	학력	거주지	훈격	비고
1	김교창(金敎昌)		1889~1959	31	이발업	한문 4~5년	사강리 182	애국장 (1990)	사강리 683
2	김도정(金度貞)		1889~1971	31	농업	한문조금해독	사강리 426	대통령표창 (1992)	
3	김명제(金命濟)	金道鉉 金明濟	1863~1926	57	농업	무학	사강리 423	애국장 (1990)	옥중 순국, 사강리 526
4	김성실(金成實)		1869~1931	51	농업	문맹	사강리 496	대통령표창 (2007)	
5	김용준(金容俊)	金用俊	1881~1936	35	농업	문맹	사강리 686	애국장 (1990)	
6	문상익(文相翊)		1892~1960	27	면서기	남양보흥학교	사강리 526	독립장 (1977)	
7	민용운(閔用云)	閔龍雲 閔龍云	1874~1925	45	농업	문맹	사강리 591	애국장 (1990)	사강리 594
8	박영호(朴永鎬)	朴春興	1899~1994	21	농업	무학문맹	사강리 588	애국장 (1990)	
9	안순원(安順元)		1889~1950	32	농업	문맹	사강리 533	애국장 (1991)	
10	오광득(吳光得)	吳景源 吳京雲	1878~1947	41	농업	한문 1년	사강리 607	애국장 (2004)	
11	왕광연(王光演)	王國臣	1872~1951	47	농업	한글조금해독	사강리 523	독립장 (1977)	
12	이경집(李敬集)	李正執	1873~1943	46	농업	문맹	사강리 530	대통령표창 (2007)	
13	이규선(李奎善)	李貴善	1885~1941	34	농업	-	중송리 365	독립장 (1968)	타사건 순국
14	이윤식(李潤植)	李惜春 李允植	1879~1955	40	농업 식당	한문 1년	사강리 607	애국장 (1995)	
15	임팔룡(林八龍)	林龍甫	1888~1921	32	농업	무학	사강리 647	애국장 (2013)	옥중 순국, 사강리 678
16	정군필(鄭君弼)	鄭元鎔	1883~1973	36	포목상	국문해득	사강리 686	애국장 (1990)	
17	차경현(車敬炫)	車萬澤	1882~1939	37	음식업	한문 2년	사강리 679	애국장 (2011)	
18	최춘보(崔春甫)		1867~1936	53	농업 음식업	문맹	사강리 684	애국장 (2009)	
19	홍관후(洪寬厚)	洪在範	1890~1971	29	농업	문맹	삼존리 235	애국장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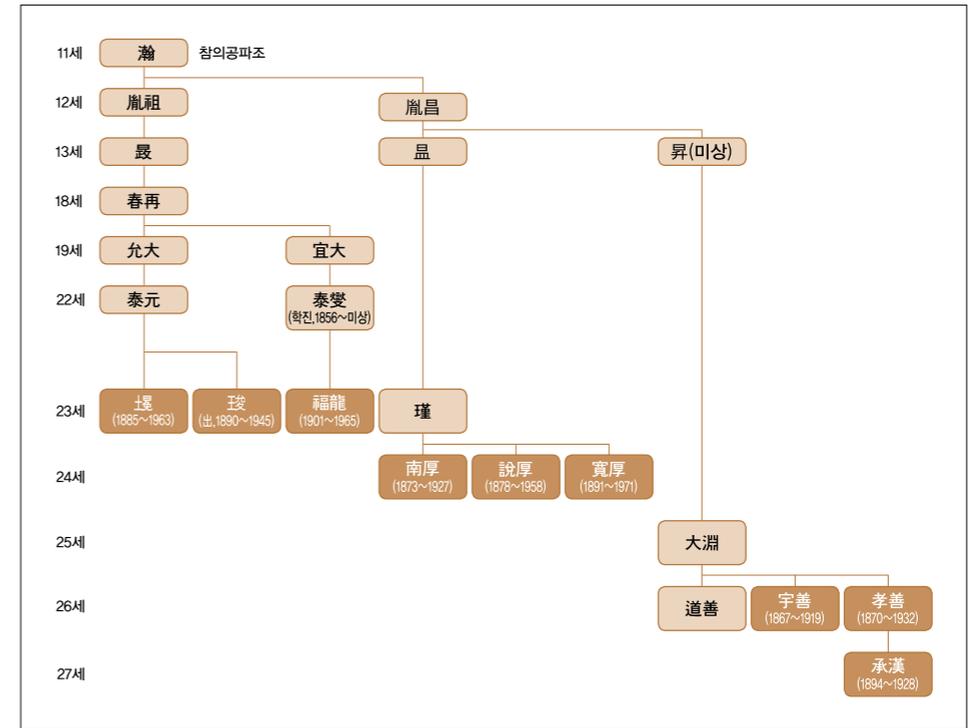
번호	이름	이명	생몰년	나이	직업	학력	거주지	훈격	비고
20	홍남후(洪南厚)		1871~1922	47	농업	한문 6~7년	삼존리 233	애국장 (1990)	
21	홍대우(洪大宇)		1847~1919	72	농업	-	서신면	애국장 (2005)	학살 순국
22	홍명선(洪明善)	洪明先	1900~1974	19	농업	한문 2년	사강리 584	애국장 (1990)	
23	홍복룡(洪福龍)	金奉龍	1901~1965	18	농업	문맹	사강리 543	대통령표창 (2015)	
24	홍승한(洪承漢)	洪聖漢 홍성택	1894~1928	25	농업	한문 1년	사강리 544	건국포장 (2006)	
25	홍우선(洪宇善)		1866~1919	53	농업	-	사강리	애국장 (1991)	학살 순국
26	홍준옥(洪玢玉)		1888~1945	31	면서기	남양사립학교	사강리 530	독립장 (1977)	
27	홍태근(洪泰根)	洪泰建	1860~1935	59	농업	문맹	사강리 498	대통령표창 (2002)	
28	홍효선(洪孝善)		1879~1919	40	농업	문맹	사강리 582	애국장 (1991)	순국
29	홍문선(洪文善)		1890~1959	30	농업	한문 1달	사강리 514	애국장 (2016)	
30	전도선(全道善)		1892~미상	28	잡화상	문맹	사강리	애국장 (2019)	
31	황칠성(黃七成)		1893~미상	26	고기전	언문해득	사강리 651	애국장 (2019)	
32	홍열후(洪說厚)		1878~미상	42	농업	한학	삼존리 230	미서훈	
33	김성우(金成祐)	김진봉	1865~미상	55	농업	문맹	사강리 423	미서훈	
34	이성봉(李聖鳳)		1900~미상	20	농업	언문해득	사강리 529	미서훈	
35	진순익(秦順益)		1871~미상	49	농업	언문해득	사강리 526	미서훈	
36	노건우(盧建愚)	盧敬安 盧謹愚	1886~미상	34	대장간	무학	육일리 474	미서훈	
37	이순일(李舜日)	李順一	1868~미상	52	농업	문맹	사강리 528	미서훈	
38	김병준(金秉俊)	金昌俊	1893~미상	27	상업	문맹	사강리 544	미서훈	
39	예종구(芮鍾九)	예종호	1897~1950	23	농업	한학	마산리 176	미서훈	
40	홍면옥(洪湄玉)		1885~미상	35	농업	한학	사강리 511	미서훈	



1919년 송산면 3·1운동 참여자 중 정도리 거주자



1966년 송산면 사강2리 정도리 마을(화성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남양 홍씨 참의공파 종중원 중 송산 3·1운동 참여자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거주지도 사강리 중에 남양 홍씨 참의공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도리라는 자연마을이다. 정도리는 지금의 사강2리에 해당한다.

한편, 송산 3·1운동 참여자 40명 중 홍씨 성을 가진 인물은 13명이며 이 중 확인되지 않은 1명만 제외하고 12명이 남양 홍씨 참의공파에 속한다. 홍준옥은 홍면옥의 동생이며, 김명제는 홍면옥의 장인이고, 왕광연은 홍면옥의 고모부이다. 문상익은 홍준옥과 호형호제하는 의형제였으며, 문상익의 여동생은 이순일의 부인이다. 이들은 지역적으로는 송산면 사강리에 이웃하고 있었으며, 혈연 또는 혼인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집안’ 또는 ‘한 지역’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였다.

그리고 시위 관계자들의 중첩된 인적 네트워크는 사전에 만세에 대한 공론 형성과

시위대를 조직하고 추동해내는 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인적·혈연적 관계망과 향촌사회라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홍면옥의 총상사건은 식민지배기구의 최말단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는 집단적 행동을 표출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또한 홍면옥은 마을 내부의 전통적 지식인이자 마을의 지도자적인 인물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참여를 독려했을 때, 지역에서 홍면옥이 갖는 지위와 영향력, 집성촌 단위의 향촌 공동체 사회의 강고한 위계적 질서와 혈연적 공동체 의식 등이 결합되어 송산 3·1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 출옥 이후 홍면옥의 행보

송산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홍면옥을 ‘사심 없는 민족주의자’로 기억하고 있다. 어깨에 총상을 입고도 일본인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고 재판정에서 조선의 독립을 당당히 주장하며 옥중 고문도 이겨내던 모습은 지역민들에게 깊이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홍면옥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927년 2월 24일에 징역 8년 10월 20일로 감형되어 1927년 12월 23일 출옥하였다.¹⁹ 출옥 이후 홍면옥은 송산면 육일리에서 대교서당을 운영하면서 정치활동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면옥의 제자들은 지금도 홍면옥을 무서운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다.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그날 배운 것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회초리 째질이 더해졌다.

하지만 대교서당은 학생들에게 한문만 가르치던 곳은 아니었다. 나이가 있는 상급반 아이들에게는 한글을 익히게 하고 태극기, 애국가도 가르쳤다. 대교서당은 홍면옥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자신의 항일정신을 투영해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8·15해방이 되자 홍면옥은 귀작에서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학생들에게 따라 그리게 하고 사강장으로 만세를 부르러 나갔다. 만세를 연호하던 홍면옥을 그의 손자 홍광유



출소 후 홍면옥(마지막 줄 중앙)이 송산면 육일리에 세운 대교서당 1주년 기념사진(화성시청 제공)

는 “생전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대교서당 시절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너댓 명 있고 했는데, 하루는 귀작에서 태극기를 끄내더니 따라 그리라고,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태극기 그리는 법을 알았단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신으로선 그게 바깥으로 흘러 가면은 인제 잡히고 그러니까 그 믿음만한 저기를 데리고 이게 우리나라 국기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걸 봤단니까요.²⁰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가끔 놀러 가요. 한문 공부하던 애들이 여섯 일곱 명 되더라구, 한문을 가르치시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됐다고 좋아서 참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 참 그건 생전 있지도 않아. 껌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태극기를 하나 꺼내서 그리래는 거야. 손수 그리신 태극기인데……²¹

홍면옥은 출옥 이후 마산리의 예종구와 박지명, 김도태, 박종갑 등과 어울렸다.²² 예종구는 홍면옥과 함께 송산 지역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인천으로 도피하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마산강습소와 동명여관을 운영한 인물이다.²³ 박지명은 인민위원회,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에서 홍면옥과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김도태는 1891년생으로 평북 정주군 출신이다. 도쿄 세이소쿠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를 졸업하였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으로 1년 8개월 동안 투옥되었던 인물이다. 1954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와 서울문영여자중학교 교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박종갑은 함경북도 성진 출신으로 사강에서 보성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들은 사강리에 위치한 예종구의 동명여관에서 종종 회합하였다.²⁴

우리 아버지가 사강시장 거기서 여관도 하시고 대서소 같은 것도 하시고 인제 한약방도 하셨는데 맨날 홍면옥 그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서너 명 이서 여관에 모이고 하셨는데 그 위가 바로 경찰, 주재소야. 그러면 거기서 순사가 보고 있다가 여관으로 그분들이 들어가면 또 따라 들어간다고, 그러면 차만 마시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러셨다구.

출옥 이후 홍면옥은 대교서당에서 민족교육을 시행하였고, 동명여관에서 지식인들과 회합하면서 나름대로 활동을 모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멀다 하고 집에 순사가 드나들고 순사가 아버지를 한 번 모시고 가면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정도 경찰서에 계시다가 오시곤 했다.”는 증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일제의 감시를 뚫고 운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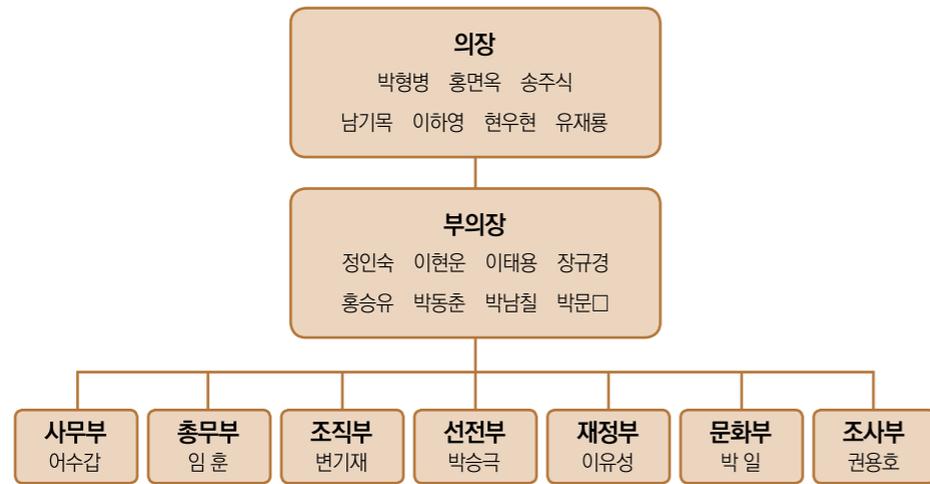
8·15해방은 홍면옥에게 정치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해방이 되던 날 예종구는



경기도인민위원회 산업부장으로 선출된 홍면옥(“신조선보”, 1945년 11월 12일)

사강시장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호는 조선인민공화국이며 대통령은 여운형”이라는 연설을 하였다.²⁵ 예종구의 발언은 홍면옥, 예종구, 박지명 등 지역 인사들이 일제 패망을 대비하여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때문에 홍면옥을 중심으로 송산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재빠르게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었으며, 일제의 항복선언과 동시에 송산면의 행정과 치안을 접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시기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인물들, 즉 송산보통학교 혈서동맹사건²⁶의 주도자인 송한옥을 비롯한 왕항로, 예문준, 이해창, 노홍호, 문장환, 홍균 등 젊은 청년들이 민족의식과 항일 정신이 투철했던 홍면옥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²⁷

한편, 1945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었으며 각 지방의 건국준비위원회도 인민위원회로 속속 전환하였다. 송산면 건국준비위원회도 인민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송산면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면옥은 수원군인민위원회 결성식에 참여하여 이하영, 박지명, 박승극과 함께 의장에 선임되었다.²⁸ 1945년에 이미 69세의 노투사였던 홍면옥은 1945년 12월 23일 수원군인민위원회 주도로 각 읍면 대표 1,500여 명이 개최한 수원군인민위원회 대표대회에 송산면인민위원회



1947년 경기도 민전 조직도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24일에는 수원군 청년대표자대회에 참석하여 청년대표들에게 격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해방공간에서 홍면옥은 송산면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점차 수원군인민위원회로 그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조선인민공화국 부정,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찬반탁 투쟁 등 정국은 혼란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46년 2월 19일 남한의 모든 좌익계 정당 및 사회단체는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을 결성하였다. 수원군과 경기도도 민전 결성식을 거행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민전 수원군위원회 결성식은 1946년 2월 23일 수원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홍면옥은 이하영, 홍면옥, 박승극 등과 함께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다.²⁹ 이어서 민전 경기도위원회도 1946년 2월 26일 청량리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³⁰ 민전에서 홍면옥의 이름이 확인되는 것은 1947년 민전 경기도위원회 2차 대회이다. 홍면옥은 민전 경기도위원회 의장에 박형병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즉 의장에 박형병·홍면옥·송주식·남기목·이하영·현우현·유재룡이, 부의장에 정인숙·이현운·이태용·장규경·홍승유·박동춘·박남칠·박문□이 선출되었다. 또한 사무국장에 어수갑, 총무부장에 임훈, 조직부장에 변기재, 선전

부장에 박승극, 재정부장에 이유성, 문화부장에 박일, 조사부장에 권용호가 선출되었다.³¹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가시화 되자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미소 양국 군대의 즉시 철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 5·10선거가 강행되면서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차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³²

이 회의에서는 선거에 기초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북 대표자들로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남측 대표들은 1948년 8월 21일, 38선을 뚫고 해주에 모였다. 1,080명 중 1,002명이 참가한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는 6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25일 북한 지역 212명, 남한 지역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홍면옥은 남한 지역 360명의 대의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³³ 선출된 대의원들은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홍면옥이 언제쯤 이북으로 건너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홍면옥의 아들 홍진후에 따르면 그의 나이 10살 때쯤 강원도에 가서 약물을 먹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가 떠나셨다고 한다. 당시 남조선 '민전'은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파견할 대표들을 7월 말과 8월 초에 월북하게 하였다. 보통은 강원도 양양을 통해 이북하였는데,³⁴ 양양에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북하는 사람들의 길안내를 맡고 있는 남조선연락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면옥의 아들인 홍진후의 증언,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 등으로 추정해 보면 홍면옥의 월북 시기는 1947년 말부터 1948년 8월 사이로 추정된다.³⁵ 투옥생활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홍면옥은 "강원도 가서 약물을 먹고 온다."는 말로 어린 아들의 마음을 달래고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8·15해방과 함께 송산 지역은 홍면옥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 민전 산하의 좌익 세력들이 광대한 조직을 이루었다. 송산면의 치안과 행정은 홍면옥을 중심으로 한

인민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었다. 1946년 송산면 우익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대한 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 송산지부가 결성되면서 송산면의 좌우익 대립은 본격화 되었다.³⁶ 독촉 송산지부는 1946년 3월에 결성된 독촉 수원지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측면 지원을 받았다. 독촉 송산지부는 손도심과 기승도, 최학렬 전도사, 사강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사강교회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미군정의 좌익세력 탄압이 강력해지자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송산면 독촉 산하의 우익 청년단들은 독촉 수원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좌익 청년들과 실력다툼까지 벌였다.³⁷

박창균(朴昌均)의 증언에 따르면 독촉 수원지부는 좌익의 민전 수원지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홍길선(洪吉善)을 주축으로 1948년 단독정부 수립까지 이른바 '건국' 투쟁을 전개하였다.³⁸ 1946년 6월, 독촉 수원지부는 수원극장에서 개최된 민전 경기도대회를 무산시키고 민전 요인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습격사건을 감행하였다. 당시 독촉 수원지부는 경성의 지원을 받아 1,000여 명의 군중이 운집한 대회장을 습격하여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처럼 수원의 우익 들은 중앙으로부터 송산면은 수원의 지원을 받아 좌익들에 대한 타격활동을 벌이며 '건국'투쟁을 벌여 나갔다.

이러한 혼란한 대치상황은 한동안 지속되어 송산면은 우익과 좌익 청년들의 실력싸움으로 몸살을 앓았다. 1946년 11월 5일 홍면옥을 비롯하여 송산면 지역 민청, 농민조합원들 40여 명이 대대적으로 검거되면서 홍면옥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고 주도권은 점차 우익세력에게 넘어가게 된다.³⁹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좌우익의 대립양상 속에서 홍면옥의 정치적 활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체포와 구금의 반복, 해방공간에서의 좌우익 갈등, 미군정의 인공부정과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의 가시화라는 상황 속에서 홍면옥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조선인민대표자대회 참여하는 것 말고는 극히 제한적 이었을 것이다.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노투사 홍면옥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1932년 홍면옥 출옥 기념사진(화성시청 제공)

5. 나오며

송산면 만세운동은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3·1운동 대의명제에 균열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송산면의 만세운동은 오랜 세월 집적된 지역적 혈연적 관계망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3월 28일 홍면옥의 총상사건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홍면옥의 총상사건은 집성촌이 갖고 있는 혈연적 유대감을 폭발시키고 민족감정이 발현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홍면옥은 남양 홍씨 참의공파 중에서 향렬이 높은 편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한 민족의식과 문제 해결력을 소유한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남양 홍씨 집성촌이 있었던 송산면 일대에서 향렬이 높은 홍면옥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혈연과 지연의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가족이라는 의식이 강한 지역적 조건 속에서 홍면옥이 갖는 위상은 남달랐다. 자신의 환갑잔치에 온 일본 순사를 면전박대하여 내쫓아 버렸던 일화 등에서 왜 마을 주민들이 “홍면옥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는 친일파가 없었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같이 홍면옥을 위대한 스승으로, 진정한 독립투사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당시 문중가의 좌장격인 홍면옥이 갖고 있었던 강고한 성품과 투철한 민족의식 등은 문중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송산면의 만세운동은 홍면옥 개인이 만들어낸 운동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독립 선언서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인물과 연결되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홍면옥과 몇몇 마을의 지식인들이 추동하고 송산면민들의 강고한 유대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전개되었다.

3·1운동 연구에서 남은 과제도 많다. 독립운동 당시의 마을과 지역의 상황, 그 상황 속에 던져졌던,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추동요인, 특히 그네들이 대대손손 뿌리내리며 살아왔던 지역적 혈연적 네트워크에 대한 탐색을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홍면옥의 해방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면옥

이 유지하고 있었던 인적 관계망은 3·1운동을 계기도 더 확장되고 있었다. 출옥 이후의 교우 및 행적을 추적하는 것도 남은 과제이다. 8·15해방이 되던 날, 일제시기 홍면옥과 긴밀하였던 예종구의 사강장 발언을 통해 홍면옥이 추구하였던 정치적 지향점이 일제치하에서는 조국의 독립이란 대의를 추구하였다면 해방을 계기로 장차 수립되어야 할 통일된 민족국가 쪽으로 점차 고민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홍면옥이 사회주의사상을 어느 시기에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출옥 이후에 보여 준 그의 정치적 행보는 치열했던 해방공간의 정치적 지형에서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그의 염원이 점차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1 3·1운동 당시 일제 관련 사망자 숫자는 총 8명으로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 4명, 성천군 성천면 1명, 맹산군 맹산읍 1명, 수원군 장안면, 우정면 1명, 송산면 1명이다.(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민족운동사료 3(3·1운동편 1)』, 1977, 357~443쪽)
- 2 3·1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우정면, 장안면, 송산면, 향남면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전승되고 있는 만세운동은 서울에서의 전파나 조직적 연대라는 측면보다는 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전개되었다는 내용이다. 생활권이나 출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쪽과는 다르다.”는 구분 의식이 뚜렷하다.
- 3 허영란, 「만세시위의 다원적 의미와 지속되는 지역공동체-안성군 3·1운동의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 2019년 9월호 참조.
- 4 마이크로필름에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1~22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민적부, 소행조서 원본이 실려 있다.
- 5 이용창, 「재판 관련 기록으로 본 화성 장안·우정 3·1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집 참조.
- 6 高 第9146號,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29보)」, 『大正8年乃至同10年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共7冊 其7』 참조.
- 7 騷擾事件二關スル件, 『洪冕玉外 31人 保安法違反 騷擾 殺人』(1919년 3월 28일 수원군 송산면 만세시위 및 순사살해사건에 대해 남양경찰관주재소 순사 竹內皆吉이 수원경찰서장에게 올린 보고서) 참조.
- 8 홍면옥과 같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홍효선, 이규선, 예종구는 검거되지 않았으며 신병 확보된 인물은 정군필, 안순원, 전도선, 오광득, 이윤식, 김병준이다.
- 9 『동아일보』 1927년 12월 27일.
- 10 국사편찬위원회, 「홍준옥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1권, 1995, 226쪽 참조.
- 11 문상익은 홍준옥과 둘도 없는 사이로 호형호제하며 의형제를 맺었다고 한다. 문광환 증언(2014년 5월 9일 자택에서).
- 12 홍한(洪瀚)은 무오사화 때 화를 입었다. 그의 증손으로 홍가신(洪可臣)이 있는데, 그는 수원부사, 개성유수,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특히 홍주목사시절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여 정난공신에 책록되었다. 그는 제자백가에 통달하고 시문과 필법에도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손자 홍우정(洪宇定)은 이이첨의 모함으로 8년간 천안에 부쳐되었다가,

- 병자호란으로 국치를 겪은 후 문수산에 은둔하여 영남절사로 불리고, 죽은 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홍우정의 아우 홍우원(洪宇遠)은 숙종 때 이조판서에 올랐으며, 홍우량(洪宇亮)은 청백리에 뽑혔다.(홍승길 증언, 2015년 10월 8일, 자택)
- 13 족보에는 홍면옥의 첫 번째 부인으로 전주 이씨가 기재되어 있지만 민적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후손들도 전주 이씨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
- 14 예문택 증언(2013년 5월 23일, 자택).
- 15 「芮鍾浩 證人 訊問 調書(1924년 10월 16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 16 이창희는 남양교회 목사로 재직하였으며 1923년 고려공산당 선전원 이대정과 공모하여 공산당 선전비 모집을 하다 검거되어 처벌되었다. 1924년 경성지방법원에서 공산당 선전 자금 모집 때문에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이대정은 고려공산당원으로 독립자금모금 관계로 체포되어 4년간 청진감옥·경성감옥·원산감옥에서 복역하고 1923년 1월 13일 만기 출옥 하였다.(『동아일보』 1923년 1월 17일)
- 17 이규선은 3·1운동 이후 체포망을 피해 만주로 망명, 1931년 1월 군자금 모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31년 1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판결을 받고 복역 중 1941년 사망하였다.
- 18 예종구과 홍효선은 3·1운동 당시에는 체포되지 않았으며, 이규선은 체포대상자 명단에도 누락되어 있다. 이규선이 체포자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점은 의문이다.
- 19 『동아일보』 1927년 12월 27일.
- 20 홍진후 구술(2013년 7월 6일, 자택).
- 21 홍광유 구술(2013년 5월 23일, 자택).
- 22 홍면옥이 출옥 이후 어울렸던 박지명·김도태·박종갑 각 인물에 대한 행적과 홍면옥과 교우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
- 23 홍면옥은 신문 과정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홍효선·예종구를 들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2권, 1996, 77~79쪽 참조.
- 24 홍면옥이나 예종구 모두 한 달에 서너 번은 주재소에 끌려 다녔다고 한다.(예문택 증언, 2013년 5월 23일, 자택; 홍진후 증언, 2013년 7월 6일, 자택)
- 25 홍사옹 증언(2013년 12월 17일, 자택). 예종구가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이 지난 9월 6일을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 된다.

- 26 김정권 증언(2015년 10월 7일, 자택)
- 27 문광환 증언(2014년 5월 9일, 자택); 유지면 증언(2014년 10월 5일, 자택); 홍사웅 증언(2013년 12월 17일, 자택).
- 28 『자유신문』 1946년 2월 25일.
- 29 『자유신문』 1946년 3월 3일.
- 30 『자유신문』 1946년 2월 28일.
- 31 『민중신보』 1947년 3월 21일.
- 32 2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는 남한에서 5·10선거가 강행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일정에 오른 조건에서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회의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뒤이어 본회의는 7월 2~5일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보고를 통해 새롭게 '전변된 정세'에 대응하여 보다 결정적인 구국대책으로서 전 조선적인 최고정권기관을 수립할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시헌법을 시행할 것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선거에 기초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북 대표자들로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8월 25일 북한 측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남한 측 대의원은 이중선거의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북한 최고정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도진순, 1993, 「1945~48年 右翼의 動向과 民族統一政府 樹立 運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 33 선출된 대의원 명단에는 박승극의 이름도 확인된다.(북한노획문서 RG242, SA2009 1, #145,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중요문헌집』, 1948;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1, 돌베개, 531쪽)
- 34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342~343쪽 참조.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가 해주에서 열린 이유는 해주가 남로당의 실질적 지휘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35 김시중 선생은 1947년 말 남로당 군당 조직은 거의 월북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김시중, 「남로당지방당 조직 어떻게 와해되었나」, 『역사비평』 1989년 봄호)
- 36 최학렬과 기승도 등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송산지부를 주도하였다. 최학렬은 사강감리교회 장로, 대한청년단, 대한촉성회 간부, 소방대간부를 역임하였다.(김진형, 『사강교회 95년사』, 1997)
- 37 문광환 증언(2015년 6월 4일, 자택).

- 38 박창균은 1923년생으로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수원지부 역전단부(驛前團部) 총무부장을 지냈다.(『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1, 수원시, 170쪽)
- 39 『자유신문』 1946년 1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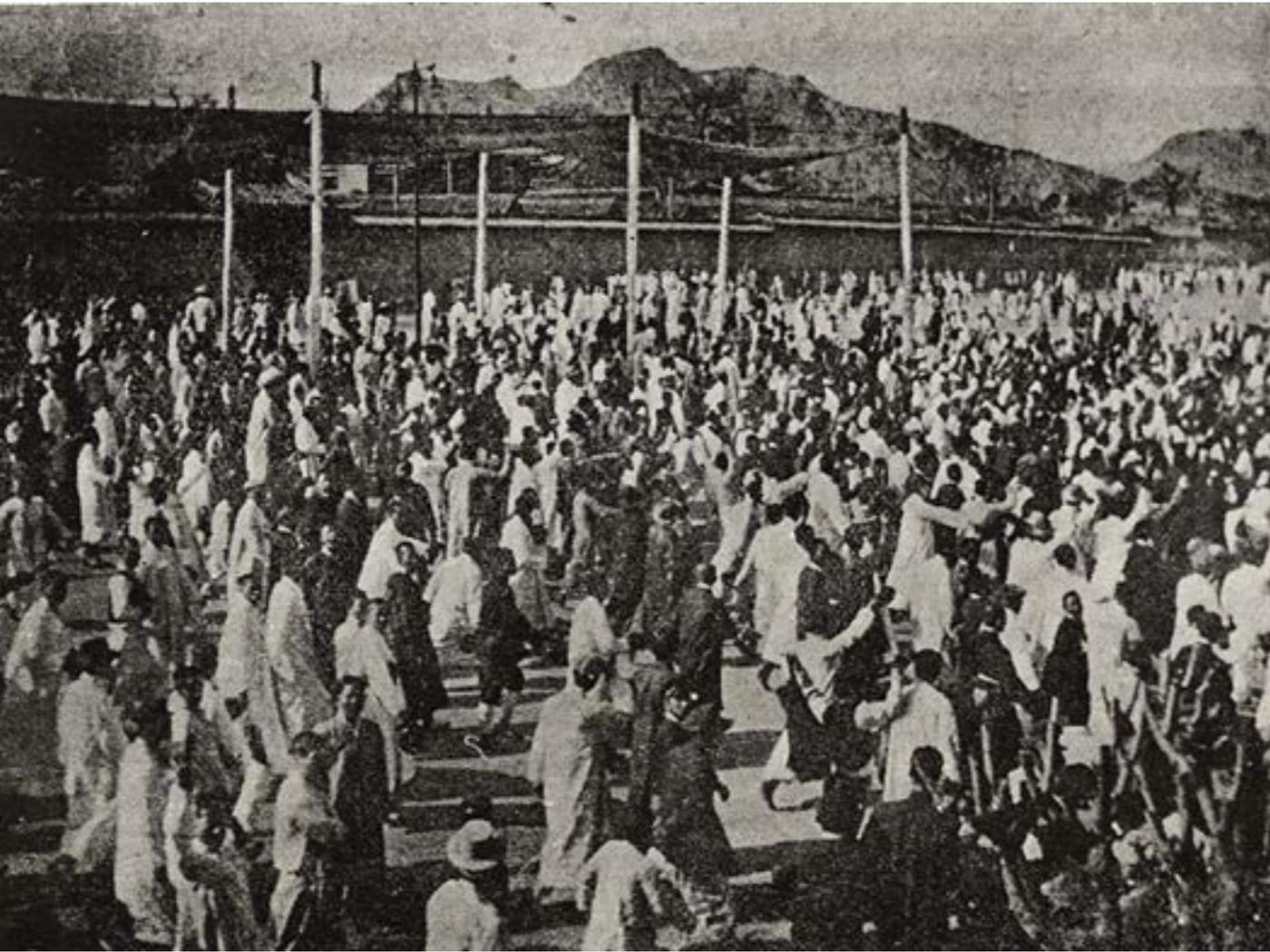
제암리사건을 통해 본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한계와 잔혹성

1. 들어가며

3·1운동은 2019년에 100주년을 맞았다. 이 100년간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격변을 겪었고 제국주의 일본도 1945년 패전 후에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전후에 때로는 동아시아 도약의 파트너로, 때로는 라이벌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한일관계는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남긴 여러 문제점들을 청산하지 못하였다.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재판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냉각된 한일관계가 3·1운동 100주년의 현실이다. 이는 단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한국 역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인식이나 대일정책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의 정치적 변동에 따른 역사 인식의 차이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당당한 반론을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다.

3·1운동 100주년은 기념해야 할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식민지시기와 독립운동, 해방 후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어떠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은 3·1운동과 5·4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다양한 행사와 연구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국사에서 '3·1운동'은 그만큼 많이 연구된 주제도 없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상황과



경성부청(오늘날 서울시청)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Red Cross Pamphlet March 1st Movement*)

학계 분위기에 따라 연구 주제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최근의 연구 동향은 운동 주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새로운 사료 발굴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 한편, 일본 학계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학회가 특집 지면을 마련하였다.² 연구의 관점 역시 국제정치와 변화, 민족자결주의 영향, 일본의 식민지 무단통치 비판 등 다양해졌다. 일본 학계는 단지 한일관계를 벗어나 당시의 국제정치와 국제관계, 동아시아 정세 등 넓은 시야에서 고찰하려고 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3·1운동의 의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3·1운동은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후 헌병 경찰의 탄압, 토지정리사업 등의 경제적 핍박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저항에 대한 좌절 때문에 많은 동포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였다. 3·1운동의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민족자결주의 제창 등 국제사회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축적된 가운데 1919년 1월 고종 황제의 사망이 촉발제가 되었다. 도쿄에서 먼저 일어난 2·8독립선언의 영향,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의 연대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3·1운동은 일시적인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간도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 재미 독립운동에까지 영향을 확장해 갔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수행해 갔던 것이다. 3·1운동은 단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윌슨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14개조 평화원칙’ 선언이 그 본래의 의도와 달리 식민지 민중에게 희망을 주었던 점,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잔혹성이 비판을 받았던 점, 이후 5·4운동 등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운동과 세계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1919년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로, 3·1운동이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도 당시의 조선총독뿐만 아니라 역대 조선총독부 및 총독들의 조선 통치 방침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식민지 관제의 개정이나 식민지 총독의 무관 전임제에 대한 개정 요청은 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1919년 3~4월 수원군 만세시위 현황

10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성과들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사료의 발굴과 분석을 통한 사실 검증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운동 주체들의 기록이나 논설이 적다는 점, 둘째, 3·1운동 탄압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 셋째, 3·1운동에 대한 기록 대부분이 식민지 통치 자료에 의지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3·1운동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잔혹한 사례로서 언급되는 제암리사건³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제암리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사, 운동사, 지역사, 교회사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사실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⁴ 물론 당시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과 그 탄압 사례 중에서 제암리 사건만이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제암리사건은 외국에까지 알려져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 지배와 탄압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제암리사건의 발단이 되는 부대를 왜 일본에서 증파시켰고, 어떠한 규모로 파견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암리사건의 내용과 어떻게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군부에 의해 이루어진 제암리사건 책임자에 대한 은폐 공작과 처벌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암리사건에 관한 기본적 사료를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일본 수상의 일기인 『하라 다카시 일기(原敬日記)』, 조선군사령관의 일기인 『우츠노미야 다로 일기(宇都宮太郎日記)』를 기본사료로 분석하며, 당시 육군대신의 전기인 『다나카 기이치 전기(田中義一伝記)』, 사법관료의 일기인 『구라토미 유자부로 일기(倉富勇三郎日記)』 등의 사료와 비교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수집 자료인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 각 사료의 사망자와 피해 가옥 숫자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료 분석을 통해 아직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제암리사건의 실상에 최대한 가까이 가고자 한다.

2. 3·1운동 경과와 임시조선파견보병대대 증파

3·1운동은 고종 황제 승하를 계기로 발발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사전에 준비 운동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았고 일본 측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각지에서 진압에 나섰다. 그런데 제암리사건은 일본에서 증파된 군대에 의해 자행되었으므로 기존의 조선군⁵에 일본에서 추가로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는 3월 1일 오후에 “경성의 학생 2,000~3,000명이 1일 오후 3시경 대한문 앞에 집합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등 형세가 불온하여 보병 3중대와 기병 1소대를 파견⁶에 “조선 경성에서 학생 등을 비롯한 2,000~3,000명이 조선독립을 위하여 집합하였으며” “도쿄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어 히비야(日比谷)에서 집합하려 하여 해산을 명한 일이 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3월 11일에 각의를 열어 3·1운동에 대해 조선총독에게 훈령할 내용으로, “이번 소요사건은 안팎으로는 표면상 경미한 문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엄중한 처치를 취하여 장래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그 처치에 대해서는 외국인인 가장 주목하는 문제이므로 자칫 잔혹가찰(殘酷苛察)하다는 비평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⁷고 결정하였다. 즉, 안팎으로는 3·1운동이 대수롭지 않은 사건인 것처럼 처리하되, 실제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책으로는 신문 등 언론을 단속할 것을 내무대신에게 지시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보기에 “잔혹하다는 비평을 얻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할 것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3월 11일에 조선군사령관은 총독에게 병력 사용을 요청하였으며, 총독은 “조선군사령관은 필요한 병력을 사용하여 진압을 피하도록 하라.”⁸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조선군사령관이 군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정세마저도 불온하다는 보고가 들어오면서, 3월 23일에



탐골공원 근처에서 만세시위자들을 진압 중인 일본 군인들(Red cross pamphlet March 1st Movement)

보병 40여단장인 우치노 다쓰지로(内野辰次郎) 소장은 조선군사령관에게 관구 안의 병력 부족을 호소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상황을 내각에 설명하기 위하여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県伊三郎) 정무총감을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그를 통해 증병 필요성 여부를 3월 31일 조선총독부에 타진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군사령관이 총독과 논의하여 4월 2일에 총독 이름으로 보병 약 5~6대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내용은 “현재 병력만으로도 소요는 진정시킬 수 있지만 충분한 병력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평정하는 효과를 얻고, 당분간 조선인들을 위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⁹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충분한 병력을 통한 조선인에 대한 위압’으로서 즉, 군대 증파는 단순히 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시위에 위압을 가하여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선교사업은 어떤 부대를 조선에 파견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는데, 4월 2일에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육군대신은 “만주에서 교대하고 귀환하는 병사를 조선으로 파견



1910년대 보병 제79연대에 속했던 수원수비대(수원박물관 제공)

하는 것¹⁰을 제안하였다.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증병과 헌병 파견을 요청하였다. 결국 4월 4일, 정부는 일본에서 별도로 조선에 군사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병 6대대, 기병을 유용한 보조 헌병 300명에서 400명을 파견¹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6대대라 하지만 인원을 일본의 보병연대의 통상 편성보다 많게 하는 이른바 ‘고정원(高定員)’으로 정하였다.

우쓰노미야 조선군사령관은 증파부대가 일본의 각 항구를 출발하였다는 전보를 받자 각 대대의 배치계획을 세웠다. 증파되는 6대대 중 1대대를 제19사단장 휘하에 배치하여 본래 있던 보병 5대대(보병 1대대, 기병 2소대, 공병 1중대는 남부 우수리(烏蘇里)에 파견)와 합쳐, 보병 6대대와 특과병(特科兵) 대부분을 원산 이북의 함경



1919년 3월 12일 조선군배치도(김광만 제공)

남북도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20사단에 휘하에 배치하는 나머지 5개 대대 중 3개 대대를 경성에 대기시키고, 5대대로 평안남북도를, 8대대로 경기도와 강원도 이남을 경비시키며 보조 헌병은 전부 헌병대사령관 영하에 넣는다¹²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수정하여 배치한 내용을 4월 11일에 육군대신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본군 병력 증파와 조선군 배치 상황¹³

부대 파견과 구성	지휘	배치
제2사단 보병 제32연대의 1대대	제19사단장	원산 부근(대대 본부 원산)
제5사단 보병 제71연대의 1대대	보병 제39여단장	황해도(대대 본부 사리원)
제8사단 보병 제5연대의 1대대	제20사단장	보병 제79연대장
제9사단 보병 제36연대의 1대대		보병 제79연대장
제10사단 보병 제10연대의 1대대		보병 제77연대장
제13사단 보병 제16연대의 1대대		보병 제80연대장
		보병 제80연대장
		강원도 북부(대대 본부 춘천)
		강원도 남부 및 충청북도(대대 본부 충주)
		평안북도 남부(대대 본부 정주)
		전라남북도 방면(대대 본부 광주)

제2사단에서 파견된 보병 제32부대의 1대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20사단장 예하로 편제되었으며 기존 조선군 배치지역 160여 곳 이외 500여 곳으로 분산 배치되어, 약 140여 개소에 출동하였다.¹⁴

증파부대 파견 결정 단계에서는 해외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되도록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하여 병사들을 각 항구에서 나누어 출발¹⁵ 시키기로 하였지만, 4월 8일 각의에서 육군대신은 군대를 조선에 증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자고 제안하였다. 나중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대한 군대 증파가 단순한 토벌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일부 불령의 무리가 폭행을 가하여 양민이 안도하지 못하므로 양민 보호를 위하여 6개 대대와 보조헌병 400명을 증파”¹⁶한다는 취지로 각의에서 발표문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육군대신은 “조선소요 진압의 필요상 6개 대대의 병력을 증파”하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19년 4월 12일 군대분산배치예정요도(김광만 제공)
조선군사령부에서 작성한 군대배치예정도로, 임시조선파견보병대대의 관할예정도이다. 이들은 원산, 조치원과 수원, 평강, 사리원, 평양, 이리와 송정, 나주에 각각 배치되어 만세운동 확산을 차단하고 기본에 있던 일제 군경의 경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소요 초기에는 단순히 시가지에서 단순한 시위운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기관만으로 가능한 한 온건한 수단을 취하여 주모자를 체포하고 군중을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에 나섰으나 최근 들어 드디어 흉포한 위험성을 띠기에 이르렀고 또한 그 개소도 여러 곳으로 증대되어 지금 소요는 전도로 파급되어 (중략) 이러한 때 군대의 행동이 지나치게 신중하여 광일미구(曠日彌久)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폭민에게 세를 조장시킬 뿐 아니라 러시아 과격파와 관계있는 조선인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점점 소요를 크게 하여 양민을 안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여기서 빨리 군대를 증파하여 신속(神速)하게 소요를 진압함으로써 그 업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아 공표하며 군대를 증파하는 것이다.¹⁷

즉, 군대 증파의 명분은 소요 초기의 단순한 시위가 점차 폭력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이러한 때 군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 소요가 더욱 확대될 터이므로 양민을 안도시키기 위해 군대 파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민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 운동이 더 확대되기 전에 '군대를 이용한 강경 진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설득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들 임시조선파견보병대대는 4월 10일을 전후로 하여 조선에 상륙하였는데, <표 1>과 같이 배치되자마자 일어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제암리학살사건이다. 그러나 군대의 강경 진압에도 소요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우쓰노미야 조선군사령관은 5월 2일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참모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3·1운동 진압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소요도 표면적으로는 진정되어 가고 있으나 이면의 인심은 더욱 험악하여 한 치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략) 무장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소요만큼 성가신 적은 없으며, 양민이 곧 적이고, 적이 곧 양민이라는 상황이어서 힘들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군대도 극도로 분산시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502개소로 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사관 이하의 지휘로 소부대를 분산시키는 것은 경비상의

허점 외에도 군기, 풍기의 이완이나 질병 등 걱정해야 할 일투성이며, 이후는 사령부원이나 대대장 이상의 순시와 감독을 엄밀히 하여 이 결점을 보완함과 더불어 사정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빨리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로 정리하고 싶어서 고심하는 중입니다.¹⁸

5월 1일에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육군대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도 거의 이와 유사하다.

오늘의 소강상태는 병력 위압의 결과로서 근본적인 처치가 아니며, (중략) 군대는 현재 500여 개소로 산둔(散屯), 경비를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서 평온한 날이 계속되면 되는 만큼, 두려워해야 할 일면의 적은 경비상의 방심과 군기풍기의 이완과 질병입니다.¹⁹

5월에 이르러 3·1운동의 시위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오히려 임시조선파견보병대대가 하사관 이하가 지휘하는 작은 단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군기나 풍기 문란 등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암리사건 이후 정계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대의 기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했을 것이다.

조선군의 분산 배치는 6월 10일경 '치안 안정'에 따라 장교 지휘부대로 재통합되었으며 8월에 들어 280여 개소로 축소되었다가 8월 21일에는 중대 단위의 집결 명령이 내려졌다. 조선에 상주시킬 2개 사단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당시의 파병에서 이들 임시파견조선보병대대의 병력은 본래 2개 사단 편성이 완료 되었을 때 보충되어야 할 병력 수와 일치하였다. 즉, 일제는 3·1운동을 빌미로 원래 예정된 병력을 당겨서 운용하였으며 실제로 임시조선파견 보병대대는 조선군의 병력으로 편입되어 군축 분위기를 역행하는 '고정원' 편제를 구성하는 단초를 제공²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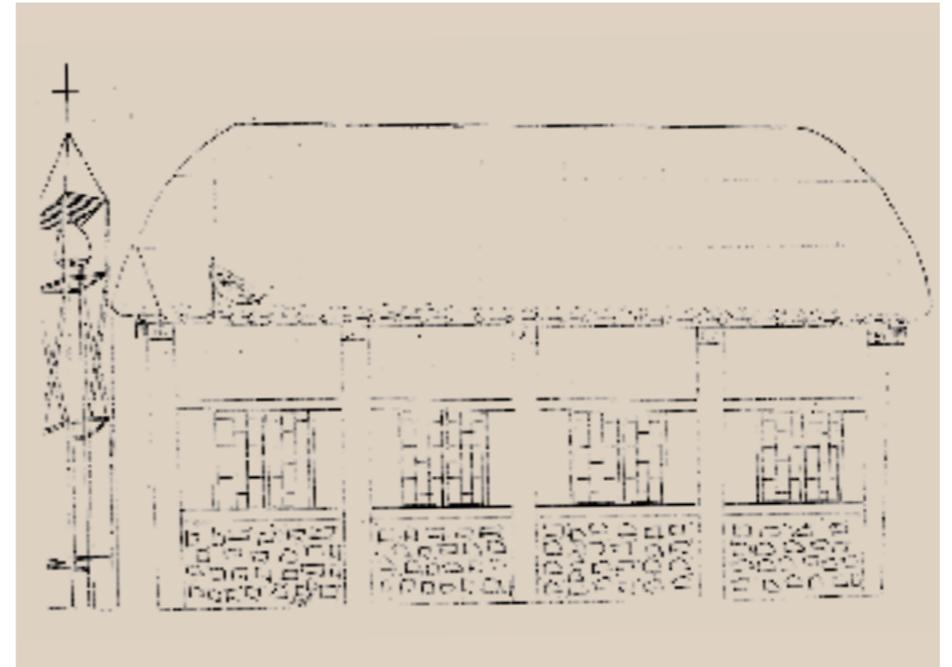
3. 제암리사건의 해외 보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그 결과 국제연맹이 탄생했을 때 미국 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은 미국도 먼로주의를 버리고 국제연맹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 윌슨을 비판하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일제의 3·1운동 탄압이었다. 의회는 윌슨대통령이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을 희생시켜서 산둥(山東) 반도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부당한 조약을 독일이 받아들일도록 한 것을 비난하면서, “일본은 산둥을 식민지로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것은 한국의 3·1운동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히 가혹한 것이다. 윌슨은 이처럼 가혹한 식민 지배를 중국 본토에까지 시도하려는 일본과 타협하였다. 일본을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의 조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²¹라고 일제의 3·1운동 탄압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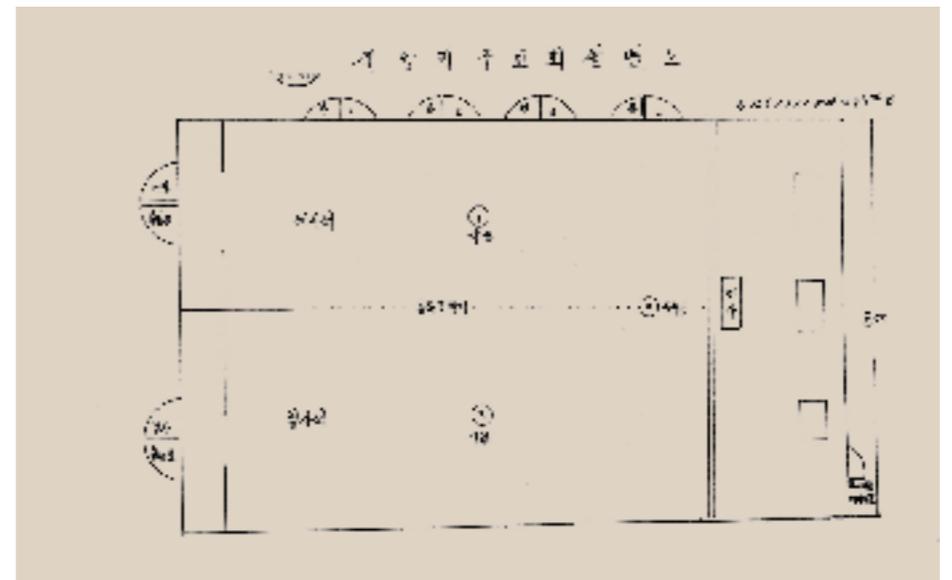
그렇다면 미국사회에 ‘일본의 가혹한 식민 지배’의 이미지를 안겨 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제암리사건이다. 사실 조선군과 경찰이 3·1운동을 진압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양민을 학살한 것은 제암리에서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제암리사건이 일제의 3·1운동 탄압의 잔혹한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의 보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19년 4월 20일자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재조(在朝) 외국인은 총 1만 9,110명으로서 그 가운데 중국인이 1만 7,967명을 차지하고 그 외 외국인은 1,143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 선교사가 약 400명(남성 약 260명, 여성 약 140명)으로 추산되었다.²²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제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인들에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주입시키는 것을 경계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른바 ‘비행(非行)’ 교사(教唆)와 선동 등에 대한 기사를 공개할 것을 정부총감에게 중용하고,²³ 대구에서 일어난 기독교여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에서 학교 관계 미국 부인이 동행하고 있는 점²⁴에도 주목하였다.



전동례 할머니의 고증으로 그려진 제암리사건 당시 제암리교회(「제암리 구교회 고증자료」)



전동례 할머니의 고증으로 그려진 제암리사건 당시 제암리교회(「제암리 구교회 고증자료」)



미국 총영사관 영사 커티스(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 *La corée Libre* (자유한국), 1920)

제암리사건은 3월 31일에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에서 약 1,000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투석, 습격을 가하여 경관 및 보병이 발포하면서 군중을 해산시킨 일이 발단이 되어 지원을 위하여 보병 제79연대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가 발안리 수비를 명받고 4월 13일에 도착²⁵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리타는 발안리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인접하는 제암리의 천도교도 및 기독교도에 의한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조사할 목적으로 4월 15일 오후에 순사 2명,

순사보 1명 및 병사 10여 명을 이끌고 제암리에 나타났다.

제암리사건이 외국 언론에 널리 알려진 것은 *The New York Times* 4월 28일자 보도에 의한 것이다. 이 기사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독립운동 탄압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서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²⁶ 씨가 4월 16일 경기도 수원부 내의 팔탄면(八灘面, Pal Tan) 소재 상가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 기술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언더우드와 미국 총영사관 영사 커티스(Raymond Curtis), AP통신 경성 특파원 테일러(A. W. Taylor) 일행은 중국인 운전사와 함께 언더우드의 차로 마을이 전멸되었다는 수원군 장안면 수촌동(水村洞)에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도중에 발안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근처에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전날 제암리가 일본군에게 전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언더우드 일행은 제암리로 향했으며, 도중 주재소 앞에서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일본어가 능통한 커티스가 명함을 내밀고 화재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단지 작은 소란이 있었고 지금은 진정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들이 좀 더 구경해 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순사 한 사람을 인력거꾼에게로 보내 일행은 인력거를 타고 제암리로 출발하였다.



폐허가 된 마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본 헌병과 외국인(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L'indépendance de la Corée et la Paix*(한국의 독립과 평화), 1919) 자료에 따라 외국인을 기자 또는 선교사라고 다르게 기재하고 있다.

우리의 짐작으로도 이곳이 한국인들이 말하던 바 40여 가구가 살았다는 그 마을이었다. 너댓 집은 멀쩡하게 서 있었고, 그 나머지는 아직도 여기 저기에서 불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연기가 올라오는 쯤더미였다. 마을 위 언덕 위에서는 아낙네, 어린 아이 그리고 노인네들이 이런 말문이 막히는 재난의 현장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우리는 그 마을 전체를 돌아보았다. 마을 위쪽에서 어느 젊은이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심하게 불탄 채 어느 건물밖에 내다버려져 있었다. 그 자리는 교회가 있던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이 시신의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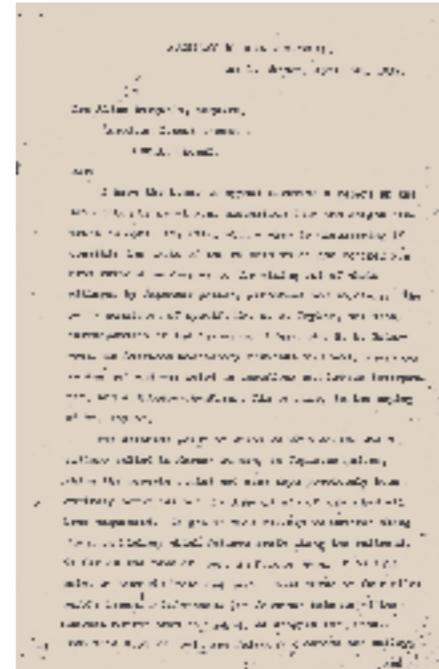
(마을 사람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자, 어제 이맘때쯤이라고 했다.(오후 2시)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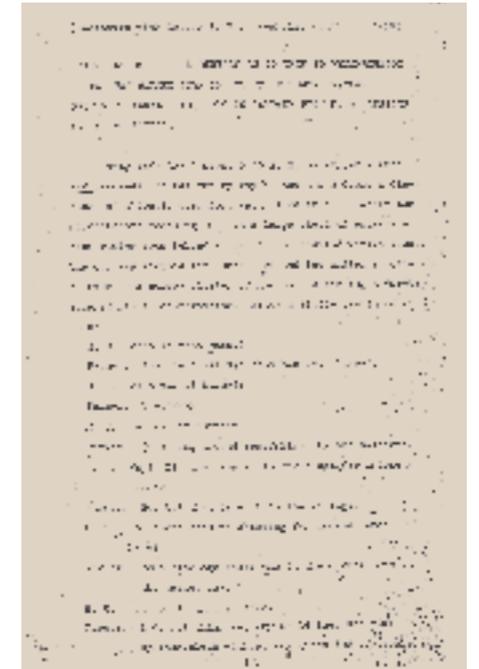
폐허가 된 제암리(독립기념관 제공)



제암리 희생자 유족(독립기념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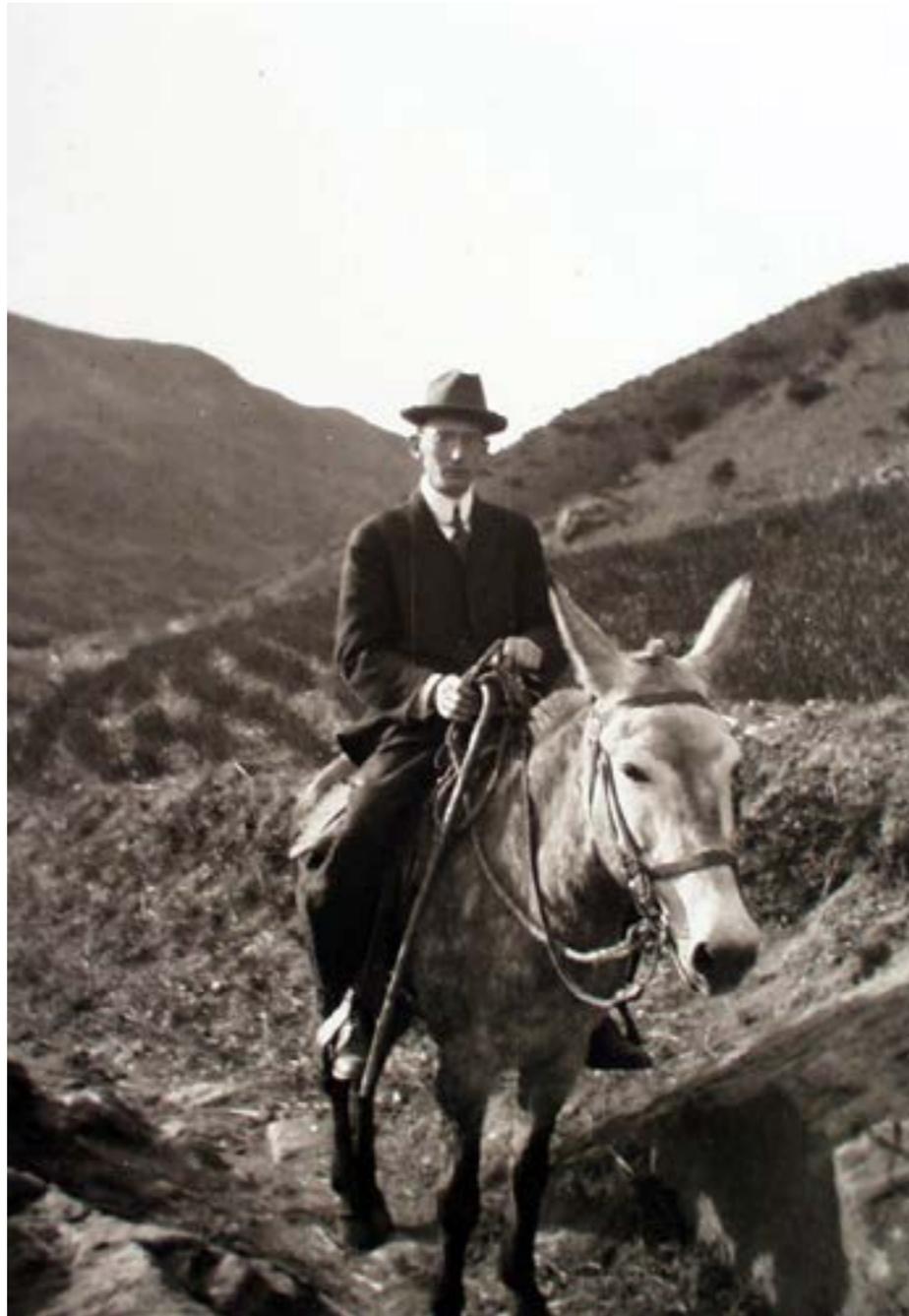
미국 총영사관 커티스 영사의 1919년 4월 21일 보고서(국회도서관 제공)



커티스 보고서에 첨부된 1919년 4월 16일 언더우드 박사의 진술(국회도서관 제공)

언더우드는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살해당한 사람들 숫자를 30명 정도라고 기술하였다. 그들은 본래 목적이었던 수촌리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현지를 시찰한 커티스 영사는 언더우드의 보고서와 4월 21일자 자신의 보고서를 경성의 미국 총영사 버그홀츠(Leo Berghorz)에게 제공했고, 버그홀츠는 다음 날 두 사람의 보고서와 함께 제암리에서 37명의 기독교도가 일본군에게 참살되었다고 본국에 알렸다.²⁸ 며칠 후 경성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도 현지조사를 행했기 때문에 제암리 사건은 외교 라인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4월 17일에 “일본군이 기독교인들을 교회에 가둔 뒤 집중 사격하여 모두 부상을 입히거나 죽였고, 그 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기 위해 교회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스킵필드(Frank W. Schofield)²⁹ 박사는 이 끔찍한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다음 날 수원행 기차를 타고 가서 경찰의 저지를 피해 자전거를



일제의 제암리·수춘리 주민 학살만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스코필드(독립기념관 제공)

THE MASSACRE OF CHAI-SU-WI.

REPORT OF JOINT APPOINTED COMMITTEE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in suppressing the Korean Nationalists.
(Investigated by Dr. Frank W. Schofield.)

Ever sinc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y the Korean people on March 1st, 1919, the local government has used methods of extreme severity and cruelty in dealing with the nationalists. The acts of the police and soldiers became progressively more atrocious, culminating in the massacre at Chai-su-wi mentioned in this report. These methods which consisted of threatening, arresting, beating, torturing, bayoneting, shooting, and burning alive have proved to be most successful from the government standpoint as quiet and order have apparently been restored.

Warfare may not be abated again for fifty years, but Korea must, except perhaps at some state function when the lips but not the heart may wear the empty word. The object has been to terrorize the people, and this has been achieved as completely by the Japanese police and soldiers in Korea as it was by the Poles in Bulgaria. In both cases the results have been the same, a corpse only covering a violent temper that a great destroyer the body and soul of the one who has to thus restrain it.

THE MASSACRE OF CHAI-SU-WI, SUHUN.

On Thursday, April 17th, news was brought to Seoul by certain foreigners that a most terrible tragedy had occurred in a small village named Su Wi (17 miles South of Suwon). The story was that a number of Christians had been shut up in a church, then fired upon by the soldiers and when all were either wounded or dead the church had been set on fire, in the end resulting their complete destruction. Such a story seemed almost too terrible to be true, and being of such a serious nature I was determined to verify it by a personal visit. On the following day I took train to Suwon and from there cycled to within a few miles of the village. A police station and gendarmerie lying on the side of the village, and knowing the strenuous objections that would be made to my visit, I made a detour of several miles over a mountain pass and thus gained access to the afflicted village.

Before entering I questioned many people as to the reported burning of the church, but none had any very accurate information, and all were very much afraid to speak about the affair. I finally met a boy who lived in the village where the massacre had occurred, but he absolutely refused to tell me anything. He professed ignorance. Fearfulness was bearing its fruit. The people were almost paralyzed with fear.

Making a sharp turn in the road I went suddenly into the village and to my surprise found a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military and civil, holding an investigation. After a conversation with some of these officials I was allowed to further look over the village and take such photographs as I desired. From Suwon I could get practically no information. They seemed to be deaf and stupid, especially the women, while the younger men pretended ignorance of any detail.

THE VILLAGE.

The appearance of the village was one of absolute desolation. About eight houses remained, the rest (31st) with the church had all been hurled to the ground. All that remained were the great stone jars of pills, chang and odols, these stood in perfect order amidst the ruins. The people were scattered about, sitting on mats, or straw, some had already improvised little shelters on the adjoining hillsides, there they sat in silence, looking down in bewilderment at the remains of their heavy homes. What had they done that this terrible judgment should overtake them? Why should they suddenly be made widows and their little ones become orphaned? Surely, some mistake had been made.

제암리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잔혹행위에 관한 스코필드의 보고서(독립기념관 제공)

타고 마을로 들어갔다.

4월 15일 화요일 이른 오후, 일단의 일본군이 마을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강연을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성인 남성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에게 모두 교회로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총 23여 명의 남성이 교회 건물로 들어가서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해 하였다. 교회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은 일본군이 즉시 교회 건물을 포위하고 창호지를 통해 집중사격을 시작하자 곧 그 계획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 안에 있던 주민들이 대부분 죽거나 부상당하자 그 악마 같은 일본군들은 교회 건물에 불을 질렀고, 목재 건물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했지만 일본군은 이들을 모두 총검으로 찔러 죽이거나 총살하였다. 교회 건물 밖에서 발견된 여섯 구의 시신은 모두 불타는 교회 건물에서 뛰쳐나오다가 살해당한 이들의 시신이였다. 교회로 모이라는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인 두 명은 총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교회로 달려갔다. 그리고 둘 다 일본군을 헤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 중 한 명은 19살 된 여성으로 총검에 찔려 죽었고, 다른 한 명은 50세 이상 된 여성으로 총살당했다. 두 여성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그 뒤 일본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떠났다.³⁰

스코필드의 보고서는 학살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교회에 모인 남성 23명과 총소리에 달려간 부인 2명까지 사망자는 25명이 된다.

언더우드 및 미국 총영사관 보고와 스코필드 보고서에는 그들이 찍은 사진이 첨부되었으며, 불타 버린 교회와 시체들의 모습이 생생히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기 때문에 제암리사건은 잔혹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적 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다만, 당시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사망자와 화재 피해 가옥의 숫자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대략적인 숫자가 제시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제암리사건에 대해서는 제8대 가톨릭 조선교구장 귀스타브 뫼텔 주교³¹도 4월 18일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3시경에 갈루아 씨가 (중략) 커티어(Curtier) 씨의 청이라고 하면서 오늘 저녁 8시에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리는 적십자사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이 모임에서 수원 부근에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 불태워진 마을들의 불행한 조선인들을 돕기 위한 적절한 방법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략)

데암리(수원)는 불태워졌다고 하는 15개 마을 중 하나이다. 그곳에 감리교 예배당이 하나 있었다. 군인들이 그곳으로 사람들을 소집하고 사람들이 모이자 그들에게 총을 쏘고 예배당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모두가 화염 속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잔인하게 당했다. 커티어 씨는 수요일 현장에 가서 사진들을 찍었다. 로이드(Royds) 씨도 내일 아침에 그곳으로 간다. 일본인들을 경멸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십자에서 도울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만일 총독부에서 이의가 없다면 잔인한 오합지졸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싶다고 하며 총독부와 교섭하는 일이 문제이다. 이에 즉석에서 데이비슨(Davidson) 씨, 플래장 씨, 노블(Noble) 목사 3명을 대표로 지명했다. 그들은 우사미 씨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할 책임을 맡기로 했다.³²

제암리의 피해에 대해 적십자사 모임에서 구호품과 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관과 교섭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월 30일 미국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모임에서 위원회 측에서 우사미 등 조선총독부 관계자를 통해 구호품을 배분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고하고 식기, 수저, 냄비 등 일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물품들을 나눠 주는 것을 논의하였다.³³

뫼텔 주교는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자주 참가하였다. 그는 3·1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인들이 오랫동안 상점 철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선동자들의 위협' 때문이라는 일본 측 설명을 듣고, "진짜

이유가 그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같은 계속된 시위가 깊은 감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³⁴고 보는 등 일본인의 시각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개신교와 천도교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반면, 가톨릭은 교단 차원에서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관계자로부터 “우리 신부들과 신자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데 대해 치하”³⁵를 받거나 “가톨릭 신자들이 소요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³⁶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가톨릭교회가 신자들의 명단과 연령 등의 통계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적도 있었으나, 그것은 “그 지방에서 수가 많고 소란을 일으키는 천도교 측”과 천주교를 혼동하여 일어난 일³⁷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총영사관과 적십자사가 주도하는 제암리 구호활동에 3·1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나 종교의 차이, 국적의 차이를 넘어서 외국인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조선총독부를 통해 사후처리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제암리사건 은폐·축소공작과 선교사들의 동향

우쓰노미야 조선군사령관은 4월 15일에 발생한 제암리사건에 대해, 4월 18일 밤에 조선총독을 방문하여 아리타 중위가 수원군 발안장터 부근 제암리에서 “그 마을의 기독교도, 천도교도 30여 명을 기독교회당 안에 모아서 두세 가지 질문을 한 후에 32명을 죽이고, 그 교회 및 민가 20여 채를 불태워 버린 학살사건의 진상”³⁸을 들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4월 16일 오후 10시 발신, 17일 오전 7시 25분 착신 조선군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 사건을 보고한 바 있다. 그 내용은 “경기도 수원군 발안장터에서 15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약 400명이 모여 소동을 일으켰으나 일단 해산시켰다. 그런데 기독교도가 폭행하였으므로 군대가 협력하여 진압하였다. 폭민 사망 32, 부상 약간, 이때 불이 나서 가옥 28채가 소실되었다(천도교 회당 및 기독교회당을 포함).”라고 보고하면서 “미국 레데이 몬데스, 칸스 외 2명은 16일 오후 2시경 자동차로 발안장터 지점의 현장을 시찰

하였다.”³⁹는 사실을 덧붙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치 발안장터에서 시위 군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와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는 점, 앞에서 인용한 외교관과 선교사의 본국 보고와 비교해서 사망자 숫자와 화재 피해 가옥 숫자가 정확하게 제시된 점이다. 사상자와 피해 정도가 컸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이 보고가 사건 당일인 15일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현장을 시찰한 16일에 이뤄진 것을 볼 때, 사건 자체 보다는 외국인의 동향과 국제여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2시경 자동차로 발안장터 지점의 현장을 시찰”한 것은 언더우드 일행이었는데, “미국 레데이 몬데스, 칸스 외 2명”으로 보고된 것은 일본 병사나 경찰이 외국인 이름을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제암리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를 비롯하여 죠히지 고로(淨法寺五郎) 조선군 제20사단장, 오노 도요시(大野豊四) 조선군 참모장, 야마모토 쓰루이치(山本鶴一) 조선군 참모, 고지마 소지로(児島惣次郎) 조선헌병대사령관 겸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등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것은 4월 18일 밤이었다. 논의한 결과, “사실을 사실로서 처분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독필을 휘두르는 외국인 등에게 학살과 방화를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제국의 입장은 매우 불리해지며, 한편으로는 조선 안의 폭민을 증가시키고 더욱이 진압에 종사하고 있는 장졸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불리함 때문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학살과 방화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⁴⁰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19일 오전에 조선군사령관이 총독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우쓰노미야 조선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총독

정무총감이 배석한 가운데 제암리사건에 대해 결정된 사항과 그 이유 등을 설명하고, 총독부 각 기관에서도 제암리사건에 관한 답변 등에 동일한 보조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여 총독과 정무총감도 승인하였다. 그런데 오후에 총독은 우쓰노미야 사령관을 다시 불러서 이미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일부는 사실로 인정하여 행정처분하자고 말하였다. 조선총독부 각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군 사령관은 18일 밤의 결론대로 학살과

방화를 모두 부인하는 것을 관찰시키려 하였으나, 총독은 행정처분을 주장하였다. 그날 밤 다시 관련자들이 모여서 숙의한 결과 학살과 방화는 부인하되, 진압 방법과 수단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30일간의 증근신을 명하는 것⁴¹으로 일단락짓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조선군 내부에서 학살과 방화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다가 조선총독의 주장으로 행정처분만은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하세가와 총독이 일본 당국에 제암리사건을 처음 언급한 것은 4월 17일 척식국장관 고가 렌조(古賀廉造)에 대한 보고에서였다.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야소교회당에 흉도(兇徒) 약 30명이 집합하여 불온한 상황이어서 해산을 명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폭행하였다. 경관수비병과 협력하여 발포하여 해산시켰다. 이때 실화(失火)가 있어 소실가옥 18(그 중 야소교회당 1, 천도교 1을 포함) 발포 및 실화에 의하여 죽은 사람은 약 30, 부상 한두 명을 내었다.⁴²

그런데 조선군과 조선총독이 사건에 대해 입을 맞춘 후에 하세가와 총독이 4월 22일자로 하라 수상과 척식국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제암리 기독교회당에 기독교, 천도교 양 교도 약 25명을 모아 심문과 훈계를 했을 때 교도 등이 반항하여 거의 전부를 사살하고 불을 질렀는데 강풍에 의해 28호를 소실시킨 일이 있다.”고 전하며, “유감스럽게도 이 일은 포악한 일이며 방화도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공인한다면 군대 및 경찰의 위신에 관하여 진압상 불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대응도 있으므로 방화는 모두 검거의 혼란한 틈에 생긴 실화(失火)라고 인정하고 당사자는 그 수단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지휘관을 행정처분에 부치기로 하였다.”⁴³고 보고하였다. ‘제암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을 의식하여 사건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제암리사건에 대한 가장 자세한 보고는 4월 24일 조선헌병대사령관 겸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고지마가 사건을 조사하여 전말을 별지로 보고한 ‘제암리 소요사건에 관한 보고’⁴⁴이다. 이 내용은 아리타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전반부에서 발안장터에서 일어난 소요가 “관공서를 파괴, 소각하고 순사를 학살하고 그 시신을 능욕”하는 등 일본인들의 피해가 크고 민심의 공포와 분노, 원성이 큰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아리타 중위는 그 지방(발안장터-필자) 소요의 근원이 제암리의 천도교도 및 기독교도라고 듣고 그들을 검색, 위압할 목적으로 부하 11명을 이끌고 4월 15일 오후 3시 반에 발안을 출발하여 순사 및 순사보와 동행하여 도중에 폭민이 도망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사에 병(兵) 2명을 붙여 소대 주력의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였다. 제암리에 도착하자 순사보에게 천도교도 및 기독교도 20여 명을 교회당에 집합시키고 지난 번 소요 및 장래의 각오에 관하여 두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 사이에 1명이 도망치려 하여 그것을 막자 다른 1명과 함께 달려들었으므로 즉시 이들을 베어 죽였다. 이 광경을 본 조선인 전부가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그 일부는 나뭇조각 또는 의자 등으로 반항해 오므로 즉시 나가 병졸에게 사격을

명하여 거의 전부를 사살하기에 이르렀다. 이 혼란 중에 서쪽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폭풍(暴風) 때문에 즉시 교회당에 옮겨 붙어 결국은 20여 호가 소실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리타가 병사를 둘로 나누어 지역민의 피난 및 가재 도구 운반을 돕게 했다는 것을 덧붙이면서, “요컨대 아리타 중위의 행동은 지나치게 강렬했다는 것을 면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실정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듯하다.”라고 옹호하였다. 결국 교회에서 조선인들을 사살하게 된 것은 도망치려는 조선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폭력적 태도를 보여서 전부 죽이지 않을 수 없었고, 화재는 이웃집에서 난 불이 강풍 때문에 옮겨 붙은 데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아리타의 학살은 의도되지 않은 것이 된다.

하라 수상은 제암리사건을 일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일본 정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특히 외국 선교사들의 수상에 대한 항의 방문이 빈번해졌다. 5월 15일 재조선 미국 선교사 웰치(Herbert Welch)⁴⁵ 감독(bishop)은 다음 날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라 수상을 방문하였다. 그는 조선군벌 정치의 가찰(苛察), 순사 헌병의 불법 및 각지에서의 기독교도 압박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 및 교육 차별을 항의하였다. 하라 수상은 선교사업에서 결코 기독교도들을 압박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본래 조선에 대해 여러 가지 개혁을 할 생각이었는데 실행하기 전에 이번 소동이 일어난 게 유감스럽다. 이 때문에 개혁이 지연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소요로 불량한 일이 발생하여 병사를 증원하여 보냈으며, 그것은 조선 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조선에 대한 개혁이란 문관 총독을 임용을 위한 총독부관제 개정 등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선에서 소요가 발생한 이상 진압을 위해 군대를 파병하였으며, 식민지제도 개혁은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서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라 수상은 “이번 일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인민과 총독부 사이의 오해도 있고, 이번 일처럼 생각지 않은 일도 일어나므로 결코 정부의 취지가 아니라고”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이 선교사는 본래 우리나라에 동정적인 사람인데 이번 일에는 군벌의 조치를

보고 실망한 것이다.”⁴⁶라고 일본에 호의적인 선교사가 3·1운동 탄압과 조선 지배 정책에 대해 비판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튿날인 5월 16일에도 재조선 선교사 3명(Erdman, Whittemore, Hold chorft)이 하라를 방문하였다. 하라는 자신이 조선에 세 번이나 가서 그 사정을 잘 안다⁴⁷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조선을 노예시하지 않는다.”⁴⁸고 강조하였다. 5월 19일에 오사카(大阪) 재조 미국기독교청년회 시베리아군대 위문부 글리선(George Gleason)의 수상 방문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조선군벌정치의 가혹함과 순사와 헌병의 가혹한 탄압을 비판하고, 나아가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언급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에 호의적인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에 하라 수상도 당혹감을 느꼈다. 하라 수상은 자신의 일기에는 제암리사건에 관해 기록하지 않았지만, 전 귀족원의원이자 사법 관료 출신인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가 ‘수원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변명도 할 수 없다.”⁴⁹고 말하였다. 제암리사건의 진압 수단과 방법이 명백한 잘못이었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한 셈이다.

4월 18일에 제암리에서 현장조사를 한 스코필드는 8월 29일에 하라 수상을 만났다. 하라는 일기에 “조선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을 말하므로 나는 금후의 방침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만, 그는 아무래도 조선은 자치를 허락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만, 나는 그 설에 반대하는 논리를 설파하였으며, 내가 우선 앞으로의 일을 기다려 보자고 말하자 그는 납득하고 돌아갔다.”⁵⁰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라는 스코필드를 만나기 전에 비서관과 “조선에 있는 선교사는 소동을 선동하고 있음이 틀림없고, 그 가까운 원인은 육군 군인 등이 전시(戰時) 독일을 칭찬하는 데 대해 불쾌하기 여기기 때문”이라는 대화를 나누었다. 즉, 하라 수상은 조선의 독립 운동 배후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교사(敎唆)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5. 제암리사건 관련자 처벌 및 지휘관 책임문제

제암리사건은 외국 선교사 및 외교관을 통해 본국에 보고되고 국제사회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지만 사건에 대한 배상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변호사인 우자와 후사 아키(鵜澤總明)는 조선에서의 소요 진압수단이 난폭하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수원에서의 살인과 방화 등의 선후 처분으로 가옥 건축대금 약간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교회 건축비로 1,500엔을 주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는 아무리 보아도 졸렬하다.”⁵¹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제암리 부흥문제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자 처벌문제였다. 제암리 사건에 대해 선교사들이 연명으로 항의하였을 때, 하세가와 총독은 부대 책임자였던 중위가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더우드는 “우리는 그 처벌이라는 것이 그를 현재의 지위에서는 물러나게 만들고 어딘가의 더 높은 지위로 승진시켰다는 의미가 아닌지를 알고 싶다.”⁵²라고 말했지만, 그의 우려대로 일본 당국은 아리타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었다.

조선군 내부의 합의로 이미 30일간의 중근신 처분이 결정된 제암리사건 지휘관인 아리타에 대해 이시다 시칸(石田氏幹) 군법무부장관은 7월 2일 제암리사건에 대하여 오노 등과 경무총감부에서 협의⁵³한 후 7월 14일에 군법회의 회부를 결정⁵⁴하였다. 이에 대해 우쓰노미야 사령관 및 육군성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는 일단 심문을 통해 사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8월 21일의 조선군 용산군법회의 판결은 아리타에게 무죄를 언도하였다. 여기서는 유죄인가, 무죄인가보다는 판결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법회의는 시위운동이 격화되어 경찰관, 면사무소, 내지인 가옥을 습격하고 살상, 방화, 파괴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피고는 이를 진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폭동 진압에 관한 조선군사령관 훈시 및 보병 제40여단장의 명령을 피고가 자신의 소신에 의거하여 토비(土匪) 토벌로 오해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보았다. 판결문은 “피고의 행위는 훈시 명령을 오해한 데서 나온 정당한 폭동 진압의 임무”

로서 “피고는 임무수행상 필요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여 ‘과실에 의한 범죄’⁵⁵를 저질렀으므로 무죄라고 언도하였다. 즉, 당시의 격화된 시위 운동을 토비(土匪) 토벌로 오해한 아리타의 행위는 지나친 진압이었지만 ‘임무수행상 필요한 수단’을 ‘과실에 의해 저지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논리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리타 등의 살인, 방화가 아니라 “경찰관, 면사무소, 내지인 가옥을 습격하고 살상, 방화, 파괴하는 등의 토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조선인들의 시위운동일 터이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서 제암리사건의 개요를 어떻게 언급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피고는 발안리 이서(以西)의 인후부(咽喉部)인 제암리 및 고주리(古洲里)의 폭도 중 가장 악성인자라고 인정되는 기독교, 천도교의 두 교도를 소탕하여 그 근거를 없으려고 결심하여 같은 달(4월-필자) 15일 오후 3시경 부하인 하사졸 11명을 이끌고 제암리 및 고주리에 도착하였다. 그곳의 기독교회당 및 부근의 원야(原野)에 제암리에 사는 교도 16세 이상, 58세 이하의 남자 21명, 고주리의 교도인 18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6명을 불러 모아 부하에 명하여 그들을 사살 또는 척살(刺殺)시켰으며, 그 중 1명은 피고 자신이 베어 죽였다. 또한 우연히 부근에 있던 교도의 처 여자 1명이 피고 등의 행동을 보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면서 반항하는 뜻을 보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면 화근을 없앨 수 없다고 확신하여 피고 자신이 찢러 죽였다. 또한 부하에게 명하여 교도가 설립한 기독교회당 및 천도교회당이라고 보이는 민가 및 교도의 집 한 채에 방화하자, 교도 이외의 가옥에도 옮겨 붙어 마침내 27호를 태우게 되었다. 더욱이 1명의 부녀자가 유탄을 맞고 다음 날인 26일에 절명하였다.

이 판결문에서 제암리 외에 고주리의 지명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암·고주리학살사건’ 희생자는 제암리 30여 명, 고주리 40여 명을 추산하지만 고주리를 특정하여 언급한 문서는 이 판결문이 유일하며,

判決書
廣島縣豊田郡吉名村二百二十五番屋敷
志次郎孫
步兵第七十九聯隊附
陸軍步兵中尉從七位 有田俊夫
明治三十四年二月廿三日
右ノ者ハ對人殺及放火被告事件審理ノ違
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被告俊夫ハ無罪トス
理由
被告ハ大正八年四月十二日京畿道水原郡發安
里附近ニ於ケル暴動鎮壓ノ命ヲ受ケ翌十二日下
士以下十名ヲ引率シテ同地ニ赴キテ暴動ヲ一掃
シテ翌日同年二月初旬以來京城ヲ中心トシテ一
部ノ朝鮮人朝鮮各地ニ於テ朝鮮ノ獨立ヲ囑ヘテ暴
動ヲ警察官憲兵和兵等ヲ殺リ以テ之ヲ鎮定セ
ンコトヲ努メタルモ其ノ目的ヲ果サス及テ漸ク
長民ヲ煽動シ又ハ之ヲ脅迫シ處々大集團ヲ
爲シテ獨立萬歲ヲ呼號シ或ハ示威運動ヲ爲
セルニナラス警察官 西事務所又ハ内地人ノ家
屋ヲ襲ヒ且殺傷放火破壞等ノ暴行及ヒ以テ

被告ハ兇事態ノ容易ナラザルヲ察シテアハ
適前揚發安里ヘノ出動ヲ命セラレタルニナリ而シ
テ被告ノ同地ニ到着スル前後ニ五テ被告ノ所知スル
所ニ據リハ附近一帶ノ地方ハ他ノ地方ニ比シテハ
一層險惡ニシテ上流社會界ニ取極致及天邊
致徒ハ常ニ暴動ノ中心ト爲ラザル京城及他ノ方
面ニ在リ首魁等ト連絡シ二月中旬以降ハ面長
區長等ハ他一般人民ヲ煽動成ハ脅迫シ民衆ハ隨
處暴行隨處ニ出沒シテ莫ク狀不穩ヲ極メ同月二十
ハリハ水原府沙江里ニ於テ數百名ノ群衆數箇所ニ
蜂起シ暴行隨處ニ出沒シテ獨止萬歲ヲ呼號
シ且警察官駐在所ヲ破壞シ逃走ヲ誘致シ同
二十日ハ同郡島山ニ於テ約八百名ノ群衆警察官
駐在所ヲ襲ヒ警察官ヲ逮捕セシメ警察官
若ク脅迫シ同駐在所ニ面事務所ヲ便所及内地
人ノ家屋ヲ破壞シ又ハ同地停車場ヲ襲ハントス
ル途中守備兵及警察官協力ニ依リ漸ク解散
レ同月二十日ハ發安里ノ市場ニ於テ約三千名ノ群
衆獨立萬歲ヲ呼號シ守備隊ノ兵器使用ニ依リ
漸ク解散シ四月一日ハ同地小學校會堂放火シ
附近ノ山上ニ在リ群衆之ニ應ジテ萬歲ヲ呼號シ翌
二日ハ在リ四圍ノ山上八十餘箇所ニ篝火ヲ焚キ以テ

8월 21일 조선군 용산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보병 제79연대 중위 아리타 도시오 판결문(독립기념관 제공)

제암리 21명, 고주리 6명, 부녀자 2명 등 피해자를 총 29명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조선군의 총지휘자인 우쓰노미야 조선군사령관은 “지난 4월 15일 수원군 제암리에서 발생한 사건(보병 제79연대 중위 아리타 도시오가 기독교도, 천도교도 20여 명을 그 지역 기독교회당에 모아 살육한 사건)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7월 4일자로 육군대신 앞으로 진퇴품의서(進退伺い書)⁵⁶를 제출하였다. 우선 여기서 피해자 숫자가 우쓰노미야가 최초로 언급한 32명에서 ‘20여 명’으로 축소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의 진퇴품의는 “이번 소요 진압을 담당하여 제암리사건 등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은 필경 부하 장졸 통솔 지도가 제대로 되지 못한 데 있으므로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삼가 진퇴의 뜻을 여쭙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우쓰노미야는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도쿄로 출발하는 조선총독부 무관 무라타 시노(村田信乃) 소장편에 다나카 육군대신 앞으로 보내는 친전서(親展書)를 밀봉하여 보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저에게 상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방팔방에 대해 좋지 않습니다.”⁵⁷라는 내용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진퇴품의를 제출하였지만 현재 상황에서 조선군사령관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아리타의 무죄 판결 후인 8월 30일에 우쓰노미야의 진퇴품의는 각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쓰노미야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제암리사건 관련 죠히지 제20사단장, 우치노 여단장, 오노 군참모장, 도미즈카 데이이치로(富塚貞一郎) 연대장의 진퇴품의를 모두 돌려주고⁵⁸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결국 제암리사건과 관련하여 조선군에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영자신문 *Seoul Press*⁵⁹는 뒤늦게 4월 30일에 ‘The Suwon Incident’라는 제목으로 제암리사건 관련 기사를 실고, “불행히도 수원사건을 담당할 부대는 현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처벌을 받고 모범을 보였을 때, 우리는 유사한 성격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⁶⁰라고 결론을 맺었다. 그런데 결국 아리타 중위를 비롯한 관계자 전원이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일본은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by the foreign missionaries, and defended them from many false accusations laid against them. He hoped his conferees would be very careful in the publication of news items concerning them. This address was appreciated by the journalists present.

The Suwon Incident.

[April 30]

A Tokyo telegram to the *Asahi* quotes a statement made by the military authorities with regard to the recent trouble in Chosen. According to the telegram, the authorities say that the disturbances have now been quelled. In coping with them the use of military force was avoided as far as possible, and was resorted to only as the last measure. Troops were strictly instructed not to commit excesses. A certain company of troops, however, was found to have acted rather harshly at some villages near Suwon on April 15, while engaged in restoring order. This was done because of resistance offered, but as the commander and men of the company went beyond

the limit of their duty in discharging it, they were subjected to disciplinary measures.

We have heard much about the incident in Suwon District referred to in the above quotation.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troops acted there not "rather harshly," but very harshly. We have no idea of detaching and justifying their serious blunder, but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rioters in Suwon District were guilty of some very serious crimes. Not only did they set fire to a Japanese school building, destroyed police stations, and killed two Japanese police officers. One of the unfortunate officers was killed in a brutal manner, fifty-one wounds being found in his body. These acts of the rioters naturally embittered the feeling of the troops sent to suppress them and so the very deplorable incident referred to occurred. Nevertheles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troops made a terrible mistake in acting as they did. Their duty was only to suppress rioting, arrest the guilty, and restore order. But, besides discharging their proper duty, they did what they had no right to do—namely, punish the rioters. We do not know to what disciplinary

한편, 3·1운동이 일어난 후 일본 안에서도 조선 통치와 총독의 책임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전개되었다. 우선 어떤 점에서 조선총독의 책임이 거론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자.

4월 16일 궁내대신 하타노 요시나오(波多野敬直)와 구라토미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데라우치가 조선의 일을 듣고 매우 분개하고 있다고 하자, 하타노는 “데라우치는 조선인을 위압하고 있을 뿐 처음부터 그들이 가까이 복종하도록 하는 수단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일은 선동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데 지나지 않는다. 데라우치의 통치도 그 원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세가와에 이르러서는 인민을 어루만질 생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내가 이번 소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반드시 한층 더 위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자, 하타노도 그래서 안 된다고 하였다. 지난번에 하라는 “종래의 통치방법은 적당하지 않지만 당장은 군대라도 보내서 한번은 이를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다. 장래의 통치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⁶¹

이들은 역대 총독인 데라우치와 하세가와의 위압 통치가 결국은 3·1운동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적인 위압만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평하였다. 즉, 총독의 통치방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라 수상이 종래의 통치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요가 발생한 이상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해야 하며, 그 다음에 통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양척식회사 총재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는 회사 일을 빙자하여 조선을 시찰하고 돌아왔는데, 4월 2일 하라 수상을 만나 조선에서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문관들은 3·1운동을 총독과 총독부가 실정(失政)을 한 결과라고 은근히 고소하게 생각하였는데, 이유는 천도교의 유력자를 이용하려다 반대로 이들이 총독 측을 정탐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고 조선인들의 어떤

제암리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사(*Seoul Press* 1919년 4월 30일)

움직임을 며칠 전에 알아차리고도 아무 대응도 안 했다는 것⁶²이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하세가와 총독의 정책 실패와 대응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내용이다.

한편, 3월 29일 조선 상황을 정부에 직접 보고하러 간 야마가타 이사부로 정무총감은 “원인이야 어떻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총독의 잘못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⁶³라고 지적하면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원수에게 결국은 총독 무관제의 문제점으로 귀착된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하세가와 총독의 책임이라면, 정무총감인 이사부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6월 10일 하라 수상을 만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데리우치 총독이 기독교 선교사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인 데 반해 하세가와는 이 점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아들인 이사부로 정무총감의 책임⁶⁴도 언급한 것은 이런 논리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세가와 총독은 제암리사건을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직후인 4월 24일자로 진퇴품의를 제출하였다. 하라 수상은 이를 5월 2일 각의에서 발표한 후 이튿날 천황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하라 수상은 당분간은 하세가와에게 조선총독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조선의 상황을 평정하게 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진퇴품의를 각하시키고, 조선 통치에 대한 개혁은 일단 조선 상황이 평온해진 다음에 하겠다고 천황에게 주상⁶⁵하였다. 즉, 3·1운동에 대해 하세가와 총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총독 지위에 동요가 있어서는 대 조선정책에 장애가 되므로”⁶⁶ 표면상으로 하세가와 총독의 진퇴품의를 각하시켜서 책임을 묻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세가와 총독의 진퇴품의를 각하한 배경에는 사건 수습과 선후처리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 외에도, “내외에 사건을 경미하게 취급하므로 총독 경질은 시기에 안 맞으며, 여유를 가지고 관제개혁을 기하여 경질하는 게 맞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의 관제개혁이 난항⁶⁷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 총독 경질문제가 시간을 끄는 가운데 하세가와 총독이 사임을 전제로

일본으로 귀국한 것은 7월에 이르러서였다.

그런데 총독 경질에 대해 가장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의외로 하세가와 총독과는 파벌적으로 대립하면서 총독의 미온적인 3·1운동 대응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던 우쓰노미야 조선군사령관이었다. 우쓰노미야의 기본 생각은 “지금 수뇌부를 바꾸는 것은 시기가 아니므로, (총독은) 내년엔 왕세자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는 참고 유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하세가와 총독의 사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처음부터 취임을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취임시키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사표도 만류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총독의 오늘날의 입장은 동정을 금할 수 없다.”며 분개하였다.

결국 하세가와와의 진퇴품의는 공식적으로 반려되었고, 7월 10일 하세가와가 천황을 만나서 자세한 보고를 하고 사표를 제출하였을 때 사직의 이유는 ‘고령’이었다. 즉, ‘조선소요사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면서, ‘고령’으로 인한 자발적인 사임으로 처리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야마가타 정무총감의 진퇴품의 역시 같은 경로로 반려되었으며, 조선총독부 관제 개혁이 마무리되면서 하세가와 총독과 야마가타 정무총감의 사직도 처리되었다.

3·1운동은 조선 전역은 물론 간도와 블라디보스토크, 미국으로까지 확장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이르는 독립운동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으며, 그 진압과정에서 조선군과 경찰은 여러 지역에서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런데 제암리 사건처럼 외국에까지 알려진 사건에서조차 이와 관련하여 조선군사령부 및 조선총독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특히 하세가와 조선총독에 대해서는 정세판단과 진압방법, 사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여러 방면에서 지적되었으나 3·1운동의 결과로서 처벌하거나 사임시키는 것을 일본 정부가 극력 회피했기 때문이다.

6. 나오며

1919년 4월 15일 수원 제암리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잔혹한 학살은 3·1운동 진압 중에 일어난 유일한 참상이거나 가장 가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외국인 선교사와 외교관들에게 목격되어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되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3·1운동 탄압의 상징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잔인한 진압과 처참한 학살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암리학살사건은 조선군과 조선총독부의 증빙 요청에 의해 일본에서 보병 6대대, 기병을 유용한 보조 헌병 400명을 파견하여 기존의 조선군에 편제한 임시 조선파견 보병대대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그들은 조선인 시위에 위압감을 주어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본 각 사단에서 파견한 부대였다.

1919년 4월 15일 보병 제79연대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는 수원군 발안장 부근 제암리에서 기독교도, 천도교도 30여 명을 교회 안에 모아서 사살하고, 교회 및 민가 20여 채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은 경성 주재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일행과 스코필드에 의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진도 촬영되었다. 이들의 보고서는 외교관 보고서에 첨부되어 본국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망자 숫자와 화재 피해 가옥의 숫자는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 조선군사령관의 보고에서 제시한 사망자 32명, 피해 가옥 28채가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군사령관과 조선총독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외국으로 알려지자 육군 대신과 척식국장관, 수상에게 보고하는 한편, 사건 은폐 및 축소를 꾀하였다. 사건의 책임자인 아리타 중위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지만 8월 21일 조선군 용산군법회의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의 행위는 훈시 명령을 오해한 데서 나온 정당한 폭동 진압의 임무’로서 ‘피고는 임무수행상 필요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한 ‘과실에 의한 범죄’이므로 무죄라는 논리였다.

한편, 이 사건의 상급 책임자인 조선군사령관을 비롯한 조선군 관계자, 조선총독 등은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그들의 사직을 반려하였다.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조선총독에 대해서는 ‘조선소요사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면서, ‘고령’으로 인한 자발적인 사임으로 처리하였다.

제암리사건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한계와 3·1운동 탄압의 잔혹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100주년을 맞은 오늘날에도 피해자의 정확한 숫자와 인명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방 후에도 한국정부에 의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한국인에 의한 구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45년까지 일제의 강점이 지속되고 해방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한 점, 해방 이후 한국 정치의 부침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제암리사건이 한국 학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수집자료 1-002294-000, 「제암리사건에 관한 스코필드 박사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수집자료 007630-04-0028, *THE NEW YORK TIMES* 1919년 4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수집자료 007630-03-0041,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가토 요코, 윤현명·이승혁 옮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 까지』, 서해문집, 2018.

김상규, 「1915~1921년 조선 주둔 일본군의 상주화와 3·1운동 탄압」, 『군사사연구총서』 6, 2018.

김승태, 「일제의 제암리 교회 학살·방화 사건 처리에 관한 소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008.

김영숙, 『하라 다카시(原敬)-평민 재상의 빛과 그림자』, 살림, 2019.

박보영, 「3·1운동기 총독부기관지 『서울프레스』의 국제사회 대응 양상-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 - 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 (1919.5)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4, 2019.

이형식, 「1910년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구조 개혁과 조선 통치」, 『3·1운동100주년총서 3: 권력과 정치』, 휴머니스트, 2019.

장 신, 「3·1운동과 조선총독부의 司法 대응」, 『역사문제연구』 18, 2007.

정병욱, 「1919년 3·1운동과 일기 자료」, 『한국사학보』 73, 2018.

주동빈, 「3·1운동 초기 경성시위에 대한 세대론적 분석」, 『동방학지』 184, 2018.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1916~1920 워털 주교 일기 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上原勇作関係文書研究会編, 『上原勇作関係文書』, 東京大学出版会, 1976.

宇都宮太郎関係資料研究会編,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 3, 岩波書店, 2007.

小笠原亮一外, 『三・一運動と堤岩里事件』,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95.

姜徳相編, 『現代史資料』 25, みすず書房, 1967.

姜徳相編, 『現代史資料』 26, みすず書房, 1967.

加藤圭木, 「三・一運動一〇〇年から何を学ぶか(特集 三・一独立運動、五・四運動100年と日本)」, 『歴史地理教育』 891, 2019.

吉良芳恵, 「宇都宮太郎関係文書から見た三・一独立運動一陸軍中央との関係を中心に」, 『史艸』 46, 2005.

倉富勇三郎, 倉富勇三郎日記研究会 編, 『倉富勇三郎日記』 第3巻(大正八年(一九一九)~大正九年(一九二〇)), 国書刊行会, 2010.

田中義一伝記刊行会, 『田中義一伝記』 下巻, 田中義一伝記刊行会, 1960.

長田彰文, 『日本の朝鮮統治と国際関係 朝鮮独立運動とアメリカ 1910-1922』, 平凡社, 2005.

長田彰文, 「朝鮮三・一運動と米国人宣教師-米国人宣教師と日本当局間の接触を中心に」, 『上智史学』 46, 2001.

長田彰文, 「三・一運動と国際的背景(特集 三・一運動100年)」, 『歴史評論』 827, 2019.

原奎一郎編, 『原敬日記』 5, 福村出版, 1965.

米谷匡史, 「三・一独立運動、五・四運動と帝国日本のデモクラシー(特集 三・一独立運動、五・四運動100年と日本)」, 『歴史地理教育』 891, 2019.

- 1 주동빈, 「3·1운동 초기 경성시위에 대한 세대론적 분석」, 『동방학지』 184, 2018; 장신,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司法 대응」, 『역사문제연구』 18, 2007; 정병욱, 「1919년 삼일운동과 일기 자료」, 『한국사학보』 73, 2018 등 참조. 주동빈은 경성의 삼일운동을 在京 학생운동과 在京 유림운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신은 삼일운동에 대한 적용 법률을 분석하였고, 정병욱은 삼일운동 당시의 다양한 계층 13인의 일기를 분석하였다.
- 2 長田彰文, 「三・一運動と国際的背景(特集 三・一運動100年)」, 『歴史評論』 827, 2019; 加藤圭木, 「三・一運動一〇〇年から何を学ぶか(特集 三・一独立運動、五・四運動100年と日本)」, 『歴史地理教育』 891, 2019; 米谷匡史, 「三・一独立運動、五・四運動と帝国日本のデモクラシー(特集 三・一独立運動、五・四運動100年と日本)」, 『歴史地理教育』 891, 2019.
- 3 최근에는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1919년 당시 사용된 '제암리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4 제암리사건에 대해서는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김승태, 「일제의 제암리 교회 학살·방화 사건 처리에 관한 소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008; 長田彰文, 「朝鮮三・一運動と米国人宣教師-米国人宣教師と日本当局間の接触を中心に」, 『上智史学』 46, 2001; 長田彰文, 「三・一運動と国際的背景(特集 三・一運動100年)」, 『歴史評論』 827, 2019 참조.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일본에서 『三・一運動と堤岩里事件』(小笠原亮一外,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95)이 출판되었으나 일본 기독교단의 제암리사건에 대한 관심과 반성이라는 측면 외에 학술적 가치는 크지 않다.
- 5 조선군이던 식민지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말한다. 관동군, 타이완군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의 외지 무력 지배를 담당한다. 한국주차군이 1910년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주차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18년 조선군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교대하는 형태였다가 제19사단과 제20사단을 편성하면서 상주하게 되었다. 이 2개 사단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3·1운동이다.
- 6 「三・一運動日次報告(朝鮮軍司令官, 1919年 3~8月)」, 『現代史資料』 25, みすず書房, 89쪽.
- 7 「三・一運動日次報告(朝鮮軍司令官, 1919年 3~8月)」, 『現代史資料』 25, 105쪽; 原奎一郎編, 『原敬日記』 5, 福村出版, 1965(이하 『原敬日記』 5), 3월 11일, 76쪽.
- 8 宇都宮太郎関係資料研究会編,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 3,

- 岩波書店, 2007(이하 『宇都宮太郎日記』 3), 227쪽.
- 9 『宇都宮太郎日記』 3, 238쪽.
- 10 『原敬日記』 5, 1919년 4월 2일, 82쪽.
- 11 『原敬日記』 5, 1919년 4월 2일, 83쪽.
- 12 『宇都宮太郎日記』 3, 240쪽.
- 13 「三・一運動日次報告(朝鮮軍司令官, 1919年 3~8月)」, 『現代史資料』 25, 178쪽, 196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 14 김상규, 「1915~1921년 조선 주둔 일본군의 상주화와 3·1운동 탄압」, 『군사사연구총서』 6, 2018. 김상규는 임시조선파견보병대대 출동이 『宇都宮太郎日記』에서는 약 500여 곳이라고 되어 있는 데 비해 외무성 외교사료관 자료에서는 140여 개소라고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500여 곳에 배치되어 140여 개소에 출동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3·1운동 진압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① 3월 1~12일-분산배치 전 단계, ② 3월 12일~4월 4일 조선총독 진압 명령 후 2차려 분산배치, ③ 임시조선파견 보병대대 추가 파병단계로 구분하였다.
- 15 『原敬日記』 5, 1919년 4월 2일, 83쪽.
- 16 『原敬日記』 5, 1919년 4월 8일, 84쪽.
- 17 田中義一伝記刊行会, 『田中義一伝記』 下巻, 1960, 158~159쪽.
- 18 『宇都宮太郎日記』 3, 1919년 5월 2일, 109쪽.
- 19 吉良芳恵, 「宇都宮太郎関係文書から見た三・一独立運動-陸軍中央との関係を中心に-」, 『史艸』 46, 2005, 146쪽. 吉良는 『宇都宮太郎日記』이 출간되기 전에 일기를 분석한 연구회의 일원으로서, 이 논문에서 일기 외에 서간과 주요 문서 등을 인용하였다. 이 사료는 『田中義一關係文書』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 20 김상규, 「1915~1921년 조선 주둔 일본군의 상주화와 3·1운동 탄압」, 『군사사연구총서』 6, 2018.
- 21 가토 요코, 윤현명·이승혁 옮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서해문집, 2018, 266~267쪽.
- 22 長田彰文, 「朝鮮三・一運動と米国人宣教師-米国人宣教師と日本当局間の接触を中心に」, 『上智史学』 46, 2001, 84~85쪽.
- 23 『宇都宮太郎日記』 3, 1919년 3월 4일, 223쪽.

- 24 『宇都宮太郎日記』3, 1919년 3월 8일, 225쪽.
- 25 長田彰文, 「朝鮮三・一運動と米国人宣教師-米国人宣教師と日本当局間の接触を中心に」, 『上智史学』46, 2001, 80쪽.
- 26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Horace Horton Underwood, 1890~1951, 한국명 元漢慶)은 1933년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에 취임한 인물로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의 아들이다. 아버지인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견되어 1885년 4월 5일 인천에 도착하였으며, 언더우드 일가는 4대에 걸쳐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수집자료 007630-04-0028, *THE NEW YORK TIMES* 1919년 4월 28일. 이 자료는 번역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고 관련 인물의 성명과 직위가 불분명하여 長田彰文, 「朝鮮三・一運動と米国人宣教師-米国人宣教師と日本当局間の接触を中心に」, 『上智史学』46, 2001(長田彰文, 『日本の朝鮮統治と国際関係 朝鮮独立運動とアメリカ 1910-1922』, 平凡社, 2005, 제7장 수록)과 대조하면서 보완하였다.
- 28 長田彰文, 「朝鮮三・一運動と米国人宣教師-米国人宣教師と日本当局間の接触を中心に」, 『上智史学』46, 2001, 83쪽. 버그홀츠가 왜 사망자를 37명으로 추산하여 보고했는지는 불명확하다.
- 29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1889~1970, 한국명 石虎弼)는 3·1 운동 거사를 사전에 통보받고 협력을 요청받았던 유일한 외국인으로 유명하다. 1916년 11월 캐나다 선교사로서 내한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을 가르쳤다. 3·1 운동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겼으며, 제암리와 수춘리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
-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수집자료 1-002294-000, 「제암리사건에 관한 스코필드 박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발행된 영자신문 *The Shanghai Gazette* 1919년 5월 27일에 게재되었으며, 수춘리에 대한 기사는 미국의 장로회 기관지 *Presbyterian Witness* 1919년 7월 26일에 실렸다.
- 31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1854~1933, 한국명 閔德孝)는 프랑스 출신으로 1880년 조선에 들어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때 신교(信敎)의 자유를 허용하는 항목을 넣는 데 이바지하였다. 42년간 교구장으로 재임하면서, 1891년

- 2월부터 1911년 3월까지의 조선교구장, 대구교구가 분리된 1911년 4월 8일부터 1933년 1월까지의 경성교구장으로 재직하였다.
- 32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1916~1920 뮈텔 주교 일기 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이하 『1916~1920 뮈텔 주교 일기 6』), 264~265쪽. 이 일기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에는 많은 오류가 있는데, 번역 오류도 있겠지만 원문이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이고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커티어(Curtier)는 미국 영사 커티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암리는 데암리로 기록되었다.
- 33 『1916~1920 뮈텔 주교 일기 6』 1919년 4월 30일, 267~268쪽.
- 34 『1916~1920 뮈텔 주교 일기 6』 1919년 3월 20일, 258쪽.
- 35 『1916~1920 뮈텔 주교 일기 6』 1919년 4월 21일, 266쪽.
- 36 『1916~1920 뮈텔 주교 일기 6』 1919년 5월 29일, 272쪽.
- 37 『1916~1920 뮈텔 주교 일기 6』 1919년 6월 23일, 279쪽.
- 38 『宇都宮太郎日記』3, 1919년 4월 18일, 245쪽.
- 39 「三・一運動日次報告(朝鮮軍司令官, 1919年 3~8月)」, 『現代史資料』25, 207쪽. 여기 언급된 미국인들은 경성 주재 미국 영사 커티스(Raymond Curitis),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AP통신 경성특파원 테일러(A. W. Taylor)를 말하는 듯하다.
- 40 『宇都宮太郎日記』3, 1919년 4월 18일, 245쪽.
- 41 『宇都宮太郎日記』3, 1919년 4월 19일, 245쪽.
- 42 『現代史資料』25, 267~268쪽.
- 43 「三・一運動における弾圧経過を示す文書」, 姜徳相編, 『現代史資料』26, みすず書房, 1967, 317쪽.
- 44 「三・一運動における弾圧経過を示す文書」, 姜徳相編, 『現代史資料』26, みすず書房, 1967, 313~316쪽.
- 45 허버트 조지 웰치(Herbert George Welch, 1862~1969)는 미국 감리교 감독(American Methodist bishop)이다.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 사제 출신인 존 웨슬리(John Wesley)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감리교에는 목사와 감독의 지위가 있는데, bishop은 '감독'으로 번역된다.
- 46 『原敬日記』5, 1919년 5월 15일, 94쪽.
- 47 하라는 수상이 되기 전에 1892년 외무성 통상국장 시절의 조선 출장, 1896년 조선공사

- 부임, 1911년 중국 및 조선 시찰 등을 통해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그가 '조선에 세 번이나 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 번의 조선 경험을 의미한다. 김영숙, 『하라 다카시(原敬)-평민 재상의 빛과 그림자』, 살림, 2019 참조.
- 48 『原敬日記』 5, 1919년 5월 16일, 95쪽.
- 49 倉富勇三郎, 倉富勇三郎日記研究会 編 『倉富勇三郎日記』 第1卷(大正八年(一九一九)~大正九年(一九二〇)), 国書刊行会, 2010(이하 『倉富勇三郎日記』 1), 1919년 7월 18일, 275쪽.
- 50 『原敬日記』 5, 1919년 8월 29일, 136쪽.
- 51 『倉富勇三郎日記』 1, 1919년 6월 14일, 214쪽.
- 5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수집자료 007630-03-0041,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 53 『宇都宮太郎日記』 3, 1919년 7월 2일, 275쪽.
- 54 『宇都宮太郎日記』 3, 1919년 7월 14일, 281쪽.
- 5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3022465000, 「有田中尉に係る裁判宣告の件」.
- 56 당시는 본인이 마음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상부에 진퇴품의서(進退伺い書)를 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즉, 책임을 지고 그만둘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부의 권한이었다.
- 57 『宇都宮太郎日記』 3, 1919년 7월 4일, 276쪽.
- 58 「三·一運動における弾圧経過を示す文書」, 『現代史資料』 26, 319쪽.
- 59 *Seoul Press*는 1907년 창간되어 1937년 폐간된 영자신문으로서, 동아시아 영어매체의 排日여론을 방어하는 대항담론의 기지역할을 수행하였다.(박보영, 「3·1운동기 총독부 기관지 『서울프레스』의 국제사회 대응 양상-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1919.5)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4, 2019 참조)
- 60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 1919년 4월 30일.
- 61 『倉富勇三郎日記』 1, 1919년 4월 18일, 108쪽.
- 62 『原敬日記』 5, 1919년 4월 26일, 87~88쪽.
- 63 『原敬日記』 5, 1919년 3월 29일, 81쪽.

- 64 『原敬日記』 5, 1919년 6월 10일, 105쪽.
- 65 『原敬日記』 5, 1919년 5월 3일, 90쪽.
- 66 『原敬日記』 5, 1919년 5월 6일, 91쪽.
- 67 『田中義一伝記』 下卷, 163쪽.



박승극(1909~?)

일제강점기 저항적 지식인 박승극의 삶과 투쟁

: '울트라'에서 '나로드니키'까지

1. 머리말

박승극(朴勝極, 1909~?)은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운동가였다. 특히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수원 사회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수원 사회운동에서 1920년대 말까지 민족주의자 '김세환의 시대'였다면, 1928년 이후는 사회주의자 '박승극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김세환(金世煥, 1889~1945)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가운데 한 분이다. 1963년 독립장을 수여받은 수원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수원상업강습소와 삼일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교육자였다. 수원학생친목회 고문, 1928년 신간회 수원지회장, 1929년 수원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¹

박승극은 1928년 이후 사회주의운동의 리더로 부상하며 수원청년동맹,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 수원지부, 수원기자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수진농민조합 등의 단체에서 집행위원이거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수원 사회운동을 주도하며 이후 25번에 걸쳐 예비검속과 구속을 겪으며 수원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박승극은 그 시절 스스로 표현하였듯이 가장 뜨거운 '울트라(ultra)'였다. 동갑내기 최용신(崔容信, 1909~1935)이 수원군 반월면 샘골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할 때 샘골강습소와 최용신의 후원자였던 수원 밤밭(울진) 출신 염석주(廉錫柱, 1895~1944)가 샘골에 한 번 찾아가자는 것을 거절하였다. 수원 시대의 박승극은

‘서리 맞은 생활’, 즉 조직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운동을 펼치는 생활로 시간적 또는 정신적 여유가 나지 않았던 때였다. 또한 “나로드니크적 사업을 찬성하지 않는 울트라” 였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당시 농촌계몽운동에 찬성하지 못하는 보다 급진적 사회주의운동가였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최용신을 기특한 여성이자 젊은 급진적 기독교 신도로 여겼을 뿐이다.²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농촌계몽운동인 ‘브나로드(v narod)’는 ‘인민 속으로’라는 뜻이다. 브나로드운동은 농촌계몽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들 운동가들을 나로드니키(인민주의자)라고 하였다. 이 운동은 농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귀족 청년과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났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 박승극이 현실 사회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당시 농촌계몽을 표방하는 브나로드운동이 펼쳐졌다. 그렇게 박승극은 스스로 혁명적 ‘울트라’라 여기며 계몽적 ‘나로드니크’적 사업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1936년 고향으로 귀촌을 통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농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건 농민문학론을 펼쳤다. 이는 온전한 ‘나로드니크’적 태도는 아니지만 범주적으로 보면 브나로드운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울트라(ultra)에서 나로드니키(narodniki)로 변화되는 과정은 극악한 일제의 군국주의적 통제가 강화되는 현실의 또 다른 대응방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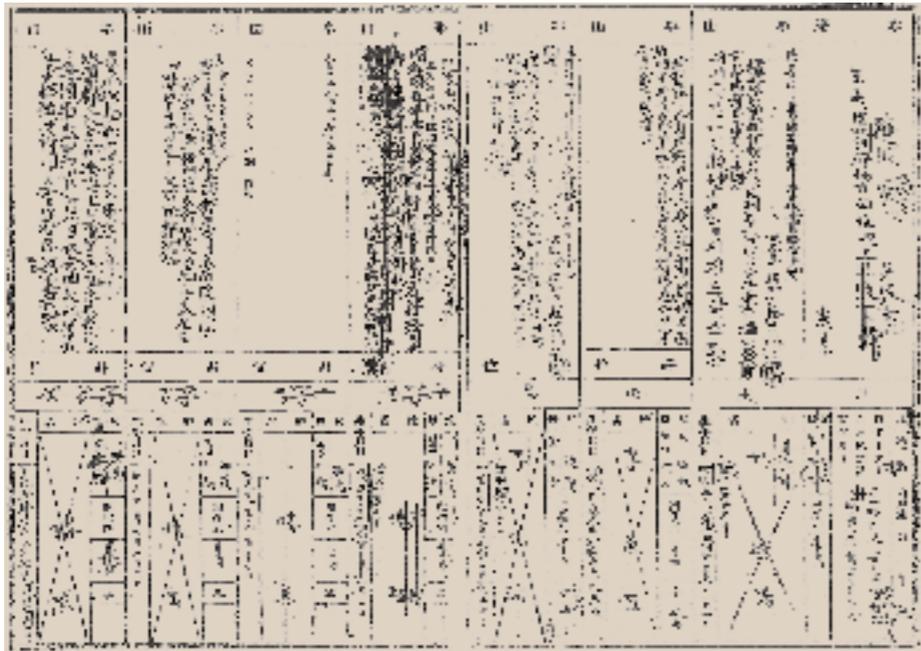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저항적 지식인 박승극의 투쟁과 삶에서 ‘울트라’에서 ‘나로드니키’까지의 인식의 변화와 내용 및 그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동안 박승극에 대한 연구는 수원 지역사에서 각 단체의 지도자로서 또는 사회운동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다.³ 또한 박승극의 수필과 소설·평론 등 문학적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⁴ 앞으로 박승극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2. 실천적 배움 : 수학 시절(1923~1928)

박승극은 어린 시절 한학을 배운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인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인근에는 양감면 사창리 요골 광산 김씨 집안에서 운영하던 서당이 유명하였다. 박승극의 첫 수학 기록은 근대적 학문을 배운 보신강습소(普新講習所)이다. 보신강습소는 사창리 요골의 광산 김씨들이 근대적 학문을 가르치는 개량서당으로 설치한 것이다. 『박승극전집』의 ‘박승극 연보’는 1923년 3월 보신강습소 2학년 편입, 1924년 3월 배재고보에 입학으로 쓰고 있다. 이는 김시중(金時中, 1912~2002)의 회고에 따른 것이다. 김시중에 따르면 박승극은 15세인 1923년 4월 보신강습소 2학년에 편입하여 1학기를 다녔고, 9월 2학기부터 서울에 올라가 상급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배재학당에서 강습을 받아 1924년 배재고보에 입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⁵ 1886년 배재학당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1916년 배재고등보통학교로 승격되었고, 배재고등학당(1909~1925)과 한동안 병설 운영되었다.

그러나 박승극의 ‘배재고보 학적부’에는 1921년 3월 양감면 사창리 소재 사립 보신강습소에 입학, 1924년 3월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신문과 증언을 통해 살펴보면 보신강습소는 1923년 4월 1일 학동 45명을 데리고 김용묵(金容默, 김시중의 당숙)이 개설한 곳이다. 따라서 학적부에 기재된 1921년 보신강습소 입학 사실은 사창리 요골 한문서당에 입학한 것을 소급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재고보 학적부에 박승극의 입학 연도가 1924년 아니라 1925년으로 되어 있다. 즉 1925년 4월 1일 배재고보 2학년에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김시중의 기억도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박승극은 1925년 4월 2학년으로 편입하여 1928년 3월 4학년까지 수료하였다. 5년제 배재고보를 졸업하지 않고 일본 유학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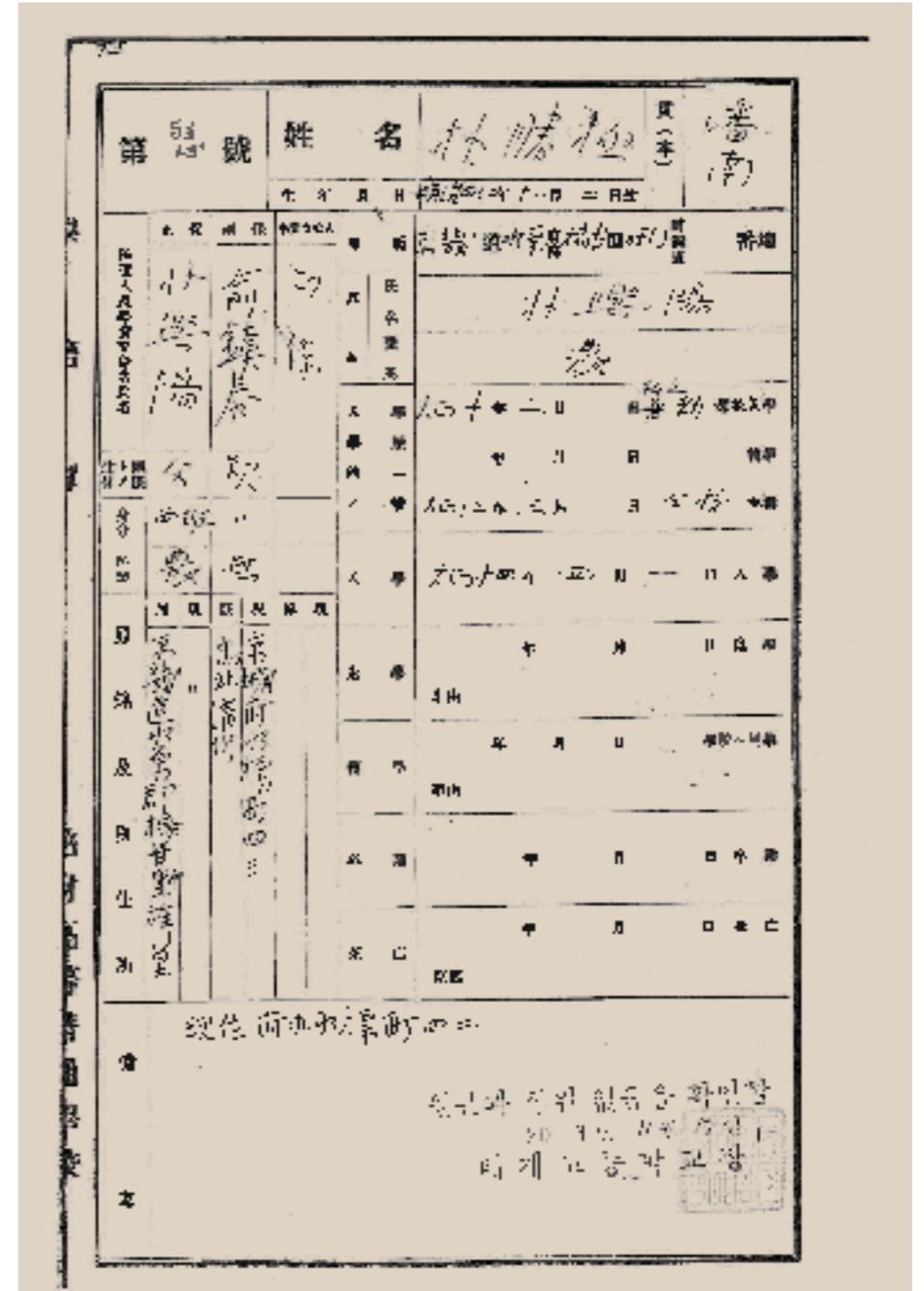
한편 박승극의 배재고보 재학시절 주소는 경성부 수표정 42번지였고, 보증인은 옆집의 유진태(俞鎭泰, 수표정 43번지)였다. 1934년 3월 『치안정황(治安情況)』의 중요 단체표에 따르면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 본부와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주소가 수표정 42번지이고, 조선교육협회(朝鮮教育協會) 주소가 수표정 43번지로 되어 있다. 원래 경운동 96번지에 있었던 조선물산장려회 본부는 조선



박승극 민적부

물산장려회 경성지회가 1928년 1월 16일 설립되면서 함께 수표정 42번지로 옮겨온 것이다. 따라서 박승극이 배재고보 재학 당시 주소 수표정 42번지는 배재고보 4년 수료 후 조선물산장려회가 자리한 셈이다.

수표정 43번지는 조선교육협회 위원장 유진태의 거주지로 추정된다. 충북 괴산 출신의 유진태(1872~1942)는 대표적 민족주의운동가로 1993년 애국장에 추서된 독립유공자이다.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유립단 장서 서명자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1921년 6월 조선교육회의 설립을 주도하고, 12월 태평양회의에 제출할 문서에 조선교육회 대표로 서명하였다. 1922년 3월 이상재와 함께 조선교육협회를 창립하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23년 1월 조선물산장려회 발기 준비회에서 활동하였으며, 3월 30일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의 중앙집행위원과 상무위원을 역임하였다. 1927년 12월 신간회 경성지회장에 선임되었고, 1929년 5월 경북기근구제회 위원장이었다. 1929년 12월 신간회 민중대회 활동으로 일경에



박승극 배재고보 학적부(배재고등학교 제공)



1930년 카프 문인들

검거되기도 하였다.

박승극의 삶에서 유진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학시절 보증을 설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고향 정문리와 멀지 않는 수원군 종덕면 계루지(1914년 이후 진위군 고덕면 두릉리) 출신의 안재홍과 관계된 인연일 수도 있다. 민세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1924년 조선일보사 주필을 거쳐 부사장(1929~1931)과 사장(1931~1932)을 역임한 인물이다. 박승극이 1928년 말부터 수원에서 조선일보사 기사를 역임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박승극이 1933년 감옥에서 무죄 방면되어 고향으로 귀향할 때 서울역에 나와 환송을 할 정도로 안재홍과 박승극의 교류는 깊었다.

한편 박승극이 배재고보 2학년에 편입한 1925년은 조선공산당이 조직되고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이 조직된 해였다. 박승극은 배재고보 재학시절에 사회주의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카프는 1925년 8월 23일 출현하였다. 사회주의 문화단체를 표방하던 염군사(焰群社, 1922년 창단), 백조

동인 일부와 도쿄 유학생 극단 토월회 일부 회원이 1923년 조직한 파스쿨라(PASKYULA)가 통합한 것이다.⁶

1926년 2월 창간된 잡지 『문예운동』을 통하여 염군사의 이념성과 파스쿨라의 경향성이 점차 통합되면서, 1926년 12월 임시총회를 거쳐 강령과 규약이 만들어지고 카프는 조직을 개편하였다. 당시 이기영, 김영팔, 이량, 조명희, 홍기문, 김경태, 임정재, 양명, 이호, 김온, 박용대, 권구현, 이적효, 김기진, 이상화, 김복진, 최학송, 최승일, 박팔양, 박영희, 김동환, 안석주 등 22명이 회원이었다. 최남선과 이광수 등 기존 문단의 문인들은 외면하였으나 사회주의와 아나키스트 계열의 문인들과 공산당 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문필가들이 섞여 있었다. 조직을 개편한 1927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문단에서는 카프의 열풍이 일었다. 카프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배재고보 선배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와중에 박승극은 배재고보에 재학 중이었던 것이다.

배재고보 출신 문학인이자 카프를 주도한 인물들은 1920년 배재고보를 졸업한 수원 곡반정동 출신 박팔양(朴八陽, 1905~1988)과 박영희(朴英熙, 1901~1950), 팔봉(八峰) 김기진(金基鎭, 1903~1985)을 비롯하여 박세영(朴世永, 1902~1989), 박세영의 단적으로 배재고보를 중퇴한 송영(宋影, 1903~1978)을 꼽을 수 있다. 1922년 졸업한 진우촌(秦雨村, 1904~?)과 1928년 졸업한 최병화(崔秉和, 1905~1951)는 박승극이 1928년 배재고보 4년 재학 당시 함께 학교에 다닌 셈이다.

한편 박팔양, 안준식, 정청산 등 수원 출신들의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안준식(安俊植, 1901~1951)은 1926년 6월 별나라사를 창립하고 주필로 활동하였는데, 1927년 박세영, 송영과 함께 『별나라』를 카프 아동문학부의 기관지로 개편하고 프로문학 출판물 발간에 힘쓰고 있었다.⁷ 안준식은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출생으로 1913년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⁸ 졸업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918년 서울로 올라가 잡지 조선공론사(朝鮮公論社) 잡급으로 취직하였다. 2년 뒤인 1920년 동아출판인쇄주식회사(東亞出版印刷株式會社)에서 외근직으로 일하며 고학하여 1924년 중앙기독교청년회학관 고등과(중등과정)를 졸업하였다. 1925년 9월 동아출판인쇄주식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동아사인쇄소(東亞社印刷所)를 개업하였고, 이듬해인 1926년 6월부터 동아사인쇄소에서 어린이 잡지 『별나라』를 출판·경영



안준식이 창간한 어린이 잡지 『별나라』

하였다.⁹ 안준식은 1925년 8월 서울야 학교가 보광(普光)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무산아동을 교육할 때 무급 교사로 활동하였고, 1926년 1월부터 보광학교 운영비로 매달 10원씩을 보조하였다. 또한 1926년 4월新光소년회(新光少年會) 회장, 1927년 1월 꽃별회 회원으로 소년운동을 펼치며 1931년부터 어린이 잡지 『별나라』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이끌었다.

정청산(鄭靑山, 1909~?)도 수원 출신으로 동아인쇄소 사무원으로 일하며 소설을 쓰고 있었다. 정청산은 호는 녹수(綠水)였고, 정재덕(鄭在德)이란 이름도 사용

하였다. 수원면 남수리 202번지가 본적으로 아버지 경주 정씨 정해중(鄭海重)과 어머니 서순희(徐順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이 가난하여 서울로 올라가 고학으로 1927년 3월 경성 용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9월 경성제국대학 급사로 취직하였다. 프로문학에 취미를 갖고 1930년 9월 퇴직하여 고학에 뜻을 두고 일본 도쿄로 가서 고학생기숙 역행사(力行社)에 거주하며 일본인 프로문사 마키 쿠스로(槇木楠郎) 방을 출입하였지만 부친의 사망으로 같은 달 귀국하였다. 같은 해 12월 안준식이 경영하는 동아사인쇄소에 사무원으로 취직하였다. 이미 공산주의사상에 깊이 공명하였던 정청산은 1931년 4월 17일 김봉룡을 중심으로 결성된 공산주의 비밀결사 ‘노농소년위원회(勞農少年委員會)’에 가맹하였다가 검거되어 1932년 2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¹⁰ 이후 안준식과 함께 동아사인쇄소 사원으로 잡지 『별나라』의 사회주의적 지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박승극은 이들 수원 출신 인사들과 배재 출신 문학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으며 학창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6년 『별나라』가 수원 출신인 안준식에 의해

발간되고, 배재고보 출신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무산소년운동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박승극도 적극 공명하며 같은 노선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별나라사 양감지사가 설치·운영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박승극은 배재고보 재학 중이던 1928년 1월 경북 영천 출신인 공태옥(孔太玉)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박승극은 결혼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결혼한 지 몇 달 뒤인 1928년 3월 26일 배재고보 4학년을 수료하고 곧바로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 니혼대학(日本大學) 예과에 입학하였는데, 여름방학에 귀국한 뒤 다시 일본으로 가지 않았다. “왜 도쿄로 가지 않느냐?”는 김시중의 물음에 박승극은 “대학에 가서 배워 보니 별것 아니고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다.”고 답하고 있다. 더 이상 제국주의 일본의 대학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이었고, 식민지 조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접적인 실천운동에 뛰어들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 측 자료는 신경쇠약 때문에 중도 퇴학하고 귀국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¹

박승극은 1927년 이미 보신강습소 간판 옆에 조선청년동맹 양감지부와 신간회 양감지회 간판을 걸어 놓고 청년사상가로 실천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1928년 여름부터 삶의 방향을 고민하며 직접적인 사회운동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박승극의 나이 20살이었다.

1928년 여름 일본에서 귀국한 박승극은 사재를 들여 고향 정문리에 신흥학당(新興學堂)을 열어 무산아동교육을 펼쳤다. 보신강습소를 졸업한 소년들을 중심으로 조선소년동맹 양감면지부를 조직한 후 신흥학당에 간판을 걸었다. 한공수·한중석·장윤수 등이 함께하였는데, 이들이 신흥학당에서 가르치는 일도 담당하였다.

3. 뜨거운 ‘울트라’의 삶 : 수원 시대(1928~1932)

박승극은 1928년 가을 이후 수원으로 진출하였다.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활동 거점을 수원으로 옮겨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펼쳤다. 1928년부터 박승극은 수원 지역 사회단체에 가입하며 조직의 핵심적 인물로 부상하였다. 1928년 8월 19일 신간회 제1회 임시대회에 임시의장으로 참여하면서 신간회 수원지회에 관여하였고, 같은 해 12월 16일 신간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조직선전부 간사가 되었다.

또한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로서 박승극의 활동도 주목된다. 독자들을 위하여 1929년 1월 15일 수원극장에서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설치기념 독자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하였다. '아리랑'과 '불망곡(不忘曲)' 등 조선의 명화를 독자들에게 반역 할인하여 상영한 것이다. 할인권 판매소는 매산리 이종묵고무화상점, 산루리 김정봉 상점, 남수리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에 설치되었다.¹² 이러한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의 독자를 위한 행사는 이후 지속되었다.

박승극은 1929년 1월 수원노동조합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하였다. 수원노동조합은 1926년 조직된 수원군인쇄직공친목회(水原郡印刷工親睦會)가 일반 노동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을 확대하며 수원노동조합(위원장 공석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후 박승극은 노동조합의 핵심적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2월 11일 별나라사 양감지사 주최로 동화·동요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별나라사 본사의 안준식, 송영, 박세영이 참석하였다. 이는 박승극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안준식은 박승극에게 수원 오산 출신 선배였고, 송영과 박세영은 배재고보 선배였다.

1929년 봄 박승극은 스스로 조직의 수장이 됨으로써 그 존재감을 수원 지역 사회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즉 1929년 4월 23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 수원지부를 결성하여 위원장이 되었다. 또한 1929년 5월 신간회 수원지회 서무재정부장이 되어 신간회 수원지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6월 9일 수원청년동맹이 결성될 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박승극은 수원 사회운동사에서 '박승극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1928년부터 1932년 구속될 때까지 4년간의 수원 시대는 격동의 삶 자체였고, 박승극 생애에서 가장 뜨거운 '울트라'의 삶이었다. 그 가운데 1930년, 한 해 동안 박승극의 삶을 따라가 보자.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저항적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29년 5월 17일 신간회 소구역 대표회원회에 참석한 박승극(『동아일보』 1929년 5월 20일) 앞줄 맨 왼쪽이 박승극이다.

1930년 1월 3일 『중외일보』에 박승극의 이름이 올랐다. 중외일보는 1929년 말 애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는 '명소(名所) 찾기 현상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에 공모한 박승극은 수원 지역 5명과 함께 6등으로 당첨되었다.¹³ 1930년 새해 행운아 1,0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박승극이었지만, 1930년은 그에게 행운만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1930년은 그에게 격동과 파란의 한 해였기 때문이다.

1930년 당시 박승극은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이자,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위원이었다. 또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 수원지부장,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 신간회 수원지회 서기장 등 지역 사회단체의 지도자로 맹렬한 활동을 펼쳤다. 박승극의 역할만큼 일제의 탄압도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1930년 2월 28일 밤 양감면 정문리 고향에 있던 박승극은 집에서 체포되었다. 수원경찰서에서 나온 순사에 의해 수원으로 압송되었다. 너무 늦은 밤이라 경부선 서정리역 여관 태화관에서 1박을 하고, 이튿날 3월 1일 새벽 5시 15분 기차로 수원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이때 수원노동조합 회관도 수색하였는데, 박승극의 거처였기 때문이다.¹⁴ 박승극은 경찰들과 논리적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풀려난 며칠 뒤인 3월 8일 수원청년동맹 상무집행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몇 달 동안 집회 금지를 당했던 상황이 풀리면서 수원의 각 사회단체는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수원기자동맹 결성에 참여한 박승극(『중외일보』 1930년 3월 30일)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박승극이다.

이에 1930년 3월 8일 수원청년동맹 위원장 박승극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수원 청년동맹 상무집행위원회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열렸다.¹⁵ 다시 10일 뒤인 3월 18일 박승극은 수원청년동맹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대회 준비 및 프로미전 후원 등을 논의하였다.¹⁶ 이미 지난해 4월 결성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 수원지부 위원장이었던 박승극의 역할이었다.

박승극은 수원기자동맹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원기자동맹은 1930년 3월 26일 결성되었는데, 우성규가 수원기자동맹 위원장이었다. 수원기자동맹은 경기지방 기자대회를 열고자 하였다. 이에 1930년 4월 9일 오후 8시 반 수원기자동맹 회관에서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기자대회 특별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1930년 4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수원공회당에서 제1회 근기기자대회(近畿記者

大會)를 개최를 목표로 적극적인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에 경기도 내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중외일보사 각 지국과 분국 기자를 참가대상으로 하였고 회비는 1인당 1원씩이었다. 신청은 수원기자동맹 사무소(동아일보사 수원지국)에 접수토록 했다. 박승극은 의안 작성위원으로 적극 관여하였다.¹⁷ 그러나 1차 경기지역 기자대회는 일제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930년 3월 30일 조선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이하 프로 미전)가 수원 화성학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프로미전에 수원에서 열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 또한 박승극이 수원경찰서에 신고와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였다.

박승극은 프로미전이 개최되던 3월 30일 오전 10시 오산에 가서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에서 개최한 정기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날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는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¹⁸

그러나 이날 밤 박승극은 프로미술전람회를 주도한 공석정과 함께 수원경찰서 고등계에 잡혀가 취조를 새벽 1시까지 받고 나왔다. 이튿날인 31일 새벽부터 경관들은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장으로 들어와 전시작품을 장식한 색지(色紙)를 떼어내고, 낫과 도끼를 그린 장식품을 전부 압수하였다.¹⁹ 그리고 전람회장 안과 밖을 엄중 경계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입장하는 사람들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미 출판작의 상당수를 압수하고 전람회장을 장식품도 철폐시키는 한편 다시 4월 1일 오전 12시경 고등계에서 다시 공석정과 박승극 및 중외일보사 수원지국장 우성규(禹聖奎, 1906~1941) 등 3명을 소환하였다. 극비리에 장시간 취조하는 한편 형사대를 파견하여 공석정과 박승극이 거주하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청년회관으로 사용하는 곳을 2차례에 걸쳐 일일이 수색하여 각종 편지와 문서철이 들어 있는 궂짜과 미술전람회에 전시하였던 작품들을 압수해 갔다. 이들 3명을 검속시키면서도 검속 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에 부쳤다.²⁰ 4월 2일까지 취조를 계속하는 한편 경찰은 중외일보사 수원지국을 수색하여 전람회 광경을 촬영한 사진 원판까지 압수해 갔다.²¹ 그리고 4월 4일 밤 9시 우성규가 석방되고, 이튿날 4월 5일 밤 공석정과 박승극도 무사히 풀려났다. 이들 3명을 검거 취조하는 동안에도 형사대를 파견하여 각 단체의 회관과 신문사 지국 및 신문사진반 등을 엄밀 수색하여 각종 문부 등을 가져가는



1930년 3월 30일 수원 화성학원 강당에서 개최된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중외일보』 1930년 3월 31일)



경찰의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 중지(『중외일보』 1930년 4월 1일)



수원노동조합이 출품한 「무산자신문을 읽자」(키다 에미코 제공)



「훈장을 살 수 있는 자와 훈장으로 먹지 못하는 자」(임화 출품, 키다 에미코 제공)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비밀결사를 하였다고 잡아 가서 3년 동안 고초를 겪다가 대부분 무죄 석방된 이래 수원경찰서와 경찰에 대한 비난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경찰 스스로 인가한 미술전람회를 중지시키고 검거하는 이중적 작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수원 프로미전은 당초 주최 측과 경찰의 합법적 교섭을 거듭하여 가면서 작품도 50%나 일반에 공개하지 못한 채 경찰이 먼저 입검 승인한 것이었다. 이에 아무 문제 없이 개막한 것인데 경기도 경찰부에서 출장하여 시찰한 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진열한 작품과 장내 장식품을 철폐 또는 중지시켜 할 수 없이 중도에 막을 치는 등 무사히 전시 첫날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검거 수색의 광풍이 펼쳐진 것이었고, 결국 박승극 등 죄 없는

사람들만 며칠 동안 고생시켰던 것이다²²

1930년 4월 5일 석방된 박승극은 1930년 4월 9일 성대하게 개최된 양감면 용소리의 대화의숙(大化義塾) 낙성식에 참석하여 수원청년동맹 위원장으로서 감격적인 축사를 하였다. 양감지역의 장주문의 개회사와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집행위원 조명재과 이덕만 및 양감면장 이광우의 축사가 있었다.²³

한편 신간회 수원지회 임시대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1930년 4월 25일 개최되었다. 임석한 정사복 경관의 엄중한 경계 속에서 '조선민족은 신간회 깃발 아래로', '조선민족의 나갈 길은 오직 신간회 뿐', '엄숙하고 대담하고 과감하게 대회를 지키자' 등의 느낌 있는 표어가 걸리고,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개최되었다. 신간회 수원지회 서기장이었던 박승극은 의미심장한 개회사를 하였다. 또한 전회록 낭독과 경과보고가 끝나자 박승극은 국제정세와 국내정세 보고를 진행하였다. 국제정세의 세계무산운동 보고와 국내 광주학생사건 보고를 할 때 임석 경관의 중지로 제지당하고, 신간회운동에 대한 정세만 겨우 보고하였다. 각 단체에서 보내 온 축문 13통 가운데 7통은 경찰에 압수당하였고, 축사는 신간회 인천지회 집행위원 권충일이 등단하여 정치경제적으로 몰락되어 가는 현상을 말하다가 경관에 의해 중지당하였다.²⁴ 박승극은 신간회 수원지회 서기장으로 개회사를 하였고,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 보고를 맡아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신간회 중앙에 파견되는 대의원(공석정, 박승극)으로 선출되었고, 집행위원회에서 연락부장으로 선임되었다.

박승극은 1930년 4월 23일 오후 8시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에서 수원기자동맹 제3회 집행위원회에 참여하였다. 경찰에 의해 금지당한 근기자대회를 오는 5월 25~26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을 기존대로 다시 선정하였다.²⁵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로 기자동맹 회원이었던 박승극은 1930년 4월 26일 경찰에 다시 구금되었다. 이날 수원경찰서는 중외일보사 수원지국을 수색하는 동시에 남양지방에 출장 중인 지국 총무 민홍식(閔洪植)과 함께 박승극을 유치하고 취조하였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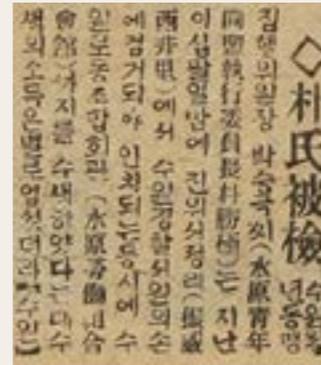
또한 경기도경찰부는 수원청년동맹, 수원노동조합, 수원신간지회 등 각 사회단체 회관 및 신문지국을 수색하고,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위원장 변기재(邊基在)의 집을 가택수색하고 수원노동조합 위원장 공석정을 수배하였다. 이튿날인 4월 27일

조선일보사 오산지국과 양감면 정문리 박승극의 집을 가택수색하였다. 4월 28일 경기도경찰부가 철수하였으나 박승극과 민홍식이 경찰서에서 석방된 것은 갇힌 지 4일 만인 4월 30일이었다. 1930년 수원경찰의 고압적 태도는 신문에 보도될 정도였다. 어떠한 회합이든지 집회를 일절 금지하는 강압조치가 이어졌다. 수원경찰서 고등계는 검속과 수색으로 일을 삼더니, 각 사회단체의 집회까지 금지하였다. 특히 양감면 각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더욱 심하였다. 소년동맹 양감지부 주최로 거행하려던 어린이날 기념식과 깃발행렬 등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1930년 5월 11일 개최하려던 소년동맹양감지부 제1회 임시대회와 5월 5일 청년동맹 양감지부 집행위원회까지 무조건으로 금지시켰다.²⁷ 또한 8월 수재동포를 위한 과자행상도 금지시키며 수원경찰의 무리한 탄압은 지속되었다.²⁸

수원청년동맹 수원지부는 1930년 8월 6일 제4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수원경찰서에서 서기(書記)가 불온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금지시켰다. 토의할 의안은 회관문제, 정기대회 소집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²⁹

한편 박승극은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사를 그만두고 1930년 8월 20일 중외일보사 수원지국장이 되었다.³⁰ 이때 중외일보사 수원지국은 산루리에서 북수리 34번지로 바뀌었다. 직전 중외일보사 수원지국장이었던 우성규의 뒤를 이은 것이다. 8월 31일 제4회 신간회 수원지회 집행위원회가 박승극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신간회 전체대회 대표회원으로 박승극은 김병호와 함께 선출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인 9월 2일 수원청년동맹 제5회 긴급집행위원회가 위원장인 박승극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집행위원인 공석정과 이수경이 해임됨에 따라 위원장인 박승극이 조직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새롭게 동맹원 22명을 받아들였고, 수원청년동맹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위원으로 신충(申忠), 이용성(李容成)과 더불어 박승극이 선출되었다. 이용성은 이현경과 이선경의 동생이다.

10월 12일 아침 팔달문, 수구문(남수문), 수원곡자회사, 청년동맹 운동장에 격문이 나붙었다. 소위 '수원격문사건'이었다. 이에 경찰은 청년동맹 위원장 박승극을 우선적으로 인치하여 취조하기 시작하였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검거는 확대되어 갔다. 10월 21일 격문사건으로 구금된 박승극, 공석정, 임범진, 차재화, 박수산,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박승극 피검 (『중외일보』 1930년 3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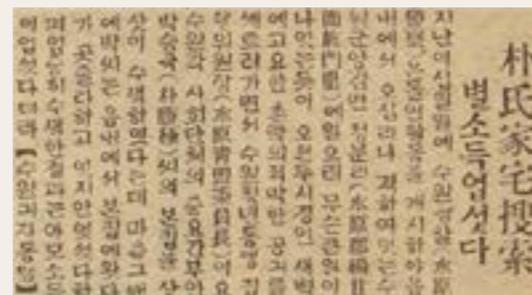


프로미술전람회 관련 박승극 취조 및 가택 수색 (『중외일보』 1930년 4월 3일)



박승극 가택 수색(『중외일보』 1930년 5월 2일)

조선일보사 기자 박승극 검거(『중외일보』 1930년 4월 28일)



박승극 가택 수색(『중외일보』 1930년 8월 26일)



수원격문사건으로 구금된 박승극(『동아일보』 1930년 10월 24일)



남상환 수형자기록카드(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박승극 수형자기록카드(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남상환 장례식(『동아일보』 1933년 5월 2일)

김유덕 등 6명은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다시금 10월 24일 박승극의 정문리 고향 집을 수색하였고, 6명 이외의 혐의자들 가택도 수색하는 등 수원 지역은 살벌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1월 21일 격문사건으로 서울로 압송되었던 박승극, 공석정, 임범진 등은 다시 수원경찰서로 이송되어 왔다. 그리고 11월 26일 격문사건으로 마지막까지 구금되어 있던 박승극, 공석정, 임범진 등 3명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박승극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격문사건으로 45일 동안 경찰서에 갇혀 온갖 고생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격동의 1930년, 수원의 저항적 지식인 박승극에게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한 해가 저물었던 것이다.

한편 1931년 11월 수진농민조합사건으로 구속된 박승극을 비롯하여 김영상, 장주문, 이원섭 등은 1933년 3월 28일 무죄 석방되었다.³¹ 1년 반(16개월) 만의 일이다. 이원섭과 경찰이 공모하여 합법적 공개조직인 수진농민조합을 혁명적 적색 농민조합으로 조작 날조한 사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함께 구속되었던 남상환(南相煥)은 병으로 1월 16일 재판이 분리되었고, 3월 16일 병보석으로 먼저 가출옥 하였다. 무죄 석방된 이들의 미결 통산일은 박승극 480일, 김영상 462일, 장주문 488일이었다. 이에 3명은 1933년 5월 27일 1일에 1~5원씩 보상금 청구소송을 경성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³²

당시는 ‘12월 테제’에 따라 민족통일전선 조직인 신간회가 해소되고 노동자, 농민 조직을 위한 적색농조·노조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원과 진위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진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일제는 합법적 수진농민 조합을 적색농민조합으로 조작하여 탄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감옥에서 나온 박승극 일행은 1933년 3월 31일 오후 경성역에서 배웅 나온 민세 안재홍 등과 작별하고 수원역을 지나 서정리역에 내렸다. 서정리역에 출영(出迎) 나온 일행들과 반갑게 상봉한 뒤 바로 증병을 앓고 있는 동지 남상환을 병문안하였다. 이후 마중 나온 가마와 당나귀를 거부하고 도보로 걸어서 고향으로 당당히 돌아 왔다. 남상환은 벗들의 희망과는 달리 병보석으로 나온 뒤 한 달 만인 1933년 4월 19일 폐병으로 사망하였다.³³

박승극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분통해 했다. 박승극은 철이 난 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두어 번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한 번은 그 어느 곳(경찰서)에서 분을 참지 못해서 울었고,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아들 평서(平緒)의 죽음을 서러워 해서 울었고, 그리고 이번에 오랜 동지 남상환의 죽음이었다.³⁴ 그만큼 27살 미혼자 남상환의 죽음은 박승극에게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몇 년 뒤 박승극은 원고료를 받아 모은 돈(13원)으로 서정리 공동묘지에 남상환의 작은 묘비를 세웠다. 1936년 8월 6일 일이다. 박승극 가슴 한켠에 묻어 두었던 한을 푼 셈이다.

4. 단호한 이데올로그 : 중앙문단 활동 시절(1933~1936)

박승극은 석방 직후인 1933년 4월 이래로 문학에 뜻을 두었다. 이에 본격적 문학 운동의 길로 나아갔다. 박승극은 내심 ‘붓을 든 혁명가’를 꿈꾸었다.

남들은 사회○○에서 문학○○으로 전락한 자이니, ‘독산(禿山) 평론가’니, ‘평론 삼용사(三勇士)’니 그 외 온갖 비꼬임을 토하지만, 나는 소학 8년 봄 사바의 몸이 되면서 길을 문학이란 지대로 바꾼 후, 자신의 문학적 수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껏은 애를 썼습니다.³⁵

스스로 “1933년 초하 이래로 전혀 문학에 뜻을 두고 그에 종사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로써 박승극은 1933년 4월부터 사회운동에서 문학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이후 중앙문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평론을 통해 필봉을 휘두르며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하였다.

박승극은 1928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카프)에 가담하였고, 이미 1929년 『조선지광(朝鮮之光)』에 단편소설 「농민」을 발표하여 등단한 작가였다. 또한 1931년 5월 『삼천리(三千里)』에 「청년협의회조직(靑年協議會組織)의 제창, 조선청총(朝鮮靑總) 해소에 관련하야」라는 글이나, 『비판(批判)』 1932년 신년호에 「푸르문화운동에 대한 감상」 등 논쟁적 글을 게재하곤 하였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글을 써서 투고



박승극의 평론 「문필가의 당면한 부분적 임무」(『조선중앙일보』 1933년 7월 11일)

하던 것과 달리 1933년 4월부터 박승극은 본격적인 문필활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1933년 3월 말 출소한 박승극은 4월에 「농민문학론」을 집필하여 『조선일보』에 투고하였다. 박승극에게 이 글은 문필활동을 결심하고 쓴 최초의 글이었다. 그러나 투고한 글은 신문에 게재되지 못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학예부에 근무한 김동인의 목살 때문이었다.

이후 『조선중앙일보』에 「문필가의 당면한 부분적 임무」(1933년 7월 11~13일)가 처음으로 활자화되면서 왕성한 평론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평론은 프로작가의 창작론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되었다. 박승극은 ‘프로 작가(作家)의 동향(動向)’이라는 주제로 임화(林和, 1908~1953)와 김남천(金南天, 1911~1953) 및 이기영(李箕永, 1895~1984)의 소설에 대한 논쟁적 글을 1933년 8월 15일 탈고하였다. 이 원고는 김동인이 퇴사한 후 기고되어 『조선일보』에 4차에 걸쳐 연재되었다.

- 프로 작가의 동향 : 임화의 문예시평을 논함(1)(『조선일보』 1933년 9월 2일)

- 「프로 작가의 동향 : 김남천의 과오에 대하여(2)」(『조선일보』 1933년 9월 3일)
- 「프로 작가의 동향 : 소(小)부르적 망동을 경계함(3)」(『조선일보』 1933년 9월 5일)
- 「창작의 기술(技術)문제 : 이기영의 '서화(鼠火)'를 계기로」(完)(『조선일보』 1933년 9월 6일)

1932년부터 프로문학에 관한 일련의 논쟁이 임화와 김남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박승극이 참여하면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박승극은 임화에 대하여는 다방면에 걸쳐 난해한 문구를 나열하거나, 일본에서 직수입한 불가해한 한문 문구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평이하게 노동자와 농민도 볼 수 있는 글을 쓰도록 요구하며 임화가 반성 내지 자기비판의 모멘트에 다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김남천에 대한 비판은 좀 더 가혹하였다. 김남천을 “어디로 보든지 아직 어리다.”고 보면서 ‘공작(工作)’이라는 용어를 문학에서 처음 쓰고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느낄 만한 평가를 하였다. 또한 박승극은 임화에 대하여 루즈한 조직생활과 이로써 생긴 루즈한 행동이나, 김남천의 소부르조아 극좌적 망동이 다 같은 과오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두 전투적 실천의 길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승극은 이기영의 「서화(鼠火)」에 대한 임화의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 아니 근대문학의 여태까지의 예술적 달성’이라는 평가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김남천의 「서화」에 대한 ‘과중(過重)한 평가’라는 입장에 서 있지만, 동시에 검열의 현실에서 창작의 테마와 기술 문제를 고려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박승극에 대한 김남천의 댓글 역시 신랄하였다. 김남천은 “생명의 나무는 영원히 푸를 것이다. 그러나 노쇠한 박승극은 영원한 회색일 것이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악담에 가까운 것이었다. 당시 평론 분위기는 지극히 전투적이었다.

박승극은 임화와 김남천의 ‘물’ 논쟁에 끼어들어 양자를 비판하거나, 이기영의 소설과 권환(權煥)의 프로 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문을 발표하면서 중앙문단에 그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후 지속적으로 프로문학에 대한 관심과 입장을 발표하며 영향력을 늘려 나갔다.

- 「최근 문단의 일별(一瞥) : 문인들의 활동상태」(『조선일보』 1933년 9월 7일)
- 「최근의 프로 시단 : 권환(權煥)의 시편(詩篇)들(1)」(『조선일보』 1933년 9월 30일)
- 「최근의 창작평」(『조선일보』 1933년 10월 4~6일)
- 「농촌소설집 : 농민문학문제와 관련하여」(『조선일보』 1933년 12월 10~14일)

박승극은 “1933년 4월부터 8월 중순까지 10여 편의 글을 썼지만 스스로 버렸고, 붓대를 쥐고 싶을 정도”라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 박승극의 평론은 직설적이었고, 이러한 지속적 글쓰기를 통해 중앙문단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었다. 단호한 이데올로그의 역할이었다.

최근 조선의 문단은 너무도 적요(寂寥)하다. 젊은 문인들까지 침묵(沈默)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정세(情勢)가 이 사람들의 손을 잠그는 것이지만 그 잠근 손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큰일이다. 사람은 환경(環境)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그 환경을 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이러한 좋지 못한 정세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잘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도 또 필요한 의의 있는 일이다.³⁶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 문단은 적막하고 젊은 문인들조차 침묵을 지켜야 하는 정세에 불만족스러웠다. 이러한 정세를 뚫고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박승극의 현실인식이었고, 문학하는 태도였다.

한편 1934년 9월 2일 박승극은 수원경찰서에 수원 지역 사회단체 해산계를 제출하였다. 수원청년동맹, 수원노동조합, 수원출판노동조합, 수원농민조합지부, 수원소년동맹, 수원기자동맹, 신간회 수원지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등 8개 단체의 해산계였다. 이는 당시 수원 사회운동에서 박승극이 갖는 역할과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8개 사회단체 해소계 제출은 박승극의

단독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동맹원들과 협의를 통해 해소대회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에 일부가 반발하였다.³⁷ 사회단체 소속 동맹원들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단체 해소로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박승극의 현실인식이었다.

그러나 신간회 해산과 더불어 만주와 중국 침략을 앞둔 일제가 군국체제로 강화되자 각 부문 운동에 대한 강경한 탄압이 시작되

었다. 카프도 1931년과 1934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검거와 박영희의 전향선언으로 혼돈상태였다. 이에 카프도 1935년 임화, 김남천, 김기진의 협의 아래 경기도 경찰국에 해산계를 제출함으로써 10년에 걸친 카프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³⁸ 카프 해소가 논의되는 와중에 박승극도 1935년 8월 「예술동맹(藝術同盟) 해산에 제(際)하야」라는 글을 『신조선』(12호)에 발표하여 논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해소를 주장한 이데올로그였다.

한편 박승극은 1934년 2차 카프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1934년 2월 12일 박승극은 정운영(鄭雲永)의 소개로 고향 정문리를 찾아온 신갑범(愼甲範)을 만났다. 신갑범은 김낙성(金洛成), 송금산(宋金山)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전국회의소집준비위원회(朝鮮共産黨全國會議召集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있었다. 신갑범은 수원 지역 책임자로 박승극을 지목하고 정문리를 찾아와 하룻밤을 함께했던 것이다. 이때 구속된 26세 박승극의 직업을 일제는 ‘저술업(著述業)’으로 특기하고 있다.

1931년 11월 수진농민조합사건으로 수원경찰서에 검거되었다가 1933년 3월 무죄 언도를 받아 출소한 이래 자택과 경성 사이를 왕래하며 잡지의



수원 사회단체 해소계를 제출한 박승극 (『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10일)

원고 저술 등을 하며 전적으로 문화운동 방면에 분주하고 있다.³⁹

이는 일제가 박승극이 1933년 이후 오로지 저술에 힘쓰며 문화운동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33년과 1934년 박승극은 소설 1편도 발표하지 못하였다. 2년간 평론 썼을 뿐이다. 1935년 들어 비로소 박승극은 본격적으로 소설을 발표하고 있다. 「풍진(風塵)」(『신인문학』 4~6, 1935년 4~6월), 「그 여인」(『신인문학』 8, 1935년 8월), 「색등(色燈) 밑에서」(『신인문학』 9, 1935년 10월), 「항간사(巷間事)」(『신인문학』 10, 1935년 12월), 「화초(花草)」(『신조선』 1935년 12월) 등이 그것이다. 1935년은 문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추고자 노력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박승극은 1935년 소설을 통해 1920년대 활동 당시 젊은이들이 가졌던 생각과 내용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과연 그때 그 젊은이들의 하던 일은 옳고도 용감한 것이었다. 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강습소와 야학을 개설하였었고, 인민들의 선두에서 관공청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하였었다. 지주와 마름, '유지'들 과도 그들은 타협 없는 싸움을 하였었다. 그때 소작쟁의 적에는 경찰관들의 제지를 무릅쓰고 토지문제를 혁명적 평민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외치면서 군중시위를 단행하였었다.

간부들이 '비밀결사조직'과 '선동'의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에 걸리어 경찰서를 거쳐 감옥으로 넘어갔었지만, 투쟁의 결과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마름의 중간착취인 '색조(色租)' 제도가 없어지고, 지주의 구채가 탕감되고, 소작권 이동이 견제당하고, 소작료가 훨씬 내려졌었다. 일시적인 기만정책이었지만 인민들을 대하는 관공청의 태도도 약간 누그러졌었다.

그러나 사태는 급변하여 오늘날의 형편은 어떠한가!⁴⁰

박승극은 1920년대 농민들과 함께한 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울트라'였던 그때의 삶이 올바르다는 인식은 당시 서울 생활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다. 또한 당시 일본의 중국 침략 등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국은 박승극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박승극은 1936년 중앙문단을 떠나 낙향을 결심한 것이다. 이는 중앙문단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문학 활동에 대한 회의 그리고 중일전쟁 전야의 폭압적 정세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이미 1933년 4월에 집필한 「농민문학론」을 조선일보사에 투고하였으나 게재되지 못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편집국장은 주요한(朱耀翰)이었고, 그의 게재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학예부 담당이었던 소설가 김동인(金東仁, 1900~1951)의 묵살했기 때문이었다. 김동인은 1933년 4월부터 조선일보사 학예부에 40일 정도 근무할 때였다. 재직 당시 김동인은 이기영의 소설 「서화」를 『조선일보』(1933년 5월 3일~7월 1일)에 신계 하였다. 그러나 박승극의 「농민문학론」이 『조선일보』에 실리지 않은 것은 단호한 이데올로그로서 박승극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또한 안서 김억 등 김동인과 친한 문인들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고가 신문에 실리지 않자 박승극은 조선일보사 학예부의 김동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고, 끝내 게재되지 않자 사람을 보내 원고를 돌려받았다. 이런 김동인의 태도에 대하여 박승극은 분노하였다.

발표된다는 것은 제 세상을 만난 듯 난무하고 있는 일련의 문인들에게 야비한 반감을 사고, 더 나아가서는 공연한 보이코트를 당할 뿐⁴¹

이러한 생각은 4년간 중앙문단에서 활발한 평론활동을 펼치던 박승극은 중앙문단에 대한 회의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1934년 3월 쓴 「작가시간표」에서는 러시아어, 에스페란토어 공부를 비롯하여 철학과 문학 책을 읽는 박승극을 만날 수 있다. 손이 부어오르도록 날마다 원고지 5~6매 이상을 쓰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현대사회이 중추적 현상과 그 거리를 멀리한 닭소리만 들을 수 있는 한촌에서, 고독한 심정을 부더안고 부질없이 책과 원고지를 벗하는 소극의 생활!
오! 불만의 생활이여.

그러나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이런 생활을 고행치 않으면 안 된다. 아니 도리어 이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나 이 고민의 불길을⁴²

그러나 말벗할 사람을 가지지 못한 고향, 한촌인 시골을 원망하며 사색에 담기는 일상을 보여 준다. 고향과 서울을 오가며 문필활동을 지속했던 박승극은 그럼에도 서울 생활에도 불만스러워 했다. 더욱이 '뼈 없는 소설, 분장(扮裝)의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증오, 서울의 문학적 분위기와 동향에 절망하고 있었다.

비참과 우울과 음란과 오예(汚穢)와 허위와 퇴폐에 가득찬 서울을 극도로 증오하는 내가, 너무나 모순되게도 그런 분위기 속에 한몫 끼어 비록 단시일간이나마 무사분주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이 요녀의 추파 같은 봄의 감촉을 느끼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던, 그 지긋지긋하게 미우면서도 또한 지긋지긋하게 사랑스러운 나의 고향-수원 한촌(寒村)-을 찾기로 했다.⁴³

박승극은 이에 고향으로 귀촌을 통해 삶의 형식과 내용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였다. 그렇게 박승극은 고향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수필을 통한 우회적 저항의 글쓰기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5. 농민문학과 농민 속으로 : 고향 정문리 시대(1936~1945)

1936년 4월 9일 박승극은 고향으로 낙향을 실천하였다. 그날 저녁 남대문역에서 기차를 타고 석양이 붉게 물든 오산역에 내린 박승극은 동지였던 오산의 변기재(邊基在)가 하룻밤을 굳이 자고 가라는 만류를 완강히 사양하고는 20리가 넘는 논밭길을 걸어 고향 정문리에 도착하였다.

박승극은 현경준의 친구였던 모군과 문학의 양식과 형식문제에 대한 논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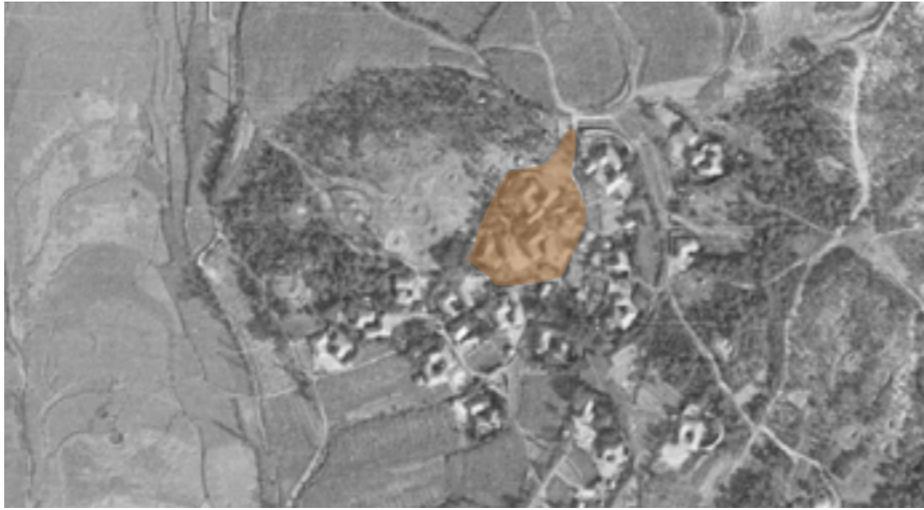
나눈 뒤 곧바로 낙향한 것이다. 박승극은 동갑내기였던 현경준(玄卿駿, 1909~1950)과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현경준은 1934년 문단에 데뷔하여 활발한 창작활동을 했으나 현실을 외면하는 문단에 실망하고 1937년 만주로 떠나 그곳에 정착하였다. 박승극이 1936년 낙향한 다음 해에 만주로 떠남으로써 박승극과 비슷한 선택과 경로를 밟았다.

한편 박승극의 귀향은 가정적인 문제도 있었다. 첫아들의 죽음이라는 충격이었다. 1928년 1월 영천 출신의 공태옥(孔太玉)과 결혼한 박승극은 1930년 첫딸 경서(慶緒)와 1934년 둘째 딸 혁서(革緒) 출생 이후 1935년 9월 16일 첫아들 평서(平緒)를 얻었다. 박승극을 비롯한 집안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6년 1월 31일 장남 평서의 죽음은 박승극을 지극한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다. 장남 평서의 죽음도 박승극의 낙향을 재촉하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서울 생활에 대한 회의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낙향 이후인 이듬해 1937년 5월 6일 둘째 아들 대서(大緒)를 낳으면서 고향으로 귀촌한 것에 대한 안심과 정서적 안정을 찾아갔다.

박승극은 귀향 직전 「추야장(秋夜長)」(『신인문학』 11, 1936년 1월), 「풍경」(『신조선』, 1936년 1월)을 발표했지만 1936년 4월 귀향 이후 소설 창작은 「백골(白骨)」(『비판』, 1936년 9월)이 유일하였다. 박승극은 이에 더하여 1937년과 1938년까지 2년간 소설을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하였다. 귀향 후 작품 활동보다는 농사를 짓는 방법과 농촌현실에 적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1939년에 이르러서야 「술(酒)」(『비판』, 1939년 4월)과 「눈(雪)」(『신세기』, 1939년 10월) 등 소설 2편을 발표할 수 있었다. 결국 1936년 4월 귀향 이후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소설은 3편밖에 발표하지 못한 셈이다.

1936년부터 쉬었다 썼다 하던 장편소설을 1937년 봄 완성하였다. 이에 『희망』(제1편)이라는 이름으로 1938년 봄 출판하려다가 못하였다.⁴⁴ 출판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박승극 스스로 작품에 불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에도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 전인 1937년 초 박승극은 1933년부터 4년간 발표한 시론, 비평, 감상 등



박승극의 고향 양감면 정문리(1966년, 화성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양감면 정문리 348번지가 박승극이 태어난 곳이다.

40여 편을 묶어 문학평론집 『시대와 문학』을 비판사(批判社)에서 발행하고자 했다. ‘시대’와 ‘문학’을 표방한 것은 박승극의 현실 인식이자, 당대의 사회와 문학 상태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문까지 써서 조판까지 마쳤던 이 책은 일제의 검열로 취소되었다. 이는 박승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좌절감과 일제에 의해 강요당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다. 이러한 검열에 의한 출판 실패는 낙향을 결심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차마 붓을 꺾을 수는 없고, 그대로 붙들기를 지탱하자니 어떻게 해야
옳을지 당황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한 것과 같이 문학과 정열은 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정열을 상실하면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열을 찾도록 발버둥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열을 찾아낼 길이 막히었고, 오직 무력과 고민 속에서 처사(處士)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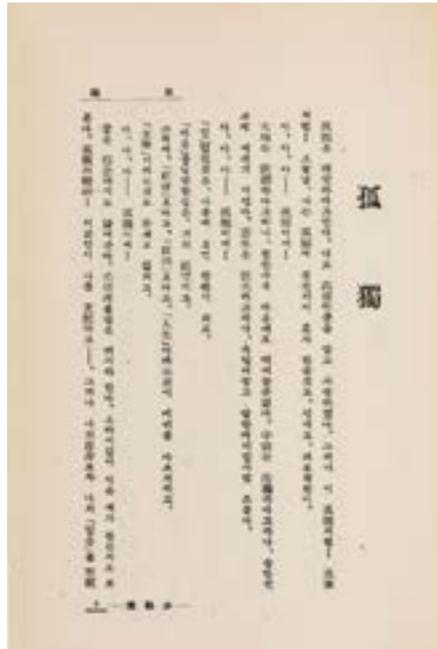
1937년 3월 작가 현경준에게 쓴 편지글인데, 박승극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차마 붓을 꺾을 수는 없고, 그대로 붙들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인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정열을 상실한 채 오직 무력과 고민 속에서 처사(處士)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쓰지 못하는 문학가’가 된 자신의 정체된 문학수업을 어떠한 방식으로나 재출발하고자 하는 고심이 담겨 있다.

1937년 평론집 『시대와 문학』과 1938년 장편소설 『희망』을 출판하고자 한 계획이 무산되자 대신 그동안 써 놓았던 수필들을 모아 책을 출판하였다. 1938년 6월 수필집 『다여집(多餘集)』을 남대문 금성서원(金星書院)에서 발간한 것이다. 1933년 출소 이후 1938년 5월까지 근 5년간 틈틈이 쓴 수필을 묶은 것으로 박승극에게는 활자화된 최초의 단행본이었다.

『다여집』은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논리적 성격의 에세이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여집』 발간 이전에 이광수의 『금강산유기』(時文社, 1924), 최남선의 『심춘순례』(白雲社, 1926), 『백두산근참기』(한성도서주식회사, 1927), 김억의 『사상산필(沙上散筆)』(白熱社, 1925)이 있었다. 『다여집』 발간 이후 정현웅 편 『수필기행집』(현대조선문학전집, 조선일보사, 1939), 박종화의 『청태집(靑苔集)』(1941), 이태준의 『무서록(無序錄)』(1941), 재만조선문인들의 『만주조선문예선』(1941) 등이 발간되었다. 따라서 『다여집』은 해방 이전에 간행된 유일한 에세이집으로 기존의 기행수필집이나 평론집 성격의 다른 것들과 달리 진술의 에세이집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⁶ 『다여집』에 대하여 당대 이기영의 서평은 글 자체가 박승극이라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다여집(多餘集)』은 마치 박형의 인격을 거의 정신적으로 뭉쳐 놓은 것 같다 할 것이다. 그의 건실한 사상과 간간한 문장과 그러면서도 정열적인 것이 우선 그렇게 보인다. ……

과거의 그의 언동이 젊음이로서는 지나칠 만큼 침착결백(沈着潔白)하고 또한 사회악에 정면으로 부딪쳐 온 긴장(緊張)된 생활경험이 풍부하였던 만큼 그의 문장에는 로맨틱한 영롱(玲瓏)이 없는 대신에 준엄(峻嚴)한 기상이 어디나 나타난다.⁴⁷



박승극의 『다여집』(1938년)



박승극의 수필은 가식 없는 자신의 삶과 현실에 대하여 투명하게 그리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현학적인 자기 과시도 없고 무리한 논리전개도 없다. 박승극 자신의 담백하지만 간간한 성격과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이웃 사람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그리고 있다.

입화는 서평을 통해 책 제목 『다여집(多餘集)』이 '취추바이(瞿秋白)'의 시구에서 따온 것을 알려 준다.⁴⁸ 즉 취추바이(瞿秋白, 1899~1935)의 『다여적화(多餘的話)』에서 따온 책명임을 알 수 있다. 취추바이는 중국 근대의 혁명가이자 문예평론가이자 러시아 전문가였다. 1925~1931년 중국공산당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특히 1927년 중국공산당 서기로 취임하였다. 1935년 2월 국민당 군대에 체포되어 6월에 36세 나이로 처형당하였다. 저서로 러시아 특파원 때 쓴 『아향기정(餓鄉紀程)』(1921), 『적도심사(赤都心史)』(1924)가 있다. 사후 노신(魯迅)의 노력으로 그의 저술을 모은 『해상술림(海上述林)』(1936년 10월)이 출판되었다.

처형 직전 감옥에서 쓴 자전적 글이 『다여적화』이다. '부질없는 이야기'라는 뜻을 지닌 이 에세이는 중국혁명 과정에서 겪은 고뇌를 지극히 솔직하게 서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진정한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반추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박승극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인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취추바이는 작품내용과 창작방법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현실주의와 정치적 효용가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현실주의는 단순히 현실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을 사회주의 혁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동하는 정치적 효용을 갖춘 것이었다. 동시에 취추바이는 하향(下鄉)과 하방(下放)의 개념을 제기 하였는데, 대중적인 문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와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정서를 공감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⁹ 이러한 취추바이의 생각은 박승극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와 실천이 박승극의 삶에 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 이래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정국은 군국주의적 민족 말살기에 접어들었다.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미래상을 창작해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박승극은 1939년 11월 11일 국민정신작흥주간 제5일 시국인식일을 맞이하여 수원군에서는 개최한 수원 현상 웅변대회에 참여하였다. 수원을 공회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조선방공협회 수원지부와 전선(全鮮)사상보국연맹 수원분회가 공동 주최하고, 조선일보사 수원지국과 수원읍이 후원한 행사였다. 박승극은 변기재와 함께 연사로 참여하였다. 조선일보사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 박승극은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였고 변기재는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이었던 인연이었을 것이다. 이날 경성의 유현국(劉賢國)이 「흥아의 요체」, 양감면 박승극이 「흥아와 방공」 그리고 수원읍 이동안(李同安)이 「방공에 대한 반도청년의 각오」, 오산면 변기재가 「방공과 정신작흥」이라는 주제로 웅변을 한 것이다. 일제는 1920년대 초반부터 '국민정신작흥(國民精神作興)'이라는 이름의 강연을 실시해 왔다. 이에 더하여 '국민정신작흥주간'을 설정하여 보다 강화된 형태로 운영한 것은 1933년부터였다. 1주일 동안 신사참배일(神社參拜日), 경로애유일(敬老愛幼日), 생활개선일(生



전쟁터로 떠나는 군대 환송식(『중일전쟁화보』, 1935. 수원광고박물관 제공)

活改善日), 극기인고일(克己忍苦日), 공덕함양일(公德涵養日), 시국인식일(時局認識日), 건강증진일(健康増進日), 보은감사일(報恩感謝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강연과 행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1938년 10월 7일부터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민작흥주간 행사에서 경기도는 부인강사 10명을 동원한 순회강연회를 개최하였다.⁵⁰ 시대가 엄혹해 가고 있었다. 박승극과 변기재의 변화된 활동은 이를 감지하게 만든다. 이미 시대가 변하면서 ‘뜨거운 울트라’였던 박승극과 변기재에게 지속적인 회유와 전향 공작이 진행되었을 것임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더욱이 일제의 창씨개명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이에 1940년 6월 24일 양감면 정문리 반남 박씨는 문정(文正)으로 창씨하였다. 다음 달인 7월 29일 박승극 일가족은 모두 개명하였다. 박승극은 천랑(天郎)으로, 동생 4남 승호(勝浩)는 영랑(永郎)으로,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동생 3녀 승구(勝具, 1925년 9월 20일)는 선자(善子)로 개명하였다. 같은 날 박승극의 아들딸도 모두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 신고하였다. 즉 큰딸 경서(慶緒)는 덕자(德子)로, 둘째 딸 혁서(革緒)는 인자(仁子)로, 아들 대서(大緒)는 광랑(光郎)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창씨개명이 진행되고 폭압적 파쇼체제가 강화되는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박승극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적 지식인의 모습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여집』(1938년 6월) 발간 이후 박승극은 1939년 2편의 소설을 제외하면 1940년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수필만 쓰고 있다. 1943년 1월 『반도(半島)의 광(光)』 필자 약력에 박승극은 스스로 ‘수필가’로 적고 있을 정도이다. 소설가나 평론가가 아니라 수필가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기 박승극이 선택한 수필은 ‘유격적 장르’로서 ‘우회적 저항’의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¹ 결국 박승극은 수필을 통한 우회적 저항을 선택한 셈이다.

이미 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조선어 신문이 폐간되고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군국주의시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박승극이 『매일신보』에 기고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그럼에도 1942~1943년 『반도의 광』에 쓴 「농촌기(農村記)」와 일본어 잡지 『동양지광(東洋之光)』의 「농촌수필(農村隨筆)」의 다양한 농촌 관련 글에서 친일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친일적인 글로 도배되던



『매일신보』(1941년 11월 23일)에 기고한 박승극의 수필

『동양지광』에서 박승극이 일본어로 쓴 글에서조차 친일적이 내용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동양지광』에 박승극이 마지막으로 쓴 1944년 10월호의 「물(水)」이라는 수필에도 발동기 양수기를 고치는 이타적인 고향 청년과 수원 읍내 유지들의 비교를 통해 우회적 저항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타인이야 어찌되건 자신만 이익을 얻으면 그것으로 좋다는 풍조이지 않은가. 요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아무개를 보자. 원래 그 사람들도

모든 것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인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읍내에서 일류 지주이자 부호로 알려진 차모 씨, 양모 씨, 홍모 씨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견해는 크나크게 잘못된 망령된 생각이다. 도무지 그 같은 자들이 …… 다만 그들에게 반성의 날이 오기만을 절실하게 바랄 뿐이다.⁵²

여기서 쓴 읍내의 일류 지주들은 수원의 3대 지주로 꼽히는 차모 씨는 차유순(車裕舜), 양모 씨는 양성관(梁聖寬), 홍모 씨는 홍사훈(洪思勳)을 일컫는 것이다. 여전히 박승극은 낙향을 해서 고향에 있지만 글쓰기를 통한 우회적 저항과 동시에 억압적 비상한 시대를 고민하는 지식인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대지는 광활(廣闊)하다고 하나, 밭 한 자욱 마음대로 떼어 놓 곳이 없다. 우주는 활한(活潑)하다고 하나, 숨 한 번 크게 내쉬기 어렵다. 창생(蒼生)은 억조(億兆)라고 하나, 속 털어 놓고 말 한 마디 할 사람 드물다.⁵³

일제강점기 억압적 사회 분위기와 지식인으로 갖는 고민과 고독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다. 당시 낙향은 당시 문화예술인,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또 다른 저항의 방식이었다. 적극적인 투쟁의 방식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서 일제에 타협할 수 있는 중앙문단 활동을 접고 낙향을 통해 소극적 저항을 하는 것이었다. 문필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붓을 던져 글쓰기를 멈추는 방법이 있고, 소극적 저항의 형태로 낙향을 하고 농민들 속에 들어가, 즉 농사를 지으며 그들의 삶과 고민과 꿈을 그리는 농민문학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다. 박승극의 농민문학에 대한 지향은 현실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이었다. 더욱이 ‘뼈 없는 소설, 분장(扮裝)의 소설’을 격렬하게 비판하며 선택한 길은 농민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설을 통해 형상화하기 어려운 현실은 소설을 접고 수필을 통해 농촌과 농민들을 곡진하게 그려내는 것이었다.

박승극은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옹호하면서 그 본질을 농민문학에서 찾았다. 이는 『동아일보』에 4회 연재된 평론 「농민문학의 옹호」(1940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노선은 해방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인 소비적인 문학과 결별하는 것은 은둔과 추종에서 벗어나는 문학적 신세대의 당연한 과제”로 인식한 박승극은 “시대적이고 생활적인 문학의 길”을 찾아가고자 했다. 그 길이 ‘흙의 문학-농민문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굳건히 “흙 위에 버티고 서자.”는 주장이었다.⁵⁴

농민의 적나라한 생활, 풍속, 습관, 농촌의 현실을 가장 똑바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좋다. 대자연, 흙 그리고 향토색을 읊는 것도 좋다. 요는 사실적인 태도로 유구한 인간성을 떠나서가 아니다.⁵⁵

‘사실을 사실대로 쓰자!’는 슬로건으로, 박승극은 이 기본적인 방법이야말로 전통과 시대를 관통하는 힘이자, 창조의 원천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리얼리즘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다만 패배의 쇠약한 소구(小軀)을 끌고 소극적인 ‘문필생활’을 하는 지금!”을 버티는 힘이였다. 박승극은 ‘붓을 든 혁명가’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승극은 혁명이 어려운 시절 ‘울트라’는 아니지만 글쓰기를 통한 우회적 저항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6. 맺음말

박승극은 1909년 11월 2일(음력) 수원군 양감면 정문리(포당동) 348번지에서 반남 박씨 아버지 박흥양(朴興陽, 1892~1980)과 예안 이씨 이인서(李仁緒, 1886~?) 사이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정문리는 청주 한씨와 반남 박씨가 섞여 사는 마을인데, 포당동은 반남 박씨가 중심인 동족마을이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양감면은 수원군에서도 가장 궁벽한 지역으로 수원군 양감면

정문리는 황구지천을 경계로 진위군(평택군) 서탄면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수원 읍내에서 멀기도 하거니와 수원읍의 대표적 유지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원 인근의 대토지를 소유한 전통적 별열가문도 아니었다. 소작농들이 대부분인 가난한 농촌의 몰락한 양반 출신이라 할 수 있다. 박승극은 7남매 장남으로 10대 중반까지 전통적인 한학을 배우던 소년이었다.

한편 양감면은 1919년 3·1운동 당시 격렬한 만세시위가 펼쳐지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근 향남·팔탄면, 우정·장안면 지역의 혹독한 탄압에 비하면 자유로운 처지였고 이러한 특수성은 1920년대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이 상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다. 동시에 경부철도가 통과하는 오산역이 30리, 서정리역이 20리 지점에 위치하여 외래 사상과 문물이 적당히 흘러들어 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은 인근 마을 사창리에 보신강습소가 생기고 근대적 학문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게 만들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각 지역에 청년회가 만들어 지고 1920년대 지역마다 높은 ‘향학열(尙學熱)’이 고조되면서 교육운동이 펼쳐졌다. 이러한 와중에 인근 사창리에 보신강습소가 개설되면서 전통적인 한학을 공부하던 박승극은 새로운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에 보신강습소에서 신학문을 접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 서울로 상경하여 새로운 세상을 겪으며 1925년 배재고보 2학년에 편입하였다. 1925년은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고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이 조직된 해였다. 박승극은 배재고보 재학시절 동아시아를 강타한 신사상으로서 사회주의사상을 적극 수용하였고, 이는 이후 박승극의 삶과 문학의 기본 동력이 되었다. 1928년 3월 배재고보 4학년을 수료하고 도쿄 니혼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일본에서 돌아왔다. 1928년 여름 고향 정문리에서 신흥학당을 세워 무산아동교육을 펼친 이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식민지 조국에서 실천 운동을 시작하였다. 1928년 말 이후 수원 읍내로 진출하여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로 활동하며 수원 지역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8년부터 수원 지역 사회운동가로서 뜨거운 삶을 살았던 박승극은 숭한 구금과 구속을 당해야 했다.



박승극

1930년 한 해 동안에도 합법적 허가신고로 개최된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로 구속되고, 관계없는 수원격문사건으로 45일 동안 구속되었으며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이하여 예비 검속되었다. 수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 같으면 무조건 박승극을 예비 검속하였다. 이렇게 뜨거운 ‘울트라’로 살면서 수원의 ‘박승극 시대’를 이끌었던 것이다.

1931년 말 수진농민조합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4개월 정도 수감되었다가 1933년 무죄 석방된 이후 수원 지역 8개 단체

해산계를 제출하고 문학운동에 투신하였다. 이후 사회운동에서 문학운동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고향과 서울을 오가며 단호한 이데올로그로서 중앙문단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중앙문단에 대한 실망으로 1936년 이후 고향 정문리로 낙향하여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과 함께하는 농민문학가의 길을 걸었다. 즉 1931년 만주 침략과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제국주의의 군국주의 화와 민족문화 말살이 전면화되자 낙향을 선택한 것이다. 1940년 이후 농민과 농촌 현실을 고발하는 수필만 썼다. 즉 1941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수필 농촌통신(農村通信)」이나 잡지 『반도의 광』에 1942~1943년 쓴 「농촌기」, 그리고 1942~1944년 일본어 잡지 『동양지광』에 실린 「농촌수필」까지 리얼리즘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었다. 일본어 잡지에 일본어로 쓴 글에서도 친일적인 혐의를 찾기 어렵다. 리얼리즘에 기초한 농촌과 농민이 있을 뿐이다. 농촌과 농민의 실상을 알리는 수필이라는 장르와 우회적 글쓰기라는 소극적인 저항을 통해 박승극은 극악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건너고자 했다. 박승극은 고향 정문리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농민들과 함께 있는 그대로 보고 쓰면서, 해방의 그날을 위해 치욕의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투쟁적인 뜨거운 ‘울트라(ultra)’에서 농촌과 농민과 함께하는 농민문학가, 수필가로 자신을 위로하며 이전에 경멸적으로 보았던 ‘나로드니키(narodniki)’로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을 견뎌냈던 것이다. 그럼에도 박승극은 1928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25차례 검속과 구금을 겪으며 가장 치열하게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

- 1 김권정, 「일제 강점기 김세환의 기독교 민족운동」, 『송실사학』 18, 송실대학교사학회, 2005; 황민호, 「김세환-수원의 민족정신을 지킨 지도자」, 『수원독립운동 인물열전-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다』, 수원박물관, 2018.
- 2 박승극, 「泉谷訪問記- 崔容信 양의 유적을 찾아」(1938년 5월), 『다여집(多餘集)』, 1938; 『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21쪽; 한동민, 「염석주의 국내 사회 운동과 샘골강습소 - 박승극의 「천곡방문기」를 중심으로」,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연구원, 2015.
- 3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조성운, 「박승극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2001; 기타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11,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이동근,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조성운, 「한 지식인의 삶과 수원- 박승극」, 『춘담 류준기 박사 정년퇴임기념논총-한국근현대인물강의』, 국학자료원, 2007; 성주현,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송실사학』 22, 송실대학교사학회, 2009; 조성운, 「화성출신 지식인 박승극의 사회주의적 민족운동」, 2018.
- 4 정영진, 「〈정치문인〉 박승극의 궤적」, 『현대문학』, 1992년 3월; 조남현, 「박승극의 실천·비평·소설」, 『한국문화』 2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0년 6월; 전기철, 「박승극의 자전적 소설」, 『박승극 문학전집 1- 소설』, 학민사, 2001; 전기철, 「박승극소설고」, 『송의논총』 25, 송의여자대학, 2001; 권영미, 「박승극의 문학연구-소설과 비평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권영미, 「박승극의 문학연구」, 『수원문화사 연구』 6, 수원문화원, 2007; 오양호, 「떠돌다 떠나버린 한 지식인의 내면 풍경-박승극의 〈다여집〉론」, 『수필과 비평』 96, 수필과비평사, 2008; 우대식, 「박승극의 생애와 소설」, 『수원학연구』 9, 수원문화원 수원학연구소, 2012; 김재용, 「유격적 장르로서의 수필과 우회적 저항」, 『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김재용, 「국가로부터 독립된 개인과 사회는 불가능한가?-박승극론」, 『수원역사문화연구』 3, 수원박물관, 2013.
- 5 김시중, 「내가 만난 박승극 형」, 『박승극문학전집 1』, 2001, 427~429쪽.
- 6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58~70쪽.
- 7 박태일, 「수원 지역 어린이문학가 안준식의 삶과 문학」, 『한국문학논총』 81-1, 한국문학회, 2019. 박태일은 안준식을 안평원과 다른 인물이자 수원 출신으로 호명함으로써 수원

- 지역 문학인임을 최초로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출생지를 밝히지 못하고, 배재고보를 중퇴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 8 일제 측 자료는 안준식이 오산공립보통학교 졸업연도를 소화 2년(1927)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대정 2년(1913)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오산공립보통학교(현 성호초등학교) 개교 연도가 1913년이라는 점에서 안준식이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우리동무事件)』, 京城地方檢事局, 1932년 7월, 22쪽.
- 9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우리동무事件)』, 京城地方檢事局, 1932년 7월, 21~22쪽.
- 10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 『出版法違反及其他檢舉에 관한 건(우리동무事件)』, 京城地方檢事局, 1932년 7월, 23~24쪽.
- 11 京東警高祕 제1311호, 「朝鮮共產黨 再建을 목적으로 하는 코민테른朝鮮레포트會議事件檢舉에 관한 件」, 『思想에 관한 情報』 7, 1934년 6월 6일; 京高特祕 제1800호, 「朝鮮共產黨再建 코민테른 朝鮮레포트會議事件 검거에 관한 건」, 『警察情報綴(昭和 9年)』, 1934년 6월 27일.
- 12 「支局設置紀念 讀者慰安映畫, 本報 水原支局」, 『조선일보』 1929년 1월 15일.
- 13 「名所찾기 懸賞 당선자 발표(3)」, 『중외일보』 1930년 1월 3일.
- 14 「朴氏被檢」, 『중외일보』 1930년 3월 6일.
- 15 「水原靑盟 定期大會召集, 常務委員會組織」, 『중외일보』 1930년 3월 12일.
- 16 「水原靑盟 常務執行委員會」, 『중외일보』 1930년 3월 21일.
- 17 「제1회 근기기자대회, 본월 19, 20 양일간 수원공회당에서」, 『중외일보』 1930년 4월 11일.
- 18 「水靑烏山支部 定期大會經過」, 『중외일보』 1930년 4월 1일.
- 19 「展覽會場의 裝飾品을 押收, 회장을 경계」, 『중외일보』 1930년 3월 31일.
- 20 「水原署 俄然히 三靑年檢舉, 家宅도 二三處搜索」, 『중외일보』 1930년 4월 3일.
- 21 「水原警察에서 美術寫眞押收」, 『중외일보』 1930년 4월 4일.
- 22 「檢定認可한 美展을 中止시키고 檢舉」, 『중외일보』 1930년 4월 8일.
- 23 「盛況일운 大化塾落成式」, 『중외일보』 1930년 4월 13일.
- 24 「注意, 中止중 會議依順進行, 水原新支臨時大會經過」, 『중외일보』 1930년 4월 27일.
- 25 「水原記盟 執行委員會 經過」, 『중외일보』 1930년 4월 27일.

註

- 26 「수원서 긴장, 양청년을 검거, 『중외일보』 1930년 4월 28일.
- 27 「수원경찰의 고압, 집회를 일체 금지, 『조선일보』 1930년 5월 12일.
- 28 「수재동포를 위한 과자행상도 금지, 수원경찰의 무리한 탄압, 『조선일보』 1930년 8월 4일.
- 29 「水原靑支部 委員會禁止, 『조선일보』 1930년 12월 18일.
- 30 「社告, 『중외일보』 1930년 8월 20일.
- 31 「鐵窓呻吟一年半, 證據입서 無罪言渡, 水振農組四名判決, 『중외일보』 1933년 3월 28일.
- 32 水振農組事件 無罪者補償金 請求提訴, 『매일신보』 1933년 6월 6일.
- 33 「수진농조사건 남상환씨 별세, 『동아일보』 1933년 4월 22일.
- 34 「감상(感傷)(1938년 4월)(『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61쪽).
- 35 박승극, 「시대와 문학에 대하여(1937년 3월), 『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117쪽.
- 36 最近文壇의 一瞥: 文人들의 活動狀態, 『조선일보』 1933년 9월 7일.
- 37 「水原社會團體 解消後續報, 華城學院運動場問題化 朴氏管理說은 自薦, 『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10일.
- 38 김병익, 『한국문단사, 1908-1970』, 문학과 지성사, 2001.
- 39 京高特祕 제1800호, 「朝鮮共產黨再建 코민테른 朝鮮레포트會議事件 검거에 관한 건, 『警察情報綴(昭和 9年)』, 1934년 6월 27일.
- 40 박승극, 「평범한 이야기(1935)(『박승극 문학전집 1-소설』, 학민사, 2001, 131쪽).
- 41 박승극, 「여름을 보내며(하), 『조선중앙일보』 1935년 9월 3일.
- 42 박승극, 「불타는 불만(1935년 5월)(『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164쪽).
- 43 박승극, 「귀향(歸鄉)(1936년 4월), 『다여집(多餘集)』, 금성서원, 1938(『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140쪽).
- 44 박승극, 「천국방문기(『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22쪽).
- 45 박승극, 「시대와 문학에 대하여(1937년 3월)(『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115쪽).
- 46 오양호, 「떠돌다 떠나버린 한 지식인의 내면 풍경-박승극의 <다여집>론, 『수필과 비평』 96. 수필과비평사, 2008.
- 47 民村生, 「복레뷰-朴勝極 著 『多餘集』, 『동아일보』 1938년 9월 18일.
- 48 林和, 「복레뷰-朴勝極 수필집 『多餘集』, 『조선일보』 1938년 9월 24일.

- 49 김영규·김진공, 『중국현대문학론』 한국방통대출판부, 2007, 114~115쪽.
- 50 「가정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생활의 기본양식 제정, 『조선일보』, 1938년 10월 30일.
- 51 김재용, 「유격적 장르로서의 수필과 우회적 저항, 『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347~352쪽.
- 52 「물(水), 『동양지광』 1944년 10월; 『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343~345쪽.
- 53 「고독(孤獨)(1938년 5월)(『박승극 문학전집 2-수필』, 학민사, 2011, 11쪽).
- 54 박승극, 「생활적인 문학, 『朝光』 1940년 1월.
- 55 박승극, 「事實을 母胎로, 生産文學의 展望(5-완), 『매일신보』 1940년 12월 24일.

수원 3·1운동을 기록하고 기억하다

II

수원 3·1운동을 알리는 또 다른 주역, 사진

이병헌의 『3·1운동비사』로 보는 수원 3·1운동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구술사적 의의

홍성원 소설 『먼동』의 수원 3·1운동 형상화



수원 3·1운동을 알리는 또 다른 주역, 사진

3·1운동 관련 자료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 문헌자료, 즉 일본 측의 보고문, 예심종결서, 판결문 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3·1운동에 직접 참여한 지사들의 구술 또는 체험기록 등이 주체 측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텍스트 중심의 자료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자료 유형이 있는데, 바로 사진자료이다. 사진자료의 경우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즉 언어적 재현의 한계를 일거에 돌파한 사진의 생생함이야말로 그 무엇도 따를 수 없는 현실 재현의 권위를 갖는다. 사실과 현실에 대한 증거능력을 가진 사진의 위력은 근대 사회 전면에서 발휘되었다. 그러나 사진도 촬영자의 시선 또는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편향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당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시선을 끈다.

수원군 지역은 3·1운동과 관련해서 외국 선교사의 사진, 수형자카드, 만세운동 관련 지도 및 도면 등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남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진들을 통하여 수원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1. 감시와 처벌을 위한 기록 : 일제가 생산한 사진과 도면

1)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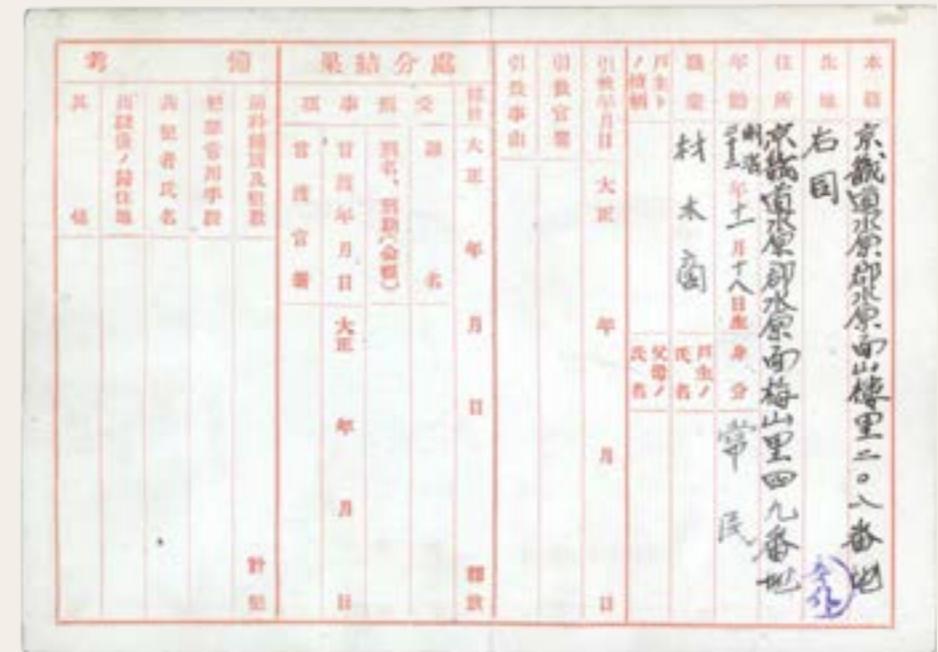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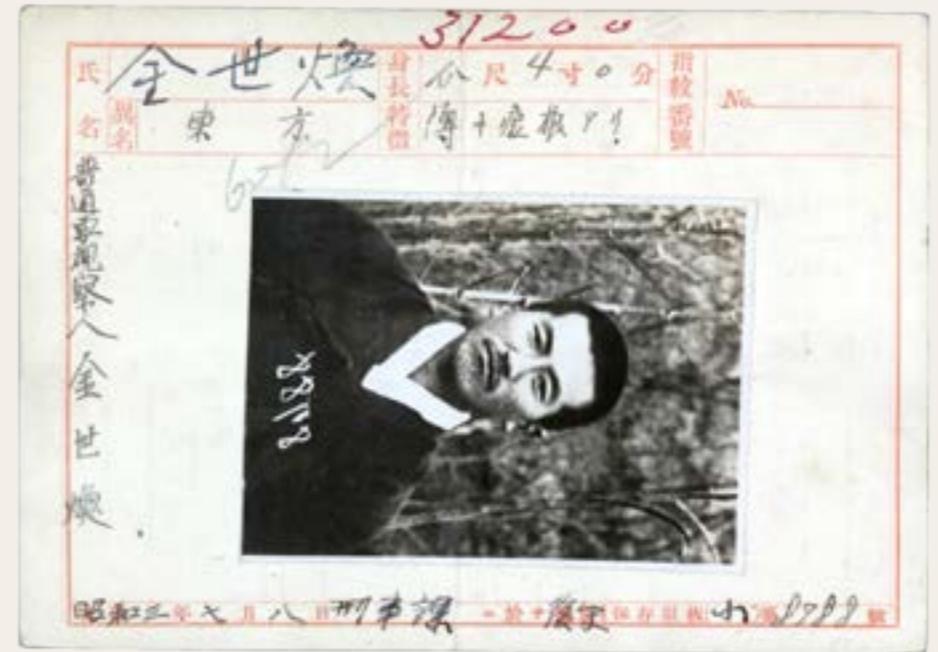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일제시기 독립운동가의 수행기록을 알 수 있는 '인물카드'가 있다. 인물카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공개되고 있는데, 개별 인물카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수행자카드가 남아 있는 수원군 3·1운동 참여자

지역	성명
수원면(1명)	김세환
송산면(24명)	김교창, 김도정, 김명제, 김성실, 김용준, 문상익, 민용운, 박춘흥, 오광득, 왕광연, 이윤식, 이정집, 전도선, 정군필, 차경현, 최춘보, 홍광후, 홍면옥, 홍명선, 홍복룡, 홍성한, 홍준옥, 홍태근, 황칠성
장안면·우정면(17명)	김교철, 김덕근, 김덕삼, 김명우, 김여근, 김응식, 김응오, 김종학, 백순익, 윤영선, 정순영, 차병한, 차병혁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김세환은 수원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1919년 2월 10일에 박희도를 만났고, 2월 18일부터 다시 박희도를 수차례 만났으며, 2월 21일에는 이갑성 집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원과 충청 지역을 담당하는 '순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해미교회 사경회에 참석한 홍성교회 김병제 목사, 남양교회 동석기 목사, 그리고 이천교회 이강백 목사, 오산교회 김광식 목사, 수원종로교회 임응순 전도사 등에게 '운동'에 관한 사정을 연락하였다.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1920년 무혐의로 풀려났다.

송산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일제에 의해 강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일제는 1919년 3월 29일 소요 및 살인 등 죄로 홍면옥, 김명제, 임팔용, 홍준옥, 문상익, 홍명선, 왕국신, 차경현, 진순익, 김교창, 홍남후, 노건우, 이순일, 김도정, 김성실, 최춘보, 박춘흥, 홍문선, 민용운, 이정집, 홍태근, 황칠성, 홍복룡, 홍열후, 김성우, 홍관후, 김용준, 이성봉 등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중심인물로 그들이 수괴로



김세환(국사편찬위원회 제공)

21100

氏名	年齡	年月日生	指紋番號
王光滄	身長	尺寸分	No.
	特徴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言渡年月日	刑期名	罪名				
滿期	至	法院	至	至	禁錮	謀殺	職業			
假出獄	監獄				懲役	前科				

왕광연(국사편찬위원회 제공)

21440 29/9/99

氏名	年齡	年月日生	指紋番號
金教哲	身長	尺寸分	No.
	特徴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言渡年月日	刑期名	罪名				
滿期	至	法院	至	至	禁錮	謀殺	職業			
假出獄	監獄				懲役	前科				

김교철(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지목한 홍효선, 이태순, 이석춘, 오경운, 예종구 등은 4월 20일까지 체포하지 못하였다.

결국 1920년 5월 홍면옥, 홍준옥, 문상익, 왕국신은 각 징역 12년, 임팔용, 홍명선, 차경현, 김교창, 홍남후, 박군홍, 홍문선, 민용운, 황철성, 홍관후, 김용준, 전도선, 정군필은 징역 7년, 최춘보, 오광득, 이윤식, 안순원은 징역 6년을 판결받았다. 홍면옥 등 17명은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20년 7월 5일 모두 기각되었다.

송산면 시위와 관련하여 수형자카드가 남아 있는 사람은 총 24명이다.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홍효선, 이태순, 이석춘, 오경운 등의 사진자료 수집이 요청된다.

우정면·장안면 만세운동 후 1919년 4월 9일 츠무라(津村憲美) 특무조장을 책임자로 하여 헌병 6명, 후루야(古屋清威) 수원경찰서장 등 순사 11명과 보병 15명이 3개 반을 편성하여 오산과 장안면·우정면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 검거를 실시하였다. 특히 4월 10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화수리를 중심으로 부근 장안·우정면 내 25개 마을을 수색하여 200명을 검거하였다.

화수리항쟁 후 4월 15일 수원경찰서 순사부장 아쓰타(熱田實)와 순사 나가무라(長村清三郎)에 의해 구속된 차인범 등 33명과 5월 13일 다시 수배자 중 구속된 17명을 합하여 모두 50명 중 23명이 예심 및 고등법원을 거쳐 1920년 12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형량은 <표 2>와 같다.

수형자임에도 불구하고 차희식, 이순모 등의 경우는 수형자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백낙열, 정서송, 최장섭 등 체포되지 않은 인물들의 사진이 존재한다.

<표 2> 장안면·우정면 만세시위자 형량

지역	수형자	인원수	형량
살인방화 등	이영식, 차희식	2명	15년형
	장소진, 장재덕, 정서성	3명	12년형
	차인범, 이순모	2명	10년형
	차병한, 김흥식, 정순영	3명	5년형
보안법 소요 등	김응식, 김명우, 김교철, 김흥삼, 백순익, 김덕근, 김여근, 차병혁, 인수만, 김덕삼	10명	3년형
	김황운, 윤영선, 김응오, 김종학	4명	2년 6월형
	유수산	1명	1년, 벌금 20원

2) 재판기록 속 도면

수원군 3·1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참가자의 재판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재판 기록에는 경찰·검사·예심법원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생산한 각종 기록물이 첨부되어 있다. 그 중에는 수원군 3·1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는 도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장안면·우정면 3·1운동과 관련해서는 ‘김현묵 외 26명(소요)’이라는 제목으로 재판기록이 남아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의 마이크로필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MF07312에는 ① 화수경찰관주재소 건물 약도, ② 가와바타(川端豊太郎) 순사 처단 장소 ③ 가와바타 창상(創傷) 인체도 ④ 가와바타 안면두부손상 검시도가 있다. MF07316에는 ① 장안면·우정면(만세운동도), ② 장안면사무소(평면도) ③ 장안면 사무소(그림) ④ 장안면사무소 부근, ⑤ 우정면사무소(평면도), ⑥ 우정면사무소(그림), ⑦ 한각리 광장, ⑧ 화수주재소(그림), ⑨ 화수리경찰관주재소 부근 ⑩ 구 주재소 ⑪ 봉래암 등이 있다. 송산면·서신면 3·1운동과 관련해서는 ‘홍면옥 외 31명(보안법 위반)’ 재판기록이 있는데, MF07527에는 ① 순사부장 노구치(野口廣三) 살해현장 약도 ② 안면 손상도, ③ 후두부 손상도, ④ 노구치 처단장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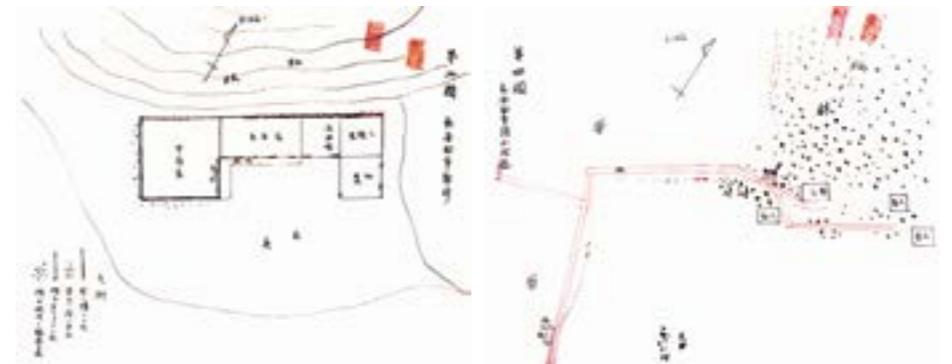
이들은 수원군 지역 유적지를 조사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아울러 기존에 잘못 이해되고 있던 유적지의 위치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적지 위치 비정, 나아가 유적지 복원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수원군 3·1운동사를 보다 생생히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수많은 주재소 및 면사무소가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면 및 복원도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자료는 전국 타 지역 독립운동유적지 및 역사 복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국사편찬위원회 제공)
1919년 당시 우정면과 장안면의 전체적인 행정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세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쌍봉산 만세운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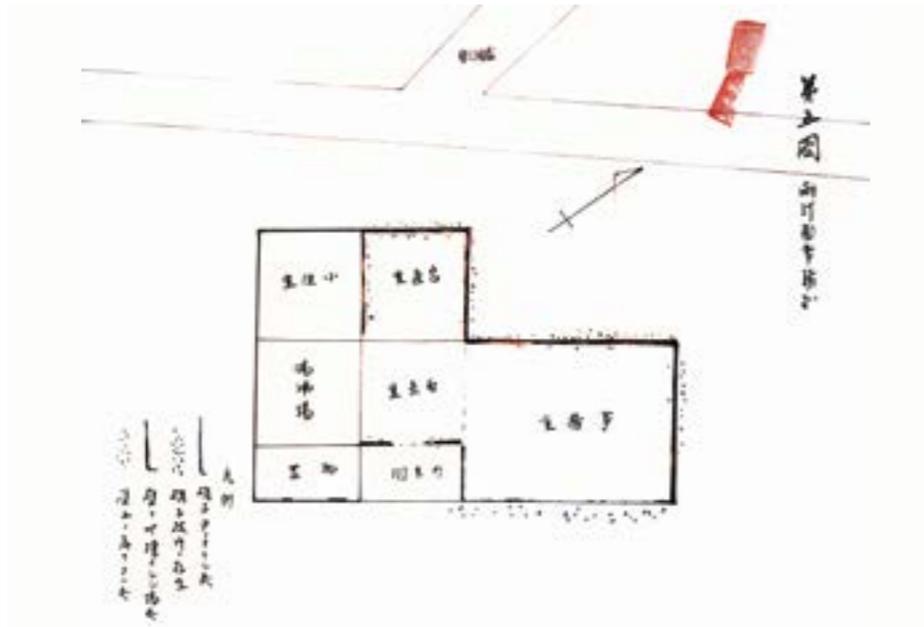
장안면사무소(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장안면사무소 평면도와 부근도(국사편찬위원회 제공)
1919년 4월 3일 석포리, 수촌리, 독정리 등 주민들이 파괴한 장안면사무소(현재 장안면 어은리 133번지)의 구조, 위치비정 및 인근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면사무소는 사무실, 숙직실, 소사실, 창고, 목욕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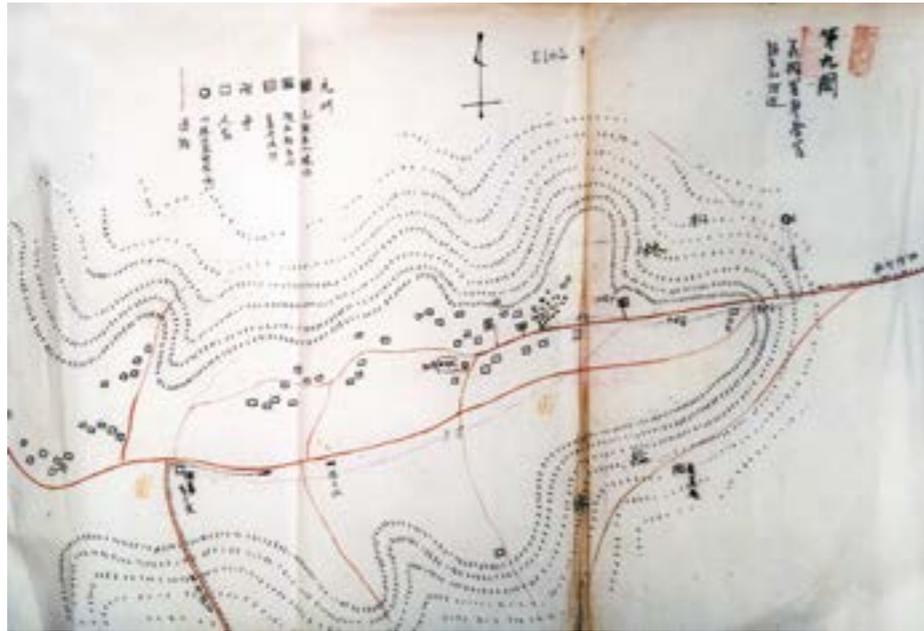
우정면사무소(국사편찬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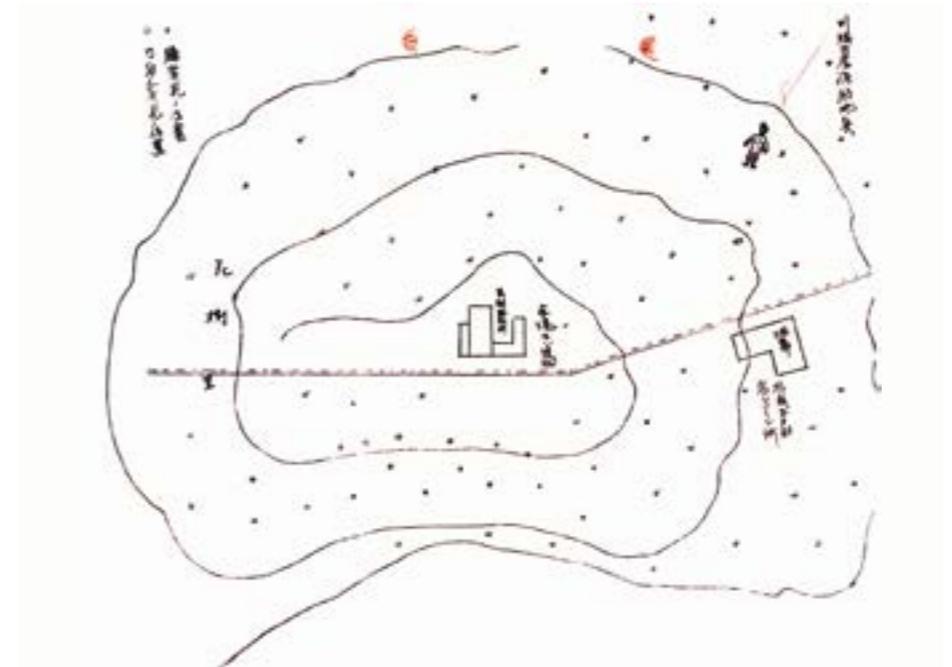
우정면사무소 평면도(국사편찬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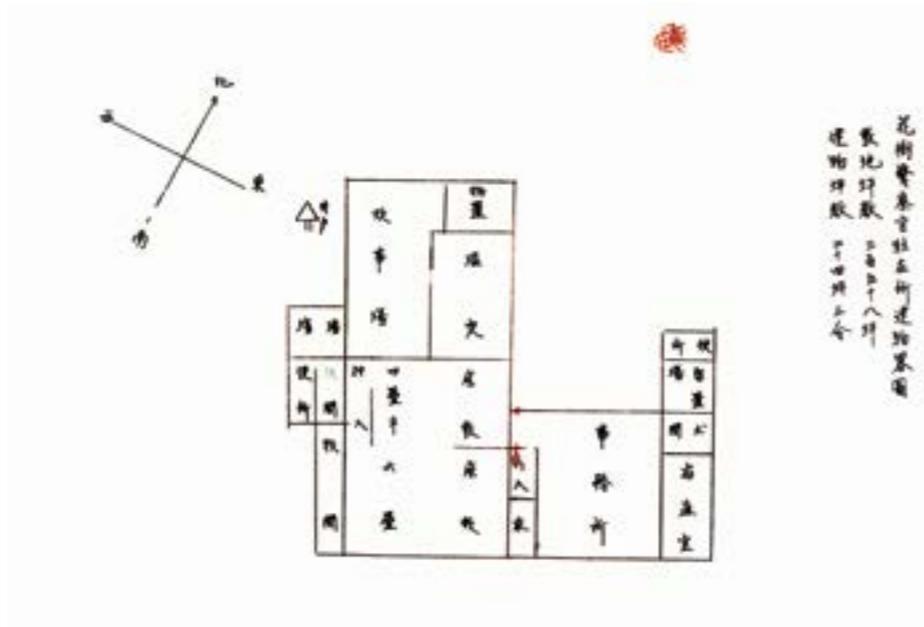
화수리주재소(국사편찬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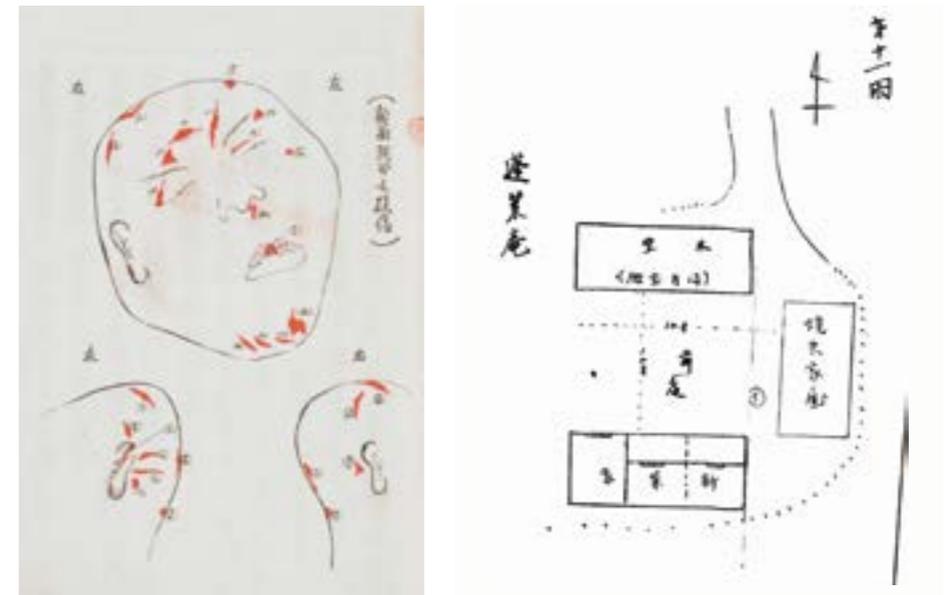
화수리경찰관주재소 부근(국사편찬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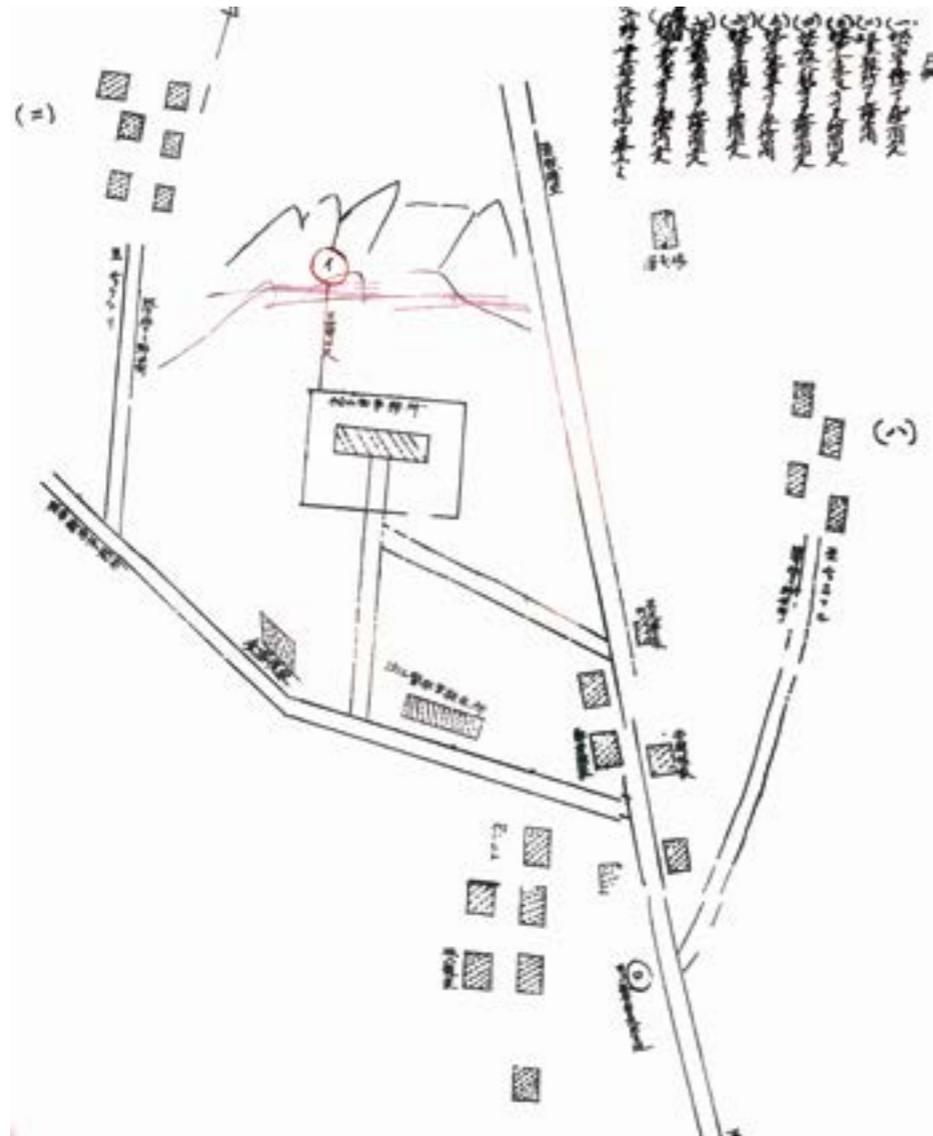
가와바타(川端豊太郎) 순사 처단 장소(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화수리경찰관주재소 건물약도(국사편찬위원회 제공)



가와바타 검시도와 봉래암(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노구치(野口廣三) 순사부장 처단 장소(국사편찬위원회 제공)
 3월 28일 송산, 서신면 주민들이 일본순사부장을 처단한 장소를 이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사망장소는 일본 측 조서에 따르면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동단 사강경찰관주재소로부터 동방 약 63칸(인가로부터 23칸) 남양에 이르는 도로변 밭(강업동 소유임), 사강시장에서 남양 방면으로 약 2정(町) 거리라고 한다.

2. 학살만행 현장을 기록하다

수원군 만세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수촌리와 제암리, 고주리, 화수리, 사강리 일대에서 마을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중 수촌리와 제암리 학살사건은 외국 선교사와 공사관들의 기록을 통해 전 세계에 그 만행이 알려지게 되었다.

수촌리 학살사건은 일본군이 4월 6일 새벽에 마을에 들어와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불을 끄려는 사람들을 총칼로 제지하여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발안장날 만세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5일 오후 일본 군경이 마을에 들어가 15세 이상 남자를 예배당에 모으고, 총을 쏘고 불을 질러 마을 전체를 불태워 부녀자 2명을 포함한 23명을 학살하고 이웃 고주리에서 천도교인 6명을 더 총살한 사건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으나 제암리 학살사건 발생 다음 말인 4월 16일 수촌리로 가던 미국 부영사 커티스(Raymond S. Curtice)와 언더우드(H. H. Underwood) 선교사, 테일러(A. W. Taylor) 특파원 일행이 우연히 제암리 학살 현장이 목격하게 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커티스 일행은 제암리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의 참상을 사진으로 찍은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1일 미국 총영사 버그홀츠(L. A. Bergholz)에게 제출하였다. 버그홀츠는 4월 23일 “일본군이 교회에서 한국인 37명 학살”, 5월 12일 “제암리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한국인 37명 학살과 촌락 파괴”라는 보고서를 본국에 발송하였다.

또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던 캐나다 선교사인 스코필드가 4월 18일 현장을 찾아와 조사한 후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石虎弼, 1889~1970)는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일으켰을 때, 거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거사에 대해서 통보받고 협력을 요청받았던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거사 하루 전날인 2월 28일 저녁 세브란스의전 학생이자 남대문교회 교인이었던 이용설이 스코필드를 찾아와 독립선언문을 보여 주며, 다음 날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고 그 독립선언문의 사본을 영어로 번역하여 최대한 빨리 미국 백악관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이갑성은 3월 1일 오전 스코필드를 찾아가 현장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다.

스코필드는 기꺼이 사진기를 들고 만세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3·1운동의 실상을 증거 사진과 함께 해외에 알렸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3·1운동 초기의 몇 안 되는 사진들은 모두 그가 찍은 것이다. 스코필드는 3·1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며, 일제의 비인도적 한국인 탄압에 맞서 일본인 고관들을 찾아가 항의하고, 언론에 투고하여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스코필드는 제암리와 수춘리에서 있었던 일제의 만행에 관한 보고서를 남겼다. 4월 17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 날인 18일 소아마비를 앓아 한 쪽 다리와 팔이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9시 열차편으로 수원까지 가서 다시 자전거로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조사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수춘리도 방문하여 부상자들을 도와주었다.

이때 스코필드가 작성한 “제암리의 대학살(The Massacre of Chai-Amm-Ni)”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영자신문 *The Shanghai Gazette*(상하이 가제트) 1919년 5월 27일자에 서울 주재 익명의 특별통신원(Special Correspondent)이 4월 25일 보내 온 기사로 실렸다. 같은 무렵 작성한 “수춘 만행 보고서(Report of the Su-chon Atrocities)”는 비밀리에 해외로 보내져 미국에서 발행되던 장로회 기관지 *Presbyterian Witness* 1919년 7월 26일자에 실렸다. 그 후에도 일제의 비인도적 만행들을 조사하여 영국의 성서공회 총무 리슨(Ritson)을 거쳐 토론토의 캐나다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암스트롱(A. E. Armstrong) 목사에게 보냈다. 이것은 다시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에 보내져 거기서 1919년 7월에 발행한 *The Korean Situation*(한국의 상황)에 증거 자료로 실렸다.

3. 학살만행을 고발하다

수원군에서 일제가 저지른 학살과 만행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와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에도 전달되어 일제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일제의 학살과 만행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진자료이다.

1) 독립기념관 소장 수원군 3·1운동 사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원군 3·1운동 관련 사진은 기증처가 2군데로 구분된다. 우선 캐나다장로회 선교사 맥래의 딸인 헬렌 맥래 여사가 노바스코샤 공립문서보관소에 기증한 ‘해외 선교사 컬렉션’에서 선별하여 복제한 자료로, 독립기념관 소장번호 3-002401로 나가는 자료가 있다. 총 12점이 확인되며 사진에 적혀 있는 한글표기들은 모두 사집을 수집한 후 독립기념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수집한 앨범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태 목사는 사진 중 일부만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기증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인데 독립기념관 소장번호 1-004874로 나가는 자료로 총 6점이 확인된다. 두 기증처에서 제공한 사진 중 총 18점이 수원군 3·1운동 관련 사진은 확인되는데 이 중 3점이 같은 사진이므로 결국 15점이 수원군 3·1운동 사진이라 할 수 있다.



① 수원 화수리 방화현장(3-002401-002)



② 수원 수촌리 방화현장(3-002401-016)



③ 수원 화수리 방화현장(3-002401-017)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에는 제암리로 기재되어 있다.



④ 수원 제암리 방화현장(3-002401-018)/장두리 학살사건 사진(1-004874-009)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에는 화수리로 기재되어 있다.



⑤ 학살 이후 장두리의 파괴된 집터에 서 있는 여인과 어린 아이(3-002401-089)



⑦ 파괴된 집터에 서 있는 아낙네와 아이들(3-002401-230)/모여 있는 주민들 사진(1-004874-030)



⑥ 일본군에 의해 파괴된 마을을 복구하는 주민들(3-002401-225)



⑧ 학살 이후 장두리의 파괴된 집터에 서 있는 여인과 어린 아이(3-002401-231)



㉙ 제암리 학살 당시 파괴된 민가, 장두리 소재 가옥(3-002401-232)



㉚ 제암리 학살로 가족을 잃은 남은 유족들(3-002401-233)



㉛ 화수리 학살현장을 조사 중인 일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선교사(3-002401-234)
자료에 따라 지역을 화수리와 제암리로, 외국인을 선교사와 특파원으로 다르게 기재하고 있다.



㉜ 제암리 학살 당시 파괴된 민가, 장두리 소재 가옥(3-002401-235)
/ 폐허가 된 제암리 민가(1-004874-024)



⑬ 제암리 학살 희생자 유족-남편과 아들을 잃은 부인과 어머니의 모습이다.(1-004874-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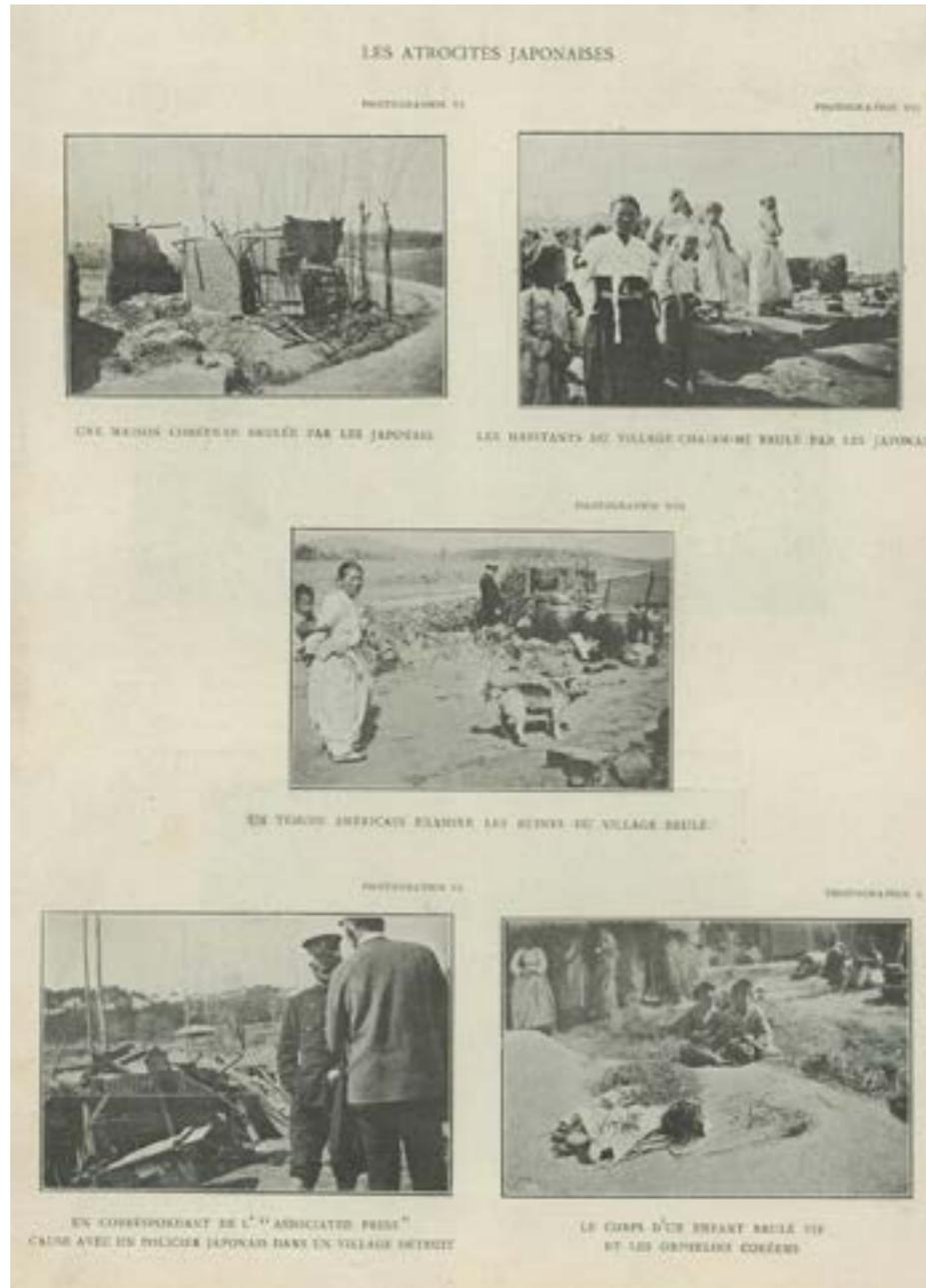
⑭ 일제에 의해 파괴된 민가(1-004874-017)



⑮ 일제의 수촌리 학살 후 파괴된 마을(1-004874-026)

2) L'INDEPENDANCE De LA CORÉE ET LA PAIX

L'INDEPENDANCE De LA CORÉE ET LA PAIX(한국의 독립과 평화)의 발행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이고, 발행연도는 1919년이다. 불어로 제작되었고, 총 43면이며 6,500부를 배부하였다. 서재필기념재단에서 1986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자료(1-B00382-000)이다. 이 자료에는 수원군 관련 5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L'INDEPENDANCE De LA CORÉE ET LA PAIX 수원군 3·1운동 사진
 일본인에 의해 불탄 하나의 한국인 집(독립기념관 ⑨ 동일)
 일본군에 의해 불탄 제암리와 주민들(독립기념관 ⑦ 동일)
 미국 중인이 불에 탄 마을의 폐허를 조사하고 있다(독립기념관 ⑭ 동일)
 파괴된 마을의 일본 순사를 취재하는 AP통신 특파원(독립기념관 ⑨ 동일)
 불에 탄 아이의 시체와 고아가 된 아이들(독립기념관 ① 동일)

3)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한국의 독립운동)는 1919년 9월경 상해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립기념관, 도산 안창호기념관, 미국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경우 표지가 없는 상태로 Red Cross pamphlet on March 1st Movement라는 제목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 책에서 확인되는 수원군 3·1운동 사진은 총 8점인데 이 중 5점은 앞서 독립기념관 소장 사진으로 소개된 것이며, 나머지 3점은 이 책에만 수록되어 있다.

한편 '화수리에서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일본 경찰', '4월 15일 폐허가 된 제암리 마을', '일본군에게 파괴된 후 화수리마을' 3점의 사진은 독립기념관 사진자료에서는 지역을 달리 표기하고 있어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표 3〉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수원군 3·1운동 사진

번호	사진 제목	독립기념관
1	화수리에서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일본 경찰	⑪
2	화수리에서 형제가 죽고 난 후 울고 있는 두 아이	①
3	4월 15일 폐허가 된 제암리마을	③
4	일본군에게 파괴된 후 화수리마을	④
5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남편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부인들(제암리)	⑬
6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수촌리 아이들	
7	일본군에 의해 파괴된 화수리마을(기와집)	
8	제암리에 남겨진 집 한 채	

'일본군에게 파괴된 후 화수리마을' 사진을 보면 스코필드의 다음 설명을 생각해 하게 한다.

40여 채의 집 중에 18~19채만이 남아 있었다. 그 악한 불길은 - 그 불길 속에는 일본 군대의 보다 적나라하게 확실하고 잔인한 살의로 가득 찬 손길이 뻗치고 있었는데 -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일에



일본군에게 파괴된 후 화수리마을
독립기념관 사진자료에는 제암리와 장두리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군에 의해 파괴된 화수리마을(기와집)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수촌리 아이들



제암리에 남겨진 집 한 채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증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불탄 집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는 불탄 집과 안 탄 집이 번갈아 가며 서 있었다. 불탄 집과 안 탄 집의 거리는 대개 수 피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보통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김치나 물을 담은 항아리들이었다. 장독대의 토기들과 불탄 부지깥이, 재, 타다 남은 것과 같은 폐허의 흔적들은 이곳들이 행복하고 단란한 집들이었다는 증거였다. 화마로부터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일들은 용납되지 않을 일이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이 같은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숟가락, 그릇, 쌀가마, 이부자리들이 참혹한 죽음이 있는 곳에서 건질 수도 없었던 것이다.

스코필드는 그의 보고서 '화수리 살인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진 '일본군에 의해 파괴된 화수리마을(기와집)'과 유사한 상황이다.

화수리의 경우는 야만스러운 일황 군대가 잣더미로 만들어 놓은 표본 마을이었다. 그 마을은 기름진 논밭이 펼쳐진 아래를 바라보며, 숲이 우거진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 한 가운데에는 기와지붕에 큰 대문이 있는 상당히 좋은 양반네 집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깨어진 기와 조각 더미와 먼지 그리고 무너진 담벼락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주인은 도망을 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이 지주(squire)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4) 『독립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간행하는 『독립신문』에는 수원군 지역 3·1운동에 관련하여 1919년 8월 29일자에 1장, 1919년 10월 7일자에 1장, 1920년 3월 1일자에 2장 총 4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표 4〉 『독립신문』 수원군 3·1운동 사진

일자	사진 제목	독립기념관
1919년 8월 29일	왜병 一過處(4월 17일 수원 화수리) 왜의 불에 탄 집터에 앉아 왜의 칼에 죽은 어린 누이를 곡하는 두 아이	①
1919년 10월 7일	왜병 만행의 자취 암담한 산천(수원 화수리)	④
1920년 3월 1일	대한의 누이야 아우야	①
	이날에 희락…… 자여 이 광경을 잊지 말여라	⑬

이 중 가장 주목되는 사진은 1919년 8월 29일 국치일에 1면에 실려 있는 그리고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실린 어린 아이들 사진이다. '왜병 일과처(一過處)'는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에도 나오는 사진인데, 이것이 스코필드가 찍은 것이 맞다면 그 날짜는 4월 18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수리 방화학살사건이 일어난 것은 4월 11일이다.



『독립신문』 1920년 3월 1일



『독립신문』 1919년 8월 29일에 실린 사진

5) 『신한청년』

신한청년당은 1918년 11월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여운형(呂運亨)·조동호(趙東祐) 등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였다. 신한청년당은 상해대한인민단·대한인거류민단 등 민단사업에 주력하였고, 기관지로 『신한청년』을 발간하였다. 신한청년당의 「본당기략(本黨紀略)」에 의하면, 1919년 12월 1일 한글본 『신한청년』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신한청년』 순한문본 창간호는 1920년 3월 1일자로 발간되었다. 박은식(朴殷植)과 이광수(李光洙)가 주필이었다. 순한문본의 『신한청년』 창간호는 축하회호 1면과 본문 121면이었다. 창간호는 3·1운동 1주년 기념 특집호로 발간되었다.

표지는 태극을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 한문으로 신한청년 창간호라는 글을 세로로 썼으며, 표지 상단에 가로 글씨로 *The Young Korea*라는 고딕체 영문 이름을 표기하였다. 창간사는 박은식이 썼는데, “독립국가를 완성시킬 실력이 국민 전체의 문화력과 사람과 돈이다.”라고 하면서, 창간 목적을 “일반 국민의 국민적 상식을 증진함에 기여함”이라 밝혔다.

「조선독립선언서」·「동경청년독립단선언서」 등을 비롯하여 3·1운동 당시에 발표된 각종 선언서들을 수록하고 있고, 「독립운동지사대원인(獨立運動之四大原因)」이라 하여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규명한 글, 그리고 「일인지혹형학살(日人之酷刑虐殺)」이라 하여 3·1운동 과정에서 일본인이 자행한 학살과 만행의 실상을 지역 또는 사례별로 정리 수록하였으며, 그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진 10장을 함께 실었다. 이는 3·1운동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외에 신한청년당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한 「본당기략」과 당헌이 수록되어 있고, 강우규(姜宇奎) 의사의 전기인 「강찬구소전(姜燦九小傳)」을 실고



『신한청년』 창간호 표지



『신한청년』 창간호

있다. 창간호의 값이 3각(角)이었다. 『신한청년』은 국내로 몰래 반입되어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1920년 4월 만주 안동(安東)의 이룡양행(怡隆洋行)을 통해 들여오다가 발각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신한청년』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원군 3·1운동에 대한 3장의 사진이다. ‘수원제암리참상 1’, ‘수원제암리참상 2’, ‘수원화수리참상’ 등이 그것이다.

6) *The cas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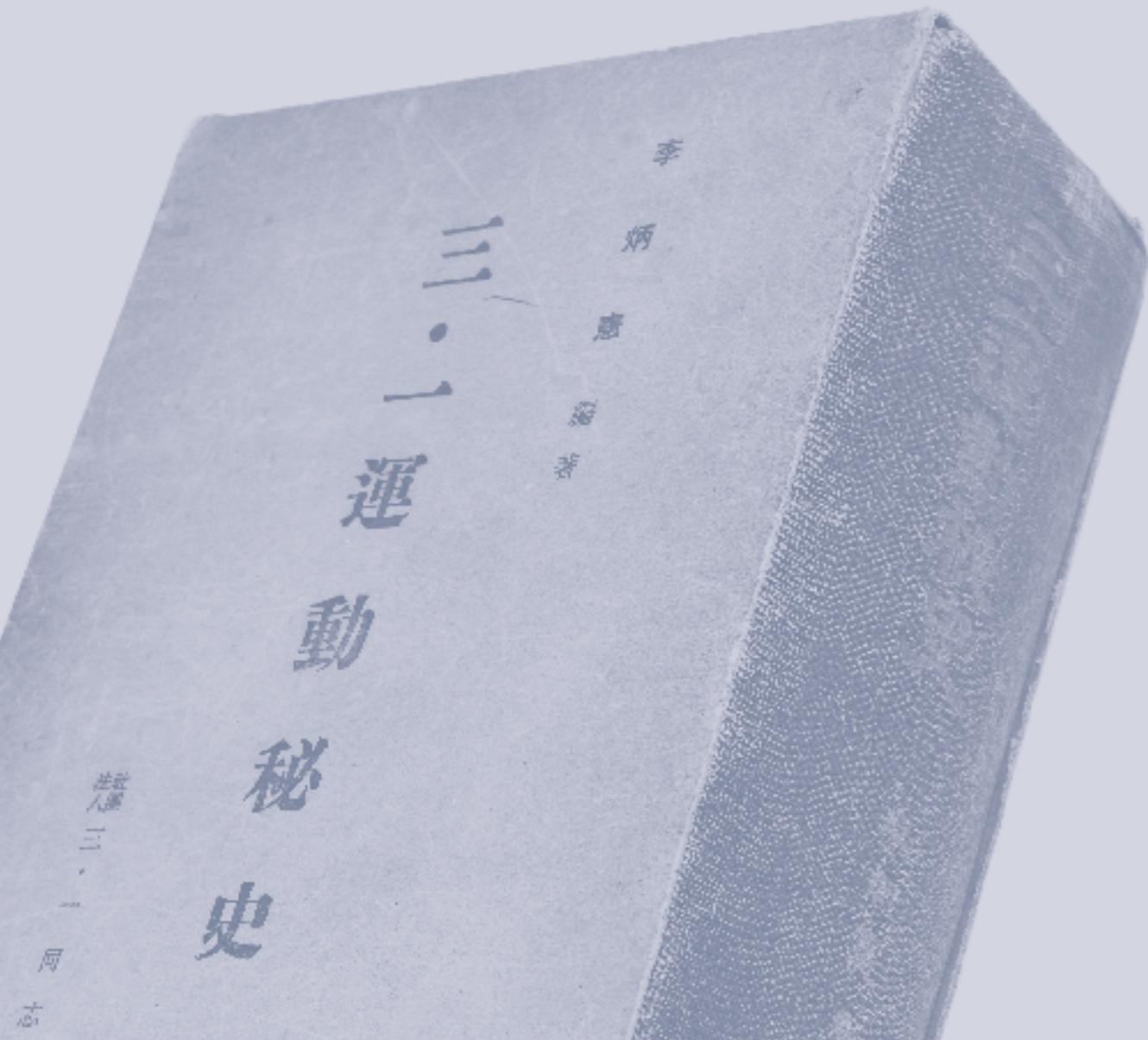
정한경(鄭翰景, 1891~미상)은 평안남도 순천 출신으로, 1910년 미국으로 망명한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안창호(安昌浩)·이승만(李承晩)

등과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를 조직하여 재미교포의 자치활동과 독립정신 양양에 힘썼다. 1919년 2월 25일 독립운동사무를 전담할 임시위원회가 설치될 때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이승만·민찬호(閔瓚鎬) 등과 같이 한국이 완전한 정부를 수립하고 내치와 외교의 권리가 있을 때까지 국제연맹 위임통치로써 보호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위임통치청원서를 미국 윌슨(Wilson, T. W.) 대통령에게 제출, 미국 상원에서 한국 독립문제를 토의하게 하였다. 이해 9월 재미교포의 애국성금 30만 달러를 모아 상해로 전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도왔다. 1944년 10월 상해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겸 비서주임에 선임되어 정부와의 긴밀한 연락을 담당, 구미 방면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정한경의 *The case of korea*(1921)에는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사진이 4장 실려 있다. 정한경의 책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 설명에 장두리란 지명이 처음 등장한다. 장두리란 지명은 사진 설명 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장두리란 표현은 정한경에 의해 처음 사용된 후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The case of korea* 수원군 3·1운동 사진

번호	사진 제목	독립기념관
1	왜 제암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는지 그리고 교회들이 파괴되었는지를 미국 선교사에게 설명하는 일본 관리	①
2	장두리의 폐허	④
3	폐허화된 수촌리-42개 초가집 중 8개만 남았다.	②
4	화수리 전경	③



이병헌의 『3·1운동비사』로 보는 수원 3·1운동

1. 머리말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시작된 만세시위는 이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수원¹은 서울과 인접한 까닭에 3.1운동의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받았으며, 3월 1일부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² 이후 3월 한 달간 꾸준히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첫 만세시위는 북문 안 화홍문에서 전개되었으며, 이어 보름 후인 3월 16일 장날 팔달산 서장대와 창룡문 안 연무대에서 각각 수백 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밤 11시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병헌이 천도교의 만세시위 계획을 모의하기 위해 북수리 천도교당에서 회의를 하던 중 일본인 소방대원 수십 명이 기습하여 천도교인 상당수가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삼일여학교가 만세시위를 주도한 김세환이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혹시 만세시위 주모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 12경에 습격하였다. 3월 23일 수원역 근처의 서호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3월 29일에는 김향화 등 수원기생조합의 기생 30여 명이 경찰서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³

이 같은 수원면 3·1운동 연구에는 국사편찬위원회·국가기록원·국가보훈처 등에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⁴와 일본 측 정보문서를 정리한 자료,⁵ 그리고 해방 이후 정리된 자료집⁶ 등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 중 수원 3·1운동 연구에 중요한 것은 이병헌의 『3·1운동비사』이다. 이 자료집에는 3월 1일 수원의 첫 만세시위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과연 3월 1일 수원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수원 3·1운동 연구에서 ‘첫 시위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 논쟁이 되었다. 이 3월 1일 만세시위는 『3·1운동비사』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빙성 유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과연 만세시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를 방증할 만한 자료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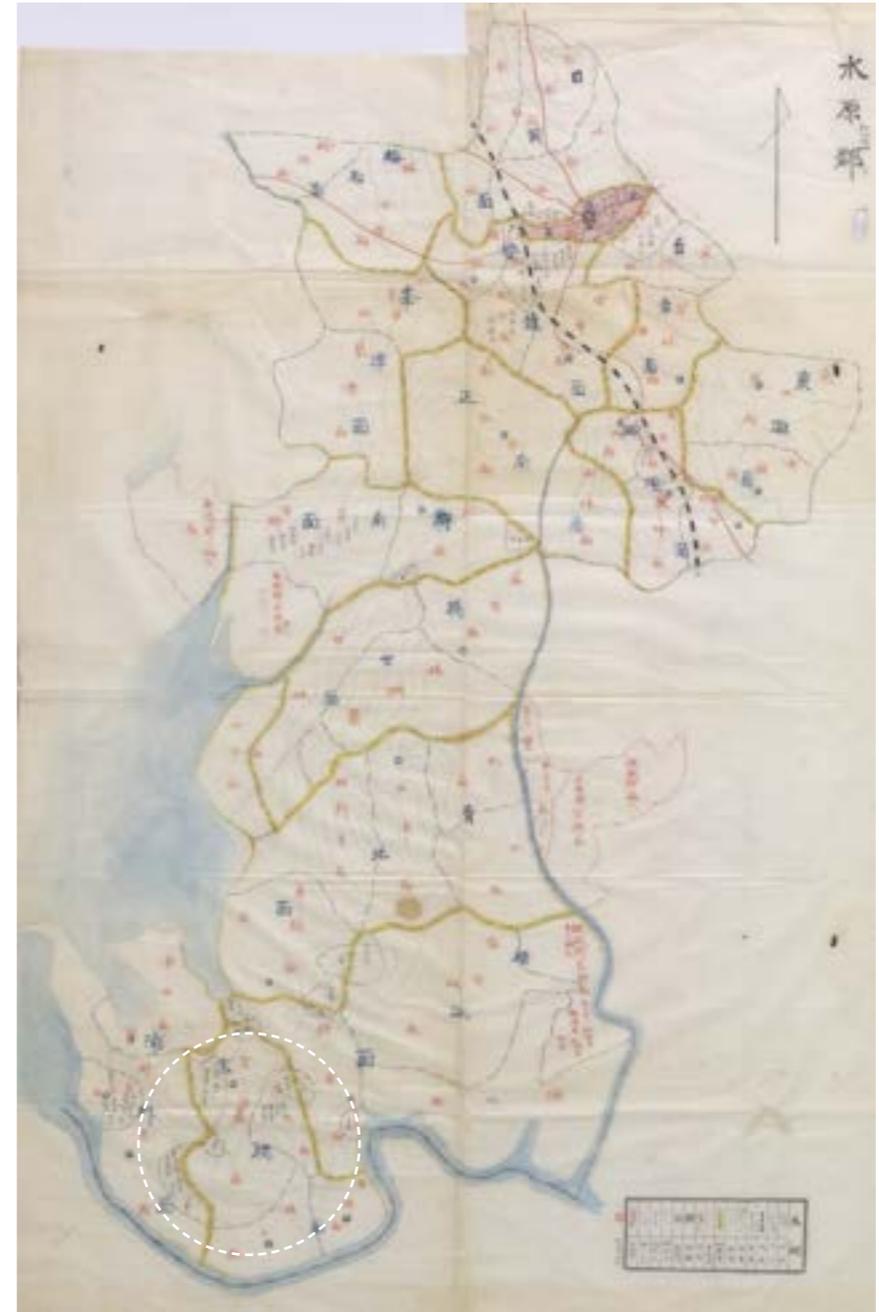
『3·1운동비사』를 편찬한 이병헌은 경기도 평택 출신이었지만 천도교 수원교구에서 활동하였으며, 3·1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에서 함께 인쇄 작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후 수원에서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를 계획하다가 일본인에게 피해를 입고 제암리로 피신하였다가 현장에서 학살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 하였다.⁷

이 글에서는 먼저 이병헌의 생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병헌이 편찬한 『3·1운동비사』를 통해 수원면 3·1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원 ‘3월 1일 만세시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원 지역 3·1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기억을 남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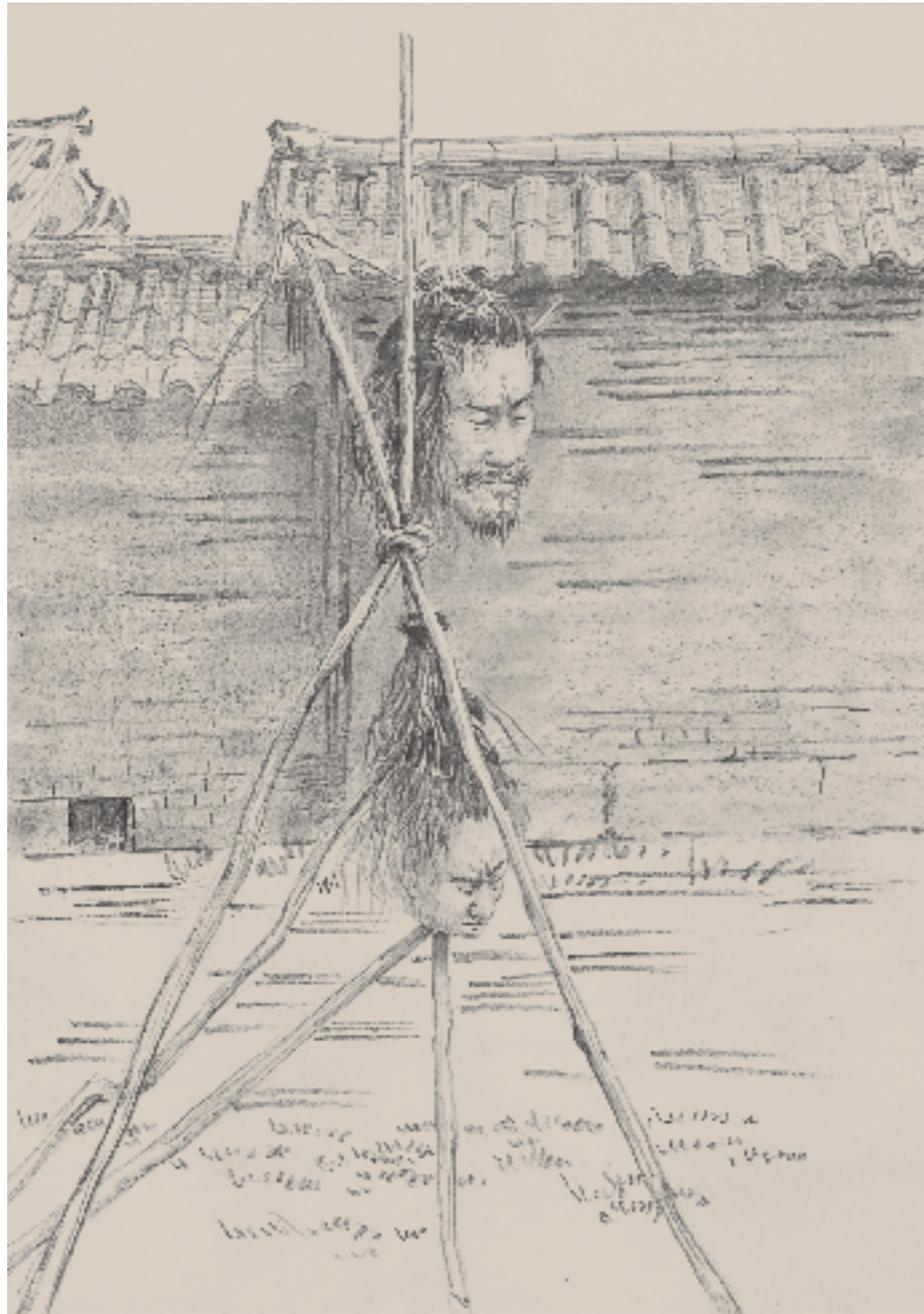
2. 오암 이병헌의 생애와 『3·1운동비사』

오암 이병헌⁸은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린 이듬해 1895년 11월 20일 아버지 이민도(李敏道)와 어머니 남원 양씨의 4대 독자로, 평택시(당시 수원군) 현덕면 권관리 445번지에서 태어났다.⁹ 본관은 함평, 도호¹⁰는 오암(梧菴), 필명은 석운(石雲)이었다. 그가 태어난 권관리(權管里)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이다. 서해안과 마주하는 마을 끝에는 닭 머리를 닮은 계두봉, 마을 뒤편에는 옥녀봉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이 두 봉우리는 3·1운동 당시 평택 지역에서 최초로 횃불을 올리고 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이기도 하다. 이병헌이 태어난 곳인 현덕면은 지금은 평택시 관할구역이지만 당시에는 수원군에 속해 있었고, 1914년에 진위군에 편제되었다.

이병헌의 아버지 이민도는 원래 한학을 공부한 유학자였지만 28세 되던 해 동학에



1906~1914년 수원군(국가기록원 제공)
현덕면은 1914년까지 수원군 관할지역이었으며, 그 후 진위군에 편제되었다가 현재 평택시에 속해 있다.



이민도와 함께 수원에서 동학 활동을 한 안교선과 최재호 효수장면 『시사신보』에 실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그린 것이다.

입도하였다.¹¹ 수원 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시기는 1874년으로, 1870년대 중반이었다. 이 시기 호남인으로 알려진 안교선의 포교로 안승관과 김정현 등이 동학에 입교 하면서 수원 지역에서 동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¹² 이민도는 수원 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지 5년 후인 1879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이 시기 일반 민중들이 동학에 입도한 동기는 시천주의 인간존중과 척양척왜의 보국안민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민도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학에 입도한 이민도는 평택과 수원 등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1년 뒤인 1880년 접주로 임명되었다. 1893년 3월 척양척왜를 기치를 내세운 보은집회에 신용구와 함께 수원 지역 동학교인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기호대접주 안승관을 비롯하여 김정현과 김원팔 등이 수원 지역에서 기포 한 바 있는데, 척왜양을 기치로 한 보은집회에 참가한 이민도 역시 동학혁명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후 이민도는 수원교구를 설립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현덕면 종리사에 선임¹³ 되는 한편, 1912년 4월 15일부터 3년간 전개한 49일 특별기도에 참가하였다. 이민도는 수원교구장으로 활동하던 1913년에는 북수리에 40여 칸의 교당을 마련하였다.¹⁴ 당시 마련한 교당은 정조가 수원에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국의 부호를 유치할 때 지은 유서 깊은 ‘팔부잣집’ 중 하나였다.¹⁵

이 외에도 이민도는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3월 22일 진위군 현덕면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중 예비검속을 당하였다.¹⁶ 이민도는 봉훈, 교훈, 교구장 등으로 활동한 후 1921년 2월 14일 71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¹⁷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동학의 영향을 받은 이병현은 16세 때인 1911년 6월경 수원교구 제544 강습소에 입학¹⁸하여 근대적 학문과 종교적 소양을 쌓았다. 당시 천도교에서는 근대적 교육의 하나로 전국 지방교구에 교리소를 설치 하였다.¹⁹ 교리강습소는 본과는 3년, 특별과는 2년, 속성과는 3개월 과정인데, 이병현은 속성과를 졸업하였다. 당시 이병현이 수업한 속성과는 ‘천도의 진리’, ‘교육의 원리’, ‘교수법’, ‘학교관리법’ 등 천도교 교리과 학교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수하였다.²⁰



이민도가 수원교구장으로 활동할 당시 복수동으로 이전한 천도교 수원교구



李鍾煥	宗理	崔基連	張泳寬	徐廷信	張基煥	孫俊應	李圭相	張泳萬	傅教師	楊甘面	宋昌憲	俞相濬	俞道濬	傅教師	水全	浦全	上全	上全	上全	面職員更迭表
洪鍾珪	宗理	俞鎮哲	李演鶴	洪鍾國	崔永善	洪鍾珪	李秉仁	洪在範	傅教師	紐橋里	李德有	李德有	朴永奎	上全	邑全	上全	上全	上全	上全	
李正雨	宗理	李南熙	宋鍾冕	李正雨	林永植	車載器	嚴雲輔	宋鍾洙	傅教師	烏山										
金永根	宗理	崔義烈	金顯根	姜聖會	崔源興	林容烈	金在斗	朴天乘	張基男	傅教師	東灘									
李秀燾	宗理	崔炳憲	李化利	林景漢	崔景來	張容俊	朴利嫻	李起像	吳起像	孫起像	傅教師									

수원교구 현덕면 전교사 이병헌

제544강습소를 수료한 이병헌은 이듬해 1912년 6월 22일 중앙총부에서 모집한 제1회 종학강습소 고등과에 입학하였다.²¹ 종학강습소는 “지방의 고등 강생을 모집 교수하여 종리의 발전(發闡)을 기도하며 또한 각지 강습소의 교수할 자료를 공급”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병헌이 입학한 고등과는 6개월 과정으로 교서(敎書), 작문, 강해(講解) 등 3개 과목을 수학하였다.²²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종학강습소를 마친 이병헌은 수원교구로 돌아와 종교인으로 활동하였다. 1915년 4월 수원교구 현덕면 전교사로 첫 선임²³된 이병헌은 이후 1916년에는 공선원,²⁴ 1917년에는 전제원,²⁵ 1918년에는 금융원,²⁶ 그리고 다시 전제원으로 활동하다가 1919년 1월 교역자 활동을 그만두었다.²⁷ 이병헌이 수원교구에서 활동을 그만두게 된 배경은

당시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손병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병헌은 1914년 수원교구를 복수리로 이전하고 입주식을 가질 때 처음으로 손병희를 만났다. 입주식 때 이병헌이 사회를 보았는데,²⁸ 손병희가 그를 재목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만남을 계기로 이병헌은 천도교중앙총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그동안 유지해 오던 식민통치인 무단정치를 이른바 문화정치로 정책상 변경하였다. 문화정치는 한국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는 기만적인 것이며 일제의 식민통치의 근본 목표인 동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일제의 이러한 문화정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언론·출판·교육·결사·산업·문예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흐름에 천도교 청년들은 천도교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문화운동에 동참하였다.²⁹

3·1운동 이후 교단의 내적 위기와 사회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천도교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대처하였다. 이에 따라 1919년 9월 2일 정도준, 손재기, 박달성, 박용회, 황경주, 김옥빈, 박래홍, 최혁 등의 발기³⁰와 교단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교리의 연구 및 선전, 조선의 문화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이하 강연부)를 발족시켰다. 강연부는 지방 교구를 토대로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³¹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³² 그리고 이듬해 1920년 4월 25일 강연부를 천도교청년회로 명칭을 개정하였고,³³ 지방에서는 지회를 조직하였다. 3·1운동 이후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병헌은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를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병헌은 강연부가 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1920년 4월경 홍종각·이연숙·김유경 등과 함께 수원지회를 조직하였고, 초대 지회장으로 선임하였다.³⁴

이병헌은 수원지회 설립 후 첫 사업으로 5월 17일 천도교청년회 중앙에서 활동하는 박용회, 이돈화, 박사직 등을 초청하여 특별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5,6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³⁵ 이어 이해 11월에는 역시 중앙의 협조와 강사 유희준의 열성으로 교리강습회를 설치하였다.³⁶ 그뿐만 아니라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이병헌이 지회장으로 있는 동안 수원 지역의 순회강연, 특별대강연회,



1928년 12월 21일 천도교 중앙총회당에서 개최된 제4회 임시천도교 법회(천도교 중앙총부 자료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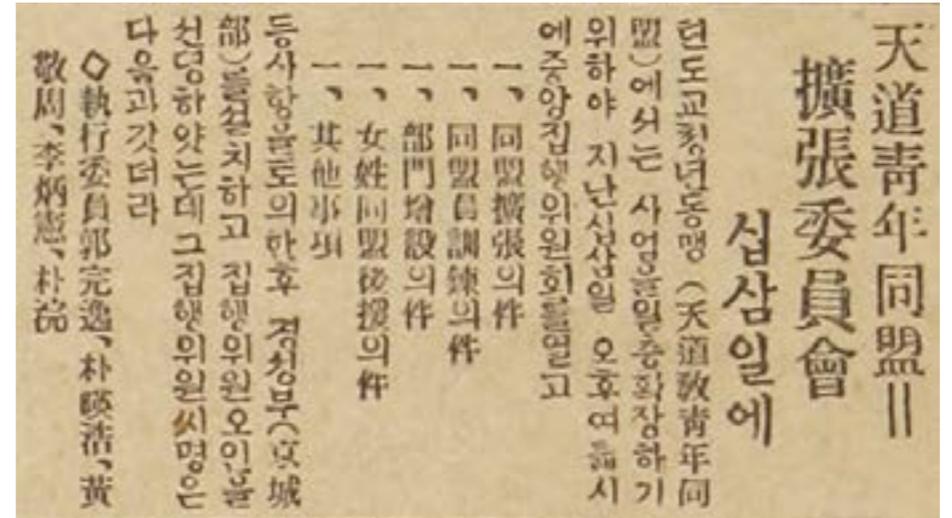
第四回臨時天道教法會
十二月二十一日

각종 강습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³⁷ 이후 수원지회 지회장을 그만둔 이병헌은 중앙으로 진출해 1921년 12월 천도교중앙총부 대종사 증법원, 1922년 9월에 경리과 종리사로서 활동하였다.³⁸

1925년 들어 천도교단이 구파와 신파로 분화됨에 따라 천도교청년회도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³⁹과 신파계열의 천도교청년당으로 각각 분화되었다. 수원 지역의 천도교는 구파계열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병헌은 구파에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에서 활동하였고, 경기도연맹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병헌은 1927년 8월 11일 오후 8시 천도교청년동맹 경성부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날 박영호·곽완일 등과 함께 위원⁴⁰과 상무로 선출되었다.⁴¹ 이듬해 1928년 2월 5일에 개최된 경성부 임시대회에서 임원을 개편할 때 집행위원으로, 이어 4월 6일 천도교청년총동맹을 결성할 때는 전형위원과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⁴² 그리고 1928년 4월 천도교청년총동맹 경성동맹으로 개편할 때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⁴³ 또한 이병헌은 경기도연맹을 결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활동을 하였다. 이병헌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성동맹을 비롯하여 수원동맹과 시흥동맹 등을 규합하여 1929년 5월 30일 경기도연맹을 결성하였고, 이병헌은 대표로 선임되었다.⁴⁴ 그뿐만 아니라 1930년 12월 20일 개최된 제3회 천도교청년동맹 정기대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기도 하였다.⁴⁵ 이어 12월 25일 개최된 청년동맹 확대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신파 천도교청년당과 합동을 위한 위원으로 선정되었다.⁴⁶ 1931년 2월 16일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과 신파계열의 천도교청년당이 합동하여 천도교청우당을 창립하자 이병헌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⁴⁷

이로써 이병헌은 경성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청년동맹의 대표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청년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조직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31년 신파와 구파가 다시 분화됨에 따라 이병헌은 구파의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금융관과 전제관에서 종무원으로 활동하였다.⁴⁸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병헌은 아버지로부터 동학적 삶의 영향을 받아 교리강습소와 중학강습소를 수료하였고, 이후 수원교구와 청년회 수원지회, 천도교청년동맹 경성동맹, 그리고



1927년 8월 11일 조직된 천도교청년동맹 경성부에서 상무로 선출된 이병헌(『중외일보』 1927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교역자로서 활동하였다.

한편 1927년 2월 15일 신간회가 결성되고 지방에서는 지회가 설립되었다. 경성에서도 1927년 5월 25일 30여 명이 조선교육협회에 모여 신간회 경성북부지회 설치준비회를 개최하였다. 경성북부지회 설치에 천도교 구파에서도 적극 참여하였는데,⁴⁹ 이병헌은 오상준, 박완, 최준모, 김영륜, 박양신, 이황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신간회본부가 경성에 지회를 하나만 둔다는 결정에 따라 경성북부지회는 6월 3일 경성지회 설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병헌은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⁵⁰ 이병헌 등 신간회 경성지회 준비위원들은 6월 10일 하오 8시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설립대회를 경성지회를 설치하였다. 이날 설립대회에서 이병헌은 간사로 선출되었다.⁵¹

이어 신간회 경성지회는 1927년 6월 15일 오후 10시 관수동 본부회관에서 제1회 간사회를 열고 서무부, 재무부, 정치문화부, 조직부, 선전부 등 5개 부서로 나누고 총부간사 5명을 선출하였다.⁵² 또한 이날 간사회에서는 설립대회에서 선출된 간사 중 김정기, 조완숙, 황신덕, 이시완 등 4명이 제출한 사임서를 수리하였고 이병헌,

이원혁, 이병의, 김홍진 등 4명을 간사 보선 전형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간사 후보에는 이춘숙, 이용흡, 이관구, 신현익, 권태열, 김응집, 이창휘, 김상진 등 8명을 추천되었고 이들 중 이춘숙, 이용흡, 이관구, 신현익 등 4명이 간사에 선출되었다.

이 외에도 이날 간사회에서는 신간회 경성지회 약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⁵³ 다음 날 16일 오전 11시 본부 회관에서 개최된 총무간사회에서는 상무간사를 선출하고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병헌은 이날 총무부 상임간사에 선정되었다.⁵⁴ 이로써 신간회 경성지회는 설립대회를 개최한 지 7일 만에 조직이 완료되었다. 경성지회는 10월 29일 오후 1시 안국동 범어사 포교소에서 간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병헌이 상무간사로 있는 총무부는 8월 11일부터 말일까지 회원 방문 및 회비 징수의 건, 회원 김동철 탈회의 건, 지회 규칙 수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중앙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일임하였다.⁵⁵ 이 보고에 따르면 이병헌은 상무간사로서 회원 방문, 지회 규칙 수정과 그리고 중앙고등보통학교 맹휴 사건 조사 등 총무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병헌은 1927년 12월 10일 개최된 정기대회에서 임원진을 개편할 때 간사 등 주요 직책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천도교구파에서는 이병헌이 빠지는 한편 신태순, 손재기 등이 새로 참여하였다. 이로부터 1년여 후 제3회 임시대회에서 다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제3회 임시대회는 1929년 1월 20일 오후 2시 15분 천도교 기념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병헌은 전체 참가자 중 55표를 획득하여 간사로 선출되었다.⁵⁶ 이어 1월 23일 간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이병헌이 참석하여 기존의 조직인 '선전부'를 '조사연구부'로 개편하는 데 적극 찬성하였다.⁵⁷

경성지회는 신간회본부의 정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신간회 본부는 2월 초 3월 19일과 20일 정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3월 9일 오후 7시 50분 경성지회회관에서 정기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대다수가 경성지회 회원이었다. 이병헌도 대회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접수부 위원이었다.⁵⁸ 이병헌은 경성지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가능하면 간사회에 참석하였다. 1929년 4월 11일 개최한 임시간사회에서는 부회장 김항규, 총무간사 민중식, 간사 김용기를 선출하는데 적극 의사를 표현하였다.⁵⁹

한편 1929년 3월 19일과 20일에 개최하려고 하였던 신간회 정기대회가 당국으로부터 불허되자 경성지회는 4월 11일 임시간사회를 열고 수개의 인접지회에서 공동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하자는 복대표대회안을 제기하였다.⁶⁰ 이에 따라 경성지회도 7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체제로 간무를 인선하기 위해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대회에서 조병옥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병헌은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⁶¹ 이어 7월 23일 개최된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이병헌은 조직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⁶² 그뿐만 아니라 1930년 1월 23일 개최한 경성지회 임시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병헌은 본부 회관 건립, 회보 발행, 도연합회 조직, 도내 지회 확장, 반 조직, 회원 교양, 회비 징수, 공제부 설치, 차가인 문제, 각 단체 연락 등 안건을 다룬 바 있다.⁶³

이 외에도 이병헌은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930년 6월 경성지회 설립 3주년을 맞아 기념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병헌은 이항, 이민행, 김세진 등과 함께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어 기념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⁶⁴ 그리고 기념식이 있는 당일 여흥부 책임을 맡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⁵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친 이병헌은 기념식 후 개최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그동안 맡아 오던 교육부⁶⁶에서 서무부로 교체되었다.⁶⁷

이병헌은 경성지회뿐만 아니라 신간회본부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28년 7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순회강연을 시작하였다. 각 지역별 순회강연에서 이병헌은 이종린과 함께 함경도 지방을 담당하였다. 이때 이병헌은 강연내용이 불순하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⁶⁸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에 12월 14일 안국동 네거리를 중심으로 민중대회를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
2. 시위운동을 할 것
3. 다음과 같은 표어로서 민족적 여론을 환기할 것
 - (ㄱ) 광주사건의 정체를 폭로하자.
 - (ㄴ) 경찰의 학교 유린을 배격하자.

(c) 포악한 경찰정치에 항쟁하자.⁶⁹

그리고 격문으로 “내(來)하라. 형제여, 자매여, 광주대연설회. 아등(我等)의 자질이 희생되는 것을 묵시키 불능하다.”를 채택하고 각 지회에 우송하였다. 학생들이 12월 9일 쫓기하자 일제는 신간회본부를 찾아와 민중대회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간회본부는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당일 민중대회는 분산시켜 진행되었는데, 이병헌은 조병옥과 함께 안국동 네거리에서 민중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일제는 민중대회 하루 전인 12월 13일 신간회본부를 급습하여 신간회 임원들을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안국동네거리에서 가지려고 하였던 민중대회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⁷⁰

이후 이병헌은 민족운동에서 한 발 물러나 천도교에서 종교인으로 활동을 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⁷¹ 해방 후 이병헌은 3·1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1959년 『3·1운동 비사』를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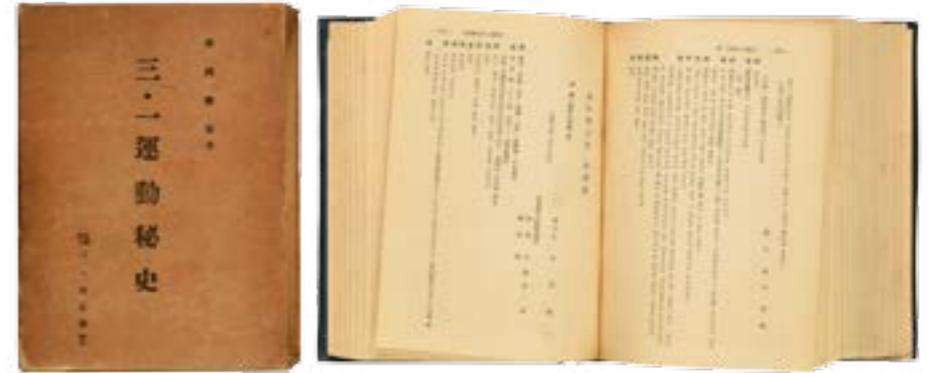
지금까지 3·1운동과 관련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병헌이 편저한 『3·1운동비사』이다. 『3·1운동비사』는 1959년 시시시보사 출판국에서 간행한

자료집으로, 3·1운동을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기, 민족대표 33인의 심문조서 그리고 각 지역의 3·1운동의 활동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3·1운동비사』의 편저자인 이병헌은 '서문'에서 간행의 배경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자는 그 당시 직접 체험한 일기를 수록하는 동시에 33인 및 17인에 대한 일(日)의 경(警)·검(檢)·법원 등의 조서(調書)를 원문 그대로 문장을 가감하지 않고 역재(譯載)하였으며, 각 지방의 대소 의거 사실과 각 단체를 조직하고 투쟁하던 것을 세밀히 기록함으로써 이 운동의 전말을



오암 이병헌



이병헌의 『3·1운동비사』

파악케 하는데⁷²

이병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생산된 민족대표의 신문조서를 가감 없이 역재하였으며, 각 지방의 크고 작은 만세시위의 사실과 각 단체의 활동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3·1운동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3·1운동비사』를 출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민족대표 48인에 이름을 올린 함태영과 33인의 1인인 이갑성,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규갑이 같이 서문을 통해 이 책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이병헌 선생이 그 당시의 생생한 모든 사실을 편술한 이 책자를 세상에 내놓게 됨에 나로서는 흔쾌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병헌 선생은 기미운동 당시에 청년으로서 민족운동에 헌신하였으며 그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는 터이라, 이 책자는 선생의 그동안 모든 간난(艱難)을 무릅쓰고 간직해 온 그 당시의 경찰취조서와 검사신문조서 및 예심조서의 원문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을 비롯해 자신의 일지와 각 지방의 의거사건 및 각 단체의 독립혈투의 사실 등 귀중한 자료를 중심으로 편저하였는데, 그 당시 독립운동 전모를 실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영구히 자랑하고 간직해야 할 산 역사적 문헌이다.⁷³

이 책자는 그 일을 지도했던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 당시의 6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석운 이병헌 동지가 이 운동에 직접 참가했고, 체험했고, 목도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니, 이 책자의 구절구절이 삼일정신이요, 삼일운동 자체라고 보는 바이다.⁷⁴

금반 이병헌 선생의 집필로 『3·1운동비사』를 간행함은 선생 자신이 그 당시 직접 활동하였고 체험하였던 만큼 고상(考相)이나 창의적인 것이 아니고 각 기록 원문과 또는 각지에서 일어났던 의거 사실(事實)을 소상히 기록한 문헌으로서 올바른 사실(史實)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⁷⁵

위의 서문에 따르면 함태영, 이갑성, 이규갑 등 3인은 이병헌이 편술한 『3·1운동비사』는 ‘사료(史料)이며, 역사적 문헌’, ‘사실(史實)을 기록한 것’, ‘사실(事實)을 소상이 기록한 문헌’이라고 하여 사료적 가치가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1운동비사』는 사료적 가치가 적지 않은 자료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3·1운동비사』는 곳곳에서 많은 오류들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 지역 3·1운동에서의 오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당지에서는 13일 오후 1시경에 각 학교 생도 급 일반시민 중 수백 명이 각기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장을 거쳐 재판소 앞까지 쇄도하여 시위운동을 행하였는데, 이날은 마침 먼 장날인고로 뇌화하는 자 수천 명에 달하여 일시 혼잡을 극한 바, 경관이 민활한 활동으로 즉시 이를 해산하고 약 이십여 명을 검거하였는데, 이중에 기전여학교 생도 십삼 명이 체포되었으며 일반 시민은 철저 경계 중이라더라.⁷⁶

〈자료 2〉

3월 23일 오후 1시경에 각 학교 생도와 일반 시민 수천 명이 각각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재판소 앞에 와서 시위운동을 하였는데, 이날은 장날인 관계로 다수한 군중이 집합하였으므로 경찰은 즉시 무력으로 해산을 강요하고 20여 명을 검거하였는데, 여학생 13명이었다.⁷⁷

〈자료 1〉은 『매일신보』 1919년 3월 15일자 기사이며, 〈자료 2〉는 『3·1운동비사』의 기록이다. 이 두 자료는 동일한 만세시위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지만, 날짜가 다르다. 즉 『매일신보』는 3월 13일, 『3·1운동비사』는 3월 23일로 각각 되어 있는데, 『매일신보』의 기사가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3·1운동비사』의 기록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전주 지역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평택 지역 3·1운동의 기록에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3·1운동비사』에 나타난 각 지역의 3·1운동 관련 만세시위 기록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신보』 등 당시의 기록과 비교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1운동비사』를 통해 본 수원면 3·1운동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태화관과 탑골공원에서 첫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평양과 의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그 이후에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1운동에 대한 기록은 당시의 일제 측 기록인 조선군사령부, 조선주차군, 조선헌병대 등 군 관계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와 도장관의 보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록은 당시 현장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여느 자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자료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한국 측의 자료는 대부분 해방 이후 정리되었거나 회고록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정확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3·1운동비사』를 기준으로 하여 수원에서 전개된 3·1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3·1운동비사』에 기록된 수원 3·1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⁸

3월 1일 북문인 용두각(華虹門)에 수백 명이 모였는데, 경찰이 이곳에 무슨 일로 모였느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군중은 이리저리 피하는 척하다가 별안간 만세를 부르자 순사는 깜짝 놀라 경찰서로 달려가 버렸다. 만세소리를 듣고 각처에서 모여든 군중이 수천 명이었다.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하여 남쪽으로부터 만세소리가 나더니 잠시 동안 천여 명이 호응하여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안 연무대에 수백 명씩 모여 만세를 부르며 시가지 종로를 통과하여 대환란을 이루던 중 경찰은 소방대와 헌병과 합동하여 이를 제지하느라고 힘을 다하였다. 주모자를 검거하자 시내는 전부 철시를 단행하고 인심이 더욱 진정되지 않음을 보고 경찰은 검거하였던 사람을 석방하였다.

이날 오후 11시경 북수리에 있는 천도교에서는 때 마침 장날이었는데, 서울서 연락자로 내려온 이병헌이가 교구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교인이 집합하여 서울의 정세를 듣고 앞으로 독립운동비를 부담할 것을 의논하던 중 소방대와 일본인이 합세하여 소방용(消防用) 갈구리와 팽이를 가지고 대문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구타하였다. 이때 부상자 중에 김정담(金正淡) 씨는 노인이라 경상만 당하고 김정모(金正模)가 나가서 무슨 일인가 질문하다가 중상을 입었는데 중상자는 안종환(安鍾煥), 안종린(安鍾麟), 홍종각(洪鍾珪), 김상근(金相根), 이병헌(李炳憲) 씨였다. 삼일여학교는 12시 반에 습격하였으나 숙직원뿐이어서 사무실만 파괴하였다.

29일 오후 11시에 수원기생조합 기생 일동이 그곳 자혜의원으로 검사(健康檢査)를 맞이 위하여 가다가 경찰서 앞에서 동 기생 중 김향화(金香花)가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고 지휘 하에 일제히 만세를 부른 후 병원으로 가서 다시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병원에서는 검사할 것을 거절

하여 기생들은 그대로 나오다가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각각 헤어졌다. 그 조합 취체역(取締役) 김향화는 곧 체포되어 공판에 회부된 바 6개월 징역의 처형을 받았다.

『3·1운동비사』에 따르면 수원 3·1운동은 <표 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수원에서는 3월 1일 용두각과 3월 29일 수원기생조합 기생들의 수원경찰서 앞 등 두 차례 만세 시위가 있었다.

<표 1> 『3·1운동비사』에 나타난 수원 3·1운동 현황

일자	장소	내용
3월 1일	용두각	수백 명이 모여 별안간 만세시위, 각처에서 수천 명 모여
3월 16일	서장대와 연무대	수백 명이 모여 만세시위, 종로를 통과
	천도교 수원교구	이병헌 교구 도착, 교인 모여 독립운동비 부담 논의 중 소방대와 일본인 습격
	삼일여학교	습격받아 사무실 파괴
3월 29일	수원경찰서 앞	수원기생조합 기생 일동 만세시위, 김향화 체포

그러나 『3·1운동비사』 이외의 자료에 나타난 수원의 3·1운동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나간 (3월) 25일은 수원 장날이므로 시장 기타에 경찰서장의 훈시를 부치고 만일을 경계하던 중 오후 3시 40분경에 출연 남편 미국시장 으로부터 만세를 부르자 수백 명의 군중이 이에 응하여 일시 혼돈이 심하던 중 경관이 출동하여 주모자로 인정할 만한 자 10여 명을 검거하고 인하여 진정된 바, 그 익일에 몇 명은 설유하여 방송하고 6, 7명만 목하 취조 중인데, 시내 상점에서 다수히 문을 열지 아니하여 철시의 현상이더라.(수원통신)⁷⁹

(3월) 25일 이래 연일 불온한 현상이더니, 28일 밤 10시 20분경부터 약 1백 명의 군중이 종로와 남문 사이의 큰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약 20분쯤 지나 남문을 나서 정거장 통로 되는 사거리 길에서 또한 만세를 부르던 중 경찰서에서 서장 이하 경관 일동이 출동하여 진압시키었는데, 시내 각 상점에서는 여전히 문을 닫혔고 이왕 (3월) 25일에 검거된 자는 전부 설유하여 방송하였다더라.(수원통신)⁸⁰

수원 시내는 연일 소요한 이래로 인심이 흥흥하여 불온한 기상이 총만하고 혹 만세를 부르는 자도 있는데, (3월) 30일 장날은 곡물 기타 음식장사만 있고 그 외 포목상들은 장을 보지 않아서 시장이 아주 쓸쓸하더라.⁸¹

(3월) 29일 오전 11시 반경에 수원조합 기생 일동이 자혜의원으로 검사를 맞기 위하여 들어가다가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몰려 병원 안으로 들어가 뜰 앞에서 만세를 연하여 부르다가 병원으로서 내어 쫓음으로 경찰서 앞으로 나왔다가 인하여 해산되었는데, 조합 취체 김향화(金香花)는 경찰서로 인치 취조 중이더라.⁸²

(3월 11일) 천도교도는 교주 손병희가 검거되었다는 것을 듣고 격앙하여 오는 4월 5일 천일기념일(동학의 교조 수운 최제우 제일(祭日)⁸³)에 교도 전부가 경성으로 집합하여 신명을 받쳐 손병희를 구조할 것을 모의하는 행적이 있어 주의 중⁸⁴

(3월) 25일 수원 장날을 맞아 청년 학생의 주창에 따라 약 20명의 학생,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며 수모자 10명을 검거하고 즉시 해산시켰다.⁸⁵

(3월) 25일 운동 이래 28일에 시내 각지에서 2, 30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해산하였으며, 29일에 이르러 기생 약 30명이 자혜의원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밤에는 상인, 노동자 및 무뢰한 등 시내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일본인 상점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행을 함으로 수원경찰서원은 보병과 소방조원과 협력하여 경계 중⁸⁶



수원기생조합 만세시위를 주도한 김향화

앞의 자료는 『매일신보』와 조선군사령부 등 기관에서 보고한 것으로, 이를 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수원은 3월 25일 (미곡)시장, 3월 28일 종로와 남문 등, 3월 29일 수원경찰서(자혜의원) 앞에서 각각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것은 3월 29일 수원기생조합의 기생들이 만세시위를 한 것뿐이다. 그렇지만 만세시위를 한 장소는 수원경찰서(『매일신보』)와 자혜의원(『조선독립운동』)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어느 곳이 더 정확한 곳 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튼 기생들의 만세시위는 분명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군사령부, 조선헌병대사령관 등 군 관련에서 보고한 정보의 경우도 당시 만세시위를 조사하고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3월 25일 (미곡)시장, 3월 28일 남문 등 시내, 3월 29일 시내의 만세시위 역시 전개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2> 일본 측 자료에 나타난 수원 3·1운동 현황

일자	장소	내용	출처
3월 11일	천도교구	교인들이 모여 4월 5일 손병희 구출 모의	조선독립운동
3월 25일	미곡시장	수백 명이 모여 만세시위, 10여 명 검거 후 진정	매일신보
	시장	청년 학생들의 주도로 만세시위, 수모자 10명 검거	조선독립운동
3월 26일	시내	상점 철시	매일신보
3월 28일	종로와 남문	1백여 명이 만세시위, 경찰 출동하여 진압	매일신보
	시내 각지	20~30명이 모여 만세시위	조선독립운동
3월 29일	수원경찰서 앞	수원기생조합 기생들이 만세시위	매일신보
	자혜의원 앞	기생 약 30명이 만세시위	조선독립운동
	시내 각지	(밤)상인, 노동자 등 만세시위, 일본인 상점 파괴	
3월 30일	시내	일부 상점 철시 계속	매일신보

<표 3> 개람표에 나타난 3월 1일 만세시위 현황⁸⁸

지역	소요인원	소요자의 행동	소요자의 성질	출동병력	상황
경성	2,000 ~3,000명	대한문 전에 집합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시위운동을 행하다. 일부는 창덕궁 내로 돌입하려 다가 제지당하다.	천도교도, 기독교 신도 및 학생	보병3중대 기병 1소대	오후 1시 일단 진정하다.
선천	불명	한국기를 들고 경찰서로 밀려 오다.	기독교 선천학교 생도가 많았다.	보병 1소대	오후 2시 진정하다.
평양	약 2,000명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불온한 정조를 띠다.	야소교 회원과 그 부속 학생 생도	보병 1중대	오후 11시에 일단 평온으로 복귀하다.
의주	약 300명	야소교회당에 집격하다.	야소교도	보병 22명, 11명 을 귀환시키다.	10명을 체포하다.
안주		소요하다.			
원산	불명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불온한 행동이 있었다.			재향군인으로 경계진정으로 복귀하다.
진남포	불명	소요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3월 1일 용두각과 16일의 서장대와 연무대의 만세시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선소요사건 경과 개람표」에 따르면, 3월 1일 당일에 수원에서 만세시위는 없었다. 이 개람표에는 3월 1일 만세시위가 <표 3>과 같이 보고되었다. <표 3>에 따르면, 3월 1일에 만세시위가 있었던 곳은 경성(서울), 평북 선천과 의주, 평남의 평양과 안주, 진남포, 그리고 함남의 원산 등이었다. 이로 볼 때 수원에서는 만세시위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육군성에 송달된 보고에서도 수원의 만세시위는 보이지 않고 있다.⁸⁷

그리고 참고로 3월 2일 만세시위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개람표에 나타난 3월 2일 만세시위 현황⁸⁹

지역	소요인원	소요자의 행동	소요자의 성질	출동병력	상황
경성	약 400명	시위운동을 하다.	노동자 및 소수 학생	1중대를 원대 복귀 시키다.	주동자 약 20명 체포 해산하다.
함흥	불명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불온한 징조를 띤다.			
상원		순사주재소를 파괴하고 경관을 포박하다.		장교 이하 20명	헌병대 도착과 동시 경관과 병기탄약을 탈환하고 39명을 체포하다.
진남포	불명	경찰서를 습격하여 창 유리에 투석하여 형세 불온하다.		1부대가 출동하다.	
강서	약 1,000명				헌병은 병기를 사용하고 대항하다.
용강	불명	불온			

한편 3월 16일 서장대와 연무대의 만세시위도 일본 측에서 보고된 각종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경기도에서 만세시위를 한 곳은 가평군 목동리 뿐이었다.⁹⁰

이상으로 일본 측의 정보 및 보고서를 살펴보았지만 『3·1운동비사』에 기록된 3월 1일과 16일의 수원 만세시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3월 1일과 16일 만세시위는 수원면 3·1운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3월 1일 만세시위를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9년 2월 전국적인 독립만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한, 수원면의 구체적인 시위계획에 관한 전열을 다지는 마지막 회의가 수원상업강습소에서 있었다. 당시 이 강습소 위치는 지금의 남창동으로, 수원경찰서(현 위치)나 헌병대(종로네거리)와는 불과 4~5백 미터의 거리여서 왜경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날 수원지방 독립운동의 총책임자인 김세환이 서울에서 전국적인

거사계획을 갖고 내려와 이 고장 동원책임자이며 총지휘자인 김노적을 중심으로 박선태, 이선경, 임순남, 최문순, 김석호, 김병갑, 이희경, 신용준 등이 김세환의 시위계획을 비장한 각오로 경청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령은 김노적이 25세로 가장 많고 기타는 20세 안팎의 젊은 층으로서 거의가 상업강습소 출신의 김세환의 제자들이었다.

김세환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사계획을 설명하고, 수원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 하여 3월 1일 정오 삼일학당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방화수류정-북문-종로 네거리-남문까지 시위를 하고 해산하였다. 선두에 김세환, 다음에는 김노적 그리고 다른 동지는 군중 사이에 끼어 시위를 주도하되 남문에서는 꼭 모이도록 했다. 그것은 남문 밖(지금의 중동사거리와 영동시장)에는 객주집이 많이 있어 수원지방 각처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많음으로, 이들을 통하여 빨리 각 시골에 시위를 유도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경이 감지한 것 같다는 첩보를 접하고 부득이 3월 1일 낮에 갖기로 한 거사는 중지하고 밤의 횃불시위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밤 8시 김노적은 종교인, 상인, 농민, 학생을 비롯한 일반 군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동창부리에 있는 화성 동쪽이 봉수대에 올라가 첫 횃불을 쏘아 올리니 이를 신호로 독립만세 소리가 밤의 적막을 깨뜨리고 온 촌지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팔달산의 서장대를 비롯한 20여 곳의 성곽에서 일제히 봉화가 타올라 수원 장안을 대낮같이 밝혔다. 흥분의 도가니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던 군중들은 그 여세를 몰아 순식간에 시내로 내리 닥쳐 밤거리를 진동시켰다.⁹¹

이 글에 따르면 김세환은 수원 3·1운동의 총책임자였으며, 3월 1일 정오 삼일학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방화수류정-북문-종로네거리-남문으로 이어지는 만세시위의 선두에서 활약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일경이 감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간을 변경하여 오후 8시에 실행하였다. 그런데 오후 8시에 전개된 만세시위에는 김세환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김세환이 직접 만세시위를 계획과 같이 선두에서 지도하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3월 1일 김세환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세환의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세환은 신문조서에서 3월 1일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문 :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언제인가.

답 : 3월 1일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한번 2월 24일 밤에 서울에 온 일이 있었다.

문 : 그때 누군가 동지와 만났는가.

답 : 그때 박희도(朴熙道)와 만났었다.⁹²

이 자료에 따르면, 김세환은 지방으로 3·1운동과 관련하여 동지들을 만나서 교섭한 후 3월 1일 아침에 서울에 있었으며, 민족대표로 서명한 박희도를 만났다. 그리고 『매일신보』에 보도된 신문조서 내용에서도 “2월 21일 남대문을 출발하여 3월 1일 6시경 경성으로 돌아왔나이다.”라고 하여, 3월 1일에는 수원에 없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⁹³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김세환은 3월 1일 서울로 돌아왔고 3월 13일 피체되었다.⁹⁴ 즉 김세환은 앞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3월 1일 전개한 수원 만세시위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⁹⁵ 이에 앞서 김세환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동석기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2월 27일, 28일경 당시 수원군 음덕면에 있는 남양교회에서 동석기를 만나 독립청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다.⁹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세환은 2월 27일과 28일경 수원군 음덕면 남양교회에 있었으며, 3월 1일 새벽 6시에는 서울에 있었다고 하면, 3월 1일 전개한 수원의 만세시위에 관여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나아가 3월 1일 수원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을까 한다. 상황적으로는 김세환이 수원의 3월 1일 만세시위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3월 1일의 수원 만세시위에 대한 상황 보고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3월 1일 수원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3월 16일 만세시위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료가 보완되기 전까지는 3월 1일 수원의 만세시위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편 수원의 3월 1일 만세시위는 저녁 8시 화성 동쪽 봉수대에서 시작하여 삼시간에 20여 곳에서 횃불시위를 전개하여 수원 시내가 대낮처럼 밝았다고 하였다. 이 역시 의문점이 남는다. 처음 정오에 전개하려고 하였던 만세시위가 일경에 감지되었다고 한 바, 저녁 8시에 20여 곳에서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전개한 만세시위가 일본 측의 정보나 보고, 그리고 신문 기사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일본 측에서 20~30여 명의 만세시위까지 조사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3월 1일 만세시위는 더욱더 쉽게 수궁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이병헌의 『3·1운동비사』를 통해 수원 3·1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 대한 평가이다. 이병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생산된 민족대표의 신문조서를 가감 없이 역재하였으며, 각 지방의 크고 작은 만세시위의 사실과 각 단체의 활동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3·1운동의 전말을 파악케” 하기 위해 『3·1운동비사』를 출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서명하였던 이갑성, 48인이었던 함태영, 그리고 3·1운동 당시 활동하였던 이규갑 등은 서문에서 『3·1운동비사』의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3·1운동비사』에는 앞에서 전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3·1운동비사』가 3·1운동이 있는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사료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 만세시위를 통해 좀 더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평택 지역 3·1운동에서도 동일한 만세시위가 일본 측 기록에는 3월 31일로, 이병헌의 『3·1운동비사』

에는 3월 21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역시 이병헌의 기록이 오류일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본다.

둘째는 3월 1일 수원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월 1일 만세시위가 전개된 곳은 경성(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등지였다. 일제 측 당시의 기록에는 3월 1일 수원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즉 독립선언서를 배포되었다는 기록이 없었다. 3월 1일 만세시위가 있었다면, 당시 일제가 전국의 만세시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 보고 그리고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원의 만세시위에 대해 전혀 당시 수집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과연 3월 1일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1운동과 관련하여 수원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로 독립유공자가 된 인물은 김향화가 유일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향화는 3월 29일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며, 그 공로로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외람되지만 수원에서의 만세시위에 대한 새롭게 접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註

- 1 3·1운동 당시 수원은 수원면과 현재의 화성지역을 포함하였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수원면에 해당하는 현재의 수원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월 1일의 수원 만세시위에 대해서는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 의거하고 있다. 3월 1일 수원의 만세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 수원 지역 3·1운동 연구성과 중 '수원면'만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다. 수원 지역 3·1운동은 당시 수원군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4 이들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판결문을 비롯하여 심문조서 등이 있다.
- 5 대표적인 자료는 김정명 편, 『명치백년사총서 조선독립운동 I 민족주의운동편』, 原書房, 1967과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조선 25』(3·1운동 1), みすず書房. 그리고 이를 번역한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기1·기2·기3), 1979 등이 있다.
- 6 이와 관련된 자료집은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출판국, 1956; 이용락, 『3·1운동실록』, 삼일동지회, 1969 등이 있다.
- 7 이병헌은 제암리학살사건에서 희생된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 8 이병헌에 대해서는 성주현, 「오암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 -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가의 삶』, 도서출판 아라, 2014를 참조. 본고 역시 이 글을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 9 『함평이씨 대동보』.
- 10 道號는 천도교인에게 내려주는 號이다.
- 11 「환원일속」, 『천도교회월보』 127, 1921년 3월, 118쪽.
- 12 「수원군중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 1926년 11월, 29쪽.
- 13 「수원군중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 1926년 11월, 31쪽.
- 14 「수원교구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군 북수리 343번지였다.
- 15 수원교구의 규모는 瓦家 40칸이었다.
- 16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59, 880쪽.
- 17 「환원일속」, 『천도교회월보』 127, 1921년 3월 118쪽.
- 18 「천도교회월보」 12, 1911년 8월, 65쪽.
- 19 「천도교강습소 규정」, 1911.
- 20 「천도교강습소 규정」, 1911.

- 21 「학사일반」, 『천도교회월보』 24, 1912년 7월, 39~40쪽.
- 22 「종령 제94호」; 이동초 편저, 『천도교회 종령 존안』, 모시는사람들, 2005, 187~188쪽.
- 23 『천도교회월보』 58, 1915년 5월, 43쪽.
- 24 『천도교회월보』 76, 1916년 11월, 36쪽.
- 25 『천도교회월보』 82, 1917년 5월, 44쪽.
- 26 『천도교회월보』 90, 1918년 1월, 43쪽.
- 27 『천도교회월보』 102, 1919년 2월, 64쪽.
- 28 「수원교회 낙성식」, 『천도교회월보』 292, 1936년 12월, 37쪽.
- 29 천도교 청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천도교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9를 참조할 것.
- 30 関泳純, 「天道教六十一年年譜」, 『천도교회월보』 116, 1920년 4월, 32쪽.
- 31 講研部 支部는 지방교구가 조직된 곳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1919년 11월까지 鎭南浦, 晉州, 定平, 博川, 淸州, 江東, 三登 등 10개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부원 500여 명에 달하였다.(『천도교회월보』 112, 1919년 12월, 41쪽)
- 32 趙基柔, 『天道教青年黨一覽表』, 천도교청년회의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천도교 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를 참조할 것.
- 33 「天道教青年教理講研部の名義改定」, 『천도교회월보』 117, 1920년 5월, 114쪽.
- 34 「水原郡宗理院沿革」, 『天道教會月報』 191, 1926년 11월, 30쪽.
- 35 「中央總部彙報」, 『天道教會月報』 118, 1920년 6월, 102쪽.
- 36 「水原郡宗理院沿革」, 『天道教會月報』 191, 1926년 11월, 30쪽.
- 37 「各支會의 狀況一覽」, 『天道教青年會會報』 제3호, 1921년 12월, 16쪽(『韓國思想』 제16집, 韓國思想研究會, 1978).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昨年 二月 七日 本郡 地方各處에 巡迴講演을 行함.
 - 一, 昨年 四月 十五日 本大教區 內에 特別大講演會를 開함.
 - 一, 昨年 八月 五日 本郡 地方 各處에 巡迴講演을 行함.
 - 一, 今年 一月 四日 本支會에서 講習會를 開催함.
 - 一, 同年 三月 三十一日 講習會 終了되는 授與式을 舉行하니 會員 總數 二十五人.
- 38 『천도교중앙총부 직원록』.
- 39 천도교청년동맹에 대해서는 조규태, 「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9,

충북대학교, 1997를 참조할 것. 그리고 경기지역의 천도교청년동맹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청년동맹 활동」, 『경기사학』 4, 경기사학회, 2000를 참조할 것.

- 40 「天道教青年同盟 京城支部組織ノ件」, 京鍾警高祕 第8914호, 1927년 8월 14일.
- 41 『천도교회월보』 202, 1927년 9월, 27쪽.
- 42 『천도교회월보』 208, 1928년 5월, 49~50쪽.
- 43 『천도교회월보』 209, 1928년 6월, 25~26쪽.
- 44 「중앙회보」, 『천도교회월보』 222, 1929년 6월, 38쪽; 「天道教青年同盟京畿道聯盟組織二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7145號, 1929년 6월 1일.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도내 대표는 광주 한순회, 양주 윤원세, 포천 조규원, 수원 이연숙, 홍종각, 윤준흠, 용인 송재문, 시흥 최재원, 진위 박규희, 경성 박양신, 주종석, 이윤의, 김상집 등이며, 그리고 검찰위원에는 경성 유한일, 강화 강세희, 인천 이기정 등이 선정되었다.
- 45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17914號, 1930년 12월 22일.
- 46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18199號, 1930년 12월 26일; 「天道教青年總同盟 通文郵送二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62號, 1931년 1월 6일.
- 47 「天道教靑友黨通文郵送二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2008호, 1931년 2월 21일.
- 48 『천도교회월보』 269, 1934년 3월, 32~33쪽; 『천도교회월보』 291, 1936년 9월, 38쪽; 『천도교회월보』 295, 1937년 5월, 38쪽.
- 49 조규태,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2000, 238~239쪽.
- 50 「신간회의 경성지회, 북부지회를 경성지회로 설치 준비」, 『중외일보』 1927년 6월 3일; 「확충되는 신간회 경성지회 설치」, 『조선일보』 1927년 6월 3일.
- 51 「신간회 경성지회 10일 夜에 설립대회」, 『중외일보』 1927년 6월 12일; 「신간회 경성지회 성황리 발회」, 『조선일보』 1927년 6월 12일.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韓龍雲, 부회장 許憲, 간사 이원혁 김홍진 박의양 정철성 이병헌 김항규 강인택 홍기문 이황 이병의 이시완 이희춘 김정기 김영운 박완 김익동 김동혁 이갑준 박영태 강상희 박일 김인수 조원숙 신현구 황신덕.
- 52 「신간회 경성지회 간부 부서 작성」, 『조선일보』 1927년 6월 18일.
- 53 「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件」, 京鍾警高祕 第6701號-1, 1927년 6월 16일.

- 54 「新幹會京城支會總務幹事會二關スル件」, 京鍾警高祕 제6833호, 1927년 6월 17일. 이날 간사회에서 선정된 부서별 간사는 다음과 같다. 총무부 : 총무간사 김영륜, 상무간사 김흥진 이병헌 김인수, 재정부 : 총무간사 이용흠, 상무간사 이갑준 박일, 정치문화부 : 총무간사 이춘숙, 상무간사 이관구, 조직부 : 총무간사 김항규, 상무간사 신현익, 선전부 : 총무간사 이원혁, 상무간사 이항 김동혁 정철성.
- 55 「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二件」, 京鍾警高祕 第12237호, 1927년 10월 30일.
- 56 「新幹會京城支會第三會臨時大會續會二件」, 京鍾警高祕 第642-1號, 1929년 1월 21일.
- 57 「新幹會京城支會ノ幹事會二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818號, 1929년 1월 24일.
- 58 「新幹會大會準備委員會二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2951호, 1929년 3월 11일. 대회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무부 : 김인수 김세진 김진태, 용도부 : 이원혁 홍명희, 접대부 : 박명환 박양신 박한경 박완 홍봉유 이청범 이병헌 조현영 김원석 정철성 박호진 정헌태 이기홍, 설비부 : 장수창 김응집 민중식 최성원 손재기, 선전부 : 박천 김성수 조현식 조병옥 안재홍.
- 59 「新幹會京城支會臨時幹事會二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4681호, 1929년 4월 12일.
- 60 「신간경성지회 임시간사회의」, 『조선일보』 1929년 4월 13일.
- 61 「신간회 경지대회」, 『조선일보』 1929년 7월 26일.
- 62 「신간 경지 부서 결정」, 『조선일보』 1929년 7월 26일.
- 63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998號, 1930년 1월 23일.
- 64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8253號, 1930년 6월 3일.
- 65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8454호, 1930년 6월 5일.
- 66 「신간 경지 상무각부임원 결정」, 『중외일보』 1930년 4월 20일.
- 67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8815호, 1930년 6월 11일.
- 68 이병헌, 「신간회운동」, 『신동아』 1969년 8월호;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169쪽.
- 69 「7개항의 슬러건, 12인이 결의 서명」, 『조선일보』 1930년 9월 7일.
- 70 이승복, 「신간회소사」, 『한국일보』 1958년 8월 11일; 이병헌, 「신간회운동」, 『신동아』 1969년 8월호;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184쪽.
- 71 해방 후에는 한국민주당에 참여했고 민주의원(民主議院)의 서무과장과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 겸 총무과장, 대한행정신문사 사장을 거쳐 1960년에 평택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 출마해 민의원에 당선되었다.
- 72 『3·1운동비사』, 서문, 7쪽.
- 73 『3·1운동비사』, 서문(함태영), 1쪽.
- 74 『3·1운동비사』, 서문(이규갑), 5~6쪽.
- 75 『3·1운동비사』, 서문(이갑성), 3쪽.
- 76 「騷擾事件의 後報, 전라북도 소주, 검거된 여학생」, 『매일신보』, 1919년 3월 15일.
- 77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901쪽.
- 78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 79 『매일신보』 1919년 3월 29일.
- 80 『매일신보』 1919년 3월 31일.
- 81 『매일신보』 1919년 4월 1일.
- 82 『매일신보』 1919년 4월 1일.
- 83 祭日이 아니고 創道日이다. 천도교는 이날을 ‘天日記念日’이라고 한다.
- 84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 (민족주의운동편)』, 原書房, 1967, 349쪽.
- 85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 (민족주의운동편)』, 原書房, 1967, 425쪽.
- 86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 (민족주의운동편)』, 原書房, 1967, 484쪽.
- 87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 25』(3·1운동 1), みすず書房, 1967, 110~111쪽.
- 88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기1), 국회도서관, 1977, 28~34쪽.
- 89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기1), 국회도서관, 1977, 28~34쪽.
- 90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 25』(3·1운동 1), みすず書房, 1967, 125쪽 및 134쪽;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 (민족주의운동편)』, 原書房, 1967, 378~379쪽 및 457쪽
- 91 李梯宰, 『수원의 옛 문화』, 효원문화인쇄, 1995, 154~155쪽.
- 92 「김세환 신문조서」.
- 93 『매일신보』 1920년 9월 25일.
- 94 「손병희 등 48인 판결문」.
- 95 김권정, 「日帝 強占期 金世煥의 基督教 民族運動」, 『송실사학』 18, 송실사학회, 2005, 53쪽.
- 96 「동석기 신문조서」. 동석기는 다음 날 3월 1일 서울로 올라가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물론 신문조서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구술사적 의의

: 수원 지역사 관점에서

1. 머리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전국 각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크고 작은 행사가 거행되었다. 수원시에서도 2019년 1월 24일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대 교수 박환, 이하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화성시에서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옛 수원군 지역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 하면서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수원군 지역 3·1운동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 역할과 기능을 해 온 김선진의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는 연구자 간에 그 신뢰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는 본서가 3·1운동 당시 생존자 및 그 후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일제 측 관변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책을 저술할 당시 구술사 방법론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구술사가 역사학 방법론으로 정착되어 구술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구술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구술자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면담자가 염두에 두고 구술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그 구술을 이용할 때에도 사료비판을 통해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접근해야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를 발간한 김선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책의 신뢰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수원 지역 3·1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최대한 이 책의 기록을 활용하는 데 주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필자는 이 책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이 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거친 이후의 일이 아니라 막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때에 수원시정

연구원에서 이 책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 책의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를 얻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 검토를 통해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가 사료로서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김선진 단독 작품이 아니라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공동작품이며, 제암리·고주리의 학살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목적을 표방했으나 실은 그 내용으로 보면 수원군 전체의 3·1 운동의 실상을 발로 찾아간 역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근대사를 전공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책이 없다면 오늘날 알 수 없게 되었을 사실을 발로 찾아다니며 기록하신 저자 김선진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린다.

본고는 수원 지역 구술사 연구의 현황을 살핀 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2. 수원 지역 구술사 연구 현황

한국 구술사 연구는 1985년 사회학자 최재현이 구술사 연구방법을 학계에 소개²한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술 채록물을 토대로 출간된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은 구술 채록물의 활용에 다양한 인식의 틀을 열어 주었다.³ 이후 인류학을 중심으로 구술사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확대되어 1990년대에는 구술사가 국내 학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구술사가 학문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이래 제주 4·3사건, 5·18광주민중화운동, 일본군위안부, 한국전쟁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이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억압되거나 왜곡 및 은폐되면서 이러한 사건과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⁴ 즉 비학술적 맥락에서 구술사 연구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이 1990년대 학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구술사를 표방한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⁵ 특히 1994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가 대학원에 구술사 강좌를 개설한 이후 2000년대 초부터 몇몇 대학에서 기록학 관련 대학원과정⁶이 개설되어 구술사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9년 9월 구술사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가 창립될 정도로 현재에는 구술사가 역사연구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술사 연구는 특정한 학문 분야를 뛰어넘어 인문사회학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와 같이 구술사가 학문의 방법론으로서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 데에는 구술사가 문서 기록의 부족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자료나 사실, 이론의 발견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문서기록이 망실되었거나 훼손되어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복원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대체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구술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기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약점을 갖고 있다. 즉 기억은 왜곡되거나 망각되는 일이 허다하며, 구술사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항상 받아 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명백하다.⁷ 더 나아가 구술자가 자신의 기억을 고의로 왜곡시킬 수 있다.⁸

이러한 지방사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구술사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더욱 커졌다. 특히 지역의 근대사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문헌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채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지방민의 경험과 생활에 기반한 구술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 자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까운 시기의 작은 역사적 단편을 그 시기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목격, 체험, 그리고 기억에 기반해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기존의 문서자료가 담아내지 못한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생생한 역사 자료로서 지방사의 재발견과 재해석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지역사 연구에서 문헌자료와 함께 구술자료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수원 지역의 경우는 구술채록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행해졌다. 특정 연구자나 특정 기관에서 행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수원 지역 3·1운동사 연구에서 조선총독부의 재판기록과 함께 기본 자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 온 김선진의 『일제의 학살 만행을 고발한다』(미래문화사, 1983)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에도 전동례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뿌리깊은 나무, 1991)가 출판되어 일제의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공교롭게 이 두 책은 모두 수원 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증언이며 채록이다. 김선진은 자신이 증언을 청취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삼괴지역과 발안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 만행을 밝히고 여기와 연관 관계가 깊은 제암리·고주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군의 학살진상 및 이 지방의 3·1운동을 살펴봄으로써 비명에 가신 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붓을 들어 본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¹⁰

김선진의 문제의식은 ① 수원 지역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복 만행을 밝히는 것, ②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 ③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1984년 제암리 전동례(경기도청 제공)

요약된다. 이현희는 감수사에서 이 책의 의의에 대해 수원 지역 3·1운동의 진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암리의 집단학살사건의 진상은 그동안 잘못 전해진 채로 60여 년이 흘러왔던 것인데 이번에 김 선생에 의한 상세한 탐문조사에서 희생자의 신분이나 종교별 인원수, 학살현장 등이 잘 나타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은 꼭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이 지역에 총래 30여 명의 희생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 것으로 잘못 전해져 왔었는데 이번에 정밀 탐문에 의하여 30여 명의 희생자 가운데 천도교 신자가 20여 명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¹¹



민중자서전시리즈 첫 번째 작품인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

이현희는 주로 제암리 학살사건에 주목하였으나 오히려 지금까지 문헌자료가 잘못 기록하였거나 기록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구술을 통해 복원하였다는 것이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선진이 수원 지역의 3·1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 책이 출판되기 12년 전인 1971년부터였다.¹² 그러다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76년 1월 10일부터 1979년 2월 20일까지 3년간 화성군 각지를 돌아다니며 구술채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자신이 혼자 구술을 채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새마을영농기술자연합회 우정·장안면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조사·정리했다는 것이다.¹³ 그리하여 제암리의 전동례와 김순남할머니를 비롯한 300여 명의 현지 증인들을 대상¹⁴으로 증언을 청취하고 채록·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천도교 신자로서 김선진 개인의 종교적 사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지역 3·1운동 비화를 증언과 근거자료를

통해¹⁵ 조사·정리하려 한 민족적·사회적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동례 할머니의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은 뿌리깊은나무 출판사의 민중자서전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김선진의 책이 천도교적 관점에서 서술·편찬되었다면,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술·편찬되었으며, 기독교 측의 자료가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이만열은 이 책의 출판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비록 이 책이 ‘제암리사건’을 역사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체험한 한 할머니가 꾸밈없이 들려주는 체험담과 이 책 뒤에 붙은 여러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일본 제국의 강점기에 대한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깊이 되새기는 노력을 더욱더 성실하게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¹⁶

이 책의 의미는 이만열이 지적한 것처럼 제암리사건뿐만 아니라 전동례가 일생 동안 겪은 삶의 여정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근현대시기 우리 민중의 일상을 통찰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책의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제암리 학살사건에만 이 책의 출판 의미를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후 수원 지역에서는 구술에 의한 역사 정리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근현대 증언 자료집’이 총 10권 출판되었다. 『수원 근현대 증언 자료집 제1권』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구술 자료집¹⁷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연구에서 수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자료집은 수원시의 증언채록이 정치사회적인 것에서 생활사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식민지시기부터 해방공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제1권과 제2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족운동과 관련된 것으로는 제1권의 김시중, 이정근, 차병혁을 대상으로 한 구술, 제2권의 윤한흠과 이위경을 대상으로 한 구술이 있다. 윤한흠과 이위경은 천도교 관련자로서 식민지시기 수원 지역 천도교와 관련된 자료의 부족함을 메워 주고 있다.

이 같이 수원시는 구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생활사를 조사 연구하여 마을지를 발간하는 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 역시 구술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수행되고 있다. 게다가 2014년 발간된 『수원시사』(전 20권)



수원의 구술 자료집과 마을지

에서는 구술사 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제11권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의 제3부 ‘수원 토박이의 삶과 정체성’, 제12권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제14권 『수원 노동자의 노동문화와 일상』, 제15권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¹⁸

이 외에도 개별 연구자들도 독자적인 구술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조성운은 『경기도의 민족운동과 증언』(선인, 2016)의 제2부에서 식민지시기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증언을 수록하였으며, 박환은 김용창의 활동을 연구하면서 그의 동생 구술을 적극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서에 수록하였다.¹⁹ 이처럼 수원 지역 근대사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자가 이미 채록된 구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3.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역사적 의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 근현대사 연구, 특히 3·1운동사에는 구술사가 널리 확산되기 이전부터 구술사의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술사적 방법에 따른 연구가 왜곡되어 그 기록이 역사적 실체와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구술사의 방법을 채택했을 때 이 지적은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구술자 역시 이러한 지적을 염두에 두고 구술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구술사적 방법론이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던 시기에 이루어진 구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수원 지역 3·1운동사 연구과정에서 김선진의 저서를 둘러싸고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수원 지역 3·1운동사 연구는 그동안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⁰ 그것은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과 같이 일제의 가혹한 탄압이 이루어져 전 세계적으로



1971년 제암리 3·1운동 순국선열 추도식(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알려진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원 지역 3·1운동사 연구에서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저술된 김선진의 저서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때때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논문 속에서 직접 제기된 것이 아니라 수원 지역 근대사 연구자들이 이 책을 활용할 때 느낀 점들을 사석에서 토론할 때 제기되는 정도이다. 즉 일제의 심문자료나 재판자료 등 일제 측 관변문서나 공적 기록물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단서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저자인 김선진이 전문 역사학자가 아니고, 이 증언을 구술채록할 당시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구술사 방법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술 방식, 채록 방식 등 구술사 방법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했는지 김선진은 전문 역사학자인 이현희의 감수를 받아 이 책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인증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²¹ 일반적으로 구술을 할 때에는 면담자가 구술자에게 할 질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는 점이 무엇을 질문하는가보다 중요하다.²² 이러한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담자와 구술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구술자의 진심을 전해 듣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선진은 질문과 채록의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었을지 모르나 구술자와의 신뢰는 깊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김선진은 새마을영농기술자연합회 화성군 우정면 회장, 화성군민방위 정신교육강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화성군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²³하여 화성군 내에서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제암리 방면에 연고가 있을 것이라는 성강현의 기억, 그의 아내가 조암리 출신이었다고 들었다는 증언²⁴과 김선진이 우정면에 거주하면서 천도교 전교실에 출입하였다는 증언,²⁵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구술자와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 구술작업을 수행한 점 등은 그와 구술자 사이에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볼 때 평택군 청북면 덕우리 출신으로 지역적으로도 연고가 있고 화성시의 관변에서 활동하던 그는 구술자와 신뢰를 형성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책은 구술 방법과 저술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구술의 기억과 내용은 상당히 진실에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김선진은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구술하였다고 한다. 구술자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이 책에 나타난 구술자 명단과 면리별 구술자 명단을 <표 1>과 <표 2>로 작성해 보았다.

<표 1>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구술자 명단

절 제목 ²⁶	구술 일시	구술자 이름
독립기금 헌납 ²⁷	1976.1.10. ~2.15.	白寅基(수촌리, 65), 奇錫圭(사기말, 82), 金時烈(고주리, 87), 崔萬淳(한각리, 65), 朴大鉉(이화리, 66), 禹業山(거목골, 76), 韓相德(덕목리, 73), 白南輝(고온리, 72), 金敬淳(덕다리, 67), 金鍾甲(기림골, 66), 金昌奎(일원동, 78), 玄炳起(고주리, 94), 金蓮學(조암리, 75), 宋衣達(호곡리, 78), 崔西煥(한각리, 87), 崔錫煥(조암리, 92) 외 50여 명
삼괴지역의 거사계획	1976.1.10. ~2.15	白寅基(수촌리, 65), 白南壽(수촌리, 64), 白樂烈의 차남, 金時烈(고주리, 87), 金鍾甲(기림골, 66), 朴大鉉(이화리, 66), 玄炳起(고주리, 94), 韓相德(덕목리, 73), 金敬淳(덕다리, 67), 金昌奎(일원동, 78), 奇錫圭(사기말, 82), 禹業山(거목골, 76), 白南輝(고온리, 72), 金蓮學(조암리, 75), 韓俊熙(운평리, 79)
장안면, 우정면, 화수주재소 습격, 거사 후의 백낙렬	1976.1.10. ~1977.3.1.	黃萬福(해창리, 89), 白寅基(수촌리, 65), 禹業山(거목골, 76), 白南秀(수촌리, 63), 張鳳植(석포리, 70), 金鍾甲(기림골, 66), 金德鎬(수촌리, 76), 金英寬(장안리, 68), 鄭東錫(장안리, 66), 趙鍾電(장안리, 60), 金文植(고잔, 70), 金判義(덕다리, 78), 金敬淳(사랑리, 67), 車英圭(주곡리, 67), 奇錫圭(사기말, 82), 朴大鉉(이화리 안곡, 66), 崔晚淳(한각리, 65), 金昶圭(화산리 일원, 78), 宋周燮(화수리 여수동, 67), 金蓮學(조암리, 75), 金柱哲(원안리, 75), 崔西煥(한각리 죽마을, 87), 崔錫煥(조암리 마산동, 92), 宋永達(호곡리, 78), 安忠善(조암리, 72), 崔英煥(조암리 마산동, 68), 崔鎮寬(한각리, 56), 崔秉郁(한각리, 50), 李康熙(조암리, 65), 柳大榮(조암리, 68), 崔台禧(한각리, 72), 朴濟潤(조암리, 56), 崔鎮承(한각리, 92), 李先男(조암리, 78), 李相九(조암리, 72), 黃仁天(화수리 굴원리, 72), 金周龍(원안리, 95), 金鍾七(원안리, 65), 宋賢浩(화수리 여수동, 75), 金東哲(화수리 굴원리, 72), 宋永得(화수리 여수동, 80), 宋仁燮(화수리 굴원리, 72), 韓百根(주곡리, 83), 金福基(원안리, 83), 宋永八(운평리, 63),

절 제목 ²⁶	구술 일시	구술자 이름
장안면, 우정면, 화수주재소 습격, 거사 후의 백낙렬		崔東煥(조암리 마산동, 76), 崔英約(역우리, 66), 崔鍾具(역우리 은행동, 58), 金在性(금의리, 64), 白南肖(석천리, 79), 趙炳義(화산리 배미, 64), 韓俊熙(운평리, 79), 李舜培(발안리, 72), 柳元復(발안리, 75), 宋允燮(화수리 굴원리, 75), 李丙賢(주곡리, 55), 李保俊(화수리 굴원리, 74), 朴英東(매항리 고온리, 45), 金定喆(한각리, 63), 車鎮福(주곡리, 64), 劉德根(역우리, 70), 韓相德(이화리 덕목리, 73), 白南輝(매항리 고온리, 72), 崔炳澤(화산리 배미, 68), 奇學圭(화산리, 64), 宋榮得(운평리, 80), 金榮根(발안리, 71), 金時烈(고주리, 87) 외 250여 명
화수리에 대한 보복	1977.3.1. ~4.2.	宋周燮(여수동, 67), 宋永得(여수동, 80), 崔台喜(한각리, 72), 金福基(원안리, 83), 宋賢浩(여수동, 75), 金東哲(굴원리, 72), 宋永達(호곡리, 78), 李保俊(굴원리, 74), 金鍾七(원안리, 65), 金榮根(발안리, 71), 金柱哲(원안리, 75), 宋仁燮(굴원리, 72), 黃仁天(굴원리, 72), 柳元復(발안리, 75) 외 30여 명
한각리에 대한 보복	1977.4.2. ~4.15.	車英圭(주곡리, 67), 宋賢浩(여수동, 75), 崔鎮寬(한각리, 56), 崔鎮承(한각리, 92), 韓百根(주곡리, 83), 崔西漢(죽마을, 87), 崔秉郁(한각리, 50), 金定喆(한각리, 63), 崔晚淳(한각리, 65), 宋榮得(여수동, 80), 崔台喜(한각리, 72) 외 10여 명
마산동의 만세운동과 보복	1977.4.15. ~4.30.	崔錫煥(마산동, 92), 崔西煥(한각리, 87), 金榮根(발안리, 71), 崔英煥(마산동, 68), 柳元復(발안리, 75), 崔台喜(한각리, 72), 崔東煥(마산동, 68), 李舜培(발안리, 72)
조암리에 대한 보복	1977.5.1. ~5.15.	金蓮學(수정동, 75), 柳大榮(조암리, 68), 李康熙(조암리, 65), 李相九(조암리, 72), 李先男(조암리, 78), 崔錫煥(마산동, 92), 安忠善(수정동, 72), 李相玉(조암리, 65) 외 20여 명
수촌리에 대한 보복	1977.5.15. ~8.30.	白南壽(수촌리, 64), 金時烈(고주리, 87), 禹業山(거목골, 76), 張鳳植(석포리, 70), 韓百根(주곡리, 83), 李舜培(발안리, 72), 奇錫圭(사기말, 82), 金德鎬(수촌리, 76), 柳元復(발안리, 75), 金鍾甲(기림골, 66) 외 118명
고문당한 황만복의 증언	1977.6.25.	黃萬福(해창리 새미래미, 89)
장안리에 대한 보복	1977.9.1. ~9.30.	金英寬(장안리, 68), 趙鍾電(장안리, 60), 金德鎬(수촌리, 76), 禹業山(거목골, 76), 金文植(고잔, 70), 鄭東錫(장안리, 66), 金判義(덕다리, 78) 외 40여 명

절 제목 ²⁶	구술 일시	구술자 이름
어은리 기림골의 보복	1977.10.1. ~10.21.	金鍾甲(기림골, 66), 禹業山(거목골, 76), 金敬淳(사랑리, 67), 白寅基(수촌리, 65), 安忠善(조암리, 72), 李先男(조암리, 78), 李相九(조암리, 72) 외 20여 명
주곡리 (구술 장작원)와 석포리 보복	1977.11.1. ~12.10.	張鳳植(석포리, 70), 車鎮福(주곡리, 64), 車英圭(주곡리, 67), 黃仁天(굴원리, 72), 崔台喜(한각리, 72), 白南壽(수촌리, 63), 李丙賢(주곡리, 55), 白寅基(수촌리, 65), 韓俊熙(운평리, 79), 韓百根(주곡리, 83) 외 38명
고문당한 최유환의 회고담	1997.11.10.	崔西煥(우정면 한각리 중마을) (1979년 3월 1일 MBC 만세삼천리에서 말씀하심)
역우리와 금의리의 보복	1977.12.12. ~12.30.	劉德根(역우리 방죽, 70), 崔英約(은행동, 66), 崔鍾具(은행동, 58), 金在性(금의리, 64), 宋永得(화수리 여수동, 80), 宋賢浩(여수동, 75) 외 40여 명
사곡리의 보복	1978.1.5. ~1.20.	奇錫圭(화수리 사기말, 82), 宋周燮(화수리 여수동, 67), 金鍾甲(기림골, 66), 崔英煥(조암리 마산동, 68), 安忠善(조암리, 72), 金判義(덕다리) 외 22명
독정리 거목골의 보복	1978.1.21. ~1.30.	禹業山(거목골, 76), 金判義(덕다리), 白南壽(수촌리, 63), 趙鍾電(장안리, 60), 金鍾甲(기림골, 66), 沈相哲(독정리, 62), 金敬淳(사랑리, 67) 외 20여 명
이화리의 보복	1978.2.1. ~2.15.	韓相德(덕목리, 73), 朴濟潤(조암리, 56), 白南秀(수촌리, 63), 白南輝(고온리, 72), 奇錫圭(사기말, 82), 白南肖(석천리, 79), 朴大賢(안곡, 66), 趙鍾電(장안리, 60) 외 다수
고온리의 보복	1978.2.16. ~3.10.	白南輝(고온리, 72), 崔炳義(배미, 64), 奇錫圭(사기말, 82), 崔炳澤(배미, 68), 白南肖(석천리, 79), 韓相德(덕목리, 73), 朴英來(고온리, 45), 白南秀(수촌리, 63) 외 다수
덕다리의 보복	1978.3.11. ~3.30.	金判義(덕다리, 78), 白南秀(수촌리, 63), 金鍾甲(기림골, 66), 金文植(고잔, 70), 禹業山(거목골, 76), 金敬淳(사랑리, 67), 沈相哲(독정리, 62), 白寅基(수촌리, 65)
독정리와 사랑리의 보복	1978.4.1. ~4.15.	沈相哲(독정리, 62), 白南秀(수촌리, 63), 鄭東錫(장안리, 66), 金判義(덕다리, 78), 禹業山(독정리, 76), 白寅基(수촌리, 65), 金敬淳(사랑리, 67) 외 72명

절 제목 ²⁶	구술 일시	구술자 이름
화산리의 보복	1978.5.1. ~5.15.	崔炳澤(배미, 68), 奇錫圭(사기말, 82), 金昶圭(일원, 78), 崔炳羲(배미, 64), 白南肖(석천리, 79), 奇學圭(사기말, 64), 宋永得(여수동, 80) 외 15명
호곡리와 화수리의 보복	1978.5.16. ~6.15.	宋永達(호곡리, 78), 宋永得(여수동, 80), 黃仁川(굴원리, 72), 李保俊(굴원리, 74), 宋賢浩(여수동, 75), 金東哲(굴원리, 72), 金周哲(원안리, 75), 宋仁燮(굴원리, 72), 金鍾七(원안리, 65), 宋周燮(여수동, 67), 宋允燮(굴원리, 76), 金周龍(원안리, 95), 金福基(원안리, 83) 외 25명
운평리·원안리의 보복	1978.6.16. ~7.10.	金定哲(원안리, 75), 黃仁天(굴원리, 72), 崔台喜(한각리, 72), 宋允燮(굴원리, 76), 宋永得(운평리, 80), 金鍾七(원안리, 65), 韓俊熙(운평리, 79), 崔晚淳(한각리, 65), 宋永八(운평리, 63), 金周龍(원안리, 95), 宋周燮(여수동, 67), 金福基(원안리, 83), 金東哲(굴원리, 72) 외 다수
김연방의 죽음	1978.7.15. ~7.30.	金昶圭(일원, 78), 朴大賢(안곡동, 66), 安忠善(조암리, 72), 宋永得(여수동, 80), 崔晚淳(한각리, 65), 崔錫煥(마산동, 92), 崔炳羲(배미, 64), 宋賢浩(여수동, 75), 奇錫圭(사기말, 82), 崔炳澤(배미, 68), 崔英煥(마산동, 68) 외 40여 명
발안만세운동	1978.8.1. ~8.27.	金榮根(발안리, 71), 金時烈(고주리, 87), 黃萬福(새미래미, 89), 金順南(제암리, 80), 玄炳起(고주리, 94), 白寅基(수촌리, 65), 柳元復(발안리, 75), 李舜培(발안리, 72), 田同禮(제암리, 81)
제암리집단학살 사건	1978.9.1. ~11.25.	金英寬(발안리, 68), 柳元復(발안리, 75), 金時烈(고주리, 87), 安興衍(고주리, 65), 李舜培(발안리, 72), 金榮根(발안리, 71), 金順南(제암리, 80), 宋鉉鳳(고주리, 65), 黃萬福(새미래미, 89), 田同禮(제암리, 81), 尹舜南(고주리, 78), 李慶文(고주리, 70) 외 다수
사건 후의 제암리 주민	1978.12.1. ~1979.2.20	黃萬福(새미래미, 89), 柳元復(발안리, 75), 白南秀(수촌리, 63), 李慶文(고주리, 70), 金順南(제암리, 80), 李舜培(발안리, 72), 金時烈(고주리, 87), 宋鉉鳳(고주리, 65), 田同禮(제암리, 81), 金鍾林(고주리, 68), 玄炳起(고주리, 94), 尹舜南(고주리, 78), 白寅基(수촌리, 65), 安興衍(고주리, 65), 金榮根(발안리, 71)

〈표 2〉 면리별 구술자 명단

면	리	구술자 이름	구술자수
우정면	원안리	김주철, 김주룡, 김종철, 김복기	4
	호곡리	송의달, 송영달	2
	운평리	한준희, 송영팔	2
	한각리	최만순, 최유환, 최진관, 최병욱, 최태희, 최진승, 김정철	7
	먹우리	최영약(은행동), 최종구(은행동), 유덕근(방죽)	3
	화수리	송주섭(여수동), 황인천(굴원리), 송현호(여수동), 김동철(굴원리), 송영득(여수동), 송인섭(굴원리), 송윤섭(굴원리), 이보준(굴원리), 기석규(사기말), 기학규(사기말)	10
	주곡리	차영규, 한백근, 이병현, 차진복	4
	이화리	박대현(안곡), 한상덕(덕목리)	2
	석천리	백남초	1
	매항리	백남휘(고온리), 박영동(고온리), 박영래(고온리)	3
	화산리	김창규(일원동), 조병희(배미), 최병택(배미)	3
	조암리	김연학(수정동), 최석환(마산동), 안충선(수정동), 최영환(마산동), 이강희, 류대영, 박제윤, 이선남, 이상구, 최동환(마산동), 이상욱	11
	장안면	어은리	김종갑(기림골)
석포리		장봉식	1
수촌리		백인기, 백남수, 김덕호	3
독정리		심상철, 우업산(거목골)	2
장안리		김영관, 정동석, 조종전	3
덕다리		김판의	1
사랑리		김경순	1
금의리		김재성	1
향남면	발안리	이순배, 류원복, 김영근, 김영관	4
	제암리	김순남, 전동례	2
팔탄면	고주리	김시열, 현병기, 안흥연, 송현봉, 윤순남, 이경문, 김종림	7
	해창리	황만복(새미래미)	1
기타	고 잔	김문식	1
합 계			80

〈표 1〉과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정면 거주 구술자가 53명, 장안면 지역 거주 구술자가 13명, 향남면 거주 구술자가 6명, 팔탄면 거주 구술자가 8명이다. 또한 리별로 보면 우정면이 12개, 장안면이 8개, 향남면과 팔탄면이 각각 2개이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은 우정면과 장안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스스로 밝혔듯이 구술작업을 새마을영농기술자연합회 우정·장안 회원과 함께 수행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천도교적 관점에서 제암리 학살사건을 재조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 책의 서술 내용을 백낙렬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잘 알다시피 백낙렬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으며, 수원 지역 3·1운동의 주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경찰도 백낙렬을 체포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는 체포되지 않아 일제 측의 기록에 그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3·1운동과 관련하여 체포된 수원 지역민의 심문조서 등 일제 측 문서에는 백낙렬에 대한 기록이 도처에서 나온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일제 역시 백낙렬을 3·1운동의 주도자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조선총독부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조선총독부 경찰이 매일같이 그의 집을 찾아와 그의 행방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그에게 현상금 200원을 걸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그리고 그의 피신 경위와 사망 때까지의 경과도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서술하였다.

4월 4일 팔탄면·향남면을 돌아보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와 곤하게 잠을 자던 백낙렬은 갑작스런 새벽 총소리에 놀라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 보니 수촌리 큰말 쪽에서 불길이 사방에 치솟아 오르며 총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백낙렬은 집안으로 들어와 생질 김익배를 시켜 가족들을 팔탄면 월문리로 피신시키는 한편 어둠을 이용하여 수촌리를 빠져나와 기림골을 거쳐 사랑리에 살고 있는 수원군 참사 우성현의 집으로 찾아가 피신하였다.

여기에서 3일을 숨어서 주위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부락마다 일본 수비대의 잔인한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백낙렬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식을 듣고 백낙렬은 괴로워했다.

이때 김현조(천도교 남양교구장)와 생질 김익배가 찾아와 피신할 것을 권유하였다.

백낙렬은 하는 수없이 밤을 이용하여 고온리(매향리)로 나아가 배를 타고 충청도 한진으로 건너가 계룡산 속에 숨어 3년 동안 피신생활을 했다 한다.²⁹

당시 백낙렬에게는 현상금 200원을 걸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3년 후 백낙렬이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집에 돌아오니 행랑채는 불타 없어졌고 안채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을 때 별안간 왜경들이 들이닥쳐 백낙렬은 뒷문으로 도망쳐 그 밤으로 기림골 김익배의 집으로 피신하여 숨었다. 왜경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백낙렬은 박살이 난 전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가지고 있던 많은 서적들도 흑시 가족에 피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전부 소각시키고 말았다.

그 후 백낙렬은 10년 동안을 고주리 천덕산 수도암에 은신해 있으면서 교인 댁을 전전하다가 신병을 얻어 마침내 집에 돌아와 왜경의 눈을 피해 살다가 1936년 11월 20일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7년간의 한 많고 설움 많은 역경 속에서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다.

백낙렬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팔아 운동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생계는 말이 아니었다.³⁰

이러한 내용은 일제 측 문서에서 기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백낙렬 주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일제 측 기록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원군 각지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기록이다. 당대에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제암리학살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일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책에는 제암리 외에도 화수리·한각리·조암리·수촌리·장안리·주곡리·석포리·덕우리·금의리·독정리·이화리·고온리·덕다리·독정리·사랑리·화산리·호곡리·

〈표 3〉 백낙렬에 대한 일제의 심문기록³¹

진술자	진술 내용	근거 ³²
차인범	오늘 한국 독립만세를 부르니 나오라. 만약 나오지 않으면 너의 집에 방화하고 집안 사람은 다 태워 죽인다.	19
	면사무소를 부수고 화수주재소를 불태우고, 순사를 타살하라.	
	백낙렬은 오늘은 장안면, 우정면 사무소에 가서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므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으로 그 밖의 말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20
김흥삼	백낙렬의 심부름꾼 이원준이 곤봉 한 개를 가지고 즉시 장안면사무소에 모여라. 만약 나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죽인다.	19
	순사가 살해되었다는 것은 자택에서 그날 밤 구장 백낙렬에게서 들었다. 화수리에서는 순사가 총을 쏘아 맞은 사람이 탄 사람의 부축을 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구장인 백낙렬이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고 하니 꼭 면사무소로 나오라는 통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내에게 들었으므로	21
김덕삼	구장 백낙렬의 심부름꾼 이원준(당 25~26세쯤)이 곤봉 한 개씩 가지고 즉시 장안면 사무소로 모여라. 만약 나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까지 타살한다.	19
	문 : 누가 부르러 왔는가. 답 : 백낙렬이 왔었다.	20
	구장 백낙렬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었으나 몽둥이는 들고 가지 않았다.	21
이학서	수촌리 구장 백낙렬의 심부름꾼 이원준(25~26세쯤)이 몽둥이 각각 한 개씩을 가지고 즉시 장안면사무소로 나오라. 만약 나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죽인다.	19
	주모자는 백낙렬이라고 생각한다. 하수자는 모른다. 수촌리 사람들은 거의 전부 와 있었다.	
	아내가 구장 백낙렬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라고 했다는 것	20
백순익	수촌리 구장 백낙렬의 심부름꾼이 몽둥이 한 개씩을 가지고 장안면사무소로 나오라. 만약 나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 전부를 타살한다.	19
	주모자는 백낙렬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는 전혀 모른다.	
김여근	우정면사무소에 가서 백낙렬이 군중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하고 있었다.	19
김덕근	우리 마을의 구장 백낙렬이 만세를 부르라든가, 지금부터 어디로 가라든가 하면서 지시하고 있었다.	19

진술자	진술 내용	근거 ³²
김종학	수촌리 상하 두 부락이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은 아래의 작은 부락이다. 위의 부락에서 백낙렬의 심부름꾼이 와서 오늘은 만세를 부르기로 되어 있으니 다 나오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 불을 지른다는 통지가 있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나갔었는데	20
김명우	구장 백낙렬이 이원준을 시켜서 다 나오라. 나오지 않는 놈의 집은 무조건 불을 지른다.	20
	백낙렬이 있다가 화수리 쪽으로 가라, 가라 하므로	
김교철	그런(오늘은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파괴하고 순사를 살해할 터이니 나오라-인용자) 통지는 받지 않았지만 당시의 구장 백낙렬이 밀양산으로 모이라는 통지가 있었으므로 그 산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구장에게 무슨 일이나고 물었더니 구장도 모른다고 하면서 어쨌든 면사무소로 가서 듣기로 하고 너희들은 뒤에 천천히 면사무소로 오라는 것	21
김현묵	백낙렬이란 놈이 이제 곧 수비대가 온다. 오면 총으로 사살한다,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남산에 가서 웅거하자. 그러자면 오늘 밤은 이 마을에서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고 하자.	20
	오늘은 마지막 밥을 먹었다. 일본의 군대가 오면 쌍봉산으로 들어가서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니 밥을 새워야 할 것이다	21
이상기	백낙렬은 다른 사람이 서류나 기물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다만 만세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그 곁에 있던 정순영이 이왕직의 궁전인 경복궁마저 불탔지 않았는가. 면사무소의 서류쯤 불태워도 괜찮지 않는가 라고 했다.	20
백남훈	금년 4월 3일에 석포리의 차병한이라는 사람이 수십 명을 데리고 우리 마을에 와서 당시의 구장 백낙렬에게 자기들 마을의 발의로 오늘은 다 몽둥이를 가지고 장안면사무소에 몰려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되어 있으니 너희 마을에서도 다 나오도록 하라. 각 동리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낙렬은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나 차병한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백(白)은 마침내 그것에 찬성하고 이원준(마을의 소사)을 시켜서 각 집에 그것을 전달하게 했다.	20
최건환	수촌리의 백낙렬, 정순영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순사가 파살되었다고 했고	20
이순모	문 : 그날 차병한이 수십 명을 이끌고 마을에 와서 백낙렬과 상의하고 동민을 선동한 것을 알고 있는가. 답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들은 일이 없다.	20

진술자	진술 내용	근거 ⁸²
이재숙	백낙렬이라는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때려 부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하니 폭민들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고, 정순영은 경복궁 대궐도 탕지 않은가, 면소 하나 돌쯤이야 어떻냐고 했다.	20
송대용	백낙렬은 군중에 대하여 너희들 만세만 부르면 될 것이지 왜 면소를 때려 부수냐고 했다.	20
차병한	문 : 백남훈은 그대가 구장 백낙렬을 선동했으므로 그 사람이 동민을 선동했다고 진술했으니 그대가 각처에서 선동을 하여 만세운동을 발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 답 : 그런 사실 없다.	21

화수리·운평리·원안리 등지에서 행한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암리·고주리의 기억도 마찬가지로이다. 일제와 기독교 측의 자료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이 책에서는 직접 보지 않았으면 묘사할 수 없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일본 주재 영국대사관 무관이 본국 외상에게 보낸 보고문에는 제암리학살현장에서 '홍'과 함께 탈출하다 혼자만 생존한 젊은 기독교인의 증언이 수록³³되어 있는데, 김선진의 저서에는 안종엽, 김정현, 안경순 등이 탈출하다 총에 맞아 죽고 노경태(盧慶泰)만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⁴ 이와 같이 영국 무관의 보고와 김선진의 기록은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 또 1919년 4월 5일 일제의 수촌리 보복에 항거하고 시위했던 해창리 새미래미의 황만복이 고문당한 기억, 또 화산리 일원동의 김연방(金然昉)과 김태경(金泰慶)에 대한 발안 주재소장 사이다(佐板)의 사원(私怨)에 의한 살인³⁵ 등에 대한 기억도 서술하여 3·1 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사원(私怨)을 푸는 계기로도 악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제 관련 측 기록을 중심으로 이해되던 수원 지역 3·1운동을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김선진이 후기에서 지적했듯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구술, 정리한 것은 오늘날 구술사적 방법론에 입각한 것은 아니라도 역사적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가 수원 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실체에 보다 가깝게



1982년 제암리 순국지사 유해 발굴 당시 묘역 위치를 안내한 향남면 도이리 주민과 이를 취재하는 기자(경기도청 제공)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구술사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세기 말부터라 할 수 있다. 필자가 1998년 박사학위논문 초록을 발표할 때 객석에 앉아 있던 한 연구자가 구술자료도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구술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거나 전혀 없던 연구자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1970년대에 3년에 걸친 구술을 통해 발간된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는 음으로 양으로 수원 지역 3·1운동 연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 책의 저자 김선진 선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는 지금까지도 구술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구술방법의 문제나 구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등이 오늘날과 같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김선진은 이러한 점을 생각했는지 이 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연구자인 이현희 교수의 감수를 받았다. 그는 우정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정면 천도교 전교실에 출입한 천도교신자로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수원 지역 3·1운동을 재정리한 것이었다. 물론 천도교신자로 자라면서 자신이 들어온 ‘이야기’와 해방 이후 기독교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온 제암리·고주리의 학살사건을 재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 역시 이러한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자는 수원 지역 3·1운동을 서술하면서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의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작성하면서 필자의 생각은 고정관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와 전동례의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 부록으로 수록된 기독교 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 측 자료는 해방 이후에 구술된 것이 아니라 3·1운동 당시에 선교사들이 기록, 일본 측이 본국에 보낸 기록, 선교사들이 생존자로부터 들은 증언기록 등이다. 따라서 당대 기록과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에 증언한 생존자나 그 후손들 기억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 측의 관점에서 작성한 문서기록만을 바탕으로 3·1운동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으로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 지역 3·1운동의 이미지는 제암리학살사건에서 비롯된 바와 같이 ‘학살’의 이미지가 지나

치게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를 강화시킨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세력이 이를 독립운동에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에도 일부 정치세력과 종교세력이 이를 정치적·종교적으로 활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학살’의 이미지는 잠시 분노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미래가치를 담아낼 수는 없다. ‘학살’을 기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저항과 학살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대신에 이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 1 조성운, 『『매일신보』에 나타난 경기지방의 3·1운동과 일제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화성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경기3·1운동』 3,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 2018.
- 2 최재현, 「일상생활의 이론과 노동자의 의식세계」, 『한국사회학』 1, 한국사회학회, 1985; 「일하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사회학의 전기적 방법을 위하여-」, 『외국문학』, 1985년 가을호, 열음사.
- 3 이정식 면단, 김학준 편집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민음사, 1988.
- 4 김귀옥,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7-2, 한국구술사학회, 2016, 14쪽.
- 5 김귀옥,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7-2, 한국구술사학회, 2016, 21쪽.
- 6 정혜경, 「구술사-기억에서 역사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한일민족문제학회, 2015, 237쪽.
- 7 김귀옥,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7-2, 한국구술사학회, 2016, 31~34쪽.
- 8 2001년 무렵 필자는 국가보훈처의 연구 용역으로 한 인물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구술자는 약주를 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구술하였다. 필자가 인사를 한 후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데 전화로 바로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여운형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최초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바로 구술자의 집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다시 했다. 며칠 후 구술자는 필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와 구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와 구술자는 다시 인터뷰를 했고, 구술자의 논지는 해방 이후 자신은 여운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것이다. 즉 구술자는 해방 이후 반공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질서 속에서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낙인된 여운형과의 관계를 부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왜곡시켰던 것이라 판단된다.
- 9 염미경, 「지방사 연구에서 구술사의 활용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 98, 역사교육연구회, 2006, 239쪽.
- 10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1쪽.
- 11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9~10쪽.
- 12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1쪽.

- 13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226쪽.
- 14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1쪽. 필자는 2018년 11월 6일, 전화 통화로 김선진과 부산 동천고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역사교사 성강현 박사에게 김선진의 원고나 녹음테이프 등 구술자료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그의 자녀들이 2005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 15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226쪽.
- 16 이만열, 「우리로 아직 두령바위의 눈물을 모른다」, 전동례,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 뿌리깊은나무, 1991, 9쪽.
- 17 김득중, 「서평-그들이 살아 있을 때 들어라」, 『사람과 땅의 문화』 3, 삶이 보이는 창, 2002, 244쪽.
- 18 수원 지역 구술사 현황에 대해서는 한동민의 연구(「수원 지역의 구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술사 바로알기』, 수원박물관, 2013) 참조 바람.
- 19 박환, 「1940년대 수원 출신 학생 독립운동가 김용창」, 『새로 발굴된 민족운동가들의 삶과 꿈』, 선인, 2016.
- 20 이를 살피기 위해 수원 지역 3·1운동사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병헌, 『3·1독립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채대원 편, 『3·1독립운동의 선구자 탄운 이정근 의사 전기』, 탄운이정근의사창의탑건립위원회, 1971;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전동례,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 뿌리깊은 나무, 1981; 김선진, 『제암·고주리의 3·1운동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홍석창, 『감리교회와 독립운동』, 에이멘, 1998; 홍석창, 『수원지방교회사자료집 : 1893~1930』, 에이멘, 2001; 화성시, 수원대학교 박물관,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2003; 박환, 『경기지역 3·1독립운동사』, 선인, 2007; 정서송, 『쌍봉산의 햇불들』, 『신동아』1965년 3월호; 조병창, 「수원지방을 중심으로한 3·1운동소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노천호, 「수원지방 3·1운동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 서정민, 「제암리교회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김승태, 「제암리교회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홍석창, 『화성 지방 3·1운동사 재조명』, 『화성문화』 6, 화성문화원, 1998; 성주현,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박환,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 『정신문화연구』 25-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최홍규, 「수원지방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 『경기사학』 6, 경기대학교 사학회, 2002; 송재준, 「화성시 송산면의 3·1운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선진, 「제암리·고주리를 재조명한다(상·하)」, 『신인간』 2002년 3~4월호; 정수역, 「화성 서신지역사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세영,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 천도교의 항일 독립운동」, 『상명사학』 8·9, 2003; 이동근, 「수원 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경기사학』 7, 경기사학회, 2003; 김창수, 「수원 지역 3·1독립운동연구의 동향과 과제」, 『수원 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3·1운동 84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수원문화원, 2003; 서광일, 「화성지역 3·1운동의 지방사적 배경」, 『경기지역 역사와 문화』,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박환,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27-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조성운, 「『매일신보』에 나타난 경기지방의 3·1운동과 일제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김승태, 「일제의 제암리교회 학살·방화사건 처리에 관한 소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김권정, 「수원지방 기독교의 3·1운동과 이후 동향」, 『역사와교육』 11, 역사와교육학회, 2010; 趙成雲, 「水原地域の3·1運動と民族代表の関連性について」, 笹川紀勝·金勝一·内藤光博 編, 『日本の植民地支配の実態と過去の清算』, 風行社, 2010; 이동근,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 『수원 역사문화연구』 5, 수원박물관, 2015; 임형진,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개편과 3·1독립 혁명」, 『동학학보』 45, 동학학회, 2017; 조성운, 「화성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경기 3·1운동』 3,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 2018; 이계형, 「경기도 화성지역 3·1운동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학논총』 5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이용창, 「재판 관련 기록으로 본 화성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신효승, 「일제의 '제암리학살사건'과 미국 선교사 기록의 형성 과정」, 『학림』 41, 연세사학연구회, 2018.

21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구술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② 인터뷰 시 하는 모든 면접자의 행위가 구술자에게 어떤 신호를 준다.

③ 구술자가 침묵을 채우게 하라. ④ 각자의 인터뷰 전략 개발 필요(윤택림, 「구술사 연구 방법론」,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9년, 523쪽.)

- 22 윤택림, 「구술사 연구 방법론」,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9, 524~525쪽.
- 23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 24 화성시청 문화유산과의 이혜영 학예사는 화성시의 독립운동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선진의 부인이 조암리 출신이라는 점을 들었다고 2018년 11월 6일 전화 통화로 필자에게 전해 주었다.
- 25 김주용과의 대화에서 청취하였다.(2018년 2월 19일, 화성시청 앞 봉례식당).
- 26 이 책에서 제목을 그대로 따왔음을 밝힌다.
- 27 천도교 성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 28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34쪽.
- 29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43~44쪽.
- 30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34~135쪽.
- 31 조성운, 「화성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경기3·1운동』 3,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 2018, 29~31쪽, <표 2>.
- 3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근거란의 숫자는 해당 자료집의 권수이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함).
- 33 전동례,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 뿌리깊은나무, 1991, 148쪽.
- 34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45쪽.
- 35 김선진은 김연방이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 그의 묘를 이장할 때 그의 시신에서 실탄이 두 주먹이 나왔다는 증언을 서술하였다.(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32쪽).



홍성원 소설 『면동』의 수원 3·1운동 형상화

소설 『면동』 작가 홍성원(洪盛原, 1937~2008)은 “구한말에서 한일합방을 거쳐 3·1운동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참담하며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 『면동』은 우리 역사상 가장 고통스런 시대를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시대를 우리는 ‘『면동』의 시대’라 명명할 수 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 1895년 을미사변, 1896년 아관파천, 1897년 대한제국 선포,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1904년 러일전쟁 등 동아시아는 격변하고 있었다. 특히 500여 년간 유지되던 조선왕조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던 시기였다.

변화의 욕구는 최제우의 동학(東學) 창도와 갑오농민전쟁 등 혁명적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농민들의 아래로부터 변혁 요구는 외세와 결탁한 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되었고, 지속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은 위정척사운동과 자강운동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학교설립운동이 펼쳐졌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한반도는 식민지로 전락해 갔고, 끝내 1910년 나라가 망하는 참담한 실정이 되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수원 출신 작가 홍성원의 소설 『면동』이다. 수원과 남양 그리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1900~1919년 대한제국기와 을사보호조약과 군대 해산 그리고 한일합방과 3·1운동까지 격동의 20년을 대하 장편소설로 그려냈다. 화성을 쌓고 조선의 모든 국왕이 다녀갈 만큼 나라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가득한 자부심으로 넘쳐났던 수원과 수원 사람들에게 외세에 의한 그 격동의 시대는

또 다른 자화상을 그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홍성원의 『먼동』 시대는 흑독하고 난폭한 근대 문명과의 조우였다.

1. 작가 홍성원의 문학적 고향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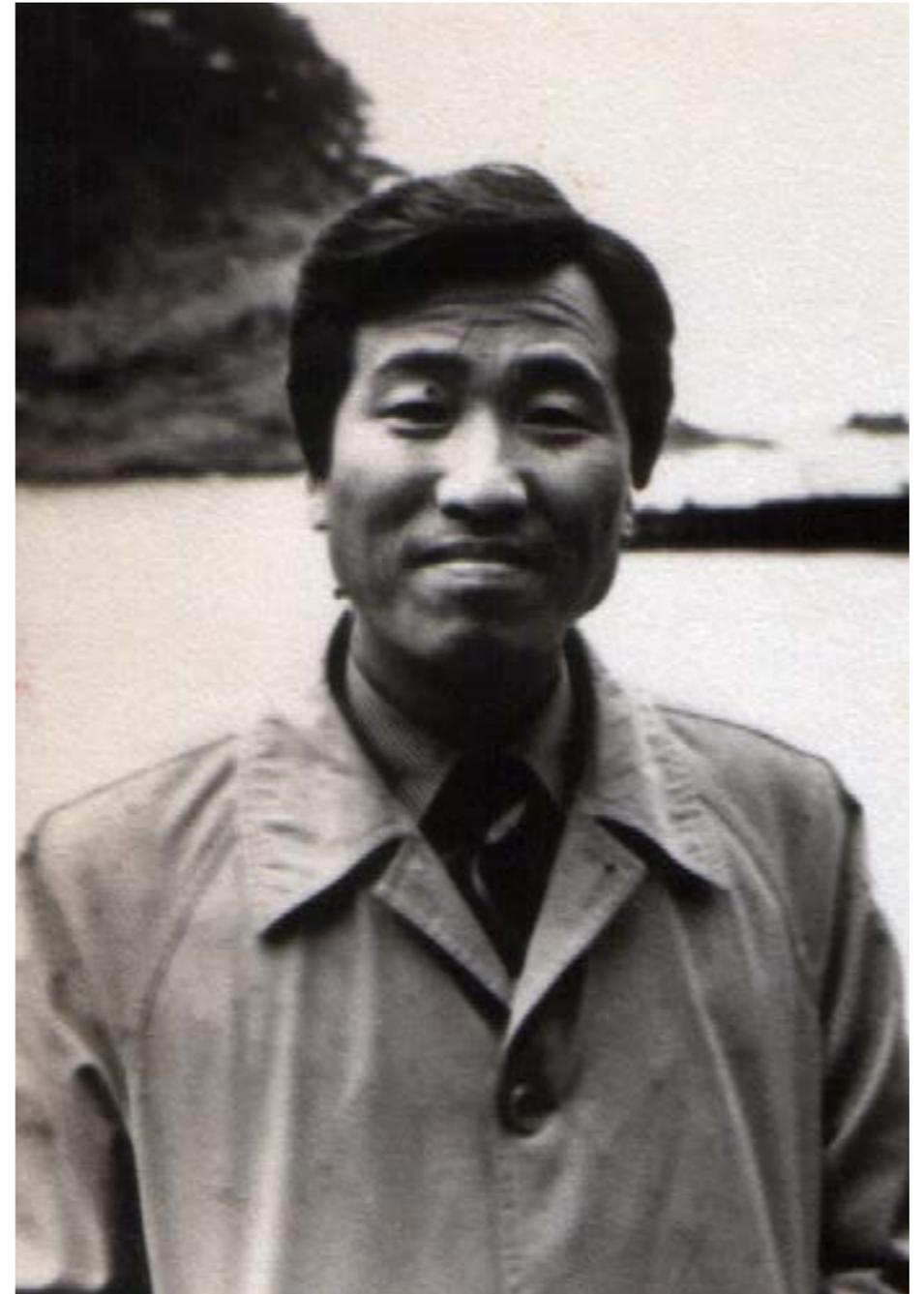
홍성원은 남양 홍씨 홍차석(洪次錫)과 인동 장씨 장우순(張又順) 사이 8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합천 외가였지만 친가는 경남 사천이다. 그러나 공의(公醫)로 수의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1940년 4살 때 강원도 김화로 이주하여 해방 전까지 고성 등 강원도에서 자랐다. 1945년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방을 맞이하여 월남하였다. 이듬해인 1946년 아버지가 시흥군청에 취직하면서 안양에서 국민학교 3학년이 되었다.

〈표 1〉 홍성원과 수원의 인연

시기	내용
1949년(13세)	6학년 초, 수원시 매교동 136번지로 이주(수원시청 발령)
1950년(14세)	매산국민학교 졸업, 수원농림중학교 입학, 6·25전쟁 발발
1952년(16세)	피난, 수원으로 돌아와 복학
1953년(17세)	수원복중 졸업, 수원농고 축산과 입학
1956년(20세)	수농 졸업, 고대 영문과 입학, 여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

1949년 초 다시 아버지가 수원시청으로 전근하면서 수원 매교동 136번지에 정착하면서 수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홍성원은 13살인 1949년 수원 매산국민학교 6학년에 전학하여 1950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농업학교 계열의 명문이었던 6년제 수원농림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수원농림중학교는 전쟁의 와중인 1952년 학제 변경으로 복중학교와 수원농고로 분리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 6·25전쟁을 겪으며 굶주림



작가 홍성원

과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였다. 1953년 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원농고 축산과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956년 수원농고를 졸업하면서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입학하였다. 그러나 1956년 중반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매교동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하였다. 따라서 홍성원이 수원에서 살았던 것은 7년에 불과하지만 홍성원은 수원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에게 고향이라는 느낌이 드는 곳은 출생지인 합천이 아니고 성장지인 수원이다.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유년기와 소년기를 나는 바로 수원서 보냈다. 중고등학교생으로 지냈기 때문이다.¹

사람의 감수성과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수원에서 보냈다는 점은 각별하다. 동시에 문학적 상상의 원천과 창작의 산실이 수원에 있었다는 자각과 사실이다.

고정된 이미지를 지니지 않은 햇빛이나 바람, 추위 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연상의 근원은 수원에 있었는지 모른다. 작은 동산을 작품 속에 그리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이 수원의 팔달산이었다. ... 그 외의 무수한 작품 속의 소도구들 역시 대부분은 수원에서의 삶이 늘 일차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다?²

8남매의 장남이었던 홍성원은 가세의 몰락과 함께 가정교사로 가난과 궁핍을 견뎌야 했다. 그 와중에 1960년 4·19의거에 참여하였고,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휴학 중이던 그는 병역기피자로 몰려 강제 징집되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다.

군에서 제대한 뒤 1964년 1월 한국일보사 신춘문예에 단편 「빙점지대」가 당선되고, 8월 『세대』지가 모집한 기념 문예에 단편 「기관차와 송아지」가 당선되고, 연말인 12월 동아일보사의 50만 원 현상공모에 장편 『디데이의 병춘』이 당선됨으로써 화려하게 문단에 등단하였다.

2. 소설 『먼동』의 구성과 내용

『먼동』은 1987년 9월 1일~1991년 2월 28일 1,120호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이다. 연재가 끝나자마자 동아일보는 1991년 『먼동』(전 5권)을 출판하였다. 소설의 발간은 드라마 제작 방영으로 이어졌다. KBS에서 드라마 「먼동」이 제작되어 1993년 4월 24일부터 1994년 4월 16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방영되어 인기를 누렸다. 역사소설 『남과 북』 이후 가장 애정을 기울인 작품인 『먼동』은 1992년 제4회 이산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1993년 문학과지성사에서 『먼동』(전 6권)이 다시 출간되었다.

『먼동』의 첫머리에 자신의 소설쓰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사소설관을 밝히고 있다.

결국 소설이란 행복했던 시대의 역사에서보다는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더 흥미 있는 소설적 공간과 주인공들을 발견한다.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시대가 뛰어난 인물들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설은 다시 그 인물들의 뒤를 쫓음으로써 역사의 부정적인 진행을 보상하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교훈을 그 시대의 인물들 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역사는 그리하여 그 시대를 바로잡고 극복하려는 뛰어난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자칫하면 함몰하기 쉬운 역사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출한다.

『먼동』은 을미의병과 을사조약 그리고 근대 해산과 한일합방 및 3·1운동을 중심으로 놓고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지역과 계급을 대표하는 각 인물들의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1900년부터 3·1운동 직후까지 20여 년에 걸친 가파른 한국근대사를 수원 지역의 세 집안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수원·남양·서울의 세 지역과 양반·중인·천민의 계급이 주요한 설정으로 등장한다. 서울에서 남양으로 낙향한 김효순 대감의 집안과 김 대감의 숨겨진 서출자식이자 마름인 송근술 일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들 양가 자손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수원의 박종학 일가의



동학세력을 진압하러 가는 토벌대(『일청전투화보』, 1894, 수원광고박물관 제공)



을사늑약(『을사늑약화보』, 1905, 수원광고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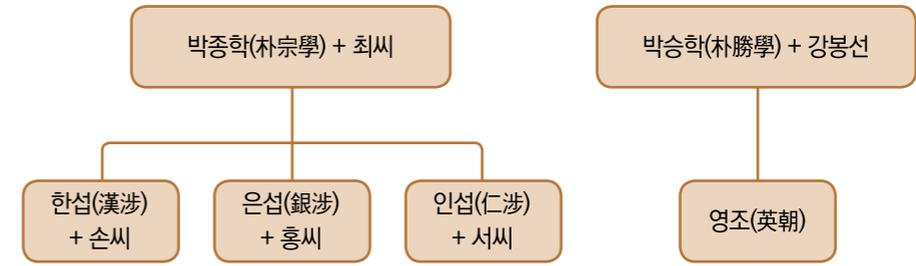
일제의 조선 강제 병합(『병합기념조선사진첩』, 1910, 수원광고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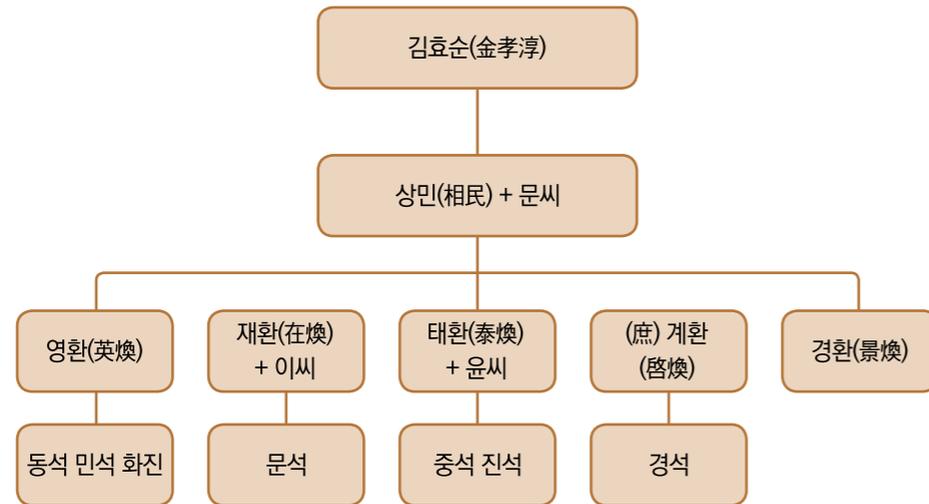
고종 장례 시 대한문 앞 망곡례(『덕수궁국장화첩』, 1919, 수원광고박물관 제공)

〈표 2〉 『먼동』의 시기 구분과 구성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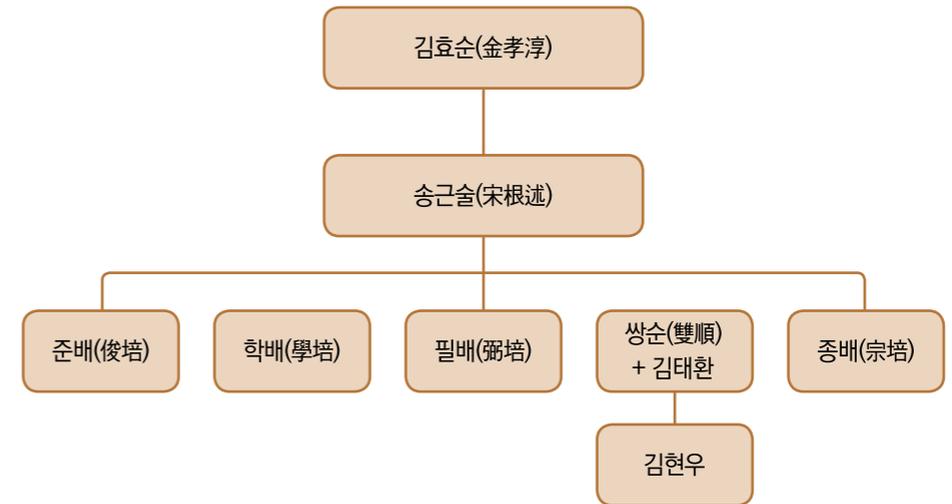
구분	시기 구분	중심사건	부수적 사건	비유적 사건
1부	1901년 가을 ~1902년 가을	을미의병	병자수호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단발령, 을미의병, 아관파천, 만민공동회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의식조명	
2부	1905년 가을 ~1906년 가을	을사조약	한일의정서, 한일협약, 민영환 자결, 시일야방성대곡, 『황성신문』 폐간	김효순 사망
3부	1907년 7월 ~1910년	군대 해산, 한일합방	만국평화회의의 헤이그 밀사파견, 고종 강제퇴위, 군대해산, 안중근 의거, 한일신협약	김상민 사망
4부	1919년	3·1운동	민족자결주의, 고종독살설, 2·8독립선언	



수원 남문 밖 박 산사네(중인)



남양 김 대감집(양반)



남양 송씨네(천민)

의병투쟁과 의원 활동 등이 기본 줄거리이다. 소설 『먼동』은 김효순(양반), 송근술(천민), 박종학(중인)의 세 가계에 속한 인물들이 3대 혹은 4대에 걸쳐 벌이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김씨와 송씨의 가계는 긴밀하게 얽히며, 전통적인 양반계급의 몰락과 새로운 자본계급의 성장을 보여 준다. 박씨의 가계는 주로 박승학의 의병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직면한 식민지 상황의 비극과 희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신문화의 세례를 받은 박인섭은 박씨 가계와 앞의 두 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격변의 시대에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행동과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소설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과 김태환, 박승학과 박인섭, 송근술과 송보경(쌍순)은 일정 정도 의식의 공유와 충돌을 드러내며 각기 자기 계급의 역사의를 대변한다. 그것은 각각 성리학적 이념에 뿌리박은 양반 의식, 친일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신진 계급, 중인의 합리적 실리주의적 태도이다. 이들이 자기 계급에 대한 일반적 전형성을 획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적어도 자기 계급에 대한 의식의 일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격과 직업과 계층의 인물들이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며 다양한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먼동』의 등장인물들은 제각각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당대를 살았던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그럴 뿐 판단하지 않는다. 이로써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몫을 살며 그것은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동』은 한말에서 3·1운동에 이르는 20여 년의 세월 속에 사회 변화가 얼마나 급박하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첫째, 반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사회적 신분 변동, 둘째 빈부계층이 바뀌는 경제적 권력의 이동, 셋째, 새로운 문물에 눈뜬 계층의 뿌리내린 직업의식이다.³

홍성원의 문학적 세계는 남성문학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묘한 심리묘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굵직한 성격의 창조를 추구한다는 점, 이야기 구성의 대담한 생략과 문체가 감상적이지 않고 건조하지만 핵심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이다.⁴

우리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국권 상실과 3·1운동의 역사적



『먼동』의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는 남양만 송산면 마산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먼동』의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는 수원 남문통(서울대학교박물관 제공)

의미를 천착하면서 ‘수많은 개인들의 작은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그들 나름의 격렬한 몸짓’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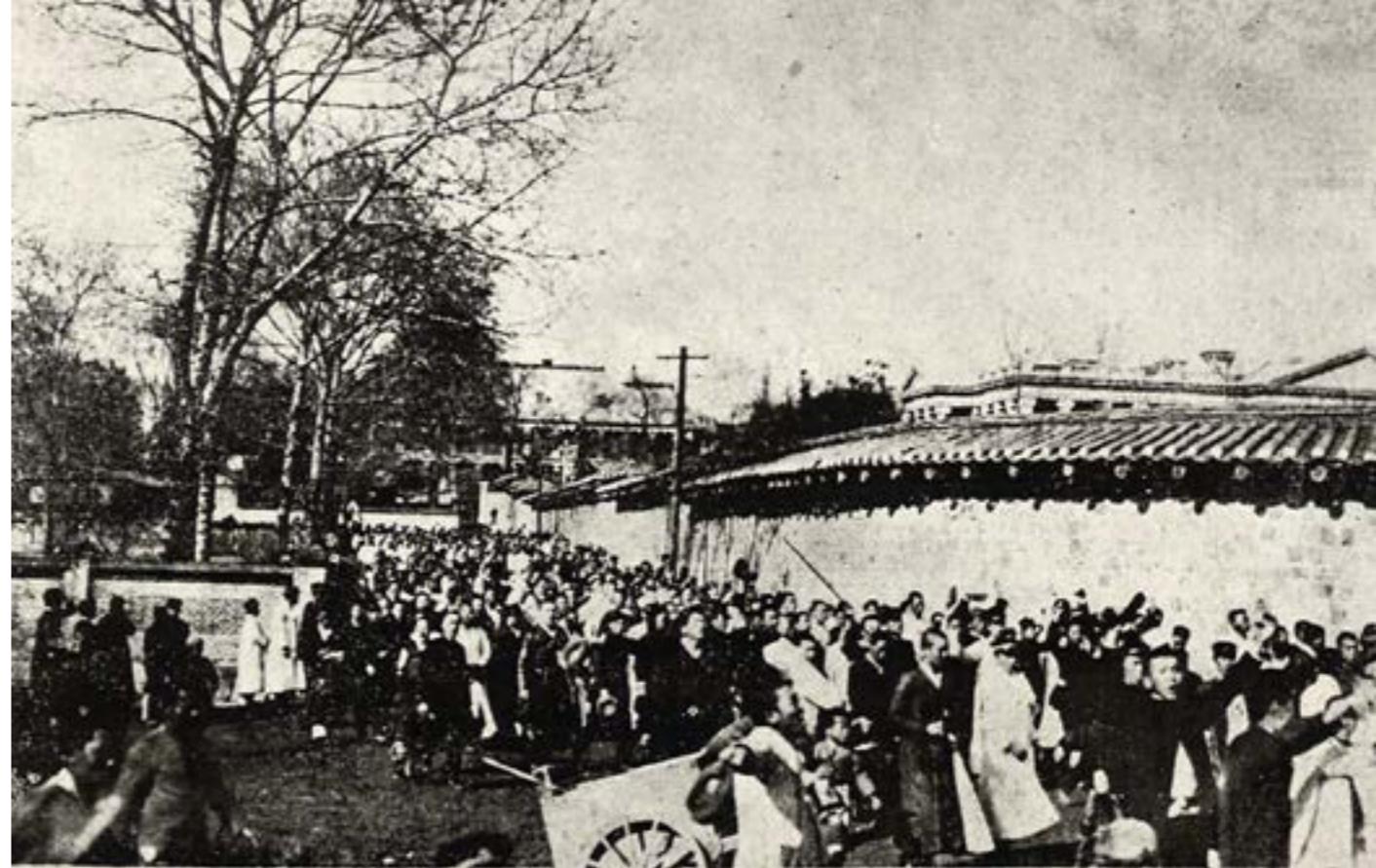
3. 수원 3·1운동의 전개와 형상화

일제강점기 민족사의 분수령적인 사건이 1919년 3·1운동이었다. 전국적으로 펼쳐진 독립만세시위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량에 대한 재발견이었다. 또한 이로써 각성된 청년 학생들의 민족해방투쟁 의지와 노력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지속되었다.

『먼동』에서도 3월 1일, 그날 서울 만세시위에 남양의 김씨네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다. 계정회 회원이자 인쇄소를 운영하며 독립운동에 관여한 김태환은 만세시위 현장에 있었다. 큰형 영환의 아들 동석과 민석, 서형 계환의 아들 경석과 자신의 아들 중석과 진석까지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 양상에 대하여 윗학급의 큰 학생들이 앞을 서고 진석이 또래의 하급생은 그 뒤를 따르는 만세시위를 그리고 있다.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실상 3·1운동으로 서울에서 학생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2개월 만에 서울 시내 학생으로 구금되어 있는 학생 수는 총 171명이었다⁵

태황제 인산을 보기 위해 시골서 올라온 백립 쓴 노인이 만세시위 행렬에 섞여 걷긴 하지만 남들처럼 만세를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기척도 없이 노인은 행렬에 섞여 따라가며 늙은 눈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장면은 3·1운동을 서술한 소설에서 가장 감격적 장면 가운데 하나이다. 김태환의 입에서 만세 소리가 터진 것은 아들과 조카의 모습이 군중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된 때부터다. 그렇게 만세시위 가담자들의 다양한 양상을 소설은 보여 주고 있다.

행진이 앞으로 나갈수록 무리는 점점 불어났다. 엄청난 군중이요, 하늘을 뒤흔드는 독립만세 함성이었다. 함께 뒤섞인 군중들은 남녀의 구분도 없고 노소귀천의 구분도 없었다. 조선백성이면 너나없이 일손 놓고 거리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미국 영사관으로 향해 행진하는 시위행렬
(Red Cross Pamphlet on March 1st Movement)

뛰쳐나와 종로 큰길을 가득 메우고 만세를 부르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갔다. (『먼동』 6권, 1993, 12쪽)

3월 1일 당일 서울에서 진행된 만세운동의 소식은 기차를 통해 수원으로 속속 전달되었다. 수원 남문 밖 박 산사의 집에서는 밖에서 돌아오는 젊은 사람이나 집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모두 긴장과 불안감으로 안색들이 모두 해쓷하였다.

“어찌된 일이나?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는 게냐?”
“화홍문 쪽에서 오는 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저는 다시 나가야 합니다.”
“화홍문 쪽에는 무슨 일로 갔든? 그리구 지금두 저물었는데 밤중에 어딜 또 간다는 게냐?”

“차차 말씀드리지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먼동』 6권, 1993, 20쪽)

3월 1일 화홍문 만세시위에 대하여 『먼동』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암시적인 대화로 마무리하고 있다. 전 의병장 박승학의 아들 영조가 수원 지역 만세운동의 핵심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에서는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당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3월 1일 당일 수원의 화홍문 만세시위에 대한 기록은 이병현의 『3·1운동비사』 이외에는 일제 측 자료나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조차 없다는 점은 연구대상이다.

수원 부중에서도 서울 거사와 때를 맞춰 3월 1일 오늘 2시에 장터 가까운 남문통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이었다고 쓰고 있다. 당일 새벽 일본 경찰에 거사 모의가 사전에 누설된 것으로 알려져 약속 장소로 모여들던 사람들을 일부러 길목에 지켜 서서 모두 돌려보냈다고 쓰고 있다. 그렇게 기다리던 거사가 무산되고 날이 저물자 색다른 시위를 펼치게 된다. 낮 거사에 실패한 수원 거사의 주모자들이 밤중에 그 봉화대에서 횃불시위를 계획한 것이다.⁶

팔달산과 봉화대에 곧 불길이 오를 겁니다. 거사 모의하던 상업강습소 사람들이 지금 많은 회중을 이끌고 불 놓을 장작이랑 헛다발 들구 팔달산 서장대(西將臺)와 동문 봉화대루 몰려 올라갔습니다.(『먼동』 6권, 1993, 23쪽)

수원 읍내 만세시위의 양상을 서술하고 있는데, 3·1운동 당시 상업강습소 학생들의 역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914년 이전 각 경찰서에 소방대를 설치하여 소방 설비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아무 설비가 없는 까닭에 수원상업회의소에서는 공공의 일로 여겨 소방도구와 소방복을 준비하여 수원상업강습생 중 나이가 있고 건장한 자로 하여금 일상 소방법을 연습하여 불이 났을 때에는 시각을 낭비하지 않고 소방에 종사하도록 하였다.⁷ 수원상업회의소와 상업강습소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다른 학교와는 차별적인 모습이자 지역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경찰서에 소방대가 만들어지고 수원상업회의소가 해산되었지만,



『먼동』에서 수원면 만세시위 현장으로 그려진 서장대와 연무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수원상업강습소는 상업강습소 응급부(應急部)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전통을 이어갔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1923년 3월 9일 남창리 이용희 집에 불이 나서 수원소방조와 수비대, 경찰서 직원과 함께 상업강습소 응급부가 출동하여 불끄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⁸ 이러한 수원상업강습소의 조직력과 수원강습소 소장이었던 김세환과 졸업생 김노적의 역할이 함께하였던 것이다.

“허면 날이 저물었으니 곧 봉화대에 불길일 일겠구나?”
 “밤 여덟 점이 되어야만 불을 지피기루 했습니다. 여덟 점 정각에 동문과 서장대 두 곳에서 제일 먼저 큰 불길을 올리기루 했습니다.”(『먼동』 6권, 1993, 24쪽)

밤 8시 정각에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연무대에 횃불이 올랐다. 그렇게 수원 만세운동의 또 다른 방식인 산상 횃불시위였다. 수원 지역 3·1운동은 3월 1일 횃불시위를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3월 말부터 격렬하게 진행되어 4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한편, 수원역전에서 석유가게를 운영하며 큰돈을 벌고 있던 송근술이 남양에 내려와 있을 때 수원의 만세시위 소식을 듣고 있다.

“온 성 중에 불길이 일구 만세 소리가 진동허구 있습니다.”
 “팔달산 위는 말할 것두 없구 동문 서문 봉화대에 시뻘건 불길이 일구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수많은 부중 백성들이 불 덩긴 해들을 들구 독립 만세들을 외치구 있습니다.”
 “독립만세라니? 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부중에 그 많은 헌병과 순사가 깔렸는데 언놈이 감히 독립만세를 부른다는게냐?”(『먼동』 6권, 1993, 28쪽)

수원역 앞 송근술의 석유 점포도 문을 닫는다. 석유점포에 돌이 날아들고 친일역당 수괴를 처단하라는 위협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하인들은 문건과 돈궤를



『먼동』에 등장하는 수원역전 일본인 상가와 야마모토(山本)여관(수원박물관 제공)

먼저 안전하다고 여긴 일본인 운영의 야마모토(山本)여관으로 옮기고 있다. 일본인 상가는 일본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역전의 일본인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아 철시를 했고, 성 안에 있는 일본인 점포도 오늘 저녁 무렵부터 모두 문을 닫았다. 서울 만세운동 소식을 들은 경찰들이 서둘러 점포를 닫도록 조치를 한 것이었다. 이는 일본인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교장 선생 말씀에 따르면 그 장례식 도중에 어디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자 갑자기 만세 함성이 퍼지면서

경성은 지금 대소동 중이다. 폭동은 차츰 지방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므로 학교는 당분간 쉬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역전 쪽, 모범장 쪽, 성 밖 쪽, 성 안 쪽, 평촌 쪽, 원천리 쪽끼리 각각 조를 짜서 상급생 인솔 하에 돌아가라고 했다. 만약 조선인 학생과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싸움을 해서는 안되고, 조용히 침착하게 무사히 돌아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⁹

유아사 가쓰에 소설 『간난이』는 3·1운동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 주는 소설이다. 『간난이』의 주인공인 류지의 아버지는 수원경찰서 순사로 등장한다. 3월 1일 고종 황제 인산일을 맞아 그날 아침 어둑어둑한 무렵에 일어나 첫 번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인근 지역 경찰병력의 상당수가 이날 서울로 행사 지원을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궁에서 종로와 동대문을 지나 금곡까지 가는 장례행렬의 거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온 조문객이 수만 명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부터 “아이고” 소리는 “조선독립만세”로 바뀌었다. 천지가 일시에 바뀐 듯했다. 이은 덕의 누문에도 돌멩이가 날아와 쇠빛장과 문고리에 닿는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돌은 류지의 집 작은 문과 뜰 안까지 날아 들었다. 류지의 어머니 오순은 “무서워, 무서워” 하며 진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마루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래서 조선에 오는 것은 싫다고 했는데”라며 원망하였다. …… 이튿날 아침, 류지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아버지는 없었다. 그리고 밤이 늦어서야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첫날은 제복 차림이었는데, 다음 날은 평상복, 삼사일 뒤부터는 어디서 구했는지 조선옷을 입고 있었다. 군도(軍刀) 역시 차지 않았고, 권총만 품에 숨겨 넣고 있었다.¹⁰

전 민족적 거사에 당시 일본 경찰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제복을 벗고 조선옷으로 갈아입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일본의 폭력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은 일본에서 한반도로 병력을 증파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표 3〉을 보면 실제 수원 지역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대부분의 농민들, 학생들, 상인들과 기생들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운동이었다. 수원군 3·1운동은 산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도 있었으나, 사전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격렬한 투쟁양상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파괴하고, 순사 2명을 처단함으로써 3·1운동을 대표하는 항쟁지로 부각되었다.

우선 수원 지역 3·1운동의 특징은 일제 경찰을 처단하는 공세적 항쟁을 펼쳤다는 점이다. 송산면 지역의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26일에 이어 3월 28일에도 펼쳐졌다. 송산면사무소 뒷산 및 부근에서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결국 순사부장 노구치를 처단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먼동』에서 송산면 시위를 조직한 것은 김 대감집 김동석과 김민석이었다. 일본 유학생 김민석의 주도로 성주골 대감집에서 아버지 김영환의 암묵적 동의 아래 만세시위를 모의하고 있다.

지난 장날 한밤중에 고을 앞 배봉산에서 한 차례 크게 봉화가 올랐을 뿐, 막상 장날 장터에서는 아무런 소요도 만세 함성도 일지 않은 것이다. 온 나라에 독립만세 함성인데 제 사는 고을만 잠잠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남양 장날 장꾼들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군가가 슬쩍 불씨만 던져 주면 그들은 일시에 터질 화약고와 같은 낮빛이었다. 동석이 몸을 일으킨 것은 이러한 장꾼들의 표정을 정확히 읽은 후다. 그는 즉시 부친 영환의 반허락을 얻어낸 뒤, 은밀히 작인들의 집을 돌며 만세운동을 모의하기 시작한 것이다.(『먼동』 6권, 1993, 47쪽)

이날 성주골 김 대감집에 모인 사람들은 김동석과 김민석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다

- 사강 사음 한 서방 2자 한흥근(휘문학교 2학년)
- 마도 박길석 아들 박군(보성학교 3학년)
- 남양장터 소금전 정군(지난 장날 배봉산 봉화 거화자)
- 최중선(남양보통학교 훈도)
- 음덕 흥완기(서당 출신)

- 쌍수리 윤오복의 아들 윤대수
- 해문리 박한택(배재학당) : 3월 1일 서울 만세시위 참가
- 수산 서윤수(중앙고보) : 3월 1일 서울 만세시위 참가

성주골 김 대감집의 장토를 관리하는 마름 자제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오랜 세교를 통해 잘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다. 이들 모임은 지역의 청년 지식인인 동시에 서울 유학생들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난 장날 배봉산에서 횃불 시위를 한 인물까지 뜻있는 청년들이었다. 더욱이 박한택(배재학당)과 서윤수(중앙고보)는 3월 1일 서울 만세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모임을 조직한 김민석은 일본 유학생으로 이미 도쿄 유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선언과 관련한 국내 연락책이었다. 3월 1일 당일 서울 만세시위에 참석하였다.

1919년 3월 28일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가 수원군 송산면 독립만세시위를 강경진압하다 시위대에게 처단되었다. 노구치 고조(野口廣三)는 3·1운동 당시 수원경찰서 소속 순사부장이었다. 그는 1919년 3월 26일 송산면 내에서 만세시위가

<표 3> 수원군 지역 3·1운동 현황

일시	장소	운동 상황
3월 1일	수원면 화홍문, 방화수류정 부근	수백 명이 모여 만세시위
3월 16일	수원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안 연무대에 수백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며 시가지 종로를 통과하던 중 일본 경찰과 소방대, 헌병대와 충돌. 주동자가 체포되자 석방을 요구하며 철시투쟁을 벌여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남.
3월 21일	동탄면 오산리	오산리 천도교인 박두병·김재천·김진성 등이 인근 마을과 기독교인들과 연락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평화적으로 만세를 불렀음.
3월 23일	수원면 수원역 부근 서호	수원역과 서호부근은 일본인과 지주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소작농 등이 중심이 되어 700여 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킴.
3월 25일	수원면	장날을 이용하여 청년학생들의 주도로 학생과 노동자 시위
	성호면	오산에서 보통학교 졸업생들과 천도교도들이 금융조합과 일본인, 중국인 가옥을 파괴하며 만세를 부름.

일시	장소	운동 상황
3월 26일	송산면 사강리	오후 5시경 송산면사무소 부근에서 주민 100여 명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만세를 부름.
3월 28일	송산면 사강리	오후 2시경 송산면사무소 뒷산 및 부근에서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순사부장 노구치를 처단
3월 29일	수원면	기생 30여 명이 자혜위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중 수원경찰서 앞에서 김항화의 주도로 만세시위. 야간에 상인과 노동자 등이 곳곳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인 상점에 투석하여 창유리 파괴함.
	성호면 오산리	오산장터에서 800여 명이 만세시위, 우편소,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파괴함.
	양감면	수백 명이 평택군 청북면 울북리 주민들과 협력하여 산상에 횃불을 놓고 만세를 부른 후 각각 해산함
3월 29일	태장면	등불과 태극기를 휘두르며 산상 횃불시위를 전개함.
	안릉면	군중 수백 명이 북을 치며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불렀고, 산상 횃불시위를 전개함.
3월 31일	향남면 발안리	1,000여 명의 천도교인·기독교인과 농민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인 가옥과 일본인 소학교를 파괴함.
4월 1일	의왕면 고천리	고천리에서 800명의 천도교도·기독교도·농민 등이 면사무소와 고천경찰관주재소 앞에서 만세운동을 펼침.
	반월면 반월장	600여 명의 천도교인·기독교인·농민이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임.
4월 3일	우정면 장안면	주민들과 천도교도, 기독교도가 주동이 되어 장안면사무소, 우정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약 2,500명의 군중이 참여함. 시위 군중들은 우정·장안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경찰관주재소를 불태워 버렸고, 그 곳에 근무하고 있던 순사 가와바타를 처단함.
4월 5일	향남면 발안리	4월 5일 발안장날 800여 군중이 다시 모여 만세운동을 벌이고 주재소를 파괴함.
4월 6일	비봉면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 다수가 합세하여 만세를 부름.
4월 7일	마도면	천도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벌임
4월 15일	향남면 발안리	발안장을 이용하여 400여 명이 만세운동을 펼침.
	제암리	우정·장안면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순사들이 처단 당하자 일제는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여 제암리 교회에 무고한 주민 30여 명을 가둬 놓고 불을 질러 많은 희생자들을 낸 야만적 학살사건 발생함.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고 조사하기 위해 사강경찰관주재소로 파견을 나오게 되었다. 노구치는 3월 28일 일어난 사강장터와 송산면사무소 뒷산에서의 독립만세시위를 진압하면서 시위를 주도하던 홍면옥(洪冕玉)을 향해 총격을 가하였다. 홍면옥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자 시위대는 격분하였고,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노구치는 자전거를 타고 사강경찰관주재소로 피신하였다. 노구치는 일제 경찰을 철수시키는 한편 수원경찰서와 남양 지역 일본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남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위대는 철수 중인 노구치를 향해 돌을 던지며 뒤쫓았다. 일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며 무력으로 진압하는 가운데 도망치던 노구치는 얼마 못 가 추격하는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다. 결국 홍준옥(洪琿玉)·문상익(文相翊) 등 시위대 200~300여 명이 돌과 몽둥이로 쳐서 노구치는 3월 29일 새벽 3시 반경 사망하였다.

노구치는 수원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순사부장이었다. 3달 전 강원도에서 수원 경찰서로 영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위를 주도한 김동석은 만세시위 선동죄, 김민석은 만세운동 사전모의죄, 김중석은 내란죄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김 대감집 장주 김영환이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끝내 순국하였다. 순사들이 수십 명의 이름을 적어 내밀며 함께 만세운동을 모의한 주모자로 자복하라는 것에 저항한 때문이었다. 끝내 절개와 지조를 중히 여기는 조선 선비 집안의 위엄과 자긍심을 지키며 김영환은 고문 속에 순국한 것이다.

4. 박승학을 통해 본 의병전쟁과 독립운동

산관(算官)이었던 박종학(朴宗學) 가문은 중인 집안으로 수원 읍내를 대표하고 있다. 박종학의 둘째 아들 박은섭(朴銀涉)은 수원 문밖장에서 커다란 포목상을 운영하며 발안 등지에 변돈을 놓아 치부를 하고 있다. 포목상은 수원을 대표하는 업종 이었고 동시에 변돈을 놓아 고리대금업은 수원 읍내의 대표적 경제적 치부 수단

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수원 부중에 고리대금업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수원 성 안 호수가 3,000호가량 되었는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가 2,400호나 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지방이던지 상업지에는 대개 고리대금업자가 만지만은 이 수원처럼 고리대금업자가 만흔 지방은 업슬 것이다. 놀나지 마시오. 수원성 내 전 호수 약 삼천 호인데 대금업자가 이천사백 호에 달한다. 이것은 말하기 좃타고 다만 풍설을 듣고 하는 말이 안이다. 관청에서 대금업자에게 세금을 바드랴고 조사한 기록 중에 나타난 것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공연하게 대규모적-즉 세금낼 자격이 있는 자만 700호 기타 소액으로 대금업하는 자가 1,700호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면 수원시내 사람은 전부 고리업자요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자는 촌농민 기타 소상인들이다. 이는 심상한 일로 볼 수 없다.¹¹

『먼동』에서 박종학의 3남이자 막내인 박인섭은 근대적 문명의 수혜자이자 가장 합리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 박인섭은 서당을 마치고 열일곱이 되도록 집에서 쉬고 있을 무렵 개화승 동탄(東灘)의 권유로 서울 흥화학교(興化學校)를 다니고 다시 의학교를 마치고 광제원 의관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수원 읍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산루리 다락굴에 의원(남문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박종학의 아우 박승학은 소설 『먼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다. 의기남(義氣男)으로 실천을 제일로 여기는 철저한 궁행(躬行)주의자로 묘사되고 있다. 신분적으로 중인으로 계급적 문제와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존재다.

더욱이 1889년 기축년 수원민란 때 24살의 젊은 나이로 '갈회'를 주도하였다. 이때 수백 명의 지역민과 함께 지방관의 가렴주구에 항거하여 관아를 습격하였다. 이러한 민란의 영향으로 이듬해 안성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몇 년 뒤 1896년 병신년 국모시해와 단발령에 의병을 일으켜 영서의병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896년 영서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해대(解隊)하였던 박승학은 1901년(신축년)

수원으로 돌아와 관아에 자현(自現)하였다. 이때 순검청에서 장형(杖刑)을 받았고, 매달 초에 순검청에 들러 있는 곳을 알리고 100리 길 이상 멀리 갈 때는 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승학은 단 한 번도 순검청에 들르지 않았다.

옳다고 믿거나 해야 된다고 믿는 일은 오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깊은 사색과 고민하는 지식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높은 의기와 충정'의 의병을 이끌며 군사력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을 알면서도 기의(起義)하였다. '패혈' 것을 알며 싸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값있는 싸움'이라는 인식 속에서 더욱 국가적으로 중요했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다시 의병 초모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의기를 꺾는 더 큰 희생을 고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매봉 너럭굴 사건의 영향이 컸다.

조선 의병들이 제 사는 마을에 들어 밥 지어 주구 잠 재워 준 게 드러나면 왜적이 그 보복으로 백성을 마구 죽이구 마을에 온통 불을 지르니, 그 재앙을 당치 않으려구 백성들은 의병 든 것을 미운 왜적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든 게지요. 그날 우리 초병이 너럭굴 백성을 쏘아 죽인 것두, 그 백성이 우리가 마을에 든 것을 몰래 왜적에 통기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외다. 『먼동』 6권, 1993, 93쪽

매봉 아래 너럭굴사건은 왜적에게 밀통할 경우 의병 52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너럭굴 백성 23명을 학살한 것이다. 이로써 박승학은 의병을 해산하고 길고 긴 은둔의 삶을 살아간다.

나라 구허자구 군사 일으킨 의병군이 어느새 도적이 되어 산간 백성들을 괴롭히는 몫쓸 무리가 된 겹니다. 더 큰 죄 짓지 않으려구 시생 의병군의 해대를 서둘러야 했소이다. 어느새 우리 조선 의병군은 왜적들이 바라든 대루 백성과 등진 원수지간이 되었든 겹니다. 『먼동』 6권, 1993, 91쪽

실상 정미년에 기병했던 수많은 조선의 의병들이 이와 비슷한 과정 끝에 왜적에게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 의병 활동과 일본군의 만행을 보여 주는 프랑스 신문 *Le Petit Journal* 1907년 8월 4일 삽화(수원광고박물관 제공)

토멸되거나 스스로 군대를 해산했을 것이다. 그들은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왜적과 더는 싸울 수가 없었다. 의병과 백성 사이를 교묘히 갈라놓음으로써 왜적들은 바라던 대로 의병을 손쉽게 괴멸시킨 것이다. 그래서 박승학은 분수없이 군사를 일으켜 생목숨 수백 명을 저승으로 앞서 보낸 것에 대한 회한이 컸다. 이는 구국과 애민의 큰 뜻을 가졌던 기병의 의의를 덮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너럭굴에 터진 그날의 참변을 잊기 위해 영서의병장 박승학은 스스로 군대를 해산하고 안성 부근 외진 두메에 서당 훈장으로 몸을 감추었다. 은둔의 삶을 10여 년 이어 갔다.

나는 아직 의병 기병을 뉘우쳐 본 일이 없다. 그즈막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의병 기병은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옳구 바른 일이었다. 올봄에 있었던 조선 독립만세 거사도 어떤 사람은 실패라구 허드라만 나는 결코 실패한 거사루 보지 않는다. 깊은 잠속에 빠져 미몽 속을 헤매든 조선 백성을 그 거사는 한소리 크게 외쳐 맑구 바른 정신으로 오래두룩 깨어 있게 만들었다. 미몽 속에 빠진 백성 잠 깨운 그 공 하나루두 의병 기병이나 만세 거사는 오래두룩 우리 겨레한테 장헌 일루 기억될 게다. 『먼동』 6권, 1993, 325쪽)

그러나 경기도 죽산에서 훈장 생활하다가 3·1운동을 겪고 그는 만주 독립군을 돕는 불목하니로 생활함으로써 장차 만주 독립군으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암시하며 소설은 끝난다.

5. 송필배가 걸어난 독립의 길

송필배(송남길)는 가장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1902년 동생들과 헤어져 평안도 평산에서 혈주(穴主)가 되어 금을 캔다는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다가 굶어 죽을 고비를 맞는다. 해주 한량 최한량의 눈에 띄어 죽다가 살아난 그는 최한량의 수족이 되어 장꾼 자릿세, 변돈 채근, 도둑 장물 받는 등의 일을 하다가 사단이 난 최한량을 구하려고 칼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후 도망하여 강원도 치악산 근처의 숲막에서 2년간 송남길로 변성명하고 살았다. 그리고 넉 달 동안 수리메에서 박 처사와 생활하며 글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며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되었다.

송씨네 가족 가운데 쌍둥이 오누이, 필배와 쌍순(보경)의 길은 극단적이다. 아버지 송근술과 딸 쌍순은 친일파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데 비해 송필배의 삶은 독립운동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송씨 집안에서 송필배의 존재와 삶의 방식은 돌출적이다. 막냇동생 송종배조차 일제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송종배는 헌병보조원, 순사보를 거쳐 순사(형사)가 되어 가는 철저한 친일매국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08년 한국주차헌병대로 이름을 바꾸며 헌병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몇 백 명 수준이던 헌병의 숫자는 7,000명에 가깝게 늘었고, 더욱이 조선인 헌병보조원을 4,000명이 넘게 채용하고 있다. 한국주차헌병대의 조선인 헌병보조원은 1908년부터 처음 4,234명이 채용되어 의병 정탐에 활용되었다.¹²

일제의 처지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제도로 인식되어 점차 채용 규모가 확대되었다. 송종배가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 헌병보조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순사보와 순사로 가는 길에서 친일매국의 길을 가는 인물의 그 대표적인 예가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의 또 다른 주범 조희창(趙熙彰, 1890년생)이다. 평범한 조선인 조희창이 어떻게 친일매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희창은 한일병합 조약체결 직전인 1910년 3월 경기도 양주경찰서 순사가 되었고, 1910년 7월 교하경찰서 순사를 거쳐서 한일병합 이후 그것을 그만두지 못한 채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소속의 순사보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1912년 8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4년 3월 수원경찰서 순사보로 발령받았고, 다시 1919년 4월 수원군 발안주재소 순사보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3·1운동 당시 수원군 발안주재소 조선인



1907년 조선인과 순사(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순사보로서 발안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일본인 거류민단장 사사카 리키치(佐坂利吉)와 함께 제암리 학살에 적극 참여하였다.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은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성호면 오산리, 향남면 발안리, 장안면 수촌리, 우정면 화수리 등지에서 대규모 만세시위로 유혈충돌이 일어나자 이를 제압하고자 의도적으로 자행한 사건이었다. 일본군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과 경찰이 제암리에서 마을 주민들을 교회당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웃 고주리 김흥렬 일가 6명을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보복한 사건이다.

조희창은 제암리 거주자로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들의 이웃 주민이었다. 조희창은 만세시위 주도자들을 지목하고 일본군에게 길을 안내했으며, 특히 고주리 학살에는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학살과 방화 및 대대적인 관련자 체포로 수원 지역의 만세 운동을 완전히 진압한 이 사건 직후 조희창은 공로를 인정받아 1919년 5월 영등포 경찰서 순사보로 영전되었고, 1919년 8월에는 순사로 승진하였다.

『먼동』에서 가장 격렬한 삶을 살아가는 형 송필배의 처지에서 막냇동생 송종배의

헌병보조원과 순사보라는 반민족적 삶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의외의 설정이다. 더욱이 송필배가 송종배를 찾아가 대면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도 의아한 일이다.

온 집안이 친일역당이 되었건만 송필배만은 의병에 가담하여 옥살이까지 한 열렬한 애국자다. 평산 토호에게 군자금을 털다가 발각 체포되어 해주감옥에서 여러 해 옥살이를 하였고,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면서 군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조선 독립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하겠다라는 불굴의 열혈청년이다. 동시에 아버지 송근술과 송보경 및 순사보 송종배가 모두 친일역당이 되었으나 나라도 집안의 쫓값으로 조선 독립을 위해 힘쓰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구하자는 것은 양반 아닌 조선이란 나라야. 조선이 어찌 양반들의 나라냐? 양반은 대한제국이 죽었을 때 나라 따라 함께 죽었어. 이제 우리가 왜적에게서 되찾을 나라는 우리 백성이 주인이 될 바로 우리네 백성들의 나라야.(『먼동』 6권, 1993, 132쪽)

1919년 3월 1일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살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나라의 건립을 위한 빛나는 투쟁이었다. 더욱이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를 비롯하여 학생,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모든 세대가 함께한 민족사적 분수령이자 제국주의적 질서에 도전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물론 대한제국 황제의 ‘제국(帝國)’이 아니라 새로운 ‘민국(民國)’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평등의 가치를 내건 새로운 정치체제인 민주공화제,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인민(人民)’은 우리 역사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따라서 3·1운동은 일제에 반대한 항일독립운동이자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한 민족·민주혁명이 되었음을 송필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독립기념관 제공)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독립기념관 제공)

6. 『먼동』, 참담하며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를 그린다

『먼동』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4년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된 인기소설이다. 신문연재가 끝나자마자 동아일보는 1991년 『먼동』(전 5권)을 출판하였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KBS방송은 『먼동』을 대하사극으로 제작하여 1993년 4월부터 1994년 4월까지 1년간 총 50회에 걸쳐 방영하였다. 이렇듯 『먼동』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중과 호흡한 대하소설이다.

『먼동』은 1900년부터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 20년 동안 격동의 한국근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3·1운동의 격렬한 항쟁지이자 순국지였던 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원 읍내와 남양, 그리고 서울 등 3개 지역을 기본 축으로 전국을 넘어 만주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야기는 수원 읍내와 남양 및 서울의 세 집안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 서울에서 남양으로 낙향한 김효순 대감의 양반가와 김 대감의 숨겨진 서출자식이자 마름이었던 송근술 일가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들 두 집안과 연결되는 수원 읍내 박종학 일가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들은 또한 양반(남양 김씨가), 천민(송근술 일가)과 중인(수원 박씨가) 등 신분적 갈등과 더불어 이들 세 집안의 다양한 인물들이 대를 이어 펼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격변의 시대에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행동과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소설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과 김태환, 박승학과 박인섭, 송근술과 송보경(쌍순)은 의식의 공유와 충돌을 드러내면서 각기 자기 계급의 역사의를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 질서를 지키려는 양반계급, 친일을 통해 새롭게 부를 축적하며 성장하는 천민계급, 합리적 실리주의적 태도로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는 중인계급이다. 이들이 자기 계급에 대한 전형적 형상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계급에 대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격과 직업과 계층의 인물들이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며 다양한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양반가 김씨와 천민 송씨의 갈등은 동시에 전통적인 양반계급의 몰락과 새로운

자본계급의 성장을 보여 주고, 중인 박씨가 의병장 박승학과 의사 박인섭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직면한 식민지 상황의 비극과 희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먼동』은 수원 지역 독립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의병투쟁과 1919년 3·1만세운동을 역사적 사건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의병투쟁은 수원 출신 중인 의병장 박승학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의병투쟁의 정당성과 의병투쟁의 실제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과 무지막지한 양민학살, 방화로 의병투쟁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의병투쟁의 어려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의병부대 해산 등 의병장 박승학의 고뇌를 통해 의병투쟁의 꺾임함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먼동』은 5권 가운데 마지막 한 권을 온전히 3·1운동으로 그리고 있다. 그만큼 3·1운동이 한국근대사의 변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수원 지역은 3·1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펼쳐졌던 곳으로 이름 높다. 즉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 수원군 송산면 사장강 만세시위와 노구치 순사부장의 처단과 수원군 우정·장안면 사무소의 파괴와 우정면 화수리 주재소 가와바타 순사의 처단은 3·1운동의 격렬한 항쟁지로서 수원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전국에서 일제 경찰을 2명이나 처단한 유일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른 탄압과 학살을 당한 지역이기도 하다.

소설 『먼동』은 우정·장안면 만세시위와 가와바타 처단에 따른 일제의 폭압적 만행인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그 대신 수원 지역 만세운동 가운데 1919년 3월 26일과 28일에 진행된 송산면 사강장 만세시위를 소설화하였다. 특히 남양 김씨 가문의 젊은이들이 주도하고, 끝내 김씨가 장주 김영환이 순국하는 과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들 김씨가 노력과 분투는 조선의 주인이라는 전통의식과 더불어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끝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친일로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송근술 일가와 잘 대비시키고 있다.

한편 수원 만세시위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1919년 3월 1일 오후 용두각 만세시위의 진위 여부이다. 3월 1일 오후 수원의 용두각 만세시위에 대한 기록은 최병현의 『3·1운동비사』(1959)가 유일하다. 읍내가 아닌 용두각(방화수류정)에서 수백 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펼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일제 측 경찰의 보고

자료나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과 연구 대상이다.

이에 대하여 소설 『먼동』은 수원 부중에서도 서울 거사와 때를 맞춰 3월 1일 오후 2시에 장터 가까운 남문통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당일 새벽 일본 경찰에게 거사 모의가 사전에 누설된 것으로 알려져 약속 장소로 모여들던 사람들을 일부러 길목에 지켜 서서 모두 돌려보냈다고 쓰고 있다. 따라서 소설 『먼동』은 3월 1일 용두각 시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산상 햇불시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즉 3월 1일 기다리던 거사가 무산되고 날이 저물자 색다른 시위를 펼치게 되는데, 낮 거사에 실패한 수원 거사의 주모자들이 밤중에 동문 봉화대와 팔달산 서장대에서 햇불시위를 다루고 있다. 수원 읍내 만세시위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3·1운동 당시 수원상업강습소 학생들의 역할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소설 『먼동』의 수원 지역 독립운동 형상화는 꼼꼼한 취재와 현장답사를 통해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홍성원 문학의 남다른 성취라 할 수 있다. 이에 수원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문학작품이 아닐 수 없다.

문학의 해 특별기획, 작가의 편지

『먼동』 의병장 박승학 장군에게

홍성원

조국이 식민지로 변한 통한의 시기

당신들 인고가 우리를 있게 했소.

『동아일보』 1996년 4월 23일

영서의병장 박승학 장군

장군의 거처와 가까운 수원 팔달문(남문) 다락집 지붕 위에 화사한 4월의 봄 햇살이 지금 한창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소. 수원이 무대가 된 작품 『먼동』에서 장군과 내가 첫 만남의 인연을 맺은 것은 나의 가파른 유년 시절을 아름다운 정서로 가꾸어 준 수원 고을의 정겨운 인심과 빼어난 풍광의 덕인 것 같소.

수원은 서울에 인접한 역사가 오랜 깔끔한 고을이며, 후기 조선시대의 성문과 성곽이 여러 차례의 전란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아남은 한국의 몇 안 되는 고향 스텝 성곽 도시요, 특히 정조 대왕이 비명에 돌아간 선왕 장조(사도세자)의 능을 찾아 자주 화산으로 능행을 가곤해서 세상에서는 그 효행을 높이 우러러 효은의 고을로 칭송하기도 하오.

그러나 작품 『먼동』이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내가 그토록 자주 보고 듣고 해서 이제는 내 몸의 일부처럼 스스럼없이 되어 버린 낯익은 수원 고을과 그 고을에

어울려 사는 박사, 김가, 송가 등의 백성들이 정겹게 주고받던 경기도 남녘 지방의 구수한 사투리가 내 잠자던 감성과 정서를 흔들어 깨워 사납게 창작 욕구를 충동한 때문이오. 그 부추김과 들쭉심에 쫓겨 한쪽 구렁이로 웅색하게 몰린 내가 더 물러날 곳이 없어 영겁결에 손을 댄 작품이 내 고향 수원과 남양을 아우르는 김씨, 박씨, 송씨 세 집안의 옛 이야기 『먼동』으로 태어난 것이오.

박 장군, 그러나 당신은 참으로 불행하고도 행복한 시대를 살다 가신 분인 것 같소. 당신이 불행했던 이유는 당신이 살던 시대가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통한과 울분의 시대였기 때문이오. 장부에게 나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또 있겠소. 그래서 당신은 이길 수 없는 스산한 싸움임을 잘 알면서도 분연히 몸을 추스려 일어나 저 사나운 왜적들과 처절하게 싸우셨던 게요. 그러나 한편으로 당신은 다시 없이 행복했던 분이었소. 당신에게는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가 분명했고 그 적들과 왜 싸워야 되는지가 명확했기 때문이오. 지금은 그러나 옳고 그름이 뒤섞이고 거짓과 참이 구분 없이 혼재되어 당신이 살았던 세월보다 훨씬 난해하고 복잡한 세상이 되어 버렸소. 조국만 되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노라고 생각했던 그 조국이, 부끄럽게도 지금은 둘로 갈라져 남과 북이 총부리를 마주한 채 반세기 가까이 서로 모질게 미움들을 키우고 있소. 이 분명치 않은 적과 석연치 않은 싸움의 이유를 아마 옛 시대를 살았던 장군은 결코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할 것이오.

격랑의 시대에 휩쓸린 개인의 작은 삶들은 왜 그리도 안타깝고 가여우며 애잔한지 모르겠소. 아름다운 갯마을 소녀 쌍순과 도도하던 김 대감댁 형제들, 그리고 노여움과 복수심으로 화로처럼 뜨겁던 송근술과 장군의 어진 조카인 박의원, 인섭과 여러 의병장들……. 그들의 고통스런 인고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고 그래서 나는 우리 후손들을 대신하여 박장군 당신을 빌려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소. 이상과 현실 사이를 힘겹게 조화시킨 박 장군의 지적 궁행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변함없는 교훈이자 사표로 우뚝하오. 저 거친 만주벌에 계신 장군의 근황이 궁금하오. 새삼스레 장군의 부동의 얼굴이 보고 싶소. 박 장군, 건강하시고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오.

면동 1989. 8. 25 이후.

제1부 제1장 蒸郷

Handwritten notes in Korean, including a diagram with arrows and circles. At the bottom, there is a handwritten note: "사상증이 (또는) 병증이 아닌 상증이".

註

- 1 홍성원, 「썩썩이의 기억 담긴 팔달산」,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7, 269쪽.
- 2 홍성원, 「썩썩이의 기억 담긴 팔달산」,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7, 273쪽.
- 3 김치수, 「남성 문학의 세계」, 『작가세계』 1993; 홍정선 엮음,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3, 93쪽.
- 4 김치수, 「남성 문학의 세계」, 『작가세계』 1993; 홍정선 엮음,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3, 994쪽.
- 5 『매일신보』 1919년 5월 13일.
- 6 홍성원, 『면동』 6권, 문학과지성사, 1993, 23쪽.
- 7 「模範될 水原商議」, 『매일신보』 1914년 12월 22일.
- 8 「水原의 火災」, 『조선일보』 1923년 3월 12일.
- 9 유아사 가쓰에, 『간난이』, 수원박물관, 2016, 79~80쪽.
- 10 유아사 가쓰에, 『간난이』, 수원박물관, 2016, 86~87쪽.
- 11 車相瓊, 「水原, 高利貸金城 水原」, 『南隊』, 『별건곤』 22, 1929년 8월.
- 12 李升熙, 『韓國併合と日本軍憲兵隊』, (東京) 新泉社, 2008, 211쪽.

집필위원

김영숙	동아대학교 연구교수
박 환	수원대학교 교수
성주현	송실대학교 HK연구교수
이승렬	전 대림대학교 교수
이혜영	화성시청 학예사
조성운	동국대학교 강사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기 획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수문학연구센터장
편 집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수문학연구센터 연구원

수원학총서 2

참담하고 노여웠던 우리들의 시대

발행인	최병대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문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Tel. 031-220-8057, 031-220-8060 www.suwon.re.kr
디자인 · 인쇄	(주) 더페이퍼(031-225-8199)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89500-26-9 (94910)

ISBN 979-11-89500-25-2 (세트)

